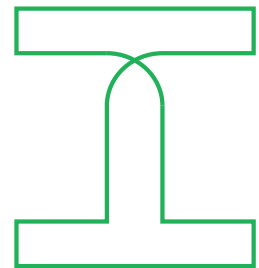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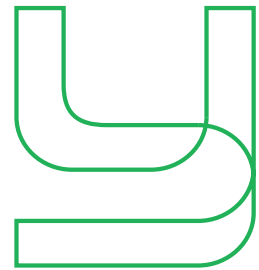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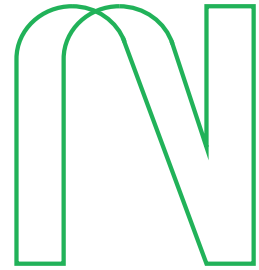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책임연구원 성윤숙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 책임연구원 :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이지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년인턴)

발 간 사 ■ ■ ■

2013년부터 실시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는 2015년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학업중단 청소년 들이 학업중단 후 어떠한 이행경로를 거쳐 성인기로 들어서는 지에 대한 지식이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본 연구는 학교를 벗어나 성인기 이행과정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지식을 보태고자 시도되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패널은 구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본 연구는 이미 구축된 패널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를 탐색하였고 그들에게 맞는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의 학업중단 패널 조사 연구 이후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정책 환경도 많이 변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떠한 실질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지도 연구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의 서비스에 어느 정도 접근하고 이용하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되어야 할지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이 이들 청소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으로 다가가도록 하는 것은 위기 청소년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매우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의 학교 밖 청소년 패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조사, 센터별 신규 패널의 구축 등을 도와주신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 매우 바쁜 업무 중에도 학교 밖 청소년 패널에 대한 사례관리와 조사, 학교 밖 청소년 신규 패널의 선정 등을 직접 맡아 수행해 주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본 연구의 조사를 담당해주신 한국리서치 관계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이후의 이행경로별 특성을 파악하여 이행경로별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1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활용하여 이행경로별 특성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형은 3차 때 ‘학업복귀형’과 ‘학업지속형’이었던 이들 중 1명을 제외한 11명 모두가 긍정적 경로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전환이 제도권 학교로부터의 이탈이지, 학업으로부터의 이탈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긍정적 경로유지를 위한 도움은 센터나 학교 또는 가족, 지인 또는 친구 등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상담과 진로지도가 있다면 학업형의 경우는 긍정적 진로유지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공교육의 생산적이고 유연성 있는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직업형은 경로의 전환이 많은 편이며 이들을 위한 정확한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3차 유형과 4차 유형이 거의 변함없이 유지 되는 다른 유형들과 다르게 3차 유형에서 ‘직업형’이었던 응답자들이 4차 유형에서는 다수가 다른 길을 선택하였다. 학업형에 비해 긍정적 경로유지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이 아닌 취업중심의 진로상담과 취업 교육이 초기에 있었다면 직업 선택에 있어서 단순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불안정한 직업상태가 아닌 좀 더 미래지향적인 직업선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무업형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단순히 무업이 아니라 순간적이고 말초적인 충동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무관심형이며 다만 극소수의 경우 긍정적 경로로의 변화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교육과 가정환경의 긍정적 상태유지가 요구되며, 제도권교육의 변화를 통해 비행으로 전락하지 않고, 학교생활의 흥미와 재미 그리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요구된다.

학교 밖 청소년 예방 및 실질적 돌봄을 위한 맞춤형 대책으로 학교 밖 청소년만의 Total-Care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교육강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즉각적 파악 및 연계시스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교육 의무화, 무업형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전담관리부서의 설립, 1:1 멘토링제도 실시, 다양한 대안학교의 육성 및 제도권 유입 확대와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기업과의 연계협력망 구축을 통한 실질적 직업교육과 취업기회의 확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인성교육전담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청소년을 위한 행복학 및 철학과목의 공교육 내 유입, 평생교육차원에서의 부모교육 정착과 ‘찾아가는 부모교육’ 확대 필요하다.

핵심어: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 이행경로별 맞춤형 지원정책, 질적연구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양적 조사결과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 및 이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기존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2013~2015) 조사결과에 따라 2016년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이행경로별 면접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학업중단과정과 중단 후 경험, 과거 및 현재의 요구, 학업중단 후 시간경과에 따른 요구변화 등 학업중단 이후의 이행경로별 특성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이행경로별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 및 대책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음.

○ 전문가 자문 및 정책실무협의회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 탐색을 위한 구조화된 심층면접 설문지 작성 및 보완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실무담당자, 관련 학계 전문가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음.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정책담당자와 업무협의 및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심층면접조사

- 기존 유형인 3차 유형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중단조사」 연구에 1~3년간 참여한 일반 패널의 분류로 학업복귀형, 학업지속형, 학업직업전

환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으로 구성되었음. 최근 유형인 패널 4차 유형은 3차 조사결과 이후 시점부터 지난 1년 내의 경험을 토대로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으로 유형분류를 하였으며, 패널 3차에서 패널 4차 이행경로 변화 유형 분류는 긍정적 경로유지, 학업직업형전환, 직업학업형전환, 긍정적 경로 전환, 부정적 경로 전환, 부정적 경로유지 6가지 분류로 구성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총 31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음.

3. 주요결과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 분석

- 1) 학업형: 3차 때 ‘학업복귀형’과 ‘학업지속형’이었던 이들 중 1명을 제외한 11명 모두가 긍정적 경로를 유지하였음.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전환이 제도권 학교로부터의 이탈이지, 학업으로부터의 이탈은 아님을 알 수 있었음.
 - 긍정적 경로유지를 위한 도움은 지원센터나 학교 또는 가족, 지인 또는 친구 등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상담과 진로지도가 있다면 학업형의 경우는 긍정적 진로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공교육의 생산적이고 유연성 있는 변화가 요구됨.
- 2) 직업형: 경로의 전환이 많은 편임. 이들을 위한 정확한 진로지도가 필요함.
 - 3차 유형과 4차 유형이 거의 변함없이 유지 되는 다른 유형들과 다르게 3차 유형에서 ‘직업형’이었던 응답자들이 4차 유형에서는 다수가 다른 길을 선택하였음.
 - 학업형에 비해 긍정적 경로유지가 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음.
 - 교육이 아닌 취업중심의 진로상담과 취업 교육이 조기에 있었다면 직업 선택에 있어서 단순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불안정한 직업상태가 아닌 좀 더 미래지향적인 직업선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음.
- 3) 무업형: 거의 변화가 없는 유형으로 확인됨. 다만 극소수의 경우 변화가 확인됨.
 - 단순히 무업이 아니라 순간적이고 말초적인 충동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무관심형으로 밝혀졌음.
 - 다만 극소수의 경우 긍정적 경로로의 변화가 확인되었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돌봄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논의가 요구됨. 구체적으로 부모교육과 가정환경의 긍정적

상태유지가 요구되며, 제도권 교육의 변화를 통해 비행으로 전락하지 않고, 학교생활의 흥미와 재미 그리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요구됨.

- 4) 심층면접대상자 31명 중 학업에서 학업형으로 또는 직업에서 직업형으로 이행한 19명이 긍정적 경로를 유지했으며, 비행경험형 또는 무업형에서 무업형으로 이행된 6명이 부정적 경로를 유지했고, 직업-학업전환형이 3명, 학업-직업전환형이 1명, 부정적 경로 전환형이 1명, 긍정적 경로 전환형이 1명으로 나타나 심층면접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 중 학업형과 직업형은 대부분 긍정적 경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행형과 무업형은 부정적 경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4. 정책제언

1) 학교 밖 청소년 예방을 위한 방안

○ 평생교육차원에서의 부모교육 정착과 ‘찾아가는 부모교육’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은 물론 예방차원에서의 학교 안 청소년의 문제를 함께 고려할 때 부모교육을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여가부와 복지부 그리고 교육부 등에서 수행되는 부모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의 강화가 요구됨.

○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인성교육전담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교육부가 2016년 2월 5일 발표하고 시행하는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환경의 확립을 넘어 인성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실효성 강화대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 인성교육 전담교사의 양성을 위한 대학 내 인성학과 신설, 국가공인 인성교육지도사 자격증 도입 등의 전문 인성교육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청소년을 위한 행복학 및 철학과목의 공교육 내 유입

공교육의 획일주의나 권위주의, 개성을 무시하는 교육체제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형식

이나 질의 변화가 요구됨.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처럼 수능이나 대학진학용 교육에서 벗어나 개별적 삶의 의미와 행복에 대한 포괄적 교육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2) 학교 밖 청소년의 실질적 돌봄을 위한 방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2015년 5월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는 좋으나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범위나 한계, 그리고 의무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즉각적 파악 및 연계시스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시 학교장이나 기관장의 지원센터와의 연계행위를 의무화해야 하며 그 중 ①항의 경우 ②항과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이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20조에 벌칙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학교 밖 청소년만의 Total-Care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교육강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 유사한 형식이되 위기 청소년들 전체가 아닌 학교 밖 청소년만을 전담으로 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교육 의무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서비스의 실질적 이용과 함께 학교 밖에서의 삶 전체를 위한 기초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된 청소년의 의무적 참여를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함.

○ 무업형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전담관리부서의 설립

부정적 경로유지가 대부분인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하여금 삶의 동기와 의욕을 지닐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내에 무업형 청소년 전담관리부서를 상설할 필요가 있음.

○ 1:1 멘토링제도 실시

꿈드림 멘토를 보완한 <학교 밖 청소년 멘토의 모임>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멘토링 교육과 관리를 통해 1:1 멘토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대안학교의 육성 및 제도권 유입 확대와 강화

제도권 교육의 개선을 향한 노력과 함께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안학교의 육성 및 제도권 유입 확대와 강화가 필요함. 구체적으로 2016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및 시범운영’ 외에 대안학교의 제도권 유입 확대가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기업과의 연계협력망 구축을 통한 실질적 직업교육과 취업기회의 확대

고용노동부의 취업사관학교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를 보완하고 청소년지원센터와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기업이 직접 교육하고 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고용체계 구축이 필요함.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 선행연구	4
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	4
2)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특징과 지원 대책	10
II.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조사 개요	15
1. 연구대상	17
2. 조사도구	24
3. 연구절차	28
4. 자료 분석	29
III.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결과 분석	31
1. 학교를 그만두기 전 생활경험 - 학교생활	33
1) 학교 분위기	33
2) 교사와의 관계	34
3) 친구와의 관계	36
4) 학교를 다니면서 어겼던 규범 또는 규칙	37
5)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	38
2. 학교를 그만두기 전 생활경험 - 학업중단전반	39
1) 학교를 그만둔 시기와 계기	39
2)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 측 반응	42
3) 학교를 그만둘 당시 부모의 반응	43
4) 학업중단 시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 정도	45
5) 학업중단 시 생각했던 목표/계획	47

6) 학업중단 직후 불안하거나 힘들었던 경험 여부	49
3. 학교를 그만 둔 후 일반적인 생활 경험	50
1) 기상/취침 시간	50
2) 식사습관	51
3) 여가활동	52
4) 이행경로별 주요 활동	54
5) 최근 1년 동안 새로 시작한 것	57
6) 최근 1년 동안 새로 그만둔 것	58
7) 최근 1년 직업형태 전환 여부	59
4. 학교를 그만둔 후 검정고시 준비 청소년의 생활경험	60
1) 검정고시 준비/경험 이유	60
2) 검정고시 준비 기간 및 방법	61
3) 검정고시 합격 여부	62
4) 검정고시 관련 도움 준 사람	63
5. 학교를 그만둔 후 대학생활 경험	64
1) 대학 진학 이유	64
2) 대학 입학 유형	66
3) 대학 입학 정보 획득 경로	67
4) 대학 또는 학과 선택 이유	67
5) 대학 진학에 도움을 준 사람	68
6. 학교를 그만둔 후 중고등학교 재입학 청소년 생활경험	69
1) 학업 복귀 이유	69
2) 학업 복귀에 도움 된 것	70
3) 복귀 학교 유형 및 학교 적응방법	70
4) 복귀 만족도	71

7. 학교를 그만둔 후 직업생활 경험	72
1) 하는 일의 유형	72
2) 일을 하게 된 계기	73
3) 일자리 정보 획득 경로	75
4) 근로 시간	75
5) 급여 또는 시급	76
6) 근로 환경	77
7)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한 경험	78
8)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79
9) 직업훈련 경험 및 도움 정도	80
10) 직업훈련 내용	81
8. 학업중단 후 힘들었을 때 및 향후 목표	82
1) 학업중단 후 가장 힘들었던 시기	82
2) 힘들었던 시기의 대처 방법	84
3) 도움 받은 사람 또는 기관	85
4) 향후 하고 싶은 일 또는 목표	86
5) 대학 졸업 후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도움	88
9. 꿈드림센터/직업훈련 기관 인지도 및 참여 의사	89
1) 꿈드림센터 인지도	89
2) 꿈드림센터 프로그램 참여 의사 및 이유	90
3) 희망하는 프로그램 내용	91
4) 직업훈련 인지도	91
5)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 및 이유	92
6) 희망하는 프로그램 내용	94
7) 희망하는 지원 금액	95

10. 대인관계	95
1) 부모 양육태도	95
2) 학업중단 전후 부모와의 관계 변화	96
3) 부모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98
4) 현재 주로 만나는 친구	99
5) 학업중단 전후 친구 관계 변화	100
6) 학업중단 이후 만난 어른 또는 기관	101
7) 학업중단 이후 어른 또는 기관을 만난 계기	102
8)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람	103
11. 현재의 정서·심리상태	104
1) 하루 평균 스마트 폰 사용 시간	104
2) 스마트폰의 주요 사용 용도	104
3) 게임 내용 및 하루 평균 게임 소요 시간	105
4) 평소 자신에 대한 만족도 및 이유	107
5) 자아존중감	108
6) 주변에 본인을 이해해주는 사람 유무 및 이유	109
7) 우울감을 느끼는 시기 및 우울 정도	110
8) 우울함으로 인한 약 복용이나 병원 경험	112
9) 자살 생각 경험	113
10) 자살시도 경험	114
11) 자살시도 후 도움이나 치료받은 경험	115
12.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 변화유형	115

IV. 결론 및 정책제언	121
1. 결론	123
2. 정책 제언	126
1) 학교 밖 청소년 예방을 위한 방안	126
2) 학교 밖 청소년의 실질적 돌봄을 위한 방안	128
참고문헌	135
부 록	139
부록 1.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이행경로 심층면접 Guideline 및 설문지 ...	141
부록 2.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이행경로 심층면접 조사내용 분류	152

표 목차

〈표 Ⅰ-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 분류	9
〈표 Ⅱ-1〉 심층면접 사전접촉 대상자 현황표	18
〈표 Ⅱ-2〉 심층면접 사전접촉 동의자 및 목표 비율	18
〈표 Ⅱ-3〉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19
〈표 Ⅱ-4〉 학교 밖 청소년 3, 4차 유형분류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19
〈표 Ⅱ-5〉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일반적 특성	21
〈표 Ⅱ-6〉 주요 변인별 심층면접 응답자 분포	24
〈표 Ⅱ-7〉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 탐색 및 요구 심층면접 주요 내용	25

그림 목차

【그림 1-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 분류 마인드맵	10
--------------------------------------	----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 선행연구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 분석에서의 양적 연구를 보완하고 완성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질적 연구는 전체 연구의 실질적 필요조건으로서 자리매김한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후 선택한 실질적 행로의 심층경로분석은 그들이 지닌 환경과 현실적 문제, 관계적 고민과 미래의 희망 등을 여과 없이 이해함은 물론, 그것을 통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방식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대책수립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기존 유형인 3차 유형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조사」연구에 1~3년간 참여한 일반 패널의 분류로 학업복귀형, 학업지속형, 학업직업전환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윤철경, 최인재, 유성렬, 김강호, 2015)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유형인 패널 4차 유형은 3차 조사결과 이후 시점부터 지난 1년 내의 경험을 토대로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으로 유형 분류를 하였으며, 패널 3차에서 패널 4차 이행경로 변화 유형 분류는 긍정적 경로유지, 학업-직업형전환, 직업-학업형전환, 긍정적 경로 전환, 부정적 경로 전환, 부정적 경로유지 6가지 분류(윤철경, 성윤숙, 유성렬, 김강호, 2016)로 구성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총 31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이행경로에 따른 특성을 탐색하였다. 질적 연구가 추구하는 바는 일차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공통점 즉 공교육으로부터의 이탈이 지니는 원인분석이다. 여기에는 공교육 자체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담과 진로지도의 효율성 여부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원인과 대안모색이 포함된다. 일례로 학교 밖으로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학업형으로서의 삶이 지속된다면 왜 그것이 학교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다양성과 창의성이 바탕이 되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제도의 확립, 무엇보다 공교육의 교육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구조개혁 모색과 함께 다양한 대안학교의 제도적 수용 등을 위한 공교육의 방향모색 역시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업형의 삶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된다면 왜 청소년의 적성을 조기에 확인할 수 없는 것인지, 직업형의 삶에 잘 적응할 청소년에게 굳이 적성에 부합하지 않는 학업을

강요하지 않을 방안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각 이행경로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학교 밖 삶이 긍정적 경로를 유지하였는지, 아니면 부정적 경로로 어긋났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그러한 경로유지나 경로변화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지원센터나 학교 또는 가족, 지인 또는 친구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종류의 도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았는지에 대한 것들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지원센터의 발전적 변화, 가족환경의 긍정적 전환을 위한 부모교육 나아가 또래문화의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의 대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업형의 청소년이 지니는 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대면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업형 청소년의 문제는 그들이 사회적 관점에서 비생산적임은 물론, 개인의 측면에서도 존재론적인 의미를 상실한 상태라는 사실이다. 개인적·사회적 가치창출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적으로 사회비용을 통한 돌봄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막대한 사회비용 지출이 예견됨이 틀림없기에 대응책이 시급하다. 그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탐색하고자 하는 바는 무업형의 경우 긍정적 경로변화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함이다. 나아가 그들에게 삶에 대한 열정을 부여함과 동시에 반사회적 존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예방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질적 연구는 전체 연구가 지향하는바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분석을 기초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로의 개선을 위한 예방과 대책수립을 모색하여 그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보살핌의 전략모색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적 조사결과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 및 이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기존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2013~2015) 조사결과에 따라 2016년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이행경로별 면접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학업중단과정과 중단 후 경험, 과거 및 현재의 요구, 학업중단 후 시간경과에 따른 요구변화 등 학업중단 이후의 이행경로별 특성을 파악하여 이행경로별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 선행연구

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

학교는 한 사회의 청소년이 가정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리와 같다. 다시 말해 학교는 가정과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청소년들은 극단적인 두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나는 소극적인 방식인 가정으로의 회귀이며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방향인 사회로의 조기 이탈이다. 구체적으로 전자의 경우 청소년들은 사회적 존재로 적응하기를 거부하고 가정 의존적 존재로 남는다. 학업이나 취업 나아가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소위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병돈, 김기현(2013)은 NEET족과 관련하여 ‘은둔형’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2010)는 이들을 다시 단순히 집에만 머무르는 ‘은둔형’과 부모님 일을 돕거나 하는 ‘소일형’ 그리고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매일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내는 ‘배회형’으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이다. 이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성인으로의 진입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피터팬 신드롬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부모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소위 말하는 ‘패러사이트’족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의도적이지 않은 부적응 청소년도 있다. 방치된 정신질환 청소년의 경우 무기력증과 의욕상실로 무위도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숙영, 남상인, 1997).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할 때는 대부분 가정으로의 퇴행이 아니라 사회로의 이탈을 의미한다. 즉 적극적으로 학교를 벗어나 사회로 진입하되, 아직 사회적 존재로의 적응능력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기존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학교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 틀에 머무르는 사회지향적 방향과 다른 하나는 사회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는 사회지양적 방향이다.

전자의 경우는 다시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미래지향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 또는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진학중심형’(김범구, 조아미, 2013) 또는 ‘학습형’(윤철경, 류방란, 김선아, 2010)이며 다른 하나는 현재의 생계를 위해 직접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취업활동형’(오병돈, 김기현, 2013;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 2010; 성윤숙, 2005) 또는 ‘직업형’(윤철경, 최인재, 유성렬, 김강호, 2015)이다. 이숙영, 남상인(1997)은 이와 관련하여 ‘건전직장 취업청소년’과 ‘취업준비청소년’을 구분하고 있고, 박창남, 임성택, 전경숙, 김성식(2001)은 ‘취업형’과 ‘직업훈련형’의 분류를 하고 있다. 흥미로운 구분은 이경상, 조혜영, 박창남(2003)의 연구인데 ‘순수진학형’, ‘부업형 아르바이트형’, ‘직업형 아르바이트형’ 그리고 ‘취업형’을 분류함으로써 직장을 위한 청소년의 동향을 좀 더 세분화하고 있다.

후자의 사회지양적 방향의 경우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2010)는 무업형, 비행형 그리고 장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형의 경우 지적 정서적 장애로 인한 치료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도적이지 않은 부적응의 경우이고 따라서 특별한 보호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오병돈, 김기현(2013)은 이와 관련하여 행복추구형, 취약계층형, 사회활동형, 부적응형, 은둔형, 불화형

그리고 취업실패형의 구분을 하고 있는데, 개념적인 측면에서 ‘행복추구형’의 경우 다른 모든 형태의 유형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2010)의 연구에 비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사회지양적 청소년의 유형을 가장 세분화하여 제시한 것은 이숙영, 남상인(1997)의 연구이다. 연구는 반사회적 청소년의 형태를 ‘비정착형’이라 규정하고 이를 ‘보호관리체계에 소속된 청소년’과 ‘보호관리체계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으로 구분한다. 나아가 전자를 다시 ‘소년원 수용청소년’과 ‘보호관찰 중 청소년’ 그리고 ‘요양중인 청소년’으로 세분하고 후자의 경우 ‘방치된 비행청소년’, ‘유형업소 취업 청소년’, ‘가출 청소년’ 그리고 ‘방치된 정신질환 청소년’으로 역시 구체적인 분류를 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청소년의 상태보다는 장소중심적인 분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소년원, 보호관찰 그리고 병원에서의 요양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는 소년원과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에 대한 대책으로 진로 및 진학상담, 대리부모 연계, 부모교육 그리고 가족기능 활성화라는 동일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다만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을 위해 생활지도와 상담, 그리고 건전한 놀이제공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적인 차이에서만 기인하는 것일 뿐, 두 형태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 없는 동일한 반사회적 성향의 형태라는 점에서 분류의 실효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요양중인 청소년’과 ‘방치된 정신질환 청소년’의 경우 사실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라기보다는 비슷한 유형의 환경적 차이, 즉 병원이나 요양기관이나 아니면 방치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방치된 정신질환 청소년들은 당연히 일차적으로 병원이나 요양기관으로 보내어져야 할 것이고, 그 다음의 대책은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세부적 분류가 필요한가의 문제가 있다. 특히 진학, 진로지도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것 보다는 치료와 보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밖으로의 이행이 능동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냐 타의에 의한 것이냐를 중점적으로 강조한 경우는 성운숙(2005)의 연구이다. 연구는 학교 밖의 상태가 퇴학과 자퇴 어느 요인으로 발생했는가를 사회지향성과 사회지양성을 연계하여 분류하여 정책에 있어 학생징계절차와 대안적 학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에 대한 분류는 <표 II-1>에서 드러난 것처럼 크게 두 종류이다. 하나는 사안적 분류로써 윤철경 외(2010, 2015), 김범구, 조아미(2013), 오병돈, 김기현(2013) 등이며 다른 하나는 그 사안들을 정착과 비정착으로 체계화하는 체계적 분류이다. 살펴본 것처럼 내용적인 측면만 보면 유사한 연구결과들로 보이고 있으나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분류방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일단 체계적 분류가 사안적 분류보다는 좀 더 가독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밖으로 이탈한 청소년에 대해 ‘정착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의 정착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재확립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능성의 차원에서 이는 적절한 배움과 순차적인 사회적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 기존 연구들을 그 분류방식과 강조점의 차이 그리고 개념적 이해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해 보았다. 다음으로 가장 최근의 연구(윤철경, 최인재, 유성렬, 김강호, 2015)를 중심으로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복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재중단을 막기 위한 예방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청소년들의 복교율도 그렇게 높지 않으며(3년간 복교율 34.4%), 재중단을 역시 20.0%에 해당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안학교의 경우 재학비율이 현저히 낮았고(1차 7.0%, 2차 4.0%, 3차 3.6%) 또 72.2%가 미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개선과 문제의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은 직업훈련부분이었는데 받는 기관은 다양했지만 90% 이상이 만족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노동시간이 비교적 많다는 점과 역으로 무위도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두 부분 모두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연구에 따르면(윤철경, 최인재, 유성렬, 김강호, 2015) 패널조사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이행 경로를 분석한 결과, 336,550명 중 중단 후 3년째에 학업형이 50.4%, 직업형이 32.4%, 무업형이 11.1%, 비행형이 6.0%로 추정되었다. 이는 3년 후 경로를 추정해 볼 때 전체 청소년들 중 학업형이 169,621명, 직업형 109,042명, 무업형이 37,357명, 비행형이 20,193명에 해당되는 숫자이다(윤철경, 최인재, 유성렬, 김강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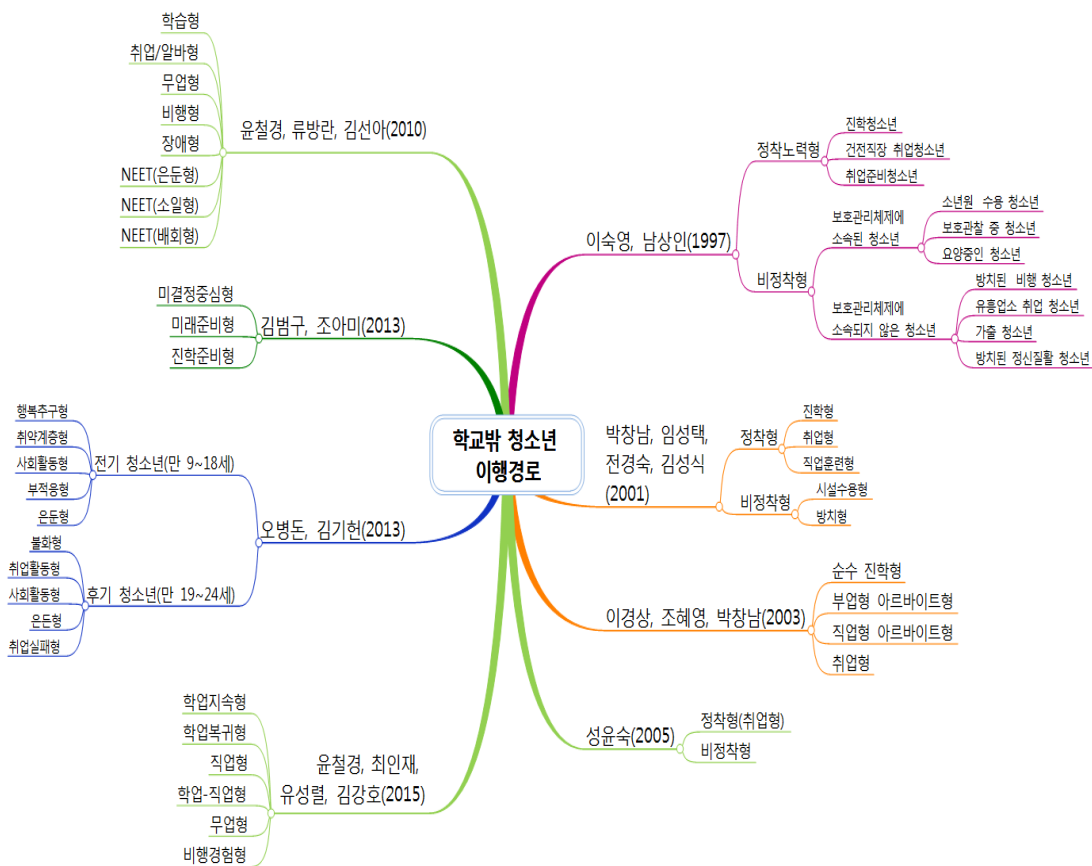
나아가 사회지향성이라 할 수 있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사회지향성의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을 비교한 결과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3년 정도 후의 사회적 낙인감이 양자 모두 비슷하다는 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적 심리나 정서상태가 사회지향성이나 지향성이나에 상관없이 모두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아가 일상적인 식습관이 종국에 모두 급속히 부정적이 된다는 점 역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음주나 흡연문제도 마찬가지였는데, 양자 모두 결국엔 비슷하게 부정적인 양상을 보였다. 미래에 대한 준비 역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자 모두 진로정보 획득활동이 유사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인 것은 학교 밖 상태가 자연스러워진다는 점이다. 불안감이든 만족감이든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래 방치하면 할수록 청소년들의 학교 밖 생활이 일상화된다는 근거이다. 연구는 이런 결과에 따라 다양한 정책제언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들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행경로를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다.

무업형 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자에 대한 공적 보호와 교육지원’,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교대와 사범대생의 학습지원 멘토링 강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청소년 참여율 평가’ 등이다(윤철경, 최인재, 유성렬, 김강호, 2015).

표 I-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 분류

이숙영, 남상인 (1997)			박창남, 임성택, 전경숙, 김성식 (2001)		이경상, 조혜영, 박창남 (2003)		성운숙 (2005)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 (2010)		김범구, 조아미 (2013)		윤철경, 최인재, 유성렬, 김강호 (2015)	
적응형			진학형	정착형	진학형	순수 진학형	정착형 (취업형)	학습형	취업/ 알바형	진학준비형	미래준비형	학업지속형		
			건전 직장 취업형		취업형	취업형							학업복귀형	
			취업 준비형		직업 훈련형	부업형 아르바이트형							직업형 아르바이트형	직업형
						학업-직업 전환형								
부적응형	보호 및 관리 체제에 소속된 청소년	소년원 수용	시설 수용형		비 정착형	비행형	미결정 중심형	비행경험형						
		보호 관찰중												
		요양중												
	보호 및 관리 체제에 소속 되지 않은 청소년	방치된 비행 청소년	방치형			neet (은둔형, 소일형, 배회형)		무업형						
		유형 소속 취업												
		가출 청소년												
		장애형												
									방치된 정신 질환 청소년					
								무업형						

출처: 이숙영, 남상인(1997). 중도탈락 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박창남, 임성택, 전경숙, 김성식(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경상, 조혜영, 박창남(2003).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분석 및 취업지원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성운숙(2005).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중퇴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Vol. 16, No. 2, pp. 295~343.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2010). 학업중단 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김범구, 조아미(2013). 잠재계층분석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Vol. 24, No. 3, pp. 5~31.
 오병돈, 김기현(2013). 청소년복지정책 대안규모 추정: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Vol. 15, No. 4, 29~52.
 윤철경, 최인재, 유성렬, 김강호(2015).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그림 I-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 분류 마인드맵

2)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특징과 지원 대책

학교 밖 청소년 유형에 따른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기존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숙영, 남상인(1997)은 학교 밖 청소년 중 정착 노력형에 속하는 진학청소년 가운데 학습의욕 상실이나 대인관계문제, 또는 생활적응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생활지도와 상담, 학업의욕 및 학습기술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및 상담기관의 협조체제 구축과, 가족기능의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다. 반면 일정한 교육훈련 후 취업과 생활 정착이 이루어져, 진학준비를 병행하고 있는 건전 직장 취업청소년의 경우는 생활지도 및 상담, 진학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사설기술학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상태에서 적응상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청소년을 위해서는 생활지도와 상담,

장기적 생활설계 지원과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비정착형의 경우 연구는 보호관리체제에 소속된 청소년과 보호관리체제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을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범죄연루 후 소년원에 수용되어, 진로 및 진학 준비를 병행하며, 반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부기능적 가족을 가진 소년원 수용 청소년을 위해서는 진로 및 진학상담, 대리부모 연계, 부모교육, 그리고 가족기능 활성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동일한 유형이지만 소년원이 아닌 보호관찰 대상인 경우, 생활지도와 상담, 진로 및 진학준비, 대리부모 연계, 부모교육, 가족기능 활성화, 그리고 건전한 놀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 외에 정신질환, 신체질환으로 병원 및 요양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연유로, 진학, 진로지도가 부재한 청소년에 대하여 상응하는 진학 및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리체제에 소속되지 않은 4종류의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각각을 위한 대책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중퇴 후에 진학, 취업준비의 부재/다양한 비행행동-폭력, 약물오남용의 상태에서 가족의 보호로부터 방치된 비행 청소년의 경우 소재파악 및 수용, 지속적인 관리, 생활지도와 상담, 진로 및 진학지도, 가족기능의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단란주점, 술집 등에 취업중이며, 검정고시학원 내지 기술학원을 통해 학업 및 취업준비를 하고,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흥업소 취업 청소년의 경우는 소재파악 및 수용, 유흥업소 지속적인 단속, 생활지도와 상담, 가족기능의 활성화를 요구한다. 다음으로 가출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고, 중국집, 카페, 단란주점에 취업하고,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출 청소년을 위해서는 소재파악, 가출청소년쉼터 등 수용시설 확대, 장기적인 진학 및 진로상담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경제적 여건으로 치료 받지 못하고, 무기력증, 의욕상실로 무위도식하고, 진로지도를 받지 못하는 방치된 정신질환 청소년의 경우는 무엇보다 실태파악을 토대로 입원조치, 생계비 및 입원비 보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박창남, 임성택, 전경숙, 김성식(2001) 역시 정착형과 비정착형의 분류를 선호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대책을 제시한다. 먼저 정착형 청소년 가운데 진학형 청소년의 경우는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복교 후 상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반면 취업을 하되, 대인관계의 문제를 지닌 취업형 청소년의 경우 취업알선과 상담 및 진로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직업 훈련을 하고, 훈련과정 부적응 가능성이 있는 직업훈련형을 위해서는 직업훈련기관의 소개, 학력인정과 자격증 연계, 그리고 상담 및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비정착형 청소년의 경우 범죄행위에 따른 처벌로 시설수용 상태에서 소년원 직업교육 소년원 진학교육 중인 시설수용형 청소년과 결손가정에서 자란 방치형 청소년으로 분류하는데, 전자를 위해서는 학력인정과 자격증 연계, 가족지원과 서비스, 그리고 상담 및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후자의 경우는 청소년 쉼터 제공, 학력인정과 자격증 연계,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담 및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경상, 조혜영, 박창남(2003)은 학교밖 청소년을 정착, 비정착의 상태적 분류보다는 행위중심적으로 분류하였고, 그 결과 순수진학형, 부업형 아르바이트형 내지 직업형 아르바이트형 그리고 취업형의 세 종류의 분류가 이루어졌다. 먼저 학업 후 직업을 원하는 순수진학형 청소년을 위해서는 학력인정 대안교육시설을 통한 졸업가능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안교육활동의 보다 광범위한 정규교과로의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학업중단청소년만을 위해 특성화된 ‘복교생을 위한 학교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복교 전 적응프로그램의 의무적 참여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중학교 중퇴청소년들의 경우 학력인정대안교육시설의 확대와 이를 위한 국가예산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르바이트로 검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부업형 아르바이트형 청소년과 학업이나 취업에는 관심 없이 단순히 아르바이트만으로 살아가는 직업형 아르바이트형 청소년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청소년노동 관련 법령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특히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적조직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조직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학업중단청소년은 물론 고용주 역시 대상으로 한 노동법 교육의 실시를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학업 중단 청소년의 고용촉진과 인권보호를 위한 전국적 캠페인의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을 마치지 않은 채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취업형 청소년의 경우 직업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직업교육훈련 및 진로상담의 결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선도보호시설을 비롯한 대안교육시설에서의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청소년을 위해서는 일정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기능사자격의 필기시험면제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 및 교육과정에 대한 보완을 통해 정규학력의 공인이 가능한 대안교육시설로의 탈바꿈을 요구하고 있다.

성운숙(2005)도 기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정착형과 비정착형으로 분류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기준인 퇴학과 자퇴 유형을 나누고 있는 바, 이 분류에 따르면 네 가지 유형의 학교밖 형태가 도출된다. 먼저 정착형 청소년의 퇴학 유형은 자기통제력 부족과 같은 개인적인 이유와 방임적인 양육이 결합하여 가출로 이어지고 결국 중도 탈락되어 비행의 결정적 계기가 작용하는 경우이다. 다음 정착형 청소년의 자퇴 유형은 자퇴를 도피가 아닌 도전으로 보는 성향이 강한데, 이는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강하고, 환경적으로 민주적이며 또 주위의 신뢰와 후원을 받는 경우이므로 대부분 대학입시를 위한 자퇴로 보인다. 나아가 비정착형 청소년의

퇴학 유형은 방임적 교육이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자기통제력 부족이라는 개인적 요인이 결합하여 비행 또는 게임중독에 빠지고, 이로 인한 장기결석이 퇴학으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비정착형 청소년의 자퇴 유형은 기본적으로 자기통제력 부족과 쾌락지향성, 그리고 부모님의 별거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맞물려 자퇴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이다. 이상 네 가지 유형의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연구는 무엇보다 학교 재적응을 위한 학생징계절차의 민주화를 강조한다. 나아가 적응실패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의 필요성, 중도탈락자에 대한 진로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재적 중퇴청소년들의 조기진단과 예방상담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재진입의 어려움이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진단과 예방상담의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대책이라 하겠다. 따라서 조기진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예방상담의 경우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논의가 요구된다.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2010)는 학교밖 청소년을 행위중심적이며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학습형, 취업/알바형, 무업형, 비행형, 장애형, NEET(은둔형, 소일형, 배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어떤 이유에서건 배움지향적인 학습형을 위해서는 대안교육시설의 확대 및 다양화와 함께 평가인증제 실시 및 학력인정제 적용, 나아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진로교육 담당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할 것과 학업중단청소년에게 진로교육기회를 제공해줄 것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 취업/알바형의 경우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뉴스타트 실시, 지역사회기반 청소년창업공동체 구축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이행경로 가운제 가장 취약한 무업형을 위해서는 발굴에서 자활까지의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할 원스톱시스템과 커리어 카운슬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나아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의 경험이 있는 비행형의 경우 가정방문형 상담과 치료형 캠프의 지원, 정서적 돌봄과 진로지도 및 일상생활은 물론 친구관계 지도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그리고 은둔형 청소년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발굴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지적, 정서적 장애를 가진 장애형을 위해 치료형 학교인 ‘성장학교 별’을 모델로 제시하는 바, 무엇보다 학교와 병원,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가 연계된 통합적 시스템이 요구되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NEET유형의 경우는 은둔기간과 재사회화의 어려움이 비례하므로, 은둔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방문 상담자, 인간관계 축진을 위한 활동이나 캠프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범구, 조아미(2013)는 학교밖 청소년을 성향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미결정중심형과 미래준비형과 진학준비형으로 나누고 있다. 미결정중심형은 말 그대로 계획이나 사유의 부재하거나 미약한 것이 특징이다. 이런 형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남자 청소년, 15-16세 집단 그리고 단기간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진로지도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반면 미래준비형의 경우는 생각과 계획 그리고 준비가 있는 경우이며 검정고시 등 학력취득 욕구가 높으며, 학교복학에는 부정적이지만 미래준비에는 적극적인 유형이다. 이런 유형의 경우 연구는 상담과 멘토링, 친구로부터의 긍정적 자극과 함께 개인적인 의지의 고양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 진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학준비형은 ‘복학준비’와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준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유형이며, 이들을 위해서도 미래준비형과 유사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오병돈, 김기현(2013)은 학교 밖 청소년을 시기적으로 전기청소년(만 9~18세)과 후기청소년(만 19~24세)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아가 전자를 행복추구형, 취약계층형, 사회활동형, 부적응형, 그리고 은둔형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불화형, 취업활동형, 사회활동형, 은둔형, 취업실패형으로 분류한다.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유형별 접근에 대한 지적은 긍정적이이고, 특히 대학교시기를 별도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나, 대책의 측면에서는 기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연구인 윤철경, 최인재, 유성렬, 김강호(2015)는 학교 밖 청소년을 행위중심의 관점에서 학업지속형, 학업복귀형, 직업형, 학업-직업전환형, 무업형, 비행경험형으로 분류한다. 학업지속형 청소년과 학업복귀형 청소년의 경우 특징적인 차이가 존재하나 결과적으로 학업형 경험들을 많이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는 진로교육 담당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진로교육기회 제공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직업형 청소년이나 학업-직업전환형의 경우 학교-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고용센터간의 연계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교대와 사범대생의 학습지원 멘토링 강화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강화 및 청소년 참여율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커리어넷 기능보완을 통해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취득가능한 자격증 정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무업형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단사유, 심리·정서 상태에 부합하는 삶에 대한 동기부여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들을 위해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위한 두 트랙의 진로지도와 함께 자기성장과 발전을 원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영역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행경험형 청소년의 경우는 일정기간 비행경험을 겪다 무업형으로 전환하는 유형이다. 이런 유형을 위해서 연구는 지역사회와 법무부 보호관찰소 그리고 소년원의 유기적 연계망 구축과 함께 그것을 기반으로 비행청소년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탈비행을 위한 정서적 애착의 강화, 진로지도 등 규칙적인 일상생활 지도와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친구관계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 II 장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조사 개요

1. 연구대상
2. 조사도구
3. 연구절차
4. 자료분석

제 II 장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조사 개요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양적 조사결과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 및 이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기존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2013~2015) 조사결과에 따라 2016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 경험을 토대로 이행경로별 면접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학업중단과정과 중단 후 경험, 과거 및 현재의 요구, 학업중단 후 시간경과에 따른 요구변화 등 학업중단 이후의 이행경로별 특성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이행경로별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중단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윤철경, 최인재, 유성렬, 김강호(2015)에서 도출한 6개 경험유형(학업복귀형, 학업지속형, 학업직업전환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경험형)을 기준으로 분류된 청소년 중 응답자 이행경로가 확인된 2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전접촉 대상자의 세부 정보는 <표 II-1>과 같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220명으로 목표 31명 대비 약 7배수가 확보된 상태에서, 대상자 220명 중 실제 조사 참여에 동의한 패널은 118명으로 목표 31명 대비 약 4배수에 해당하며 <표 II-2>와 같다. 심층면접 대상자 대비 동의 비율은 53.6%로 대상자 2명 중 1명꼴로 조사 참여에 동의하였다. 직업형 9명(29.0%), 무업형 12명(46.2%)은 동의 비율이 낮아 해당 유형에서 응답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두 유형에서는 동의자 대비 목표 비율이 직업형이 66.7%, 무업형이 50.0%로 높아졌다.

해당 유형의 조사 목표 표본수를 달성하기 위해 응답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거주지 또는 직장, 학원 등 주요 활동처 인근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여 응답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1 심층면접 사전접촉 대상자 현황표

구분	대상자 수(명)	대상자 비율(%)
전체	220	100.0
기존 유형(1~3차)		
무업형	26	11.8
비행형	3	1.4
직업형	31	14.1
학업복귀형	46	20.9
학업지속형	86	39.1
학업직업전환형	28	12.7
4차 조사 참여 여부		
4차 조사 참여	175	79.5
4차 조사 미참여	45	20.5
대학 진학 여부		
진학	57	25.9
미진학	162	73.6
중퇴	1	0.5
거주지		
대도시	121	55.0
중소도시	74	33.6
읍면동	25	11.4

표 II-2 심층면접 사전접촉 동의자 및 목표 비율

구분	심층면접 대상자 (명)	심층면접 조사 동의자 (명)	조사 목표 수 (명)	대상자 대비 동의 비율 (%)	동의자 대비 목표 비율 (%)
전체	220	118	31	53.6	26.3
기존 유형(1~3차)					
무업형	26	12	6	46.2	50.0
비행형	3	3	1	100.0	33.3
직업형	31	9	6	29.0	66.7
학업복귀형	46	30	6	65.2	20.0
학업지속형	86	46	6	53.5	13.0
학업직업전환형	28	18	6	64.3	33.3

2016년 4차 조사에 참여한 17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118명 중 총 31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표 II-3〉 참조).

표 II-3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단위: 명)

	전체 주1)	참여 주2)			미참여 주4)	심층면접 조사 표본 수
		참여 전체	협조 주3)	미협조		
총합계	220	177	118	59	43	31
기존 유형(1~3차)						
학업복귀	46	40	30	10	6	6
학업지속	86	70	46	24	16	6
학업-직업전환	28	24	18	6	4	6
직업	31	19	9	10	12	6
무업	26	21	12	9	5	6
비행	3	3	3	0	0	1

주1) '전체'는 기존 3차 패널 중에서 '응답자 경험유형'이 확인된 220명 전체의 유형별 분포임.

주2) '참여'는 기존 3차 패널에서 '응답자 경험유형'이 확인된 220명 중 2016년 4차 조사에 참여한 패널 수임

주3) '협조'는 4차 조사에 참여한 177명 중 '심층면접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패널 수임

주4) '미참여'는 220명 중 2016년 조사(4차)에 참여하지 않은 숫자임

3차 패널인 기존 유형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조사」연구에 1~3년간 참여한 일반 패널의 분류로 학업복귀형(6명), 학업지속형(6명), 학업직업전환형(6명), 직업형(6명), 무업형(6명), 비행형(6명)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유형인 패널 4차 유형은 3차 조사결과 이후 시점부터 지난 1년내의 경험을 토대로 학업형(15명), 직업형(9명), 무업형(7명)으로 유형 분류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3, 4차 유형분류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현황은 <표 II-4>와 같다.

표 II-4 학교 밖 청소년 3, 4차 유형분류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단위: 명)

기존 유형(1~3차)	심층면접 조사 표본 수	최근 유형(4차)	심층면접 조사 표본 수
학업지속형	6	학업	15
학업복귀형	6		
직업형	6	직업	9
학업직업전환	6		
무업형	6	무업	7
비행형	1		
총합계	31	총합계	31

패널 4차 이행경로 변화 유형 분류는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ⅠⅡ장 이행경로 변화유형 분류 방법을 기준으로 긍정적 경로유지, 학업-직업형전환, 직업-학업형전환, 긍정적 경로 전환, 부정적 경로 전환, 부정적 경로유지 6가지 분류로 구성하였다(윤철경, 성운숙, 유성렬, 김강호, 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Ⅱ-5>와 같다. 기존 1~3차년 조사결과에 따라 분류된 학업복귀형과 학업지속형은 큰 범주에서 학업형으로, 학업-직업전환형과 직업형은 직업형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4차 년도 조사결과에 따른 3개 유형을 연계하여 ① 학업에서 학업형으로 또는 직업에서 직업형으로 이행한 경우 ‘긍정적 경로유지’로, ② ‘학업에서 직업형 전환’, ③ ‘직업에서 학업형 전환’, ④ 비행경험형 혹은 무업형에서 학업형 또는 직업형으로 전환한 경우, ‘긍정적 경로 전환’, 반대로 ⑤ 학업형 혹은 직업형에서 무업형으로 전환한 경우 ‘부정적 경로 전환’, ⑥ 비행경험형 또는 무업형에서 무업형으로 이행된 ‘부정적 경로 유지’ 등 총 6개의 전환 경로로 구분하였다(윤철경, 성운숙, 유성렬, 김강호, 2016).

3차 패널에서 4차 패널 이행경로의 변화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학업복귀형에서 학업형으로 5명, 직업형에서 직업형으로 5명, 학업지속에서 학업형으로 6명, 학업직업전환형에서 직업형으로 변화한 3명, 총 19명이 긍정적 경로를 유지했다.

학업복귀형에서 직업형으로 이행경로가 변화한 학업-직업전환형이 1명, 직업형에서 학업형으로 이행경로가 변화한 직업-학업전환형이 3명으로 나타났다. 6명이 무업형에서 무업형으로 부정적 경로를 유지했다. 학업직업전환형에서 무업형으로 변화한 부정적 경로전환형이 1명, 비행형에서 학업형으로 변화한 긍정적 경로전환형이 1명으로 나타났다.

즉 심층면접대상자 31명 중 학업형에서 학업형으로 또는 직업형에서 직업형으로 이행한 19명이 긍정적 경로를 유지했으며, 비행경험형 또는 무업형에서 무업형으로 이행된 6명이 부정적 경로를 유지했고, 직업-학업전환형이 3명, 학업-직업전환형이 1명, 부정적 경로전환형이 1명, 긍정적 경로전환형이 1명으로 나타나 심층면접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 중 학업형과 직업형은 대체로 긍정적 경로를 유지하고, 무업형은 부정적 경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일반적 특성

NO	이름 PID	기존 유형 (2013~ 2015), (1~3차)	최근 유형 (2016), (4차)	3차 에서 4차 이행 경로 변화	성별	생년	거주지	최종학교 중단 시기	현재 주로 하는 일	조사 일자
1	백○○ 2017	학업 복귀	학업	긍정적 경로유지	여	96년	경기도	2012년 고1 가을	대학 재학, 기독교연합동 아리 활동	09.05
2	김○○ 9022	학업 복귀	학업	긍정적 경로유지	남	97년	서울	2013년 중3 졸업 후	IT 직업학교 졸업 후, 아르바이트와 자격증 공부 병행	09.05
3	박○○ 896	학업 복귀	학업	긍정적 경로유지	여	무응답	대전	2013년 고2 여름방학 시작 후	대학 재학	08.03
4	이○○ 7013	학업 복귀	직업	학업- 직업전환	남	98년	서울	2013년 (중학교 졸업 후, 직업학교로 진학)	회사원 (PVC 파이프 관련)	09.08
5	성○○ 786	학업 복귀	학업	긍정적 경로유지	남	96년	부산	2012년 고1 1학기	수능 준비 중	09.21
6	인○○ 718	학업 복귀	학업	긍정적 경로유지	남	97년	부산	2013년 고2 1학기	인력 개발원 다니고 있음	09.21
7	김○○ 2076	무업	무업	부정적 경로유지	남	96년	경남	2012년 일반고 1학년 1학기 때 자퇴, 이후 한 학기 쉬다가 2013년 미용고 2학년 1학기로 진학했으나, 한학기만에 자퇴	특별히 하는 일 없음(가끔 치킨집 배달 아르바이트 함)	08.25
8	이○○ 6029	무업	무업	부정적 경로유지	남	97년	인천	2013년 고1 4월	특별히 하는 일 없음	09.13
9	김○○ 5807	무업	무업	부정적 경로유지	여	94년	대전	2012년 고3 1학기	특별히 하는 일 없음	09.06
10	최○○ 573	무업	무업	부정적 경로유지	남	96년	부산	2013년 고2 시작할 때	실용 음악학원 다니고 있음	08.31
11	김○○ 192	무업	무업	부정적 경로유지	남	97년	경북	2013년 고2, 4월	무업	08.26

NO	이름 PID	기존 유형 (2013~ 2015), (1~3차)	최근 유형 (2016), (4차)	3차 에서 4차 이행 경로 변화	성별	생년	거주지	최종학교 중단 시기	현재 주로 하는 일	조사 일자
12	권○○ 166	무업	무업	부정적 경로유지	여	97년	경북	2011년 중3, 9월	특별히 하는 일 없음	08.26
13	김○○ 9070	직업	직업	긍정적 경로유지	남	96년	서울	2012년 고1, 1학기	현재 일 안하고 있음. 군 입대를 기다리는 중임	08.31
14	노○○ 5631	직업	직업	긍정적 경로유지	여	95년	부산	2012년 고2 10월	꽃집에서 일함	08.25
15	박○○ 2074	직업	직업	긍정적 경로유지	남	96년	경남	2012년 고1		09.01
16	배○○ 759	직업	직업	긍정적 경로유지	여	96년	부산	2013년 고2 6월	아르바이트 2개 하고 있음(편의점, 과일 주스집)	09.01
17	김○○ 279	직업	직업	긍정적 경로유지	남	94년	대구	2012년 고3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음	09.02
18	곽○○ 7020	직업	학업	직업- 학업 전환	남	97년	대구	2014년 고1 입학하자마자	대학 다니고 있음	09.02
19	윤○○ 277	학업 지속	학업	긍정적 경로유지	남	95년	서울	2012년 고2 11월	공익 근무 요원(왕십리 지하철역)	09.02
20	조○○ 9036	학업 지속	학업	긍정적 경로유지	남	96년	서울	2012년 고1 1학기	현재 대학 휴학 후, 휴식 중	09.02
21	김○○ 2090	학업 지속	학업	긍정적 경로유지	여	96년	서울	2013년 고2 7월	수능 공부(3수)	09.05
22	이○○ 7001	학업 지속	학업	긍정적 경로유지	남	97년	경기	2013년 중3 졸업 후, 직업학교/방송 통신고등학교 진학(학업 중단한 적은 없음)	폴리텍 대학 휴학 중	09.09
23	박○○ 624	학업 지속	학업	긍정적 경로유지	여	99년	경기	2013년 중1	중국어 공부 중	09.09
24	문○○ 6004	학업 지속	학업	긍정적 경로유지	여	98년	서울	2012년 중2	대안학교 재학 중	09.19

NO	이름 PID	기존 유형 (2013~ 2015), (1~3차)	최근 유형 (2016), (4차)	3차 에서 4차 이행 경로 변화	성별	생년	거주지	최종학교 중단 시기	현재 주로 하는 일	조사 일자
25	강○○ 830	학업직업 전환	직업	긍정적 경로유지	여	95년	서울	2012년 고2 여름방학 끝난 후	아르바이트 하는 중	09.09
26	이○○ 9053	학업직업 전환	직업	긍정적 경로유지	남	98년	서울	2014년 중학교 졸업 후	현재 직장 다니는 중 (유통업&서비 스업)	09.08
27	우○○ 9058	학업직업 전환	무업	부정적 경로전환	여	96년	서울	2012년 고1 1학기	특별히 하는 일 없음	09.05
28	이○○ 7012	학업직업 전환	학업	직업- 학업전환	남	96년	경기	2012년 고1 2학기 시작할 때	현재 학원을 다니면서 기술(프로그 래밍)을 배우고 있음, 대학입시도 같이 준비 중	09.02
29	정○○ 846	학업직업 전환	직업	긍정적 경로유지	남	95년	서울	2012년 고3	군복무중 (상근 예비역)	09.08
30	이○○ 97	학업직업 전환	학업	직업- 학업전환	남	96년	대전	2012년 고2 가을	대학 복학 후, 학교 다니고 있음	08.31
31	이○○ 799	비행	학업	긍정적 경로전환	남	97년	부산	최초학교중단 시기: 2013년 고1퇴학(1,2달), 2014년: 방송통신고 자퇴(6달), 2015년: 국제금융고 입학	퀵서비스 일함 (국제금융고 다니고 있음)	09.01

심층면접 조사 응답자의 주요 변인별 결과는 <표 II-6>과 같다. 먼저 성별에서 ‘남학생’이 20명(64.5%), ‘여학생’이 11명(35.5%)이다. 연령대는 ‘고등학교 학령기(17세~19세)’가 12명(38.7%), ‘학령기 이후’가 19명(61.3%)이다. 거주지는 ‘서울/경기’가 16명(51.6%), ‘대전/충청’과 ‘대구/경북’이 각 3명(9.7%), ‘부산/경남’이 9명(29.0%)이다. 최종 학업중단 시기는 ‘중학교 2학년’이 2명(6.5%), ‘중학교 3학년’이 1명(3.2%), ‘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이 4명(12.9%), ‘고등학교 1학년’이 10명(32.3%), ‘고등학교 2학년’이 11명(35.5%), ‘고등학교 3학년’이 3명(9.7%)으로 나타났다.

표 II-6 주요 변인별 심층면접 응답자 분포

구 분	응답자 수(명)	응답자 비율(%)
전체	31	100.0
성별		
남학생	20	64.5
여학생	11	35.5
현재 연령대별		
고등학교 학령기(17세~19세)	12	38.7
학령기 이후(20세 이상)	19	61.3
거주지		
서울/경기	16	51.6
대전/충청	3	9.7
대구/경북	3	9.7
부산/경남	9	29.0
최종 학업중단 시기		
중학교 2학년	2	6.5
중학교 3학년	1	3.2
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	4	12.9
고등학교 1학년	10	32.3
고등학교 2학년	11	35.5
고등학교 3학년	3	9.7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최초 학업중단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삶에서의 주요 이슈와 생활 경험들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의 배경과 이유를 파악하여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변화 및 사회적 맥락을 파악한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의사 등을 확인한다. 질문지를 구성하기 위해 학업중단 관련 선행연구(성윤숙, 2005; 성윤숙 외 2015; 성윤숙 외 2016; 윤철경 외, 2015)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질문지를 만들고 전문가 6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질문지 내용의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 특성 및 요구에 관한 질문지의 세부적인 내용 구성은 <표 II-7>과 같다. 심층면접 가이드라인 구성은 학교를 그만두기 전 생활경험과 학교를 그만 둔 후의 생활경험, 대인관계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나 지역사회 관련 기관 경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번호	조사영역	세부 항목
Part 1	학교를 그만두기 전 생활 경험	○ 가장 최근 중단한 학교를 다닐 때의 생활 (학교 분위기 및 이유, 교사 및 교우 관계, 규범/규칙 위반 및 이유) 학업을 수행 중 아르바이트 여부 및 학업중단에 아르바이트가 미친 영향 (직업형) ○ 학업중단 시 상황 (중단 학교명 및 학년, 학교 중단시 세부적인 과정 및 내용, 중단 계기나 사유, 학교 측 방지 노력, 중단 시 도움을 받은 사람, 기관, 프로그램 이용 경험 및 만족도와 이유) ○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 또는 개인적인 목표 (하고 싶은 일 또는 목표를 갖게 된 이유/목표를 갖지 않은 이유, 목표 부재에 대한 불안 여부 등)
Part2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 경험 I	○ 학업중단 후 현재 하루 일과 (기상/취침 시간, 학교/검정고시학원/직장/아르바이트에 다니는 시간, 친구를 만나는 시간 등) - 학업형 : 대학/중고등학교를 다닐 경우 학교를 다닐 때와 방학 때로 구분 - 직업형 :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시간 - 무업형 : 쉬거나 놀 때 무엇을 하면서 놀거나 쉬는지(게임 등), 식사, 운동 등을 하는지 여부 확인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 경험 II	○ 현재 학업을 그만두고 최근 1년(2015년 8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동안 했던 일 - 학업 중단 후 1년 전까지는 하지 않다가 최근 1년간 새롭게 시작하거나 하게 된 것이 있는지 여부 - (직업 관련) 최근 1년 이전에 일을 했더라도 Part time Job에서 Full time Job 또는 다른 형태로 변화되었는지 여부 - 최근 1년 이전에 시작한 것 외에 그만둔 것 여부 ○ 학교를 그만 둔 후 대학에 다닌 경험 ○ 학교를 그만 둔 후 일을 한 경험
Part3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경험 III (학업 관련)	○ 검정고시를 보거나, 대학교를 다닌 경우, 검정고시 시기, 대학교 유형 ▶ 검정고시 준비 및 합격자 대상 -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검정고시를 보는(본) 이유 - 학교를 그만두고 얼마 후에 검정고시 준비 시기 - 검정고시 준비 방법(혼자 또는 학원) - 검정고시 학원 유형(온라인, 오프라인 학원) - 검정고시 준비 후 얼마 만에 합격했는지 여부(기간) - 검정고시 준비 및 합격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 또는 도움이 된 것 ▶ 대학 입학자 - 학교를 그만둔 이후 대학에 진학한 이유 - 입학한 대학명, 학과명, 현재 학년 - 입학 시 상태(고교 졸업/검정고시), 입학 유형(수시/정시) - 현재 상태(재학/휴학/자퇴 등)

번호	조사영역	세부 항목
		- (검정고시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정보획득 경로 - 해당 대학/학과를 선택한 이유 및 계기 - 학교를 그만둔 이후 대학을 진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된 사람 또는 도움이 된 것 ▶ 검정고시/대학 입학 준비자 및 입학자 - 대학 입시 준비) 학업중단 후 대학에 가려는 이유 - (공통) 학교를 그만둔 후 검정고시와 대학입시 준비 외에 추가로 배웠던 교육 내용 - (공통) 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경험과 비교하여 다른 부분 및 본인에게 유익한(더 잘 맞는) 이유 - (공통) 현재의 생활이 만족스러운지 여부 및 그 이유 확인 ▶ 중고등학교 재입학자 -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업을 복귀한 이유 - 학업에 다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 복교 후 적응 방법 - 복교 한 학교 유형(기존 학교 또는 다른 학교) 및 복교 학교 선택 이유 - 최종적인 학업 목표(대학진학, 고졸 등) - 학업을 복귀한 것에 대한 만족도 ▶ 기타(대안학교, 홈스쿨링, 인강 등) -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업을 복귀한 이유 - 학업에 다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 복교 후 적응 방법 - 복교 한 학교 유형(기존 학교 또는 다른 학교) 및 복교 학교 선택 이유 - 대안학교, 홈스쿨링, 인강 등을 통한 최종적인 학업 목표(대학진학, 고졸 등) - 학업을 복귀한 것에 대한 만족도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경험 III (직업 관련)	○ 취업 /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직업 및 아르바이트 유형을 세부적으로 확인 ▶ 현재 취업/아르바이트/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대상 - 학업을 그만두고 (직업훈련/일)을 하게 된 계기 - 직업 훈련을 받은 경험 여부 및 직업훈련 내용 - 직업 훈련의 도움 정도 및 이유 ▶ 현재 일자리 또는 가장 오래 일했던 주된 일자리 1개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 - 취업 계기, 방법 및 이유 - 일자리 관련 정보 획득 경로 - 일자리 산업/직업 내용 - 근로시간, 시급, 근로환경, 억울한 일을 당한 경험 등 - 일자리 근무지,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이유 - (그만두었을 경우)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 현재의 생활이 만족스러운지 여부 및 그 이유 ▶ 직업형 - 학업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에서 직업을 갖게 된 계기 - 직업을 본격적으로 갖게 되면서 얻는 것 및 달라진 것

번호	조사영역	세부 항목
		▶ 무업형 - 현재 무업 여부에 대해 확인 - 무업형인 경우는 보호 관찰 여부 - 보호관찰을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았을 경우 보호관찰 내용 - 보호관찰을 받게 된 사건, 느낌 - 보호관찰관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및 관계 -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도움/만족 정도 및 이유 - 앞으로도 비행을 계속 할 것으로 생각되는지 및 이유 - 현재의 관심사, 관심사에 대한 정보탐색 여부 확인 - 현재의 생활이 만족스러운지 여부 및 그 이유
Part4	학업중단 후 힘들었을 때 및 향후 목표	○ 학교를 그만둔 이후 가장 힘들었던 시기 및 이유 -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 기관, 프로그램 이용 경험 여부 - 도움 받은 기관 또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기관유형,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및 만족도와 이유 ○ 향후 하고 싶은 일 또는 목표(향후 진로와 관련한 목표) - (대학에 다닌 경험이 있는 경우) 대학졸업 후 하고 싶은 일, 목표 ○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도움 및 희망 이용 기관 - (현재 대학에 다니는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구하는 데 필요한 도움 -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다니면서 배울 의향 유무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명 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 여부 및 이유 ③ 희망하는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 (일을 한 적이 있는 경우) 직업훈련에 대한 인지도, 이용의향 및 이유 등 ① 직업훈련에 대한 인지도 ② 직업훈련을 받을 의사 여부 및 이유 ③ (의사가 있을 경우) 희망하는 직업훈련 내용 및 이유 (의사가 없을 경우) 월 수업이 얼마 정도 지원한다면 직업훈련을 받을지
Part5	대인관계	○ 부모님의 양육방식 (허용적인 부모, 방임적인 부모, 민주적인 부모, 권위주의적인 부모) ○ 부모님과의 관계 변화(학업중단 전과 후 비교) - (변화 있을 시) 변화 전과 후 중 어느 쪽이 좋은 관계인지, 변화 이유 - 정서적 지지, 경제적지지 정도 확인 ○ 현재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및 1일 평균 대화 시간 ○ 현재 주로 만나는 친구 및 친구 관계 - 학업중단 전후에 주로 만나는 친구 유형의 변화 여부, 만나서 주로 하는 일 - 학업중단 후 만난 친구를 만나게 된 경로, 친구의 유형, 친구의 비행성향 - 학업중단 전에 만나는 학교친구를 계속 만날 경우 어떤 학교친구인지 및 비행성향 등 ○ 학업을 중단한 이후 부모님이나 친구 외에 만났던 다른 어른 - 학업중단 이후에 만난 어른 유형, 소속 기관, 만나게 된 계기 등을 확인 ○ 지금 본인에게 제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 및 이유

번호	조사영역	세부 항목
Part6	현재 정신 및 심리상태	○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 및 용도 ○ 즐겨하는 게임 시간 및 이유 ○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인식 -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 -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 - 주변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는지, 없다면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 우울한 기분이 들 때가 있는지 여부 - 우울감 느낀 시기 및 우울 정도 -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 - 우울감으로 복용중인 약 ○ 자살시도 경험 - 자살시도한 시기 및 이유 - 자살시도 후 도와줬던 사람이나 기관 유무 - 도와준 사람이 없다면 그 당시 필요로 했던 도움 유형 - 자살시도 후, 치료 경험, 복용중인 약 ○ 자살생각 경험 - 자살 생각 빈도 및 그 이유 -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한 방해물 여부 및 유형 - 자살에 대해 깊게 생각했을 때 구체적인 방법까지 계획 여부 - 자살에 대한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 실제로 준비 여부

출처: 윤철경, 최인재, 유성렬, 김강호(2015).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문화기술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다. 문화기술적 접근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전후의 생활세계에 대한 사회적 맥락과 청소년들 자신의 의미 창출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방법이며,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취한 본 연구자는 ‘있는 그대로’ 최대한 일상적인 생활 장소에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 기간은 2016년 7월 25일 ~ 9월 21일, 총 60일간 진행되었다. 사전접촉을 통해 조사 일시를 확정된 경우일지라도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상 약속을 어기거나 변경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여, 조사 당일에 문자 및 전화접촉을 통해 다시 한 번 심층면접 조사 가능 상태를 확인하였다. 조사가 취소되거나 약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층면접 대상자에게 추후 가능 일자를 확인하여 다시 조사 일자를 확정하였다. 조사 지역은

크게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서울에서는 주로 한국리서치 본사의 면접 전용 공간에서 진행하였으며, 지방의 경우는 응답자 거주지 부근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정한 뒤, 심층면접 진행자가 사전에 적합한 조사 위치를 탐색하여 심층면접대상자에게 안내하였다. 심층면접 특성상 주변 소음이 심하거나 사람이 많은 곳은 되도록 지양하였으며, 응답자 거주지 주변의 공원, 정자, 종교시설, 사람이 적은 카페 등의 장소를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자택에서 진행할 경우, 가족 구성원이 인터뷰 응답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배제하였다.

심층면접 진행자가 조사 대상자를 대면하게 되면 본인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하였으며, 대상자에게 본 심층면접 관련 인지 정도를 파악하고, 인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심층면접의 취지와 목적, 진행 방법 등을 안내하였고 심층면접 내용에 대해 녹취하는 것을 승낙 받아 녹음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사전에 제작된 반구조화된 심층면접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라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을 각기 다르게 질의하였다. 심층면접 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내외로 수행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응답자에게 음료 등을 제공하였다. 심층면접 가이드라인 질문이 끝난 후에는 심층면접대상자에게 추가적인 질문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는지 확인하였고, 심층면접 대상자는 면접 결과의 사용처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관련 문의를 주로 하였으며 그 역시 심층면접의 일환으로 기록하였다.

심층면접 최종 완료 후에는 면접대상자에게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전반적으로 심층면접대상자는 4년 동안 학업중단 패널에 참여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심층면접자와 라포가 형성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대한 심층면접 및 참여관찰이 용이하였다.

4. 자료 분석

현장 노트를 읽을 때마다 연구지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연구자의 생각, 느낌, 연상되는 비유나 속담을 포함한 일차적인 해석들을 적고 검토하였다. 범주화(coding category)를 하기 위하여 현장노트를 반복하여 읽어가면서 상황을 적절하게 묘사하는 핵심단어들을 적는 한편, 단어들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웹(web)을 만든다(성운숙, 손병덕, 2014). 인터뷰한 31명의 내용을 엑셀 코딩표를 통해 이행경로 변화 시점, 학교 밖 전의 생활, 학교 밖 이후의 생활경험, 심리적 및 환경 변화 등 큰 범주를 나누고 주제영역 분류를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태, 주변 환경 및 변화, 학교체계, 가정체계, 지역사회체계, 사회적 지지망 등으로 상하위 범주들을 정하고 이를 부호화 범주로 전환한 뒤 개인별 심층면접녹취록에 이를 적용시킴으로써 코딩작업을 실시한다.

표기된 부호와 범주별로 정리한 뒤 동일 범주의 사례들을 읽어가며 해석한다. 연구자는 다양하고 심층적인 해석을 위하여 자료 분석을 하는 동안 ‘좋은 눈’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성윤숙, 손병덕, 2014).

최종적으로 연구자의 이해와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삼각검증(triangulation)’의 방식을 활용하여 연구자의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청소년 전문가 6인에게 의뢰하여 자료와 분석결과를 재검토한다. 즉 제보자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관점, 시간, 공간, 상황 등을 달리하여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재검토함으로써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Denzin, 1978; Goetz & LeCompte, 1984, 성윤숙, 박병식, 2009; 성윤숙, 손병덕, 2014 재인용).

연구자의 시각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 밖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고 관점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의를 거쳐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질적 전문가 2인에게 최종적으로 내용 검수를 받아 내용을 보완하였다.

제 III 장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결과 분석

1. 학교를 그만두기 전 생활경험 : 학교생활
2. 학교를 그만두기 전 생활경험 : 학업중단전반
3. 학교를 그만둔 후 일반적인 생활경험
4. 학교를 그만둔 후 검정고시 준비 청소년의 생활경험
5. 학교를 그만둔 후 대학생활 경험
6. 학업 복귀 이유
7. 학교를 그만둔 후 직업생활 경험
8. 학업중단 후 힘들었을 때 및 향후 목표
9. 꿈드림센터/직업훈련 기관 인지도 및 참여 의사
10. 대인관계
11. 현재의 정서 · 심리상태
12.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 변화유형

제 III 장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결과 분석

1. 학교를 그만두기 전 생활경험 - 학교생활

1) 학교 분위기

학교 분위기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주로 학교 규범 및 규칙과 관련하여 응답하였다. 무응답을 제외한 29명 중 12명의 청소년이 엄격한 분위기였다는 응답을 하였고, 그 중 일부 특성화고(전문계고)를 그만둔 응답자들은 학교 학생들의 특성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언급하였다. 엄격하다고 응답하였던 청소년 중 ‘직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른 10명의 청소년은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라서 사람이 풀어졌다고 할까요”, “분위기는 자유로웠던 편” 등 자유로운 편이었다고 응답하였고 일부 특성화고(전문계고)를 그만둔 응답자들은 두발이나 복장, 출결과 관련하여서 자유롭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7명의 청소년은 “그냥 평범했어요”, “엄격할 때는 엄격하고 풀어줄 때는 풀어주고” 등 평범하다고 답하였고, 대부분 중단한 학교가 일반고(인문계고)인 경우 특별히 엄격하거나 자유로움 없이 평범했다고 응답하였다.

① 엄격함에 답한 응답자 전반 : 규범 및 규칙이 엄격했다고 응답한 경우

“학칙이나 두발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게 1, 2학년 때는 꽤 심했죠. 이렇게 머리를 자른다. 머리가 어느 정도 길면 그냥 너는 내일부터 단정하게 해와.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안자를 수 없게 가위로 잘라버리거나, 바지 같은 경우에는 밑단 품을 줄이면 바지를 그냥 자르기도 했고...”(17.직업형 남성 김00)

“엄격했어요. 교회 재단이라서 되게 엄격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다른 고등학교에 간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봐도 저희 학교가 등교 시간도 빠르고 지각도 되게 엄격했구요. 교내 흡연도 두발이나 복장도 엄격하고...”(5.학업형 남성 성00)

② 엄격함에 답한 특성화고 : 학교 학생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

“일반 공고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희 학교 건물이 2개였는데 저희 과 동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섭고, 근데 저희 반에 여자 아이가 5명, 앞 반에는 10명, 뒤 반에는 1, 2명 정도로 여자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자 선배들은 담배피고, 화장실 잠귀 놓고 무서운 분위기...”(1.학업형 여성 백00)

“약간 날라리나 양아치가 많은 그런 느낌, 원래 저희 학교가 제가 1학년 때가 학교 바뀐 지 2년 되던 해였는데 원래 상일 공고라고 안 좋은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특성화 고등학교로 바뀌면서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2년제로 하다 보니까 양아치 애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23.직업형 남성 정00)

③ 자유로움에 답한 응답자 전반 : 규범 및 규칙이 자유로웠다고 응답한 경우

“약간 자유로웠어요. 그냥 애들끼리 잘놀고 선생님들도 분위기는 좋고 복장은 다른학교처럼 치마 짧으면 혼내주고 다른건 없었어요. 교칙이나 규율도 엄격하지 않구요.”(24.학업형 여성 문00)

“좋았죠. 뭐라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분위기는 그냥 다 친구들이었고 그냥 다 괜찮았어요.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았어요.”(20.학업형 남성 조00)

④ 자유로움에 답한 특성화고 : 학교 규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

“너무 프리했어요. 두발은 염색, 파마도 자유고요. 그리고 수업시간에 그냥 3분의 2는 전부 다 자고 학교 안나오는 애들도 많고 많이 자유로웠어요. .”(7.무업형 남성 김00)

“프리해요. 거의 단속을 안해서 머리로 그렇고 사복을 입어도 뭐라고 안하고, 저도 사복 입고 오고”(29.직업형 남성 정00)

⑤ 평범함에 답한 응답자 전반 : 규범 및 규칙이 평범했다고 응답한 경우

“엄격할때는 엄격하고 풀어줄때는 풀어주고.”(11.무업형 남성 김00)

“좀 시끌시끌 했던 것 같아요. 산만하고 조용한편은 아니었어요. 엄격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았어요.”(12.무업형 여성 권00)

2)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를 언급할 때 31명 중 15명의 청소년이 “다 괜찮았어요.”, “그냥 담임 선생님이랑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은 좋았는데”라고 응답하여 본인과 애기를 많이 나누고,

신경써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억하였다. 긍정적으로 답한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업형’ 청소년이었다. 12명의 청소년은 “친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특별한 관계는 없었어요.”라고 응답하여 평범했다고 답하였다. 그 중 ‘직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교사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응답한 4명의 청소년은 “담임선생님이랑 사이가 안좋았어요.”, “안 좋았어요.”라고 답을 하였으며 결석, 두발 단속, 체벌 등 특정 선생님과 사이가 나빠진 계기에 대해서 주로 응답하였다. 그 중 ‘학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①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

“선생님들이랑 3학년 때까지 관계는 좋았고, 고민도 잘 들어주시고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제일 좋았어요.”(22.학업형 남성 이00)

“담임 선생님이랑은 절 많이 좋아해 주셨고 제가 학교를 다니는 중, 마는 중, 그래도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너는 그래도 학교 그래도 잘 나와야 되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이런 식으로 신경을 써 주셨어요.”(26.직업형 남성 이00)

② 평범했다고 응답한 경우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냥 제자였죠. 말썽도 안피우고.”(14.직업형 여성 노00)

“선생님들도 별로 특이사항은 없었는데 ”(27.무업형 여성 우00)

③ 특정 문제로 선생님과 관계가 나빠진 계기를 응답한 경우

“안 좋았죠. 그냥 제가 학교 자꾸 계속 빠지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랑 좀 안 좋았죠. 다른 선생님 이랑은 그저 그랬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자기 마음이에요. 뭔가 학생들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너는 내가 어떻게든 퇴학을 시키겠다. 자퇴를 시키겠다. 그런 식이었어요.”(8.무업형 남성 이00)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를 못 읽으니까 모르겠어요. 못 읽겠어요. 물어보면 너는 초등학교 때 안 배웠어? 중학교 때 아무것도 안 배우고 고등학교 올라왔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과학 시간 때도 몰라서 질문을 하면 가르쳐 주긴 가르쳐 주는데 기분 안 좋게 가르쳐 주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 뒤로 처음에 과목 처음 들어갔을 때 잘 들었는데 점점 갈수록 선생님들이 화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니까 그냥 수업 아예 안 들어야겠다고 잠을 자면 때리죠. 그것 때문에 싫어서 학교 그만 두겠다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계속 그러지 말자고 잡아서 2학년까지 버티다가 2학년 선생님은 또 잡는 선생님이 아니라서 그만 뒀죠.”(16.직업형 여성 배00)

결론적으로 교사와의 사이가 부정적인 경우에 학업형이 상대적으로 다수라는 사실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학업지속여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읽을 수 있다. 특히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사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의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언행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학업중단과 교사의 부정적 언행 사이의 필연적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3) 친구와의 관계

학업중단 전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무응답을 제외한 29명 중 13명의 청소년이 “반 친구들이랑도 친하고 옆 반 친구들이랑도 친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좋았어요.”라고 응답하여 대부분 친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교사와의 관계보다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다. 긍정적으로 표현한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학업형’ 과 ‘직업형’ 청소년 이었다. 9명의 청소년이 “그냥 평범했어요.”, “친구 관계는 그냥 그럭저럭” 이라고 응답하여 평범한 관계를 보였고, 이 중 ‘학업형’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른 7명의 청소년은 “그냥 별로 잘 적응을 못해서.”, “중학교 때는 운동만 생각해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라고 응답하여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 중 ‘직업형’ 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친구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응답한 일부 응답자들은 학교 내의 친구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학교 밖에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린다거나,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①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

“다 좋았어요. 분위기도 좋았고...”(11.무업형 남성 김OO)

“잘 지냈어요. 지금 친구들도 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거든요.”(14.직업형 여성 노OO)

“제가 약간 중학교 때 소심했어요. 목포에서 드센 애들 옆에 있다 보니까 위축되기도 했는데 서울 애들이 약간 부드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를 펴고 서울에서 생활하게 됐고 그래서 반 친구들이랑도 친하고 옆 반 친구들이랑도 친했던 것 같아요.”(2.학업형 남성 김OO)

②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저는 학교 친구들보다는 원래 중학교 때 어울리던 애들이 있어서 개네랑 지금까지도 계속 놀아서, 학교 애들이랑은 별로 안 놀고... 학교 안에서는 어울리는데 학교 끝나고 학교 후에는 안 어울려요. 원래 보통 학교 끝나고 노래방가고 당구장 가고 그러는데 저는 따로 만나는 애들이 있으니까 개네들이랑만 놀고...”(29.직업형 남성 정OO)

“중학교 때는 운동만 생각해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학교 끝나면 바로 체육관에는 가서 운동했어요.”(4.직업형 남성 이OO)

“고등학교 친구들이랑은 잘 안 놀았어요. 재미가 없었어요.”(27.무업형 여성 우OO)

4) 학교를 다니면서 어겼던 규범 또는 규칙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어겼던 규범 또는 규칙에 대해 응답하였으나, 응답한 규범 또는 규칙 위반 정도는 차이가 있다. 무응답을 제외한 19명 중 9명의 청소년이 “복장위반, 귀걸이한 거.” 라고 하여 화장·두발 등 대다수가 화장 및 복장, 두발에 관한 규칙을 어겼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은 치마길이와 화장, 남성은 두발규정 위반에 관한 응답을 많이 하였다. 두발규정을 어긴 남성 응답자의 경우 강제로 머리를 이발당한 경우도 있었다. 다른 7명의 청소년은 “학교를 안간게 어긴거죠.”, “그냥 학교에 잘 안 갔어요.” 라고 응답하여 출결 또는 지각에 관한 규칙 위반의 응답을 하였다. 다른 2명의 남자 청소년은 “오토바이 뒤에 타라고 타고 갔다가.”, “담배 같은 것도 그렇고.” 라고 응답하여 오토바이나 흡연과 같은 비행으로 인한 규칙 위반에 대한 응답을 하였다. 일부 응답자들은 학업중단 시점의 무단결석이나 자퇴의 경험을 가장 크게 규범을 어긴 경험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① 대부분 가벼운 규범을 어긴 정도였다고 응답한 경우

“사소하게 지각하거나 그런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10.무업형 남성 최OO)

“지각, 머리, 복장 정도. 딱히 크게 어긴 건 없어서요.”(29.직업형 남성 정OO)

② 남성의 경우 흡연과 관련한 경험을 많이 언급한 경우

“징계는 담배 때문에 한 번 받았어요.”(20.학업형 남성 조OO)

“흡연, 그리고 중간에 도망가는 거...”(7.무업형 남성 김OO)

시간과 유형은 방과 후 저녁 시간(오후 6시 이후)에 PC방, 편의점, 음식점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 응답하였다.

① 학업형: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경우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안 했어요.”(1.학업형 여성 백OO)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운동을 해서 아르바이트는 안했어요.”(3.학업형 여성 박OO)

“아니오, 자퇴하고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20.학업형 남성 조OO)

② 직업형: 주로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

“학교 6시에 마쳐서 10시까지 하고 4시간짜리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일주일에 3, 4번 출근 했었어요.”(14.직업형 여성 노OO)

“PC방 아르바이트했어요. 6시부터 12시. 솔직히 고칠 수 있는 건 소리 안 들리는 건 고쳐주고요. 카운터 보고 자리 치우는 거 했죠. 부모님이 용돈을 안 주셔서...”(15.직업형 남성 박OO)

“촬영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 있어요. 2달 동안 했는데 8번 했어요. 토요일마다 갔으니까...”(25. 직업형 여성 강OO)

아르바이트 유무나 아르바이트를 향한 지향성이 학업지향성과 직업지향성 사이에 개인의 진로선택과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의 경제적 환경의 차이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겠지만 일단 이 부분은 청소년들의 조기 진로지도나 진로상담을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에 고려할 수 있는 요소라 볼 수 있다.

2. 학교를 그만두기 전 생활경험 - 학업중단전반

1) 학교를 그만둔 시기와 계기

학업중단 시 학년을 묻는 질문에 무응답을 제외한 27명 중 21명의 청소년이 “고 3 때요.”, “고1” 이라고 응답하여 고등학생 때 학업중단을 대부분 하였으며, 이 중 ‘학업형’ 과 ‘직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른 6명의 청소년은 “중3”, “중2” 라고 응답하여 중학생 때 학업을 중단하였다. 즉 대부분이 고등학생 때 학교 부적응, 진로 변경, 친구들의 영향, 가정환경

으로 스스로 학업을 중단한 유형과 출석일수 부족으로 인한 학교 측의 자퇴 권고 등의 행정상 이유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업을 중단한 유형으로 나뉜다. 31명 중 9명의 청소년이 “적응도 안 되고”, “딱히 그냥 이유는 없고 학교라는 자체가 싫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응답하여 학교 부적응을 보였다. 또 8명의 청소년이 “운동을 안할거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라고”,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태권도를 배워서 거기서 나중에 태권도로 취업을 하려고” 라고 응답하여 진로변경을 답하였다. 다른 5명의 청소년은 “주변 친구들 영향이 가장 컸어요.”, “주변에서 배정되는 거 보니까 몇몇 애들은 만나게 되는 것 같고, 또 개네들이랑 부딪히기 싫기도 해서요.” 라고 답하여 주변상황의 영향을 답하였고, 다른 4명의 청소년은 “집안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냥 그만뒀어요.”, “저희 집이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학구열이라든가 그런 압박이 되게 심해요.” 라고 응답하여 집안 가정환경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 외 청소년 5명은 “출석률이 좀 안 좋았거든요.”, “40일인가 출석 일수를 못 채워서” 라는 응답을 하여 출결에 관한 문제로 학교 측의 자퇴 권고를 받았다.

특히 직업형에서 주로 자신이 원하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거나 진학한 고등학교가 적성에 맞지 않아 학교를 그만뒀다는 응답이 많았다. 일부 응답자들은 중학교 졸업 이후 대안 교육을 선택한 경우로 스스로를 학업 중단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부적응, 진로변경, 주변상황 영향이나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응답자들은 ‘학업형’이 많았다. 출석일수 부족으로 인한 학교 측의 자퇴 권고 등의 행정상 이유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무업형’ 청소년이 많이 차지하였다.

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업을 중단한 경우

“고등학교 다니다가 여러 번 빠져서 선생님이 너는 다니는 안 되겠다. 기술 학교로 가든 자퇴를 해라고 그래서 그냥 자퇴하기로 했어요.”(8.무업형 남성 이OO)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운동을 했어요. 축구, 저는 특기자로 그 학교에 스카우트 돼서 갔는데 제가 부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술도 여러 차례 하고 몸이 예전 같지도 않고, 여자 축구가 솔직히 비전이 높은 것도 아니라서 접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네가 특기자로 왔으니까 운동을 안 할 거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면 전학을 거의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전학이 안 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담임 선생님이 그러면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3.학업형 여성 박OO)

“ 거기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잘 안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석일수가 다 채워져서 그래서 퇴학을 당해야되는데 자퇴할 기회를 주셔서 자퇴했어요. 바로 퇴학이었어요.”(7.무업형 남성 김OO)

② 학교에 가기 싫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스스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딱히 그냥 이유는 없고 학교라는 자체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일 반복적으로 교복 입고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 등수를 매기고 그 등수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싫었고 다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교복입고 학교 가는 자체가 싫었어요.” (12.무업형 여성 권OO)

“그냥 부모님이랑 상의하다가 저는 원래부터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지 않았고 엄마가 중학교 때만 다녀봐라, 고등학교 때 보자고 그래서 참고 다니다가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이유를 못 찾았어요. 필요성을 못 찾아서...” (25.직업형 여성 강OO)

③ 대안 교육을 선택한 경우

“학교를 그만둔 적은 없어요. 제가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을 안 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일반 고등학교로 가면 애들을 또 만나잖아요. 몇몇 애들을 만나니까 또 개네들이랑 부딪히기 싫기도 하고 또 놀림거리가 되기 싫고, 돈보스코 직업 전문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방송통신고등학교도 병행 학습을 한 거예요.” (22.학업형 남성 이OO)

“부모님은 대안 학교에 가기를 원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의 권유로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다가 그만 두는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저는 더 많이 경험하고 그냥 더 많이 배우고 싶은 욕심에 그만 두게 된 것 같아요. 학교를 그만 두는 건 사람들이랑 다른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23.학업형 여성 박OO)

④ 적성에 맞지 않아 학교를 그만둔 경우

“1학년 때 잘 다녔는데 2학년 때 그렇게 된 게 2학년 때 디자인과 들어갔거든요. 그 학교 들어간 이유도 디자인과 때문에 들어갔는데 가르치는 게 다 재미가 없고 시시하고 그래서 그만 둔 이유가 컸어요.” (14.직업형 여성 노OO)

“주된 이유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체대 쪽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원치 않게 지원 날짜를 잘못 알아서 어쩌다 보니까 인문계로 들어간 거고 인문계로 갔다가 적응을 못해서, 그리고 내가 체고 쪽으로 가는 것보다 일을 하면서 돈이 벌고 싶다는 욕망이 커서 자퇴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자퇴를 하게 됐습니다.” (13.직업형 남성 김OO)

결론적으로 학업형 4명, 직업형 3명, 무업형 2명의 청소년이 학교부적응 현상을 보였다는 사실, 그리고 학업형의 경우 역시 다수가 진로변경을 위해 중단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도권의 공교육이 학생들의 진로성향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성향에 부합하는 교육체계의 변화가 요구되어진다.

2)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 측 반응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 측 반응을 자퇴를 소극적으로 만류하거나 방치한 경우, 자퇴를 적극적으로 말렸던 경우, 자퇴를 권고하였던 경우로 나타났다. 특히 31명 중 14명의 청소년은 학교의 적극적 설득이나 대안제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못하게 설득한건 아니었어요. 다른 기관에 상담을 추천해 주시지도 않았구요,” “별다른 상담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응답하였는데, 그 중 학업형 7명, 직업형 4명, 무업형 3명으로 ‘학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1명의 청소년이 “선생님이 계속 다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연락 엄청 많이 왔었고 저희 담임선생님이 저를 잡았어요.” 라고 응답하여 학업 중단 결정에 대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학교 쪽과 상담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음에도 자신의 결정에 이미 확신이 있어서 학업을 중단했다고 응답한 경우 ‘직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른 6명의 청소년은 “솔직히 저는 자퇴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학교를 다니고 싶었는데 학교 측에서 그런 거니까,” “권유를 한 거죠.” 라고 응답해 오히려 학교 측에서 학업 중단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자퇴를 소극적으로 만류한 경우

“그렇지는(계속 다니라고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반 애들이 승현이 학교잘 다녔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저한테 학교 잘다니라고 까지는 안하셨던 것 같아요.”(1. 학업형 여성 백00)

“제 기억으로는 따로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잘... (5.학업형 남성 성00)

② 자퇴를 적극적으로 만류한 경우

“연락 엄청 많이 왔었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잡았어요. 소질이 있는데 왜 안 하나? 근데 소질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죠. 거기서 얻을 게 없으니까, 선생님은 너는 재능이 있다고 조금만 더 배우면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해요. 제가 여기서 얻을 게 없는데, 저는 또 고집이 세진 않지만 하나 내가 이거 무조건한다고 그러면 무조건하고, 난 자퇴할 거야. 그러면 자퇴하고...”(14. 직업형 여성 노00)

③ 자퇴를 권고한 경우

“무단결석이 많으니까 선생님들도 퇴학당할 바에는 자퇴서를 내라고 퇴학당하면 안 좋으니까...”(28.학업형 남성 이00)

“선생님이 먼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다 그랬어요. 제 친구들도 같이 고등학교 다녔던 쌍둥이 친구들이 두 명 있는데 그 친구들도 나왔죠. 자기가 감당이 안 될 학생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8.무업형 남성 이00)

학생들의 응답으로 판단해볼 때, 학업중단 시 학교 측 반응은 소극적인 대응 경향을 보인다. 자퇴를 권고한 경우나 소극적 만류를 한 경우 학교 측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청소년들의 입장에선 사전에 학생의 삶의 이력이나 환경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는지 그러한 이해를 토대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취해졌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재능이 있으니 좀 더 배우라고 하거나 자퇴를 권고한 경우에 학생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대화한 후, 대안교육기관이나 직업교육기관 등을 활용하면서 재능이나 관심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학생 스스로 그리고 교사와 함께 탐색하도록 지도했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한다. 따라서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는 무단결석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예방책의 계획,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관심과 필요도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 수평적 관계로의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3) 학교를 그만둘 당시 부모의 반응

학교를 그만둘 당시 부모의 반응은 크게 자신의 결정을 반대하였던 경우, 지지하였던 경우, 무관심한 경우로 응답하였다. 학업중단 시 부모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무응답을 제외한 23명 중 10명의 청소년이 “아버님은 반대하셨죠”, “그냥 무조건 안된다고”라는 식으로 부모의 반대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학업형과 무업형이 많았다. 자신의 결정을 반대하였던 이유는 무조건적인 반대, 학력 단절에 대한 걱정, 미래의 후회에 대한 걱정이었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의 결정을 지지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는 8명의 청소년은 “아빠는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많이 봐주셨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학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부모가 자신의 결정을 지지하였던 이유로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부모들이 이해해 준 점, 학업 중단 이후에 대안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점이다. 다른 6명의 청소년은 “부모님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부모님이랑 따로 떨어져서 살았고요.” 라고 응답하여 부모의 무관심을 표현하였고 이 중 직업형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외 1명은 종교적인 이유로 오히려 부모가 자퇴를 권유했다고 답하였다.

① 무관심한 경우

“아빠는 별 다른 반응 없었어요.”(27.무업형 여성 우00)

“부모님이랑 따로 떨어져서 살았고요.”(17.직업형 남성 김00)

② 오히려 권유한 경우

“부모님이 종교적인 이유로 먼저 일반 중학교 자퇴를 권유함”(23.학업형 여성 박00)

③ 결정을 반대하였던 경우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제가 시험을 아예 안 봤을 때도 무조건 안 봐도 되니까. 학교는 가라고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어요.”(5.학업형 남성 성00)

“말리셨죠. 엄마는 그랬던 것 같은데 네가 선택한 거다. 나중에 엄마 탓 하지 마라. 계속 가기 싫다고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12.무업형 여성 권00)

“아버님은 반대하셨죠. 아버님은 정상적으로 남들처럼 고등학교에 가라, 네가 뭐가 잘라서 하여튼 남들이랑 같은 길을 가라고 했는데요.”(2.학업형 남성 김00)

“제가 워낙 아빠한테 알리기 싫어서 전화 다 거부해놓고 제가 혼자 몰래 가서 도장 갔고 아빠가 도장 찍으라고 했다고 전화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넘어가서요. 원래 부모님 와야 되는데 저는 도장 찍고 제 삶은 알아서 살겠다고 그런 식으로 숨겼어요. 한 달 정도, 그 후에 집을 나가서 또 고 1때 놀던 선배들하고 자취방이 있어서 같이 2주 정도 있다가 아빠한테 연락이 와서 마지막 기회라고 빨리 지금 들어오면 살려준다고 그래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자퇴는 그때 말하고, 사실 자퇴했다고...”(29.직업형 남성 정00)

④ 결정을 지지하였던 경우

“저는 그때 계속 태권도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라서 남들보다 빨리 돈을 버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4.직업형 남성 이00)

“아빠는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엄마도 그렇고... 근데 워낙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도 학교를 거의 안 나가다시피 했으니까, 그걸 부모님도 많이 봐왔고, 그리고 저희 집안이 그런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걸 네가 하고 후회도 네가 하는 거다.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솔직히 제가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막무가내로 자퇴한다고 했으면 말리셨겠죠. 근데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그때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셨어요.”(20.학업형 남성 조00)

전체적으로 볼 때 반대의 경우와 무관심은 모두 자녀의 삶에 대한 부모 중심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녀를 향한 열린 사고보다는 폐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응답자 중 약 30%정도의 부모님이 자녀를 이해해주었다는 점이다. 다만 이 경우 자녀의 성향이 학업보다는 취업 쪽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나, 자녀 쪽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모나 학교가 개인의 진로성향에 대한 관심과 분석이 필요하며, 또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환경이 요구된다.

4) 학업중단 시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 정도

전반적으로 학업 중단 시 학교를 통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거친 것으로 파악되나, 응답자들은 세부적인 명칭은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단순히 상담 등으로만 기억하였다. 많은 경우 가족 외에는 도움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무응답을 제외한 27명 중 13명의 청소년이 “외부상담센터는 가지 않았어요”, “부모님 말고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응답하며 가족 외 도움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그 중 ‘무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도움을 받은 경우는 6명의 청소년이 “그때 제가 의정부시 청소년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었고”, “선생님이 위클래스라고 저희 학교에 상담센터가 있었는데 그 쪽으로 보내서 상담 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응답하여 학교 안에 있는 ‘위클래스’에서 도움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그 다음으로 3명의 청소년은 “상담 선생님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교감선생님과 담임선생님” 라고 응답하여 학교 교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3명의 청소년은 “성당에 수녀님”, “친구나 오빠들, 언니들, 선생님,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라고 응답하여 선배나 후배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았고, 2명의 청소년은 “돈보스코에서 상담은 받았었어요”, “IT학교에

있는 상담사분이 상담을 해주셨는데” 라고 응답하여 입학 예정인 학교에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도움을 받은 정도를 묻는 질문에 무응답을 제외한 7명 중 5명의 청소년이 “도움은 안 됐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응답하여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하였고 다른 2명의 청소년은 도움이 됐다고 답을 하였다. 즉 일부 학생들은 학교 외부의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하였으나 학업중단 시 받은 도움의 실질적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① 학교에서 도움을 받은 경우

“학교에서 자퇴를 하려면 어떤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들었어요. 그 상담을 받고 절차를 밟아야 자퇴가 된다. 그래서 상담 받고 자퇴했죠.”(14.직업형 여성 노OO)

“선생님이 위클래스라고 저희 학교에 상담 센터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보내서 상담 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달 정도.”(5.학업형 남성 성OO)

② 학교 외부의 기관에서 도움을 받은 경우

“제가 직접 IT 학교를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방문 상담 받았어요. IT 학교에 있는 상담사 분이 상담을 해주셨는데, 그 상담사 분들이 예상 외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상담하러 온 건데 굳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뭐가 좋다는 게 아니고 저희 학교가 아니더라도 IT는 미래에도... 저희 학교에 와야 된다는 식이 아니라서 많이 참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2.학업형 남성 김OO)

③ 학업중단 시 도움을 받은 경험에 대한 도움 정도

“복지사는 그냥 일하러 왔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특별히 기억 남는거 없어요.”(19.학업형 남성 윤OO)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고 배울 게 없으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이 시간에 공부를 더 하면 더 했거나 아니면 돈을 벌었으면 돈을 벌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 있는 시간 자체가 그냥 시간 낭비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우는 것도 없이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벌면 통장으로 들어오고 학원에 가서 전문적으로 배우면 지식이라도 쌓일 텐데 여기서는 배울 것도 없고 시간만 때우고...”(14.직업형 여성 노OO)

결론적으로 단순한 상담에서 탈피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질적인 상담을 위한 환경구축이 필요하고, 학업 중단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5) 학업중단 시 생각했던 목표/계획

학업중단 시점에 학교를 그만두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나 목표를 따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학업 중단 시 가졌던 목표로는 첫째, 무응답을 제외한 30명 중 12명의 청소년이 “당장은 잘 놀러 다니자.”, “힘들어서 지금이라면 안하겠지만 제가 그때 어려서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라고 응답하여 학업 중단 이후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오로지 휴식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했다. 이러한 반응은 ‘학업형’ 과 ‘직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둘째, 10명의 청소년이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직업 학교에 가려고 했죠.”, “직업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금영 쪽이나 이렇게 빠지니까 그때 목표가 바뀌었죠.” 라고 응답하여 진로변경을 이유로 답을 하였다. 셋째, 5명의 청소년은 “검정고시 따는 것”, “일단 검정고시부터 봐야 되니까 공부를 하겠다.” 라는 응답에서 학업을 중단한 직후 일단 검정고시를 먼저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검정고시를 이후 수능 및 직업을 위한 준비 단계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3명의 청소년은 “경험 같은거 다른거.”, “돈을 벌고 일을 하는거 였습니다.” 라고 응답하여 아르바이트 또는 일을 하고자 했던 응답자들은 돈을 벌고자 하는 목표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욕구가 있다. 다섯째, “계속 놀려고 했었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놀자.” 라고 응답하여 그냥 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학업중단 시 계획이 없었던 경우

“그냥 잘 되겠지, 이런 생각만 갖고 무계획으로 나왔어요.”(18.학업형 남성 윤00)

“처음에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 년 정도를 알바를 해서 집을 나올 때쯤 그 돈으로 서울에 가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인생의 목표라든가 앞으로 나는 뭐가 하고 싶든가 옛날에 미술을 했으니까 미술이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정말 부모님하고 따로 떨어져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17.직업형 남성 김00)

② 진로변경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직업 학교에 가려고 했죠.”(2.학업형 남성 김00)

“직업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금영 쪽이나 이렇게 빠지니까 그때 목표가 바뀌었죠.”(4.직업형 남성 이00)

“저는 기계 만지는 기술직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구요.”(22.학업형 남성 이00)

③ 검정고시나 수능 준비

“자퇴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해보자고 검정고시를 고득점을 받아서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에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도 실용 음악과 보컬 쪽으로...”(30.직업형 남성 이00)

“그냥 일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고 싶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대안 학교들은 악기를 중심으로 가르쳐 주고 독서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학교에서 깊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클럽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23.학업형 여성 박00)

“그만 두고 바로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어요. 학교 그만 둔 다음날 바로 검정고시 학원 등록 했어요.”(3.학업형 여성 박00)

④ 아르바이트 또는 일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직은 그때 나이로는 뭐가 하고 싶다가 보다는 이것, 저것 하면서 돈을 벌면서 경험을 쌓고 싶었던 거죠.”(13.직업형 남성 김00)

“하고 싶었던 거는 일만 경험 같은 거 다른 거,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말고 밖에서 할 수 있는 거 다른 경험들 하고 싶었어요. 특별히 관심 분야는 그때 없었고 일만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고 싶었다. 돈 벌고 싶었다. 그런 거...”(8.무업형 남성 이00)

“일단 검정고시부터 봐야 되니까 공부를 하겠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를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검정고시가 애들이 다 쉽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엄마한테는 검정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돈 벌고 아르바이트 비 벌어서 쓰고...”(14.직업형 여성 노00)

⑤ 계속 놀기

“계속 놀려고 했었어요. 친구들과하고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술도 마시고 놀고 싶어서...”(31.학업형 남성 이00)

“제가 아마 자퇴를 했던 것도 많이 놀고 싶다. 나 놀 거야.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도 했기 때문에 1년은 무지하게 피날 정도로 놀았던 것 같아요. 놀고 또 어떠한 분들을 만나고 원하는 계통 쪽 사람도 만나고...”(30.학업형 남성 이00)

“아예 안 했어요. 약간 학교 다니는 것도 귀찮고 집에서 놀 수 있으니까 솔직히,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놀자.”(24.학업형 여성 문00)

전체적으로 응답자 중 30% 이상이 무계획상태에서 학업을 중단하였으며 다른 학생들도 구체적인 미래의 계획이 있기보다는 단순히 검정고시나 수능준비, 취업 동기를 피력한 것에 불과하며 계속 놓고 싶다는 학업중단자가 여러 유형에 모두 있는 것으로 보아 학업중단자 대부분이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바람직한 미래지향적 학업중단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을 볼 때, 기본적으로 학업중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 그리고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학업 중단 이후 청소년들이 찾아와 주길 기다리는 소극적 전략보다 학업중단 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 상담하고 함께 설계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6) 학업중단 직후 불안하거나 힘들었던 경험 여부

학교를 그만둔 직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었다는 응답과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응답이 혼재하였으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무응답을 제외한 27명 중 17명의 청소년이 “그 때는 너무 신났어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라고 불안이 없었다고 답하였으며 그 중 ‘학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경우, 학교로부터 해방감, 생활의 자유로움이 좋았고, 학력이나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10명의 청소년이 “그만 두고 한 달 정도는 방황했었죠.”, “있었죠.”라고 응답하여 불안이 있었다고 답을 하였으며 이 중 ‘무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미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의 부재, 또래 친구들과 다른 생활에 대한 걱정, 학벌에 대한 고민 등으로 불안했다고 응답했다.

① 불안했다는 경우

“그만 두고 한 달 정도는 방황했었죠. 막상 하고 나니까 진짜 할 게 없으니까. 제가 바로 자리를 못 잡는 거죠. 이것도 하고 싶는데 해보려고 하니까 또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이 별로 없어서 뭔가 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거죠.”(11.무업형 남성 김OO)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FM적인 성격으로 당연히 이 길을 밟아보고 앞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거든요. 지금까지 그 선택이.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알 수 없는 세계잖아요. 거는 한 번도 학교를 그만 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23.학업형 여성 박OO)

② 불안하지 않았다는 경우

“그때는 너무 신났어요. 뭔가 해방된 느낌. 감옥에서 딱 나온 느낌. 미용고가 자유로워도 예를 들어 좋은 감옥 느낌이었다면 아예 나오니까 거니까 뭔가 좀 더 새롭고 날아갈 것 같았어요.”(7.무업형 남성 김OO)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학교 다니는 게 저한테는 너무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학교로부터 자유롭게 제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으니까...”(10.무업형 남성 최OO)

“별로 긍정적이라서 그냥 별로 별 생각 없었어요. 모든 방면에서 다, 학교 자퇴해서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가 학력, 학벌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림 쪽은 솔직히 학력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학력을 따지도 드는 성격이 아니라서...”(29.직업형 남성 정OO)

응답자 중 다수가 단순히 ‘신났다’ 라고 표현하는 걸 보아서, 청소년들의 행동이 다분히 감성적이며 충동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불안하지 않고 방황했다는 응답을 한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이 학업중단을 하지 않고 학교 내에서는 평안했을 것으로 가정하기는 어렵다. 정말 그랬다면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충동적인 유형”과 “불안정한 유형”으로 구분이 된다. 이들 모두 공교육제도를 통하여 이들에게 삶의 비전과 희망을 주는 데 실패했음을 드러내준다.

3. 학교를 그만 둔 후 일반적인 생활 경험

1) 기상/취침 시간

기상 시간은 응답자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응답을 제외한 28명 중 20명의 청소년이 “아침에 7시 반 정도”, “7시”라고 응답하여 학업/직업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등교 및 출근 시간에 맞춰 오전 기상을 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학업형’ 청소년이 많았다. 또 8명의 청소년이 “대략 3시쯤에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면 12시.”, “늦게 일어나면 2, 3시.” 라고 응답하여 11시~15시 정도의 늦은 오후 기상을 답 하였는데, ‘무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대 근무 등의 특성으로 인해 불규칙하게 기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취침 시간은 기상 시간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규칙적이고 이른 기상을 하는 응답자는 대부분 오전 1시 이전에 취침하지만, 기상이 늦은 무업형의 경우는 오전 3~4시 경에 취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주요 일과에 영향을 받아 일찍 기상하는 경우

“8시 20분 , 출근 시간이 10시니까 8시 20분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거죠.”(14.직업형 여성 노OO)

“아침 7시, 씻고 옷 입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자는 건 12시 정도...”(1.학업형 여성 백OO)

② 늦게 기상하는 경우

“일찍 일어나면 12시, 늦게 일어나면 2, 3시, 자는 건 새벽 3~4시...”(12.무업형 여성 권OO)

“오후 3, 4시 기상해서 식사 후 다시 취침, 그 후 저녁 9시나 10시 기상, 아침 8시 정도에 자고...”(8.무업형 남성 이OO)

③ 불규칙하게 기상 하는 경우

“주간 할 때는 7시쯤에 일어나고요, 야간 할 때는 5시 반쯤에 일어나요.”(4.직업형 남성 이OO)

“주간 근무 시에는 아침 7시 반, 야간 근무 시에는 오후 4시.”(19.학업형 남성 윤OO)

결국 기상시간의 바람직함 여부를 떠나 청소년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에 따라 기상시간이 다양하게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식사습관

학업중단 후 하루 일과의 식사시간을 묻는 질문에 무응답을 제외한 20명 중 10명의 청소년이 “하루에 2~3끼는 먹어요.”, “완전 규칙적으로.”라고 응답하여 잘 챙겨먹는다고 답하였으며 그 중 ‘직업형’ 과 ‘무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0명의 청소년이 “하루에 한끼 정도만.”, “그때마다 다른데.” 라고 응답하여 잘 챙겨먹지 못한다고 답을 하였으며 이 중 ‘학업형’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주로 아침을 먹지 않는 성향이 강했으며, 직장을 다니는 경우는 주로 직장에 출근하여 첫 끼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응답자는 형편상 끼니를 해결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을 보였다.

① 아침을 먹지 않는 경우

“첫 식사는 점심쯤에 학원 식당에서, 하루에 한 끼 정도만...”(6.학업형 남성 인00)

“하루에 2끼, 집에서 잘 안 해요. 대부분 밖에서... 일할 때는 6시쯤 끼니를 그냥 한가할 때 먹고 일을 만약에 쉬면 그냥 아침, 점심은 포기하고 저녁에 애들끼리 만나서 밖에서 게임방에 있는 라면이나 볶음밥 같은 거나 밖에서 식당 같은 곳에서 먹죠. 간단하게... 새벽쯤 배가 고프면 편의점에 가서 먹을 걸 사서 먹고 자고 그래요.”(11.무업형 남성 김00)

② 직장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

“아침은 안 먹고요. 점심은 여성회에서 같이 먹고요. 주로 사먹고 그 다음에 저녁은 퇴근을 하면서 집 앞에 김밥 천국이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도시락이 잘 나오기 때문에 주로 사서 들어갑니다. 사서 먹어요.”(17.직업형 남성 김00)

“아침은 잘 안 먹어요. 거의 아점... 정해진 건 아니고 언니랑 저랑 너무 비가 고프면 간단하게 거기 있는 빵을 먹으면서 해결하고 사장님이 점심시간에 주로 오세요. 그러면 사람이 한 명 더 생기니까 저희끼리 구내식당에 갈 때도 있고 다 같이 거기서 만들어서 먹을 때도 있고.”(25.직업형 여성 강00)

③ 식사 해결이 부담스러운 경우

“1시까지 편의점으로 가요. 편의점에 가서 3, 4시쯤 편의점에 폐기가 나오거든요. 그 폐기로 밥 때우고... 밖에 아무 데나 가서 밥 먹거나 아니면 돈 없으면 밥 안 먹고 집에 가서 자고 다음 날 일어나서 똑같이 편의점에 가서 폐기 먹고... 저녁 알바하는 데는 거기는 식비 자체가 안 나오고 이런 것도 없어서 밥 안 먹어요. 배고파도 어쩔 수 없죠.”(16.직업형 여성 배00)

식사를 규칙적으로 잘 챙겨 먹는 경우는 ‘직업형’ 과 ‘무업형’이었다. 또한 응답자 중 50%가 식사를 잘 챙겨먹지 못한다는 사실은 가정의 경제적 형편 역시 학업중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나아가 그 중 학업형이 많다는 점은 학업에 대한 마음이 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학업에 대한 실질적 의지가 있는 학생에 대한 정부지원의 절실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3) 여가활동

여가활동은 응답자 유형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무응답을 제외한 25명 중 12명의 청소년이 “PC방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일주일에 PC방은 2, 3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라고 응답하여 게임 또는 핸드폰 사용으로 여가시간을 많이 보냈다. 게임방을 언급한 응답자 유형 중 ‘무업형’ 남성 응답자가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8명의 청소년이 “근데 보통 저희 집으로 많이 와요.”, “쉬고 집에 있었어요.” 라고 응답하여 집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카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형’ 여성 응답자가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5명의 청소년은 “운동 가끔씩 하고요. 축구 하러 나가고,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공부모임이나 독서 모임” 이라고 응답하여 외부·단체 활동 중임을 말하였다.

여가활동에서 남성 응답자의 경우 게임방(PC방)을 언급했고, 그 외 주로 집에서 보내거나 노래방, 당구장 등의 외부시설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여성 응답자는 미디어(TV, 스마트폰)에 편중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남성 응답자의 여가 활동

“간간이 게임도 하고 책도 읽고 남는 시간에 약속 있으면 친구들 만나러 가고 일은 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가 시간을 많이... 책은 소설책. TV는 가끔 요즈음 유행하는 오버워치도 하고, 웬만한 게임은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게임을 골고루, 친구들이랑 새벽에 PC방에 가기도 하고 술도 먹고 그냥 놀려고 만나는 거죠.”(28.직업형 남성 이00)

“주로 나가 있거나 나가서 약속이 없으면 집에 주로 있는 편이고요. 집에서 TV나 핸드폰이나 PC를 하는 정도고... 컴퓨터는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주로 게임을 하는 편입니다. 총게임이나 아니면 리듬, 여러 가지 가리지 않고...장기로는 게임을 잘 못해서 단기적으로, 오버워치나 서든어택. 친구를 만나면 주로 날마다 다른데 가끔씩 게임방 갈 때도 있고 아니면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러 가거나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게임방에 자주 가는 편은 아니라서 밥을 먹거나 술을 먹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3.무업형 남성 김00)

② 여성 응답자의 여가 활동

“집에서 TV 보는 거, 할머니가 시장 가자고 그러면 시장가고... 그 다음에는 친구랑 카톡하고 그 다음에 할 거 없는데...TV는 예능이나 그런 거 봐요. 저녁 먹은 다음에는 그냥 할머니하고 놀아요. 평일에는 할머니랑 나가고 토요일에는 남친이 일 끝나고 부르면 나가고...”(9.무업형 여성 김00)

“TV 보다가 엄마랑 같이 저녁 요리하고 공부하다가 자요. 약간 탭으로 영화나 사극 드라마, 일본 영화, 일본어랑 요리 좋아해요.”(24.학업형 여성 문00)

4) 이행경로별 주요 활동

가. 학업형

학업형 응답자들은 대부분 학업 관련 활동을 주로 진행하고 있었다. “집에 와서 인강 듣고 책 좀 보다가 자요.”라고 응답하여 학교, 학원을 다니는 주 활동 외에도 과외로 자격증 공부나 시험 준비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연합 동아리니까 다른 저희 구역에 있는 캠퍼스들끼리 모여서 놀기도 하고”라고 응답하여 동아리 활동을 통해 관심사를 발전시키거나, 본인의 취미를 탐색하거나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일부는 “고양시 탄현동에 청소년 별카페라고 있어요”, “청소년 복지 센터에 있는 동아리예요.”라고 응답하며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센터에서 활동을 한 경우도 있었다.

① 학업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경우

“6시에 일어나서 학원 갔다가 집에 나중에 밥 먹고, 자고... 수업이 8시 40분이라서 제가 좀 일찍 가서 공부를 하거든요. 수업은 제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듣고 4시쯤 끝나고 집으로 오거든요. 집에 와서 인강 듣고 책 좀 보다가 자요.”(5.학업형 남성 성OO)

② 동아리 활동을 통해 관심사를 발전시키는 경우

“그러니까 그 동아리가 되게 복잡한데 제가 약간 리더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후배들 케어하고 얘기 듣고 회의 임원진 회의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만나서 놀기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연합 동아리니까 다른 저희 구역에 있는 캠퍼스들끼리 모여서 놀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10.학업형 여성 백OO)

③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센터에서 활동한 경우

“평일에는 고양시 탄현동에 청소년 별카페라고 있어요. 거기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프로그램 같은 걸 했었어요. 거기도 학교 밖 청소년 그런 애들이긴 한데 주로 그런 애들을 뽑는 거라고 들었는데 개네들 학교를 다녔어요. 일반 학교를, 저만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저만 일반고에 안 다니는 애 중에 하나였고 하여튼 거기서는 밴드 활동이랑 인문학 사진이랑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을 들었었어요. 일주일에 토요일에 한 번씩 가서 들었고...”(22.학업형 남성 이OO)

“주말은 한 달에 1번 동아리가 있어서 한 달에 1번 정도 가고 병원에 다니고 있어서 병원에 가기도 해요. 또래 상담 동아리라고 고양시 청소년 복지 센터에 있는 동아리예요. 그 동아리가 또래를 상담하는 그런 건데 요즈음 하는 거는 동아리 구성원들에 대해서 좀 더 친해지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또 상담을 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어요.”(23.학업형 여성 박OO)

학업형의 주요 활동 상황을 보면, 자율성이 부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듣는 경우’ 나 스스로 원해서 다양한 외부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학교교육의 방향이 무엇보다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제도권 공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나 또는 그것이 어려울 때는 다양한 대안학교의 제도권 유입을 통해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직업형

직업형 중에서 단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영어 공부는 계속 하고 있어요. 워킹 홀리데이 가는 거에 관심 있어서”라고 응답하며 직업 활동 이후에 주로 자신의 취미나 자기 계발을 위한 활동을 병행하였다. 반면에 “알바하면서 돈 번 거 다 쓰고 뭘 배우고 싶다는 생각보다 온전히 내 돈을 벌어서 쓰고 싶다.”라고 응답하여 본인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직업 활동 외에는 대부분 시간 소비형 여가를 보내는 모습도 보였다. 직업을 위한 학원을 다니거나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로 인권 관련된 도서를 읽고 공부를 하죠”, “학원에서 과제 이런 거 기술 관련된 걸 많이 복습하죠.”라고 응답하였는데 해당 직업 관련 부가 학습 활동을 직업 활동 이후에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단순 아르바이트: 취미 또는 자기 계발 활동을 하는 경우

“영어 공부는 계속 하고 있어요. 워킹 홀리데이 가는 거에 관심 있어서... 인터넷으로, 그리고 친구들도 어떤 방식으로 수업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곳에서 저렴한 곳을 찾아보는 식으로...”(25. 직업형 여성 강00)

② 단순 아르바이트: 시간 소비형 여가활동만 지속하는 경우

“뭘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어릴 때는 진짜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진짜 부유했는데 원래 가난한 사람이 잘 살게 되면 그런 게 없을지 몰라도 잘 살던 사람이 못 살게 되면 상실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자퇴하고 나서 완전 고삐가 풀린 거죠. 알바하면서 돈 번 거 다 쓰고 뭘 배우고 싶다는 생각보다 온전히 내 돈을 벌어서 쓰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어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어요.”(14. 직업형 여성 박00)

② 지속적으로 학습 분야를 변경한 경우

“학원은 일주일에 2번이고요. 하루에 1시간 과외처럼 하고 와요. 학원 가는 시간은 5시구요. 학원에서 배운 기타 연습하고, 보컬 연습이요. 음악은 학교 다닐 때부터 꾸준히 조금씩 배웠었어요. 어릴 때는 피아노 배웠고 학교 다닐 때는 기타, 베이스 배웠고 지금은 기타랑 보컬 배우고 있어요. 집에서 악보 보고 피아노 연습 했었고요. 사실 보컬은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노래 부르고 하는 게 부끄러워서 안 배웠었는데 이제는 그냥 잘 하고 싶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컬을 배우기 시작한 거고 기타도 더 쳐보고 싶어서... (10.무업형 남성 최OO)

커피숍 2층 바리스타 학원에서 배웠어요. 쿠팡에 싸게 떠서 아빠가 해보라고 해서 제가 커피 같은 것도 좋아할 수 있으니까 흥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해봤는데 별로라서 자격증까지는 안 따고 그냥 수료만 했던 것 같아요. 3개월 과정이에요.”(10.무업형 남성 최OO)

무업형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족의 병간호와 같은 집안 사정으로 인해 삶 대부분을 포기하게 된 경우이다. 이 경우 정부가 간호를 대체해주고 청소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삶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역시 소극적 수동적 관리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5) 최근 1년 동안 새로 시작한 것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 11명 중 4명의 학업형 청소년은 “강의수강 중”, “중국어 공부, 영어 공부 시작” 이라고 응답하여 공부나 학원을 다니며 주로 학업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 것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직업형 4명은 “나가서 돈이나 벌라고 해서 이렇게 된거죠”, “퀵서비스 일 시작”이라고 응답하여 단순 아르바이트의 직종 변화부터 직업 관련 학습까지 직업과 관련된 변화가 많았다. 학업형 1명, 직업형 1명의 청소년은 취업 및 창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무업형 청소년 1명은 “매니큐어 바르는 거” 라고 답하여 이전과 동일하게 진로를 확정하고 있지 못하여 새로 시작한 것이 없이 취미 생활을 하고 있었다.

① 학업형: 최근 1년간 변화

“2월 IT 관련 직업학교 졸업, 4월 아르바이트 시작, 6월부터 아르바이트와 병행하며 독학으로 자격증 공부 중.”(2.학업형 남성 김OO)

“올해부터는 중국어 공부와 영어 공부를 새로 시작했어요.”(23.학업형 여성 박OO)

② 직업형: 최근 1년간 변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원 다니기 시작함, 여러 가지 준비를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28.직업형 남성 이00)

“첫 직장과 현재 직장은 직종이 달라졌죠. 작년에는 기술 쪽으로 했는데 올해는 그냥 컴퓨터 쪽으로 직종을 변경 했습니다.”(26.직업형 남성 이00)

“집에 돈 안 주다가 준 거. 맨날 돈돈 거리니까 (옛날에는) 학교 다니니까 안 드린 거고, (지금은) 학교를 안 다니니까 드리는 거죠. 너 학교 안 다닐 바에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돈이나 벌라고 이렇게 된 거죠.” (16.직업형 여성 배00)

③ 무업형: 최근 1년간 변화

“매니큐어 바르는거.” (12.무업형 여성 권00)

공통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구체적인 목표지향성이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자기계발 교육 및 진로체험 등이 요구된다.

6) 최근 1년 동안 새로 그만둔 것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 7명 중 3명의 청소년이 “검정고시 공부 했었는데 안하고 있어요”, “컴퓨터 그래픽 학원 그만 둬” 이라고 응답하였고, 다른 3명의 청소년은 “킥복싱 하다가 그만둬”, “직장을 그만둬” 이라고 응답하여 공부와 학원, 운동, 직장, 학원, 인간관계 등이며, 결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무엇을 그만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무업형 청소년 1명은 생활 개선을 위해 게임을 그만 두었으며, 공통적으로 방향성 없이 일시적인 몰입과 중단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① 운동, 학원 등 공통적 중단 경험

“킥복싱 하다가 그만뒀어요, 수능 준비 할려고...”(5.학업형 남성 성00)

“컴퓨터 그래픽 학원 그만 둬, 다른 선생님께서 수업을 들었는데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아서...”(27.직업형 남성 우00)

② 게임을 그만둔 경우

“게임(서든어택), 게임은 원래 했었는데 이제 안 해요. 그냥 게임 시간도 아깝고 시간이 제일 아깝고... 이게 딱 소년원 갔다 나와서, 소년원 안에 있어도 시간 아깝다는 생각을 이제 애들도 다 20 살이고 20살 다 돼 가는데 안에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나가면 시간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게임으로 시간 낭비를 제가 많이 해서 게임을 안 하기도 해서 몇 달 전부터 게임을 끊었어요.”(31.학업형 남성 이OO)

③ 학업 또는 직업을 그만둔 경우

“2015년 백화점 의류 판매를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2016년 3월 직원으로 전환했지만 그만 둬, 좀 쉬고 싶었어요. 휴식이 필요해서... 쉬는 게 없다는 게 지쳤어요.”(8.무업형 남성 김OO)

“작년 여름 간호 학원 다니다가 중단... 그냥 할머니가 진료 잘 할 것 같다고 따라고 해서 딴 것뿐 인데... 네일아트 학원도 다니다가 중단... 기간이 끝나서...”(9.직업형 남성 이OO)

7) 최근 1년 직업형태 전환 여부

직업 형태에 대한 전환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3명 있었으나, 1명은 “아침에 일찍 9시까지 오라고 그러면 무조건 9시까지 가야 돼요.”라고 응답하여 휴식을 가질 시간이 부족하여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답 하였다. 다른 1명은 “기본 시급이 8,000원이라서 시급도 세고 4대 보험도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니까”라고 답하여 현재 장애인 시민단체 관련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대한여성회(시민단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1명은 “돈보스코에서는 원래 PPI라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 금영 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었는데”라고 응답해 돈보스코 직업훈련 이후 파이프 회사에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①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저는 한달 놀면서 쉬었고 그 다음에 백화점 아르바이트 같은 거 10월 달부터 잠깐씩 했어요. 거 기는 아르바이트랑 직원까지 포함하면 1년 조금 안 되게 했어요. 그게 처음에 들었을 때 백화점이라고 해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가서 했어요. (정직원은) 면접 보고 붙으면 하는 거고... 그냥 꾸준히 월급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근무도 더 길고요. 백화점에서 뭔가 특별히 상황을 내리면 아침에 일찍 9시까지 오라고 그러면 무조건 9시까지 가야 돼요.”(8.무업형 남성 이OO)

① 고등학교 졸업장의 필요성

“고등학교 졸업장. 할머니가 저를 싫어하세요. 사촌들은 전부 다 학교 잘 다니고 졸업해서 대학교 까지 갔는데 네 인생은 왜 이러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엄마, 아빠 이혼하셔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너 우리 집에 살지 말고 엄마한테 가서 살아라.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가 나오고 마주치면 할머니가 화를 내요. 이럴 바에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으면 할머니가 화를 덜 내실까 해서 간 것 같아요.”(16.직업형 여성 배OO)

“검정고시는 따라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학교는 제대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계획은 딱히 없었는데 고등학교는 제대로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19.학업형 남성 윤OO)

② 주변의 권유로 인한 검정고시 준비/경험 이유

“그게 자퇴하면서 검정고시는 보라고 부모님하고 얘기를 했던 거고 고등학교 졸업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봤던 것 같아요. 그건 다 주변 환경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생각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다 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10.무업형 남성 최OO)

“전문적으로 저는 운동 특기자로 그 학교에 스카우트 돼서 갔는데 제가 부상이 많았고, 몸이 예전 같지도 않고, 여자 축구가 솔직히 비전이 높은 것도 아니라서 접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네가 특기자로 왔으니까 운동을 안 할 거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했어요. 고 2때는 전학을 받아주는 학교가 별로 없는데, 그 때 담임 선생님이 검정고시를 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3.학업형 여성 박OO)

③ 대학진학을 목적

“부모님 때문에 검정고시를 본 건 아니고 봐야되니까 보긴했는데 그런거죠. 엄마 한테도 땃땃해야 되고 어차피 대학도 가야되니까 ”(1.학업형 여성 백OO)

2) 검정고시 준비 기간 및 방법

검정고시 준비기간 및 방법은 응답자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6개월 이내로 검정고시 준비를 했으며, “학원에 가면 한 달 전에 딱 집어주는 게 있는데”, “시내에 학원이 있더라고요.”라고 답하여 주로 학원에서 시험을 준비 하였다.고 답했다. 학원을 다니지 않고 인터넷, 문제집 등을 이용한 응답자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기출 문제집 사서

그거 풀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교재 있었던 걸 받았어요. 받아서 보기는 봤죠”라고 응답하였고 준비 기간이 1달 이내로 짧았다. 독학을 했다고 응답한 유형 중에는 ‘직업형’ 청소년이 많았다. “그냥 청소년 회관 가서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어요.”라고 응답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센터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한 응답자가 1명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다니지는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①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한 경우

“작년 8월 전에 7월에 검정고시 학원에 가면 한 달 전에 딱 집어주는 게 있는데 딱 그것만...”(21. 학업형 여성 김OO)

“시내에 학원이 있더라고요. 저 혼자 하기에는 너무 대책이 없고 공부도 안 하게 될 것 같아서 학원도 알아 보려니까 또 시내 같은 곳은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30.직업형 남성 이00)

② 인터넷, 문제집 등을 통해 혼자 준비한 경우

“준비는 그냥 인터넷에서 기출 문제집 사서 그거 풀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문제집 풀면서 기출 문제집을 봤는데 되게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출 문제만 풀었던 것 같아요. 기출 문제집 한 권 풀었던 것 같아요.”(10.무업형 남성 최00)

“준비 안 했어요. 교재를 받았었어요. 아는 오빠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봐서 그 교재 있었던 걸 받았어요. 받아서 보기는 봤죠.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체육, 이런 거랑 보고 싶은 거만.”(16.직업형 여성 배00)

③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센터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한 경우

“양산 청소년 문화회관. 그냥 청소년 회관 가서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다녔어요. 그냥 2주 갔다가 안 갔다가 이런 식으로 잘 안 갔어요. 총 한달 반 정도 못 일어나서 못 갔어요.”(7.무업형 남성 김00)

3) 검정고시 합격 여부

검정고시 합격 여부는 응답자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학교 졸업 후, 그 해 8월에 본 검정 고시 시험에서 바로 합격했어요”, “1년 정도 준비하고 그 다음해에 합격했어요”라

고 응답하였으며 대부분 학업을 중단하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1번에 합격했다. 합격을 했다고 한 응답자 중 ‘직업형’ 청소년이 많았다. 일부 ‘부분 합격’이나 불합격을 경험한 응답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부분 합격이라고 해야 되나.”, “못 따라 가겠더라고요.”라고 답하였고 대체로 검정고시 난이도에 대해 쉬운 편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열심히 준비하지 않아도 붙을 수 있는 정도였다는 응답이 지배적이다.

① 한 번에 합격한 경우

“중학교 졸업 후, 그 해 8월에 본 검정 고시 시험에서 바로 합격했어요. 100점 만점에 94점 나오더라고요.”(2.학업형 남성 김OO)

“이번에 봐서 합격 했어요. 합격하면 포상 휴가 같은 것도 받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서 봤는데 간이라도 보려고 봤는데 붙었어요. 이번에”(29.직업형 남성 정OO)

“1년 정도 준비하고 그 다음해에 합격했어요. 학원에 아침 9시에 가면 1시에 끝나요. 그리고 바로 도서관에 가서 거기서 8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태권도 학원 갔다가 집에 오고 그랬어요. 그냥 혼자 앉아 있는 연습부터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졸이 쉼시고 나가고 싶고, 근데 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니까...”(3.학업형 남성 김OO)

② 부분합격 또는 불합격한 경우

“딱 한 번 시험 본 적 있음, 부분 합격이라고 해야 되나...”(16.직업형 여성 배OO)

“2번 다 떨어지고 나서, 혼자 해보려고 학원 다녀봤거든요. 한양 학원이라고 검정고시 전문 학원이 있어요. 동네에 있길래 등록해서 다녔는데요. 못 따라 가겠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못 따라 가서 한 달 정도 하다가 그만 두고...지금도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 왔어요.”(7.무업형 남성 김OO)

4) 검정고시 관련 도움 준 사람

검정고시 관련 도움 준 사람은 응답자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응답자 중 절반은 “도움을 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죠.”라고 응답하여 도움 준 사람이 특별히 없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도움 준 사람이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늘푸른 전당이라고 거기서 검정고시 시험 강연 같은 거”, “사모님이 많이 봐주셨어요.”라고 답하여 부모(어머니), 지인, 기관, 친구라고 응답했다.

① 도움을 준 사람이 없는 경우

“학원 비는 어머니께서 내주셨어요. 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냈어요. 어머니가 먼저 내 주고 제가 일해서 다시 갚았어요. 도움을 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28.직업형 남성 박OO)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죠. 부모님은 그냥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고,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잘 할거다. 무관심한 건 아니고 잘 할거라고 그랬고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했으니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16.직업형 남성 이OO)

②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 경우

“늘푸른 전당이라고 거기서 검정고시 시험 강연 같은 거, 시험 기출 문제 같은 거 한 번인가 두 번 갔어요. 복지 법인 그런 게 있어서 거기서 했는데 1, 2번 가다가 귀찮아서 안 갔어요.”(18.직업형 남성 곽OO)

“있어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검정고시는 과목 하나가 일정 점수를 넘어야 되니까 영어 때문에 합격을 못할 것 같아서 그러면 내년 4월에 또 봐야 되니까 엄마가 영어 과외를 하자고 그래서 과외를 알아보다가 교회 사모님이 자기가 무료로 해 주겠다고 그래서 검정고시 책 가져가서 사모님이 많이 봐주셨어요.”(1.학업형 여성 백OO)

“친구. 개도 검정고시를 봐야 돼서 같이 보러 갔었거든요. 같이 준비했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있고 같이 문제 내주고 그래서 부분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국어, 사회, 암기 과목을 진짜 못해요. 국어도 진짜 못하겠는데 친구 때문에 국어 합격하고 체육이랑 이런 것도 내가 문제가 없었는데 친구가 문제를 줘서 합격하고...”(16.직업형 여성 배OO)

이행경로와 상관 없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3가지 이유, 즉 첫째, 고등학교 졸업장의 필요성, 둘째, 주변의 권유 그리고 셋째, 저학력에 대한 사회적 시각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5. 학교를 그만둔 후 대학생활 경험

1) 대학 진학 이유

대학에 진학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하고 싶어서”,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라고

응답한 것과 같이 본인이 생각한 진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경우이고, 둘째는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나중에 되게 후회될 것 같아서요. 대학에 안 가면”이라고 응답한 것처럼 앞에서 서술한 검정고시와 마찬가지로 저학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생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스승님의 권유도 동기가 되었어요”, “개가 가니까 저도 가야겠다고.”라고 응답하여 본인의 선택이 아닌 주변의 권유가 있었다. 다만, 저학력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부담스러웠다 할지라도 대학교 또는 학과는 본인의 진로와 연결 지어 진학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을 진학했다고 한 응답자 중 다수가 ‘학업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① 진로를 발전시킬 목적인 경우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게임을 많이 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컴퓨터였어요. 동영상 편집도 다뤄보고 학교 방과후 시스템으로 컴퓨터 프로그램도 다뤄보고 그랬거든요. HTML 이런 것도 알게라도 배웠고, 그래서 이거 할 때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컴퓨터 관련 공부를 하고 싶어서...”(2.학업형 남성 김OO)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때는 청소년 애들을 만나거든요. 그때 보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좋아하는 대상이고 도움이 주고 싶으니까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1.학업형 여성 백OO)

“계기는 따로 없고 제가 그냥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미술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원래 타투 그림을 그리려고 했었는데 부모님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다른 건 다 괜찮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셔서 그냥 그 상태로 바로 입시 준비를 했어요. 대학 가서는 인테리어를 하고 싶었어요.”(18.직업형 남성 곽OO)

② 저학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담스러웠던 경우

“일단 엄마랑 아빠는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원래 저도 대학 생각은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갈까말까 생각하다가 엄마랑 아빠가 가라고 하니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20.학업형 남성 조OO)

“그냥 뭔가 고등학교가 아무래도 검정고시다 보니까 나중에 되게 후회될 것 같아서요. 대학에 안 가면요. 그리고 또 부모님도 권유하셨고 저도 대학에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어요.”(3.학업형 여성 박OO)

③ 주변의 권유 또는 영향이 있었던 경우

“제가 양아버지처럼 모시는 스승님의 권유도 동기가 되었어요. 원래는 공부도 하는둥, 마는둥 했는데 그 분이 그래도 너 이왕 공부하는거니까 열심히 해보고 검정고시 또 떨어지면 또 검정고시 공부해서 대학교를 가라고.”(30.직업형 남성 이00)

“제가 지금까지 연락한 친구는 1명 밖에 없거든요. 걔가 가니까 저도 가야겠다고.”(5.학업형 남성 성 00)

2) 대학 입학 유형

대학 입학 유형은 대부분 수시 전형을 선택했다. 응답자들은 “저는 그냥 일반 학생부”, “검정고시 점수로만 수시 입학했어요.”, “검정고시 합격 후, 수시 응시.”라고 응답하였으며 예체능 계열인 관계로 수시를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능에 대한 부담과 검정고시 점수가 수능등급 점수로 환산되는 부담 때문에 수시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수시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저는 그냥 일반 학생부, 검정고시 점수가 등급으로 환산 돼서 들어가는 거였어요. 수시는 면접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떨어질 거 면접은 많이 보면 좋은 거니까 전형료는 비싸지만 넣어보자고 생각해서 제일 가고 싶었던 충신대에 넣고 그리고 넣고 싶은 학교가 저는 전형료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넣고 대학교 지원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는 넣어볼까, 찾아보다가 아빠가 한영신학교를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딱 가고 싶은 과가 있어서 거기 지원해서 2개 봤죠.”(1.학업형 여성 백00)

“검정고시 점수로만 수시 입학했어요. 제가 운동을 하고 1년 공부를 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저희 학교 성적이 되게 높아요. 수시면 1, 2등급이란 말이에요. 검정고시면 거의 올백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점수예요.”(3.학업형 여성 박00)

“검정고시하고 실기, 면접까지 수시로 한 달 준비했는데 면접을 잘 봐서 합격한 것 같아요.”(18.직업형 남성 곽00)

“검정고시 합격 후, 수시 응시... 저 같은 경우에는 랩을 하는 사람이니까 학교에서 보컬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랩도 하고 화성악 같은 문제 같은 것도 풀고, 그런 것도 하니까 바로 됐죠. 수시가 19살 때 14학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수시 준비는 옛날에 혼자 했던 것도 있고 공부한 것도 있으니까 따로 준비라고 하기 보다는 할 거 했죠. 할 거 하는 게 준비한 거죠.”(20.학업형 남성 조 00)

3) 대학 입학 정보 획득 경로

응답자들은 대부분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입학처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봐서.”, “인터넷으로도 알아봤고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런 게 들어가서”라고 응답하여 대학 입학 정보를 스스로 알아보았으며, 인터넷(네이버, 학교 홈페이지 등)을 주로 이용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획득한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구요,”, “엄마가 다 해 주셔서.”라고 응답하여 부모, 친척, 선생님 등의 도움을 받았다.

① 스스로 대학 입학 정보를 획득한 경우

“모집 요강.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입학처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봐서...”(1.학업형 여성 백 00)

“인터넷으로 여러 IT 계열 학교를 직접 찾아봤어요. 직접 가서 상담사와 상담하기도 하구요.”(2.학업형 남성 김00)

“인터넷으로도 알아봤고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런 게 들어가서 제가 보컬이다. 근데 이 보컬을 더 체계적으로 더 깊이 공부를 해보려고 한다. 근데 대학교를 가려고 하고 있다. 근데 대학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없다.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냐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30.직업형 남성 이00)

②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대학 입학 정보를 획득한 경우

“검정고시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구요, 저도 많이 알아봤죠. 인터넷도 쳐보고 수시 요약된 것도 봤는데 여기 말고도 많이 넣었는데 여기가 제일 높았어요. 좀 유명하고 그래서...”(3.학업형 여성 박 00)

“학원에서 (선생님과) 같이 그냥 인터넷으로 인테리어 디자인과를 찾아보니까...”(18.직업형 남성 곽 00)

“엄마가 다 해 주셔서...”(22.학업형 남성 이00)

4) 대학 또는 학과 선택 이유

대학 또는 학과 선택 이유로는 먼저 대학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개설한 학교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 조건이었고, 그 다음 학교의 인지도, 커리큘럼, 성향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학과의 경우는 본인이 생각하는 진로와의 연관성, 그리고 해당 학과에서 학습하는 것으로 인해 그려지는 미래의 이상적인 청사진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① 학교 선택 이유

“(신학대학교라서) 사람들이 착할 것 같은 느낌, 남자들도 다 착할 줄 알았는데 남자들 다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유아 교육과나 사회 복지로 갈까, 고민을 했는데 보통 아동학과는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하면 1학기나 1년을 더 다녀야 되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커리큘럼은 4년 안에 자격증 2개가 다 나오거든요.”(1.학업형 여성 백00)

“실용음악과 사이에서도 경쟁률은 되게 높은데 할 만한 것 같아서 그냥 썼는데...”(20.학업형 남성 조00)

② 학과 선택 이유

“이름이 멋있었어요. 정보 보안이라고 하면 멋있잖아요. 그것 말고도 게임 기획도 있는데 게임 쪽은 아무래도 남들한테 말하고 다닐 때 좀 그래 보여서, 게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돈도 못 벌 것 같아서 남들 시선을 제가 의식했던 것 같아요. 계속 남들이 보기에 있어 보이는 걸 해야겠다고...”(2.학업형 남성 김00)

“운동 그만 두고 좀 막막했어요. 뭘 해야 될지, 근데 이것도 부모님이 권유를 했어요. 약간 네가 운동도 했고 경찰 시험을 보려고 필기, 실기 시험도 봐야 되니까 이런 전공을 살려서 나가면 어떠냐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냥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좀 꿈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해봐야겠다고 생각 돼서 이 과에 지원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더 좋아서 이쪽으로 가게 됐어요.”(3.학업형 여성 박00)

“그냥 집을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는 게 좋잖아요. 집안은 솔직히 법이 별로, 건축하는 건 법이 많은데 집안은 법이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별로 위법되는 것도 없을 것 같고 외출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을 것 같고...”(18.직업형 남성 곽00)

5) 대학 진학에 도움을 준 사람

대학 진학에 도움을 준 사람으로는 “부모님이 많이 도와 주셨죠.”, “부모님의 존재는 저한테 큰데”라고 답하여 부모와 검정고시 학원 선생님이 언급되었다. 검정고시에서 부모가 도움을 준 형태는 학업적인 측면에 맞춰져 있었던 반면, 대학 진학에 부모가 도움을 준 형태는 정서적인 지지나 경제적인 지지의 측면이 부각되었다.

① 대학 진학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 경우

“딱히 그런 건, 부모님이 많이 도와 주셨죠. 그리고 학원비 지원해 주시고 할 수 있다고 계속 응원해 주시고 입시 보러 갈 때 태워주시고...”(18.직업형 남성 곽OO)

“일단 부모님이 저한테 존재는 큰데 그렇게 많이 의지하고 기대고 싶지는 않거든요. 원래 제 자체가 누구한테 기대는 게 싫어서, 쪽 팔리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됐죠.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뭔가를 계속...”(20.학업형 남성 조OO)

“학교는 수능을 안 보고 점수로만 갈 수 있는 대학이 한정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과가 유명하고 높은 곳을 제가 찾아서 검정고시 학원 선생님들 도움도 받아서 갔어요.”(3.학업형 여성 박OO)

취업과 달리 학업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외부의존적이기 보다 주체성이 높았다. 특히 주변의 시선을 고려하더라도 대학이나 학과는 본인의 진로와 연결 지어 진학한 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다.

6. 학교를 그만둔 후 중고등학교 재입학 청소년 생활경험

1) 학업 복귀 이유

중·고등학교에 재입학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일부는 “교복도 다시 입고 싶은데 나가니까 할 것도 없고”라고 답하여 학업중단 이후 또래 소속감이 사라진 것에 대한 후회로 인해 학교 복귀를 희망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다른 일부는 “선생님들도 퇴학당할 바에는 자퇴서를 내라고”, “방송통신 고등학교도 병행 학습을 한 거예요.” 라고 답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업중단을 하여 학업 복귀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미 학업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응답자 일부는 돈보스코 직업훈련학교 입학 후,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병행하는 과정을 거쳤다.

① 또래 소속감 욕구가 학업 복귀 이유가 된 경우

“19살 때 제가 복학을 했거든요. 18살 때 주위에 친구들이 학교를 다닐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니고 교복 입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학교 다니고 있고 제 시간에 가서 제 시간에 마치는 게 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목표는 없었죠.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 그거 딱 하나.”(16.직업형 여성 배OO)

“그냥 제가 가고 싶어서, 아무도 가라고 말은 안 했는데 제가 간다고 얘기를 해서... 애들이 부러워서... 교복도 다시 입고 싶은데 나가니까 할 것도 없고, 나이도 어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6.학업형 남성 인OO)

경우는 대부분 다른 학교로 복귀를 하였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교로 복귀를 한 경우에는 복귀 후 다시 문제가 발생하여 학교를 재중단 하게 되었다. 학교 적응에 있어서는 직업분야로 진로를 변경하여 연령대가 다양하고 기숙 생활을 해야 하는 직업훈련 학교로 복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응답이 있었다.

① 복귀 학교 유형

“(다른 학교로 복귀) 국제금융 고등학교, 거기 2년제, 1달에 1번 출석하는 곳에 다니고 있어요. 1달에 1번 그때 가서만 수업해요. 그냥 그날 시험 공부만 하고 (숙제) 조금씩 내주고...”(31.학업형 남성 이00)

“(같은 학교로 복귀) 부산 컴퓨터 과학 고등학교, 똑같은 곳에 똑같이 복학을 했어요. 그 다음 해에 2학년 때 그만 두고 또 다시 2학년으로 복학했어요.”(16.직업형 여성 배00)

② 복귀 학교 적응방법

“(다른 학교로 복귀) 멀었지만 송파 애들, 근처 학교 애들보다는 확실히 애들이 착해서... 약간 대학생이 서울대 다닌다는 것처럼... 완전 좋았죠. 딱 어디 학교를 다니냐고 물었을 때 경기여고라고 그러면 오~”(24.학업형 여성 문00)

“(같은 학교로 복귀) 다닐 때는 처음에는 후배니까 제가 아무리 빠른 애라도 형들이랑 친구다 보니까 애들이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는 애들이 와서 얘기해 주고 얘기하다가 친해지고 그때부터 어울리다가 그때부터 친해졌어요.”(30.학업형 남성 인00)

“(직업훈련 학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쇠를 깎고 이만한 기계를 만지니까 무섭기도 했죠. 처음에는 다니기도 힘들고 기숙사 생활이라서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힘든 거는 직업 학교에 소년원이나 보호 관찰 받은 사람들도 많이 와서 자주 다툼이 많았어요.”(4.직업형 남성 이00)

4) 복귀 만족도

유사한 유형의 학교로 복귀한 경우라도 응답자의 상황에 따라 복귀 만족도는 모두 달랐다. 그러나 복귀 후 재중단을 경험한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정말 만족해요.”, “그래도 요즈음은 재미있어요.”라고 응답하였으며 복귀 경험을 긍정적으로 기억했다. 다만 학업 또는 진로에 따른 선택보다는 고등학교 졸업 자체에 목적을 둔 경우에 “학교를 다닐 바에는 차라리 검정고시 보고 내가 사회 생활한다고”, “지금 자퇴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라고 응답하였으며 복귀 만족도가 낮았다.

① 학업 복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정말 만족해요. 다시 학교를 다닌다는 게, 그 나이 때는 학교로 가야지. 다른 친구들 중에는 1명은 많이 후회한 친구가 중퇴를 해서 중학교 졸업해야 되는데 검정고시도 봐야 되고, 나머지는 다 후회는 잘 안 했어요.”(6.학업형 남성 인00)

“네,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가 만약에 일반 공고에 갔으면 이력서를 쓸 때 만약에 공고 하나만 쓸 수 있는데 저는 방송통신 고등학교랑 돈보스코 학교를 같이 다녔기 때문에 하나를 더 쓸 수 있는 거라서 저는 거기에 더 의미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기계를 많이 만지고 공고 애들보다 훨씬 많이 만지니까 실력이 개네들보다 좋았어요.”(22.학업형 남성 이00)

“그래도 요즈음은 재미있어요. 공부도 그냥 좀 하니까 몇 등급이 확 오르니까 오르네? 열심히 하게 되고... 오히려 선생님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약간 공부 못해서 선생님들이랑 재미있게 놀고...”(24.학업형 여성 문00)

② 학업 복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지금 자퇴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현역 가기 싫어서요. 중졸이면 현역은 못 가고 공익, 면제는 아니고 공익... (만족도는) 보통이다. 한 달에 한 번도 불만스럽고, 교복 안 입는 좀 그렇고...”(31.학업형 남성 이00)

“친구 사이에 생긴 소문을 선생님이 오해해서 화가 나서 다시 자퇴... 그래서 선생님 앞에 휴대폰 던지고 그냥 나왔거든요. 거기서 또 너무 화가 나서 진짜 이 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뭐만 하면 다 내 잘못이냐고 그래서 그만 뒀죠. 너무 억울해서 이런 학교를 다닐 바에는 차라리 검정고시 보고 내가 사회 생활한다고...”(16.직업형 여성 배00)

학업복귀 후 재중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복귀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점에서 소속감이 필요하다는 것, 나아가 환경적 요인에 의해 학업중단을 한 경우 당연히 학업복귀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업 또는 진로에 따른 선택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장이 목적일 때 만족도가 적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학교 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공부자체가 지니는 의미나 삶의 가치와 학업의 연계성이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7. 학교를 그만둔 후 직업생활 경험

1) 하는 일의 유형

직업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단순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

나, 직업형의 경우 모두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차이가 있다. 또한 직업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는 손쉽게 할 수 있는 서빙이나 편의점 근무, 주말 공장 아르바이트 등이 많으나 직업형의 경우 대형마트 카트팀, 백화점, 공장 직원, 시민단체 등 아르바이트 보다는 일반 직업에 가까운 형태의 일을 하고 있다.

① 하는 일의 유형

“백화점에 들어가면 앞에서 인사하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처음에 그거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거 하다가 나중에는 백화점에 VIP가 있는데 그쪽으로... 근데 그걸 오래 했었죠.”(14.직업형 여성 노OO)

“대구 시민 센터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청년 NGO 활동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역의 청년들도 모집하고 참여할 NGO 단체들도 모집을 해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원하는 기간 만큼 NGO 기관에 들어가서 인턴십 생활을 하고 있어요”(17.직업형 남성 김OO)

“(돈보스코 직업학교에서 소개해준 공장에서) 단열재 만드는 공장에서 프레스 좀 하고, 또 프레스 나온 거 다듬기도 하고 기계로... 그 모양을 그냥 모양이 딱 나오면 거기서 다듬는”(18.직업형 남성 곽OO)

② 직업형 외 응답자의 하는 일의 유형

“고등학교 자퇴하고 나서는 장어집 주말 아르바이트 (3개월), 그 후 고깃집 서빙, YMCA 청소년 카페 등...”(8.무업형 남성 이OO)

“빨띠에라는 곳인데... 아침에 카페 오픈은 어디를 가든지 비슷해요. 머신 켜고 다 정리되어 있는 걸 다시 꺼내서 진열을 해놓고 청소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하고...”(25.직업형 여성 강OO)

2) 일을 하게 된 계기

대부분 용돈,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나, 부모님과 동거여부, 자퇴 후 경제적 지원 정도에 따라 용돈 또는 생활비 등 목적이 달랐다. 무업형 청소년의 경우, “가게에 알바생들이랑 친해지고 사장님하고도 친해져서.”, “사장님을 알게 됐고 제가 만약에 거기 일이 없으면 저보고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친구들이 해당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하고 있어서 같이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반면 학업형은 “용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기는 뭐하잖아요.”라고 응답하였으며 시험 끝난 후 남는 시간에 용돈을 벌기 위해서 직접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 등을 이용해서 스스로 찾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지만, 무업형들은 주변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기(때우기)위한 목적으로, 학업형 등은 남는 시간에 용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 직업형은 돈을 버는 것 자체의 목적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 ① 무업형 : 주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을 같이 하는 경우

“PC방 놀러 혼자 가는데 거기 가게에 알바생들이랑 친해지고 사장님하고도 친해져서 어쩌다 보니 까 저도 막 컴퓨터 만질 줄 아니까 관계가 섞인 거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그쪽을 가끔 카운터도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제가 알바생이 된 거죠. 그러다가 그때부터 거의 시작했죠...”(11.무업형 남성 최OO)

“놀러 가거나 아니면 배달하는데 들리고 하다가 사장님을 알게 됐고 제가 만약에 거기 일이 없으면 저보고 배달라는 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하게 됐어요.”(7.무업형 남성 김OO)

- ② 학업형 : 남는 시간에 용돈을 벌기 위함

“당장 시험이 끝났으니까 쉬고는 싶은데 집에만 있기에는 무료하고 용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검사 검사”(23.학업형 여성 박OO)

“그냥 20살 되니까 친구들도 아르바이트 하길래 저도 뭔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해봤어요.”(21.학업형 여성 김OO)

“20살 민증은 나왔는데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기는 뭐하잖아요. 그리고 제 앞가림은 제가 해야죠.”(2.학업형 남성 김OO)

- ③ 직업형 : 돈을 벌기 위함

“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휴대폰 비하고 쓸 용돈도 안 주고 휴대폰 비도 안 내주고.. (집에서는) 못 먹으니까 밖에서 거의 다 사서 먹으니까 그 돈도 부족해서... 그리고, 부모님이 네가 학교를 그만 뒀으면 네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지 왜 우리한테 손을 벌리냐 해서...”(16.직업형 여성 배OO)

“자퇴를 하면서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부모님께 돈을 일체 받지 않고 생활했기 때문에 처음에 고시원에서 살다가 돈이 떨어져서 그렇게 보름 있다가... 그때부터 알바를 구하려고... (지금도 부모님과 연락도 거의 안하고 살아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17.직업형 남성 김OO)

“뭘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어릴 때는 진짜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진짜 부유했는데 원래 가난한 사람이 잘 살게 되면 그런 게 없을지 몰라도 잘 살던 사람이 못 살게 되면 상실감이 크거든요... 제가 장녀거든요. 엄마가 혼자서 돈 힘들게 벌고 하니까 나도 저거 갖고 싶으니까 사달라고 말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자퇴하고 나서 완전 고삐가 풀린 거죠. 알바하면서 돈 번 거 다 쓰고 뭘 배우고 싶다는 생각보다 온전히 내 돈을 벌어서 쓰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어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어요.”(14.직업형 남성 김OO)

3) 일자리 정보 획득 경로

주로 주변 사람이나 알바몬 같은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얻고 있다. 직업형, 학업형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 “알바천국 보고 갔어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알바 사이트 있잖아요.”라고 응답한 것을 보아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무업형의 경우는 “아는 형한테 소개를 받아서 들어갔어요”, “오래 다니던 PC방에서 사장님하고 친해지고 알게 돼서”라고 응답하는 것을 보아 주변 사람 또는 이미 알고 있던 지인을 통해서 일자리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① 직업형, 학업형 :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한 정보 획득

“그냥 알바천국 보고 갔어요.”(15.직업형 남성 박OO)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알바 사이트 있잖아요. 알바 천국 같은 곳에서 보고 면접보고...”(28.직업형 남성 OO)

② 무업형 : 주변 사람 또는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을 통한 정보 획득

“놀러 가거나 아니면 배달하는데 들리고 하다가 사장님을 알게 됐고 제가 만약에 거기 일이 없으면 저보고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7.무업형 남성 김OO)

“(백화점) 그냥 아는 형한테 소개를 받아서 들어갔어요. (특별히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보담은 백화점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가서 했어요”(8.무업형 남성 이OO)

“원래 다니던 PC방에서 사장님하고 친해지고 알게 돼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11.무업형 남성 김OO)

4) 근로 시간

많은 응답자들이 “1일 9시간 근무,”, “아침 9시부터 9시 까지 12시간”이라고 응답하였고 8시간 이상의 추가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하루에 4시간씩”, “내가 일을 했던 시간은 5시간 이었어요.”라고 응답하여 8시간 미만 근무가 많았으며 8시간 근무(점심시간 제외)는 가장 적었다.

① 1일 8시간 이상 근무

“하루에 9시간, 점심 시간 1시간 빼면 8시간, 한 달에 6번 쉴 수 있고 추석이나 설이 끼여 있으면 휴가 다 받고, 여름 휴가도 다 나와요.”(14.직업형 여성 노OO)

“1일 9시간 근무, 9시간. 야간 근무 시에는 저녁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16.직업형 여성 배OO)

“보통은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합니다.”(17.직업형 남성 김OO)

“거기가 아침 10시 인가 9시 인가 오픈을 해서 저녁 8시몇분 까지 했어요.”(8.무업형 남성 이OO)

“아침 9시부터 9시 까지 12시간.”(11.무업형 남성 김OO)

“하루 12시간.”(19.학업형 남성 윤OO)

② 1일 8시간 미만 근무

“하루에 4시간씩”(3.학업형 여성 박OO)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은 10시간 인데 내가 일을 했던 시간은 5시간 이었어요. 5시간은 쉬었으니 까”(14.직업형 여성 노OO)

5) 급여 또는 시급

급여는 일당 또는 시급제로 받고 있었다. 일부 직업형이나 오래 일을 한 경우 최저 임금보다 약간 더 받는 경우가 있으나 시급제인 경우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시급 9,500원”, “7,000원”이라고 응답하여 최저시급 이상을 받는다고 말한 응답자 중에는 ‘학업형’ 청소년이 많았다.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이 있었는데 해당업종은 콜 건당 임금을 받고 있다.

①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

“하루 5만원”(2.학업형 남성 김OO)

“최저 임금 받았는데 사장님이 6,300원을 다음 달부터 주신다고 해서 6,200원인가, 6,300원 받고 있어요.”(25.직업형 여성 강OO)

“(예전에 일할 때는) 늘 최저임금이었어요. 5,000원대...”(13.직업형 남성 김OO)

② 전당 임금 수령

“시급이 아니고 (웁) 건당. 기본 3,000원. 일단 지역마다 다 달라요. 일단 부산 안에서만 하고, 이게 음식 대행이거든요. 저희 업체가, 한 번씩 잔심부름이나 개인 물품 같은 걸 쿵으로 보내거든요. 한 번씩 그렇게 개인 물품을 여기서 도천까지 가면 2, 3만 원씩 받고 거리가 멀수록 돈을 조금씩 더 받아요. 보통은 250만 원에서 300만원...”(31.학업형 남성 이OO)

③ 최저시급 이상을 받는 경우

“7,000원. 한달에 160만원에서 170만원.”(15.직업형 남성 박OO)

“세금 안때면 197만원 인가 200만원 정도 돼요. 지금은 180만원 정도 돼요.”(4.직업형 남성 이OO)

“시급 9,500원”(9.무업형 여성 김OO)

6) 근로 환경

일부 위생, 업무강도 등에 대한 불만이 있으나, 대부분은 평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일하는 환경의 위험도 보다는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4대 보험 여부 등을 통해 근로 환경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저만 4대 보험도 넣어주셨어요. 분위기는 엄청 좋아요.”라고 응답하여 근로환경이 좋다고 평가한 응답자들 중 절반은 4대 보험을 이유로 근로환경이 좋았다고 응답했다.

“지금 되게 안 좋아요. 위생적으로 원료가 가루라서 먼지도 많고 한 번 일하고 퇴근할 때 보면 몸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에어로 불어도 안 털려서 위생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4.직업형 남성 이OO)

“나쁜 편도 아니고 좋은 편도 아닌 것 같아요. 잉크를 맞으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 하고 나면 너무 허리가 아파서요. 숙여서 검사를 해야 되니까, 하고 나면 침 맞으러 다녀야 돼요.”(6.학업형 남성 인OO)

“아니요, 되게 힘들었어요. 일도 힘들고요. 제빵사하고도 안 맞아서 힘들었어요. 제빵사가 자기도 일이 힘들니까 스트레스 받는 걸 히스테리 부리듯이... 다른데 좀 그게 빵이 나오면 제가 빨리 포장하고 진열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라고 계속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10.무업형 남성 최OO)

“저는 근데 정규직이었어요. 저만 4대 보험도 넣어주셨어요. 분위기는 엄청 좋아요. 조금씩 기름이 튀면 애들이 좀 다치긴 해요.”(15.직업형 남성 박OO)

7)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한 경험

대부분은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일부 경험자 중에서는 “한두 달씩 밀렸어요.”, “월급은 맨날 잘못 나오고”라고 응답하여 월급 및 임금 체불, 강압적인 업무지시 등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고, 이어서 “자기가 월차를 맨날 쓰고 저는 진짜 한 달에 1, 2번 받을까 말까 했어요.”라고 응답하여 연월차 미사용 지시 등을 경험한 경우도 있었으며 한명의 응답자는 “그냥 마구잡이로 맞은거죠. 골절까지는 아니고 타박상, 팔이 안펴질 정도로 맞은거죠. 경찰에 신고했었어요.”라고 답하여 팔이 안 펴질 정도의 폭력을 당하여 법원까지 갔었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고용주나 상급자의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청소년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① 임금 관련 부당한 경험

“거기 사장이 안 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니까 다 한두 달씩 밀렸어요. 그래서 따로 아는 누나랑 형이 있었는데 형이 아는 분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그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돈 받을 거 받고 끝냈거든요.”(8.무업형 남성 이00)

“월급은 맨날 잘못 나오고, 2, 3만 원씩 빠졌었고...”(3.학업형 남성 윤00)

② 강압적인 업무지시 등 관련 부당한 경험

“잔업 계속 시켰을 때 정말 싫었어요. 강제적으로 시켰을 때 빠지고 싶은데 일주일을 다 잔업을 하니깐, 솔직히 잠도 오는데 계속 하니깐, 안 빠워서...”(6.학업형 남성 인00)

“상명하복 같은 걸 많이 강요를 해요. 아래 사람이면 그냥 하라고, 그런 게 있어서...”(19.학업형 남성 윤00)

③ 연월차 미사용 관련 부당한 경험

“일적으로 쉬는 거는 자기가 이틀 쉬면 주 이틀 쉬면 저는 무조건 주 하루만 쉬고 월차 같은 게 있었는데 자기가 월차를 맨날 쓰고 저는 진짜 한 달에 1, 2번 받을까 말까 했어요.”(8.무업형 남성 이00)

④ 폭행

“제가 작년에 회사에서 한 번 맞았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맞은거죠. 골절까지는 아니고 타박상, 팔이 안펴질정도로 맞은거죠. 경찰에 신고했었어요. 그래서 법원까지 갔었어요.”(4.직업형 남성 이00)

8)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제가 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일의 양이라서 제 스스로 무너져서”, “사장님이랑 조금 안 좋아서 그만 뒀어요”라고 응답한 것을 보아 업무 강도나 함께 일하는 사람 또는 사장과의 관계 등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일부 “검정고시도 준비해야 되고”, “평생 여기서 일할 수는 없다.”라고 응답하여 개인적인 사유(공부, 이직 등)로 그만두는 자발적인 중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장이 바뀌었어요”, “월급을 적더라도 쓰던지 아니면 자르겠다고”라고 응답하여 폐업,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가 일부 있으나, 자발적인 사유, 개인적인 사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① 자발적인 중단 : 업무강도, 주변인과의 관계 등

“7월에 부득이하게 좀 많이 직급이 올라가고 나서 조금 제가 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일의 양이라서 제 스스로 무너져서... 그때 조금 바빴던 시기가 있어서 사람 인원도 별로 없었고, 아르바이트 인원도 없었고,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에 제가 조금 버티기 힘들어서...”(13.직업형 남성 김 00)

“거기는 거기 사장님이랑 조금 안 좋아서 그만 뒀어요. 돈도 그렇고 돈을 너무 늦게 줘요. 월급 날 짜 안 맞춰서 2, 3주 뒤에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줘서 그것 때문에 짜증도 났었고 일 시키는 것도 짜증이 났었고, 그냥 괜히 기분 나쁘게 시키셨어요. 말을 험하게 쓰시니까 우리가 듣기에 기분 나빠서 그만 뒀죠.” (8.무업형 이00)

② 자발적인 중단 : 공부, 이직 등 개인적인 사유

“검정고시도 준비해야 되고 한 번 쳐보려고 하는데 그때 내년부터 검정고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18.직업형 남성 곽00)

“평생 여기서 일할 수는 없다. (정규직 사람들은) 거기가 직장이고 자기 평생 직업이니까 상관 없겠지만 밑에서 알바처럼 하는 애들은 몇 개월 못하고 그만 두는데 저는 그래도 1년 넘게 일을 하고 그만 둔 거니까 내가 계속 여기서 일할 수도 없고 나이도 계속 먹어갈 텐데 계속 여기서 일할 수 없다고 공부를 해야겠다고 나온 거예요.”(14.직업형 여성 노00)

③ 비자발적인 중단 : 폐업, 해고 등

“원래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좋은 PC방이었는데 다른 곳에도 계속 PC방이 생기고 하니까 손님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도 직원을 구하는 게 아니고 월급을 적더라도 쓰던지 아니면 자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 발로 나온 거죠.”(11.무업형 남성 김OO)

“보쌈집 -사장이 바뀌었어요. 그 분은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일하는 사람들도 다 자르고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동업하고 있는 거예요.”(20.학업형 남성 조OO)

“제가 그때 손목 부상을 당해서 4개월 끝에 와서 그것 때문에 물리 치료를 한 달 가까이 받아서 그것 때문에 그만 뒀어요.”(28.직업형 남성 이OO)

9) 직업훈련 경험 및 도움 정도

총 31명 중에서 12명 정도는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고용노동부, 돈보스코 직업훈련학교, YMCA 등 국가의 지원을 일부라도 받는 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경우였다. 그러나 직업훈련을 받은 응답자 중 직업훈련을 받은 업종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2명 내외에 불과했다.

훈련 이수자들 중 현직에 있는 경우는 “학원비는 나라에서 다 내주고 다달이 30만원에서 35만원 났어요. ”, “엄청 많이 도움이 됐어요.”라고 응답하여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많다. 반면 일부는 직업훈련에서 배운 내용과 실제의 업무가 다르거나 힘든 경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군대 미필이라 취업 안돼요.”라고 응답하여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유형별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① 도움이 된다는 응답

“9월부터 학원 다니면서 한 달에 30만원에서 35만원 나왔어요. 직업 훈련 받고 국비 지원이라고 학원비는 나라에서 다 내주고 다달이 30만 원인가 35만 원 났어요. (도움 정도는) 5개월 정도 배우고 그리고 인테리어 회사로 취직했어요.” (14.직업형 여성 노OO)

“YMCA에서 고등학교 2학년 12월 달 부터 카페 교육을 해줬어요. 55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셔서... 그냥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게 있냐고 물으셔서 카페 수업을 직접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걸 회의를 해보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얘기를 해 주겠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게 돼서 55만 원을 지원을 해 주셔서 했죠.. (도움 정도는) 엄청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서 카페 쪽으로 계속 가야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카페 사업을 차리고 싶었는데 거기가 제가 배운 데가 그 분도 카페를 창업하신 거죠.” (8.무업형 남성 이OO)

②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

“학교 그만 두고 한달 정도 용접 배웠어요. 그것도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뭐라도 해봐야 겠다고, 근데 그건 방위산업체 가려고, 그래서 자격증 1개라도 취득하려고 했는데요. 자격증 없이도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때려 치고 바로 방위산업체 갔다가 거기서 또 때려 쳤어요. 한달 정도하고 그만 뒀어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 노동인데요. 쉬는 시간도 적고 그냥 거의 11 시간, 12시간 가만히 서서 움직여야 되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7.무업형 남성 김00)

“현재 IT 직업 학교 졸업은 했으나, 군대 미필이라 취업 안돼요...”(2.학업형 남성 김00)

10) 직업훈련 내용

남성의 경우 “한달 정도 용접 배웠어요”, “직업 학교에서 1년 정도 기술(금형 기술)을 배우고 취업을 했어요.” 라고 응답하여 용접, 기계 등 공업 관련 직업훈련이나 컴퓨터/IT 관련 훈련을, 여성은 “네일아트는 제가 하고 싶어서 다닌 거고”라고 응답하여 네일아트, 간호, 디자인 등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가 많다.

① 남성 : 공업, 컴퓨터/IT 관련 직업훈련

“학교 그만 두고 한달 정도 용접 배웠어요. 그것도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7.무업형 남성 김00)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업 학교에서 1년 정도 기술(금형 기술)을 배우고 취업을 했어요...”(28.직업형 남성 이00)

“CNC. 처음에 컴퓨터에서 도면을 짜서 기계 모양이 있잖아요. 이런 모양 같은 거 동그라미 같은 것도 컴퓨터로 파서 코드를 짜서 기계에 넣으면 이렇게 기계가 만들어요. 깎기도 하고 파기도 하는...”(18.직업형 남성 곽00)

“공고나 다른 고등학교에 가면 기계를 만질 수 있는 그런 횟수가 많지 않아요. 근데 돈보스코 직업 전문 학교는 기계가 되게 많아서 실습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론도 잘 가르쳐 주셔서 일단 기술은 기계를 많이 만져봐야 잘 알 수 있고 잘 다룰 수 있는 거라서 제가 그런 면에서 많이 혜택을 본 것 같아요.”(22.학업형 이00 남성)

② 여성 : 네일아트, 간호, 디자인 관련 직업훈련

“언니가 고용 센터에 같이 가자고 해서요... 간호 학원은 엄마가 추천해서 다닌 거고 네일아트는 제가 하고 싶어서 다닌 거고...”(9.무업형 여성 김00)

“(직업훈련은) 인테리어 디자인, 그때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었죠.”(18.직업형 여성 노00)

결론적으로 직업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단순 아르바이트’ 형태의 일에 종사하는 반면 직업형의 경우 모두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무엇보다 학교에서 조기에 학생들의 진로 성향 파악과 진로상담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업형과 직업형의 분류가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학교 밖 청소년의 양산을 막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발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8. 학업중단 후 힘들었을 때 및 향후 목표

1) 학업중단 후 가장 힘들었던 시기

힘들었던 시기는 “자퇴하고 바로 거의 방황할 때 계속 우울했었죠.”, “1, 2년 동안 계속 그냥 멍 때렸던 것 같아요.”라고 응답한 것을 보아 학교를 그만 둔 후 1년 내외 정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힘들었던 이유는 “동기랑 트러블이 있었을 때”, “아예 소속감이 없어지는거”라고 답하여 ‘소속이 없음’ 과 ‘친구들과의 멀어짐’ 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 안 다니고 뭐 할거냐,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런 식으로 많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하냐고 물어볼 때”라고 답하여 ‘학업 중단 후 주변의 염려나 시선’ 이라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다. 일부 학업형 응답자 중에서는 “검정고시 준비할 때와 그 전이요.”, “작년, 공부를 안 하다가 하니까”라고 응답해 ‘검정고시 등 공부를 하는 과정’ 이 힘들었다는 응답이 일부 있었고, 일부 직업형 응답자 중에서는 ‘학업을 그만둔 후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을 때’ 라는 응답이 있었다.

① 힘들었던 시기 : 학업을 중단한 후 1년 내외

“자퇴하고 바로 거의 방황할 때 계속 우울했었죠. 그때 1, 2달 정도는 진짜 많이, 거의 혼자 살다시피 방에서 힘들어하고...”(11.무업형 남성 김00)

“그만 두고 지금까지도 계속 힘든데 1, 2년 동안 계속 그냥 멍 때렸던 것 같아요.”(12.무업형 여성 권00)

“그만 두기 직전. 너무 우울했어요. 학교 관두고 1년 동안 심리 상담도 받았어요.”(27.무업형 여성 우00)

② 힘들었던 이유 : 소속감과 또래 관계

“ 골이 비었으니까 자퇴를 했겠지, 이렇게 말을 했을 때나 동기랑 트러블이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1.학업형 여성 백OO)

“그 친구들이 힘들다고 하면 제가 이해할수 있는데 제가 힘들다고 하면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는거예요. 너는 배부른 소리라고,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많이 안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외롭고 친구가 너무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23.학업형 여성 박OO)

“나오면서 아예 소속감이 없어지는거. ”(25.직업형 여성 강OO)

③ 힘들었던 이유 : 주변의 염려나 시선

“학업 중단하고 힘들었던 때가 그냥 제일 힘들었고 억울했던 게 싫었던 게 친척들이 얘기할 때 그 때가 제일 힘들었고...”(6.학업형 남성 인OO)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만 두고 나서 몇 달 안 됐을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 안 다니고 뭐 할 거냐,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런 식으로 많이 들었어요.”(8.무업형 남성 이OO)

“확실히 학교를 안 다니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하냐고 물어볼 때 딱히 할 말도 없고, 그런 거 말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할 게 없으니까 조금 주눅드는 것 같아요.”(10.무업형 남성 최OO)

④ 학업형 : 검정고시 등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 검정고시 준비할 때와 그 전이요.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막막해서, 이게 잘 하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몸이 힘들었던 것보다 마음이 힘들었던 게 더 커요”(2.학업형 남성 김OO)

“작년, 공부를 안 하다가 하니까, 안 하다가 해서 힘들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8개월 정도밖에 없었는데 아예 공부를 해 놓은 게 없으니까 그때 막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5.학업형 남성 성OO)

“제일 힘들 때는 재수가 더 힘들었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제가 18살, 19살 때 잠깐 다른 길로 갔어도 결국 목적지는 같다고 했잖아요... 저랑 같이 반수하는 친구 중에 재수하는 친구들은 태어나서 뭔가 남들이랑 다른 길을 가고 내가 늦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늦었구나,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낮고...”(21.학업형 여성 김OO)

④ 직업형 :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스트레스

“일이 안 구해질 때, 일이 안 구해져서 나도 답답한데 부모님이 집에서 뭐라고 할 때...”(16.직업형 여성 배OO)

“일단 학교를 그만 두고 반년 동안 알바를 하고 집을 나와서 처음에 알바를 못 구해서 다음 달 월세를 고민을 했을 때 현실적인 두려움이 닥쳐오니깐 그때 제일 힘들었고요. 그렇게 계속 힘들었던 건 돈 때문에 힘들었거든요...”(17.직업형 남성 김OO)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려움은 일차적으로 관계적 존재로서 소속감 결여를 통한 친구관계의 단절이었고, 다음으로 주변의 염려 어린 시선에 따른 스트레스였다. 따라서 ‘학업중단’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이나 시각이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도움과 성장이 필요한 아이들’로 개선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관계망 형성을 돕는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2) 힘들었던 시기의 대처 방법

힘들었던 시기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가족, 지인 등 주변사람들에게 털어놓아서 해소한다.’는 응답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참는다.’는 응답이 각각 절반 정도이다.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일부 우울증이나 자살충동 등이 있었다. 응답자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 외 종교활동으로 대처한다는 응답자도 2명 있었다.

① 가족, 지인 등 주변 사람들에게 해소

“1차적으로 엄마한테 너무 힘든데 그냥 고등학교 갈 거 그랬나, 이런 식으로 상담도 하고 아니면 교회에 이름이 시온인데 모태 신앙이라 교회 다니라고 목사님한테 상담도 하고 기도 받고 그런 걸로 위안을 얻었고요.”(2.학업형 남성 김OO)

“그냥 YMCA 다니는 거, 그때 거기 다니면서 놀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었고요. 놀러 가는 것도 있어서 거기 다니면서 스트레스 풀었고 또 그때 여자 친구가 있어서 YMCA 다니면서 만난 여자친구였는데 그 친구 때문에 힘이 났죠.”(8.무업형 남성 이OO)

②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참음

“저는 원래 스트레스 같은 거 화가 나면 일단 참거든요. 그냥 참고 그러는데”(28..직업형 남성 이00)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울거나.”(12.무업형 여성 권00)

“글쎄요. 자주 하는 생각은 언제 끝날까?”(4학업형 남성 윤00)

③ 종교활동

“열심히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곳에 안가요. ”(1.학업형 여성 백00)

교회에 목사님한테 상담도 하고 기도받고 그런걸로 위안을 얻었고요. ”(2.학업형 남성 김00)

3) 도움 받은 사람 또는 기관

상담 센터나 직업학교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며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과 같이 이전부터 알던 사람이라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다. 일부 응답자 중 학업중단 후 직장 등에서 알게 된 어른이라는 응답이 있다. 기관으로는 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지원센터라는 응답이 일부 있었다. 응답자 유형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① 상담 센터 및 직업학교

“저는 잡모아로 기억하거든요. 잡모아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 거기서 취직을 시켜주는거”(29.직업형 남성 정00)

“돈보스코 담임선생님. 모르는거 거의 다 가르쳐주시고 약간 헤맬 때 옆에서 계속 도와주셨어요. 진로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26.직업형 남성 이00)

“별카페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이 다 좋은 말 해 주시고 긍정적인 말씀만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22.학업형 남성 이00)

②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

“동기랑 많이 얘기를 했죠.”(1.학업형 여성 백OO)

“부모님밖에 없었죠. 특히 엄마.”(3.학업형 여성 박OO)

“제 생활, 돈 필요할 때도 많이 도와줬고, 또 힘들 때 형이 내려와서 위로도 해주고 그런 게 아주 좋았었죠.”(11.무업형 남성 김OO)

③ 학업중단 후 알게 된 어른

“힘든 거 있으면 저희 팀장님이나 얘기를 하죠. 부팀장님이나...”(4.직업형 남성 이OO)

“일을 하는데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고 젊은데 소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거기에 대한 능력, 그리고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걸 정리하는 해결 방법, 그런 게 약간 조금 깔끔하게 지나가는 걸 보니 좀 젊었을 때부터 얘기를 들어봤는데 젊었을 때부터 이것, 저것 일을 되게 많이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13.직업형 남성 김OO)

“돈보스코 담임 선생님. 모르는 거 거의 다 가르쳐 주시고 약간 헤맬 때 옆에서 계속 도와주셨어요. 진로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해 주셨고...”(26.직업형 남성 이OO)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의 기관

“일주일에 1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다녔어요. 심리 상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가면 심리 상담 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10월부터 받았어요. 올해 6월 달까지 받았나, 10월부터 6월까지 받았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21.학업형 여성 김OO)

“검정고시를 보고 제가 검정고시를 인천에서 시험을 봤는데 거기 학교 앞에서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팜플렛을 나눠 주더라고요... 제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질 줄 알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약간 일부분이긴 한데 제가 적성 검사를 해서 선생님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한 적도 있었고 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꺼내게 하셨던 것 같아요.”(23.직업형 남성 김OO)

가족이나 종교 또는 지인이나 친구와 같은 개인적 관계망 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청소년들이 알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홍보노력이 필요하다.

4) 향후 하고 싶은 일 또는 목표

학업형은 졸업 후 진학(대학원, 유학 등)이나 자격증, 직업을 구하는 일에 대해 관심이 많은

반면, 직업형은 창업, 돈 벌기 등 창업을 하거나 돈을 버는 방법(해외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 포함)에 관심이 많았다. 반면 무업형의 경우 군에 가는 것 외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고,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① 학업형

“그냥 사회 복지를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하고 싶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복지관에 취업을 하거나...”(1.학업형 여자 백OO)

“저는 아무도 경찰 시험 합격하는 거. 시험은 내년쯤 볼 생각이예요. 학원을 다니고 서울로 간다든가, 그래서 저도 이번 2학년까지만 마치고 3학년 때는 휴학을 하고 공부 학원 다니면서 할 생각이예요.” (3.학업형 여성 박OO)

“의대에 가고 싶어요. 의대 가면 공부를 일단 많이 해야겠죠.”(21.학업형 여성 김OO)

“일단 중국어를 오래 계속 공부를 해서 내년에는 중국에 어학연수를 가거나 대학에 입학할 것 같아요.”(23.학업형 여성 박OO)

② 직업형

“창업 준비 하고 있어요. 내년 초에 가게를 10월에 그만 두니까 사실 지금도 가게를 보고 있었고 저 저번 달에도 가게를 보기는 했는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뭘 하려고 보니까... 제 계획대로라면 11월이나 계약이 되면 공사를 내년 1, 2월쯤에 해서 가오픈이라도 3, 4월에 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25.직업형 여성 강OO)

“패션 디자이너 하다가 힘들면 웹툰으로 갈아타서 웃은 좋아하니까 패션 디자이너 만화를 그리자는 생각으로, 그것도 정 안 되면 컴퓨터 배워서 게임 일러스트라도...”(29.직업형 남성 정OO)

“저는 계속 디자인 쪽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테리어가 2순위였어요. 사실 저는 만화가 그리고 싶었거든요. 인테리어는 저희 아빠가 어렸을 때 하던 거고, 저는 그런 게 좋았어요. 이 공간에 들어와서 내가 안정감을 얻고, 이런 게 좋아서 나도 남한테 그런 걸 전해주고 싶었으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14.직업형 여성 노OO)

“사업하고 싶어요. 치킨집 같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15.직업형 남성 박OO)

“앞으로 그냥 인테리어 사무실 하나 차리는 거아파트 시공사에서 아파트 시공 다 끝나면 여기에는 뭘 하는 게 좋을 것 같냐고 거기서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떨 거 같냐고 물어보고 이걸 이렇게 하자고 하면 저희가 가구 같은 거 공수해서 갖다 놓고 그러는 거죠.”(18.직업형 남성 곽OO)

③ 무업형

“지금 현재 군대 가는 것 말고 관심사는 없어요.”(7.무업형 남성 김OO)

“유치원 교사, 애기들을 좋아해서... 근데 다 대학 나와야 돼서 못할 것 같아요. 검정고시도 없고...”(10.무업형 여성 김OO)

“제가 용접 같은 걸 좋아하니까 작업복을 입고 집 만드는 거, 그걸 하고 있는 걸 해보고 싶죠.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해서요.”(11.무업형 남성 김OO)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 같은 거 없어요.”(12.무업형 여성 권OO)

학업형인 경우 결국 직업을 원한다는 점에서 직업형과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직업형은 더 구체적이고 학업형은 조금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도 그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무업형 청소년이다. 삶에 대한 기본적 열의가 상실된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적극적인 삶의 동기와 태도를 부여하여 할 수 있을지 좀 더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5) 대학 졸업 후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도움

대학졸업 후 직업을 구하는 데 필요한 도움으로는 해당 직업 분야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해당 직업 분야에 대한 직업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본인 스스로 인맥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냥 솔직히 사회 복지가 학연, 지연, 혈연의 끝판왕이거든요... 사실 실습할 때도 잘 해야 되고 봉사도 뭔가 내 재능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너무 봉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봉사 해서 인연을 잘 쌓아야지,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 말고 학연, 지연, 혈연, 그런 거 말고 그런 것의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1.학업형 여성 백OO)

“인맥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어디 회사에 있는 사람은 그냥 꽃아달라는 건 아니고 알고 지내는 그런 인맥.”(18.직업형 남성 곽OO)

“견학 가는 것도 있고 선배님들 중에 경찰이 된 선배님들이 와서 초청 강의로 많이 하고 학교가 생각보다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3.학업형 여성 박OO)

9. 꿈드림센터/직업훈련 기관 인지도 및 참여 의사

1) 꿈드림센터 인지도

전체 31명 17명 응답자 중 9명이 꿈드림센터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고 대부분 꿈드림센터를 한 번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었다. 특이점은 꿈드림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무업형’이 5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학업형이 2명, 직업형이 2명으로 나타났다. 그 외 8명 응답자 중 학업형 4명, 직업형 3명, 무업형 1명은 꿈드림센터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나 조사를 통해 처음 들어봤다고 응답하였고 ‘학업형’이 많았다.

현재 꿈드림센터를 이용 중인 응답자들은 조사를 통해 꿈드림센터에 연계된 학생들이 대부분이나, 일부 응답자들은 학업 중단 후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① 꿈드림센터를 알고 있는 경우

“가 본적 있음 (대전 은행동에 위치한 꿈드림센터)”(9.무업형 여성 김OO)

“가본적 있음. 이런 건 저번에 갔을 때 얼마 전에 갔었거든요. 한두 달 전에 갔을 때 이런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지 잘 모르겠다고 알아보기는 알아본다고 했었거든요.”(16.직업형 여성 배OO)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상담도 했었고 통기타 였나 작은기타 였나 그것도 했었고 .”(7.무업형 남성 김OO)

② 꿈드림센터를 모르고 있는 경우

“없을 걸요. 그런 거는 없고 박람회 같은 곳에 가서 그 멘토들 강연하는 거 듣고...”(18.학업형 남성 곽OO)

“아니오,이 설문조사 하면서 처음 들었어요.”(3.학업형 여성 박OO)

전체적으로 꿈드림센터의 인지도가 45% 이상이라는 점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드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SNS, 유튜브, 방송, 리플렛 등을 통해 홍보채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

3) 희망하는 프로그램 내용

참여 의향이 있는 6명의 응답자 중 희망하는 프로그램 내용은 무업형 2명이 주로 자격증/취업 등 진로 및 직업과 관련한 내용이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직업형 2명은 진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직종을 찾을 수 있음을 기대하였고, 취업을 원하는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희망하였다. 또한 무업형 1명은 자신의 주된 관심사인 요리, 예체능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학업형 1명은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하고, 꿈드림센터의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 관련기관과 연계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① 꿈드림센터에서 배우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 내용

“진로 상담. 직종을 찾아주는...”(26.직업형 남성 이00)

“저는 예체능 쪽을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10.무업형 남성 최00)

“조건 자격증, 제가 옛날 소년원에서 생각했던 게 자격증, 일단 자격증을 쉬운 것부터라도 여러 개 모아보고 싶었던 게 꿈이었어요. 자격증이 여러 개 있으면 뭔가 다재다능한 것 같고, 면허증이라도 일반 그냥 영어, 한자 자격증도 다 모아보고 싶거든요.”(31.학업형 남성 이00)

“저는 서비스보다는 취업을 위해서 뭘 배우고 싶어요. 정확히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일단 평범한 아르바이트보다는 사회 생활이 하고 싶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밑에서부터 배우는 거죠. 그렇게 견뎌도 보고... 저는 사무직보다는 뭘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드는 거나 아니면 만드는 것밖에...”(11.무업형 남성 김00)

4) 직업훈련 인지도

전체 31명 중 15명의 응답하였으며 그 중 11명의 청소년이 직업전문학교, 취업사관학교, 취업성공 패키지 등 직업훈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직업형 7명, 학업형 4명으로 나타났다. 듣지 못한 경우는 학업형 2명, 직업형 2명 이었다. 응답자들은 주로 학교, 구청, 지인을 통해 직업훈련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며, 직업형의 경우 일부 응답자들은 실제로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학업형의 경우 일부는 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하였으나 대학교 진학 등의 이유로 실제로 직업훈련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경험에 대해 언급하였다.

① 직업훈련 기관을 알고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나 이런 곳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나 그거는 들어봤어요. 학교에서도 그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졸업생들 위주로...”(2.학업형 남성 김00)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받아본 적 있어요... 구청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도와준다고 네가 말하는 멀쩡한 직업, 평생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하라고, 그게 이름이 무슨 학원 다니고 절차를 밟으면서 구청에서 일자리도 소개시켜주고 그런 거였거든요.”(14.직업형 여성 노00)

“취업 성공 패키지 한 번 흥미를 가진 적이 있어서 제가 가서 컴퓨터 쪽에 뭔가 있더라고요. 자격증 따게 해 준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거기는 자격증 취득을 하고 바로 일을 하게 해 주는 곳이지 대학 진학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19.학업형 남성 윤00)

“취업 패키지 프로그램 작년 12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청 했다가 대학교 합격 돼서 취소했어요. 엄마도 그걸로 지금 직업을 구하셨고... 저희 어머니께서 사서 자격증이 있어요. 도서관, 그래서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도 있잖아요. 도서관은 많으니까 일단 교육 받고 그리고 취업을 인계를 받아서 취업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또 계약 기간이 1년이 끝나서 이번 8월 달에 얼마 안 됐어요. 8월에 나오셨어요.”(22.학업형 남성 이00)

② 직업훈련 기관을 모르고 있는 경우

“얘기만 들어봤지...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조사 전부터 이런 직업 훈련이나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 얘기만 들었던 게 설문 조사 처음 할 때 들었던 거죠.”(13.직업형 남성 곽00)

직업지향적 청소년들의 경우 직업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아직도 직업훈련 기관을 인지하지 못한 청소년이 있다는 사실에서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5)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 및 이유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에 대해 전체 31명 중 17명이 응답하였고 9명의 청소년이 참여의향

이 있었다. 그중 직업형 5명, 무업형 3명, 학업형 1명으로 나타났고, 이 경우 현재 특별히 하고 있는 일이 없는 응답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응답자들은 직업훈련 프로그램 자체에는 관심이 있었으나 현재 생활 패턴에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외에는 조건부 참여의사를 밝혔다.

①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제가 내년 초쯤 다시 한 번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한 사람한테 주어진 게 3번이거든요. 계속 무직인 상태로 있으면 다시 구청에서 연락이 와요. 돈 벌 수 있는데 왜 안 버냐고 지금 알바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제대로 된 직장이 아니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한 번 더 학원 수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 그쪽으로 배울까 싶기도 하고...”(14. 직업형 여성 노OO)

“그냥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매일 가는 게... 한 달에 2번. 4, 5시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16. 직업형 남성 박OO)

“할 수 있다면,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가늠이 안 되니까... 기술을 누구한테 어떻게 배우냐가 중요한데 실무자 분들이 어떻게 회사에서 원하는 그림은 이렇고 그리는 거다. 어떻게 하면 팔리냐, 돈이 되느냐. 이런 정보를 얻기 어려워서... 기간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언제하며 시간은 얼마이며 어디서 하는지를 생각해봐야할 것 같아요.”(27. 직업형 남성 우OO)

②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없는 경우

“제가 해보고 싶은 건 배우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배우고 싶은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찾고 싶어요.”(7. 무업형 남성 김OO)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매달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받으면서 직장을 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8. 무업형 남성 이OO)

“아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간다고 하면 좀 돈을 모아 놓고...”(16. 직업형 여성 배OO)

③ 조건부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만약 돈을 준다면 페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20. 학업형 남성 조OO)

“만약에 빚을 다 갚고나면 거의 80에서 90%. (참여할 것 같아요.)”(31. 학업형 남성 이OO)

6) 희망하는 프로그램 내용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 9명 중 6명이 희망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무업형 3명, 직업형 3명이 유망 직종 관련 기술 훈련, 업무 능력 향상 등 교육을 원했고, 학업형 2명은 인턴 및 일자리 연계, 직업형 1명은 자격증 취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기술 훈련, 업무 능력 향상 등 교육

“용접은 배워보고 싶어요. 돈 많이 벌잖아요. 돈 잘 벌리면 용접을 계속 해야죠.” (15.직업형 남성 박 00)

“저는 3D 프로그램을 한 번 써봤으니까 요새 저는 전망도 많이 보거든요. 3D 쪽으로 배웠으니까 그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14.직업형 여성 노00)

“제가 중간에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었다고 했잖아요. 광고 회사에 디자이너도 들어갔었는데 그건 약간 지금 일하는 곳에서도 필요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이런 교육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적인 걸로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로 다른 데 취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써먹으려고...” (17.직업형 남성 김00)

② 인턴 및 일자리 연계

“그냥 일자리만 잘 알아봐 주는 거, 그게 어려우니까... 제가 찾는, 그러니까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에서 찾아봐주는 거는 그래도 가장 저한테 적합할 것 같은 곳을 찾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잘못 선택을 하면 힘들고 이상한 곳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22.학업형 남성 이00)

“현장 훈련이요. 인턴처럼 연계해서 직접 근무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신입사원은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나마 그 기간도 줄여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나중에 감을 잡기도 쉬울 것 같아요...” (2.학업형 남성 김00)

③ 자격증 취득

“자격증 같은거를 따고 싶기는 한데 직업학교에 들어가면 일단 자격증 딸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3, 4개 자격증은 딸 수 있는데 1개 밖에 못따서 금영쪽으로만 따서 자동화쪽으로 한 번 따 보려고요.” (4.직업형 남성 이00)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훈련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청소년들의 희망사항도 다분히 자의적이고 단순한 경우가 많으므로 직업성향이나 직업능력분석을 통해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

7) 희망하는 지원 금액

월수입이 얼마 정도 지원된다면 직업훈련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들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범위로 응답하였다. 현재 경제적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들은 직업훈련 시 금액 지원 여부가 직업훈련을 의향에 중요한 조건임을 언급했으며, 개인마다 희망하는 지원 금액은 상이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금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희망하는 지원 금액

“받을 의향 없고, 만약 돈을 준다면 페이가 얼마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20.학업형 남성 조OO)

“월급까지는 아니라도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만 되면...”(4.직업형 남성 이OO)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주면 가겠죠. 제가 생활할 만큼의 돈이 그 정도가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집에 돈 안 주고 내 용돈하고 내가 먹을 거 먹고 이런 거, 휴대폰 비랑 밥 먹는 거 교통비 포함해서 거의 5, 60만 원 나가니까요.”(16.직업형 여성 배OO)

10. 대인관계

1) 부모 양육태도

부모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지지해주는 것에 대해서 민주적 양육태도라고 표현하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것,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라고 표현했다. 또한, 부모 중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더욱 권위주의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일부 응답자는 어린 시절부터의 경험한 부모의 학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부모의 학대가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였다.

부모 두 분 다 민주적이고 허용적이라는 응답이 전체 31명, 20명 응답자 중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형별 차이는 없었다. 그 다음이 두 분 중 한분은 권위주의적이고 한분은 민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한부모 가정에서 엄격함과 민주적인 양육태도의 비율이 같았으며 방임형은 4명이 있었다.

① 부모 두 분 중 한분은 권위주의적, 한분은 자유로움, 민주적

“민주적인 부모에 가까울 것 같아요. 의사 결정을 할 때 서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28.학업형 남성 이OO)

“만약에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운동을 그러면 엄마한테 운동 배우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안 된다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부탁을 드리면 안 된다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정중하게 제가 생각해본 건데 이러면 안 될까요?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도 엄마가 안 된다고 하시는 편이고...”(22.학업형 남성 이OO)

“민주적인 것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엄마만요. 아빠는 권위적인 부모...”(25.직업형 여성 강OO)

“아빠는 권위주의적이고 엄마는 민주주의,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가 누워 있으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1.학업형 여성 백OO)

② 부모의 학대 경험

“두 분의 학대 방식이 달라요. 아버지는 저를 직접 때려요. 어머니는 나를 앉혀 두고 네가 잘못했으니 너를 잘못 키운 내 잘못이라고 네가 나를 때리라고 학대를 해요. 회초리를 앞에 두고 앉혀두고 나를 보면서 네가 나를 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때릴 수 있겠어요. 그거는 청소년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17.직업형 남성 김OO)

③ 부모 두분 다 민주적, 허용적

“저희 엄마는 민주적이고 저희 아버지는 허용적이고,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줬으니까. 아빠뒤에 졸졸 따라다녔던 것 밖에 생각이 안나요.”(4.직업형 남성 이OO)

“엄격하신건 없고요. 그냥 편하다고 해야되나, 편하게 대해주세요. 제가 불편함이 없게 제가 자취를 하니까 가끔 만나는데 그때 만날때라도 불편함도 없고 ”(8.무업형 남성 이OO)

④ 부모의 방임

“그냥 자유분방, 근데 아빠도 집에 잘안와서요. 저도 잘안들어가는 편이고, 그냥 편하게 있는데 ”(29.직업형 남성 이OO)

“이혼 하셨어요. 1, 2년 됐어요. 아버지랑은 연락은 안하고 있어요.”(31.학업형 남성 이OO)

2) 학업중단 전후 부모와의 관계 변화

전체 31명 응답자 29명 중 11명이 부모와의 관계가 학업중단 후 더 좋아졌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부모와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응답자들 중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그 이유로는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의 고민을 나누고, 학교를 그만둔 이후 대화를 나눌 시간이 늘어났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중 직업형 5명, 학업형 5명, 무업형 1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달라진 거 없다는 응답자가 9명이며 무업형이 4명, 학업형 3명, 직업형이 2명으로 나타났다. 학업형 2명과 직업형 1명은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학업을 중단한 것에 대한 부모의 실망, 학업을 중단한 후의 생활에 대한 간섭 등으로 나타났다. 방임한 경우는 학업형 2명, 직업형 1명, 무업형이 2명으로 나타났고, 학업중단 후 부모와 연락을 두절한 직업형 1명의 응답자가 있다.

① 부모님과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경우

“중단한 후에 좀 더 많이 친밀해진 것 같아요. 제가 집에 혼자 있고 친구들이랑 연락을 끊으면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부모님이 친구가 돼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리고 약간 학교를 안 다니다 보니까 앞날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부모님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23.학업형 여성 박OO)

“후가 사이가 좋아요. 정 반대죠. 다른 부모님들 보다는,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 두고 아빠와 가정사를 이야기하고 학교를 그만 두고 나니까 아빠가 허리 아프고 수술하시고 그랬을 때도 아빠 옆에 내가 같이 있어 주고 간병을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빠랑 친해졌던 것 같아요.”(16.직업형 여성 배OO)

② 별로 달라진 것 없음

“달라진거 없어요. 이야기는 원래 많이안해요. 아버지는 그냥 밥시간 되면 밥먹어라, 물어볼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정도인 것 같아요.”(12.무업형 남성 김OO)

“똑같아요. 안좋아진 것 도 없고 좋아진 것 도 없고 평소 그대로예요.”(8.무업형 남성 이OO)

③ 부모님과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화한 경우

“그만 두고 나서는 솔직히 맨날 컴퓨터만 하니까 싸우기도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만 하라고...”(24.학업형 여성 문OO)

“자퇴하고 나서 부모님과 말도 안 했어요. 말 걸어도 무시하고 아버지한테도 막 혼났죠. 혼나다가 학교 다시 간다고 하니까 태도가 바뀌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은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욕먹고 있어요.”(6.학업형 남성 인OO)

④ 부모의 방임

“원래 고등학교 다닐때는 엄마가 엄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방임하는 그런식.”(5.학업형 남성 성00)

“학교 그만두고나서 엄마가 좀 더 풀어주신 것 같아요.”(7.무업형 남성 김00)

“아빠도 어느순간부터 자유롭게 해주신거죠.”(11.무업형 남성 김00)

“계속 학교 안가려고 하고 사고치고 놀고 그러니까 이제는 힘드셔서 부모님이 좀 놓아주려는게 많 이보여요.”(31.학업형 남성 이00)

⑤ 연락이 단절됨

“자퇴후에는 아버지랑 집 나와서 얼굴 딱 한번 봤고, 얼굴 보려고 연락한거 말고 아버지하고 한번도 안했고 형은 지금도 어디서 뭐하는지 모르고 번호도 모르고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일 방적으로 저한테 연락이 오는거죠.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때 ”(17.직업형 남성 김00)

특이점은 무업형의 경우 긍정적인 변화를 느낀 경우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삶 전체에 대한 무관심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가 더 좋아진 경우가 직업이나 학업 등 구체적인 지향이 있는 경우였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업중단 후 가족 간 대화와 관계의 친밀성의 강화가 가족과의 관계 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3) 부모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부모와의 친밀도에 따라 응답자별로 하루 평균 대화 시간에 차이가 나타났지만,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 31명 응답자 27명 중 13명으로 다수였는데, 학업형이 7명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하루 1시간 이내로 대화를 하는 응답자는 8명이었는데, 그 중 직업형이 4명으로 다수였다.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는 무업형 2명, 직업형 2명, 학업형 1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주로 식사 시간 또는 저녁 시간에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며, 주로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루 평균 대화 시간에 있어서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친밀한 대화를 더 많이 나눈다는 응답이 많았다.

① 부모와의 대화 내용

“저녁에 부모님이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 하는 정도, 아니면 엄마가 학원에서 오늘 뭐 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대화해요. 엄마는 하루에 뭐 했는지 많이 물어보고요. 아빠는 일자리 괜찮은 거 있으면, 학원도 괜찮은 거 있으면 얘기를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10.무업형 남성 최00)

“사소한 이야기부터 밥 먹었나? 이런 것부터, 공부 잘 되고 있는지도 묻고..”(5.학업형 남성 성00)

“주로 그냥 딱히 중요한 얘기는 안 하는데 사생활 가끔, 이래서 어떤 일이 있었다. 부모님은 사업 하시니까 오늘 일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시고 저는 그걸 들어주는 편이고 저도 제 생각을 가끔 얘기하는 편이고..”(28.학업형 남성 이00)

② 부모 중 어머니와 더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경우

“짧게 주에 4번 정도. 엄마랑. 아버지랑은 진짜 한 달에 1번 통화하는 정도예요.”(8.업형 남성 이00)

“엄마랑은 엄청 많이 해요. 3, 4시간. 2, 3시간은 얘기하는데 5, 6시 되면 뭐 여쭙보고 싶은 것도 여쭙보고 그러는데 자상하게는 말씀을 안 하세요. 예전보다는, 그리고 아빠는 거의 말을 안 하고요. 보통 그렇잖아요.”(22.학업형 남성 이00)

“엄마랑 친구처럼 편해요. 30분. 진짜 제가 아버지를 많이 무서워했거든요. 지금도 무섭지만...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11.무업형 남성 이00)

4) 현재 주로 만나는 친구

현재 주로 만나는 친구는 전체 31명 응답자 24명 중 학업 중단 이전에 알고 있던 학교 다닐 적 친구라고 응답했으며, 학업형 13명, 직업형 7명, 무업형 4명으로 나타났다. 즉 인간관계에서 익숙한 관계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친구 소개를 통해 새롭게 사귀 친구,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에서 새롭게 사귀 친구, 인터넷을 통해 사귀 친구 등이 있었다.

① 학업 중단 이전에 알고 있던 친구

“똑같아요. 중학교 친구, 제가 고등학교를 오래 안 다녔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보통 처음에 오면 같은 학교 다녔던 친구들이랑 계속 친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밖에 없고...”(21.학업형 여성 김00)

“초등학교 친구도 있고 중학교 친구도 있어요.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군대 간 친구도 있고 10명 되는 것 같아요. 학교 그만 두고 새로 만난 친구들은 없어요.”(15.직업형 남성 박00)

② 친구를 통해 새롭게 사귀 친구

“주로 최근에 만난 적은 없는데 만나면 다 중학교 때 친구가 소개시켜준 친구. 중학교 때 알던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자기 친구들을 소개시켜준 거죠. 지금은 20살이니까 거의 술을 많이 먹죠. 그 전에는 주로 노래방하고 PC방가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런 거...”(8.무업형 남성 이00)

“새로운 친구들은 친구들이랑 놀다가 친구가 부른 거죠.”(11.무업형 남성 김00)

③ 직장 또는 인터넷을 통해 사귀 친구

“지금 친구들은 저와 비슷한 환경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그나마 또래의 사람들, 노동 운동하거나 그래도 제 또래가 좀 있으니까...”(17.직업형 남성 김00)

“대부분 학교 그만 두고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10.무업형 남성 최00)

5) 학업중단 전후 친구 관계 변화

학업을 중단한 이후 친구 관계에 큰 변화는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체 31명 9명 응답자 중 8명이 전체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수가 줄어들었으며, 학업 중단전에 만나던 친구들보다 이후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깊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학업형 4명, 직업형 3명, 무업형 1명으로 나타났다. 학업형 1명은 경쟁적인 학교 환경에서 벗어나서 사회로 나오면서 친구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① 더 나빠진 경우

“학업 중단 전에 만난 친구들이랑 지금 만난 친구들이 큰 차이가 있어요. 대학 동기들은 엄청 마음 속의 깊은 얘기는 안 하고 방학 때도 만나자고 얘기만 하고 안 만나고 학교 다닐 때만 급 친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중학교 때 친구들 만날 때처럼 기쁘지는 않아요.”(학업형 여성 백00)

② 친구 관계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연락은 매일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1번 정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친구는 줄어드는 편이에요.”(23.학업형 여성 박OO)

“특별히 없어요. 그냥 개네는 학교 가고 그러니까 대학 가고 저는 집에 있으니까 그냥 시간대가 안 맞는다.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10.무업형 남성 최OO)

③ 친구 관계가 더 좋아진 경우

“인간관계가 학업중단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냥 운동 했을 때는 친구들이 약간 경쟁이거든요.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이 사람을 이겨야 내가 인정을 받는 건데 사회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선배도 많고 후배도 많고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좀... 이제 경쟁을 안 해도 되니까 편해진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대하는 게, 예전에는 예민했었는데 이제는 안 그렇고...”(3.학업형 여성 박OO)

6) 학업중단 이후 만난 어른 또는 기관

학업중단 이후 만난 어른 또는 기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 31명 21명 응답자 중 11명의 청소년이 “검정고시학원 선생님”을 비롯한 학원 또는 취업상담교사라고 응답하였는데, 주로 학업형 6명, 직업형 5명이 여기에 속했다. 직업형 3명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장님 등을 언급하였다. 응답자들은 자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신경써준 점에 대해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기억했다. 일부 응답자들은 가족 및 친지 외에는 어른 또는 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고 직업형 1명은 인터넷이라고 응답하였다.

① 학원이나 기관을 통해 어른을 만난 경우

“두드림 때 잠깐 검정고시 준비하려고 할 때 3일인가 무료로 봉사해 주는 대학생 언니들이 있어요. 공부 알려주는 그런 거 했었어요.”(24.학업형 여성 문OO)

“직업학교 선생님들이나 같이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군대 갔다 온 형들도 많아서 취업하면 뭐가 힘들고, 혼날 일도 많다고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4.직업형 남성 이OO)

“고등학교 때 음악 학원 선생님.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고 음악적인 얘기하거나 인생 얘기 많이 하죠.”(20.학업형 남성 조OO)

8)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람

전체 31명, 28명 응답자 중 19명의 청소년이 “어머니” 또는 “가족” 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직업형 9명, 학업형 7명, 무업형 3명으로 나타났다. 5명의 경우는 없다고 했으며, 학업형 4명, 직업형 1명으로 나타났고, 그 외 무업형 3명, 직업형 1명의 경우는 애인이나 친구들이라고 언급하였다.

① 의미 있는 사람으로 가족을 응답한 경우

“당연히 첫 번째로 어머니죠. 일단 엄마잖아요. 친구들은 많을 수 있어도 부모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째는 어머니라고 할 수 있고 가족이 1순위죠. 누나도.”(28.학업형 남성 이00)

“제 동생이요. 저는 저희 동생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아이를 보면서 깨닫는 것도 많고 물론 동생이니까 철부지 같은 면이 있지만 저를 지탱해 주는 어떤 항상 응원해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도 계시지만 동생이랑 약간 친한 편이라서 그런지,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 죽으면 너희 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동생이랑 둘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23.학업형 여성 박00)

② 의미 있는 사람으로 친구를 응답한 경우

“중학교 때 친구들. 서로 같이 자고 진짜 맨날 만났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29.직업형 남성 정00)

“딱히 생각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친하다고 하면 대구에 있는 친구들.”(19.학업형 남성 윤00)

③ 의미 있는 사람이 없거나 본인을 응답한 경우

“없는 것 같은데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다 중요하고 소중하죠. 왜냐하면 진짜 친한 사람만 지내니까 소중하지 않았으면 안 놀았겠죠.”(14.직업형 여성 노00)

“저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저라고밖에 얘기를 못하겠어요.”(21.학업형 여성 김00)

전체적으로 가족과 친구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청소년에게 가족환경 및 가족교육, 나아가 또래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다. 부모교육은 물론, 청소년들의 또래문화 환경 및 사회적 지지체계 등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11. 현재의 정서 · 심리상태

1) 하루 평균 스마트 폰 사용 시간

전체 31명, 응답자 29명 중 10명의 청소년이 극단적으로 10시간 이상이거나 4~5시간을 언급하는 것을 바탕으로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응답자는 ‘직업형’이 6명이다. ‘직업형’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긴 것으로 볼 때, 스마트폰 의존 및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과 지도, 상담이 필요하다. 나머지 7명의 청소년은 정확한 사용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청소년들도 스마트폰을 수시로 사용하고 있어 평균 시간 산출은 어렵지만 최소 1~2시간 이상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폰은 거의 안 써요.”(10.무업형 남성 최00)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고 필요할 때만...”(20.학업형 남성 조00)

②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

“많이 사용, 주로 이동할 때, 틈날 때마다 지하철 탈 때도 있고 뭔가 좀 가만히 있어야 될 때, 기다려야 될 때...”(2.학업형 남성 김00)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같은데, 12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야간 일정이 아침에 좀 늦게 오후에 일어나면 밥 먹으면서 핸드폰 무조건 보고요. 또 잠들면 다시 일어나서 핸드폰 계속 봐요. 그래서 12시간은 되는 것 같아요.”(8.무업형 남성 이00)

③ 스마트폰을 사용할 시간이 나지 않는 경우

“일할 때는 거의 안 써요. 회사 일로 전화하는 것만 하고 거의 안 써요. 일이 많아서... 쉴 때는 조금 쓰죠.”(4.직업형 남성 이00)

2) 스마트폰의 주요 사용 용도

전체 31명, 응답자 28명 중 14명의 청소년이 카카오톡, 페이스북과 같은 메신저 또는 SNS 계열을 주로 사용한다. 이중 직업형은 6명, 무업형은 5명, 학업형은 3명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은

친구 또는 지인과의 대화에, 페이스북은 다른 사람이 업로드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였다. 6명의 청소년은 유튜브 등 미디어 시청을 답하였고, 4명의 학업형 청소년은 음악 듣기, 학업형 4명과 직업형 1명은 게임, 학업형 1명은 학습을 위해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였다.

①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메신저, SNS 계열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주로 게임 같은 거, 근데 저는 이상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엄마가 항상 쥐고 있다고... SNS는 70% 되고요, 게임은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22.학업형 남성 이OO)

“SNS보고, 근데 저는 보기만 보고 활동은 잘 안 해요. 글을 쓴다든지 남의 것만 보고, 그래서 딱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죠. 할 게 없으니까...”(14.직업형 여성 노OO)

“카톡하거나 중국어 단어를 많이 찾아보거나 글 같은 거 읽거나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브런치라는 앱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글을 써서 올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적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여러 사람의 생각을 읽으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23.학업형 여성 박OO)

② 유튜브, 음악 감상, 드라마, 영화, 웹툰 등의 미디어 시청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주로 유튜브 시청합니다. 그냥 재밌어 보이면 흥미가 있으면 다 보는 편입니다. 동영상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이걸 봤을 때 내가 관심을 갖거나 내가 관심이 있고 이걸 보면 재미가 있다. 지루하지 않는 그런 동영상들을 많이 봅니다. 게임이나 뉴스나 아니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취미 생활로 아니면 그걸 보는 걸 재미있어하는 종류가 좀 있긴 한데 우주라든지 재미있는 거, 이걸 좀 흥미롭네, 이런 건 다 보는 편이에요. 시간 때우기용으로 보는 거고요.”(13.직업형 남성 김OO)

“음악을 제일 많이 들어요.”(5.학업형 남성 성OO)

“일단 못 봤던 드라마도 보고 애들이랑 카톡으로 대화도 하고...”(11.무업형 남성 김OO)

3) 게임 내용 및 하루 평균 게임 소요 시간

전체 31명, 응답자 23명 중 10명의 청소년이 PC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를 많이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오버워치’, ‘서든어택’ 등이다. 여기에는 직업형 6명과 학업형 5명, 무업형 3명이 있다. 모바일 게임은 학업형 4명, 무업형 2명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남성 응답자의 경우 스마트폰 게임 보다는 PC 게임을 주로 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여성 응답자의 경우 게임을 하지 않거나 PC게임 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스마트폰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형은 게임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하더라도 1~2시간 내외의 수준이다.

① PC게임을 하는 남성 응답자의 경우

“모바일 게임은 하나도 안 하고요. PC 게임은 오버워치, 블랙스쿼드, 지금은 이 정도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13.직업형 남성 김OO)

②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여성 응답자의 경우

“바운스랑 카카오 게임도 하고...”(1.학업형 여성 백OO)

③ 학업형: 게임을 잘 하지 않는 경우

“하는 게임 없음.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한 번 잡으면 놓을 수 없어서 아예 다운을 받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게임을 잘 못하니까 더 오기로 하더라고요”(3.학업형 여성 박OO)

“학교 다닐 때 휴대폰 게임은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예전엔 롤게임 잠깐 했었어요. 하루에 3, 4시간 정도.”(5.학업형 남성 성OO)

④ 무업형: PC게임을 장시간 하는 경우

“폰 게임은 잘 안 해요. 롤 게임은 많이 하면 4, 5시간. 하고 있으면, 애들이랑 같이 하니까 일단 즐겁고 그리고 그 게임이 제가 크게 되면 또 거기서부터 또 기분이 좋은 거죠.”(11.무업형 남성 김OO)

⑤ 리그오브레전드(롤), 오버워치, 서든어택

“롤 게임, 1시간 정도”(29.직업형 남성 정OO)

“롤 게임하루에 1, 2판 정도해요. 한판에 1시간반 정도, 게임은 오래안해요. 딱히 그런거는 모르겠고 그냥 ”(18.학업형 남성 곽OO)

“롤게임은 많이 하면 4, 5시간. 하고 있으면, 애들이랑 같이 하니까 일단 즐겁고 그리고 그 게임이 제가 크게 되면 또 거기서부터 기분이 좋은거죠. ”(11.무업형 남성 김OO)

“한번씩 시간날 때. 3시간 정도, 서든어택”(6.학업형 남성 인OO)

“오버워치나 서든어택. 그냥 처음에는 억지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하면하고, 안하면 안하고 ”(20.학업형 남성 조OO)

‘학업형’의 경우 아무래도 학업중심의 스케줄로 게임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보이며

‘직업형’ 과 ‘무업형’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 직장생활 외에 무료함, 후자의 경우 시간이 많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게임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건전한 게임 이용 을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

4) 평소 자신에 대한 만족도 및 이유

평소 자신에 대한 만족도를 향한 질문에 31명 중 14명의 청소년이 만족도가 낮다고 응답했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9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보통의 경우는 8명이었다. 불만족하는 응답자는 특히 ‘직업형’에서 4명으로 다수였다. 물론 이유와 관련해서는 진로, 직업, 건강, 인간관계,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등으로 개개인 마다 매우 달랐다. 다만 학업 중단의 어려움을 딛고 진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 있으며, 반대로 학업 중단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 못한 경우 만족도가 낮다는 응답이 많았다.

①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및 그 이유

“나를 만족하고 있어요. 예전에 생각했던 막연함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생각했던 것 보다 그 막연했을 때 계획했던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뛰어넘은 것 같아요.”(2. 학업형 남성 김00)

“현재 생활은 대체적으로 만족해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워요. 확실히 조금 보장된 건 아니니까 불안한 것도 있는데 그건 괜찮아요.”(10.무업형 남성 최00)

“4점. 아니, 그러니까 5점 만점에 4점 정도. 80점. 제 외모. 신장. 좀 마르고 작으니까 그것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 생활에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불만은 없는데...”(29.직업형 남성 이00)

②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및 그 이유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돈이 안 모이니까 계속 쓰기만 해서 제가 저금을 못하는 거예요. 돈을 들고 있으면 그 다음 날 돈을 다 쓰고 없어지니까 차라리 월급으로 받으면 쓸 만큼만 빼고 그러면 되는데 그날 바로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조절이 안 돼서...”(31.학업형 남성 이00)

“내 자신... 어느 부분에서는 만족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만족을 못하죠. 2, 3점. 어떤 일을 하는 거, 부모님한테 잘하는 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만족스러운 건 어렸을 때부터 다치고 올라왔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왜 내가 어렸을 때 못 살아서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됐나, 이런 거에서는 불만족스러운 것 같아요.”(16.직업형 여성 배00)

“아니요. 제 멘탈이 마음에 안들어요. 일도 오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꾸준히 인내심이 없다고 할까요. 꾸준함이 없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7.무업형 남성 김00)

주목할 부분은 만족한다는 응답의 경우 ‘아주 만족한다’ 는 없는 반면 불만족한 경우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가 있다. 대체적으로 만족의 응답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정도로 느껴지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특히 ‘학업형’ 의 경우는 만족이나 보통인데 비해 직업형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을 볼 때 학교 밖 청소년이 삶의 기쁨과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관련 돌봄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5) 자아존중감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무응답을 제외한 26명 중 11명이 자신의 가치는 이유 없이 당연히 있다고 본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직업형’ 이 6명으로 다수인 것으로 확인된다. ‘학업형’의 경우 ‘가치없음’ 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무업형’ 의 경우에는 모르겠음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안타깝게도 6명의 청소년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이점은 생활만족도에서 높다고 응답했더라도 본인의 가치 여부는 보통이거나 가치가 낮다는 응답도 발견되었다.

① 자신의 가치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글쎄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직업을 가져보면 알 것 같아요.”(3.학업형 여성 박OO)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딱히 뭘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치를 인정 받기 위한 준비 단계라서 지금은 딱히 점수를 매길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13.직업형 남성 김OO)

② 자신의 가치가 높다고 응답한 경우

“제가 일단 그냥 돈보스코 때부터 상담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께서도 저는 비록 몸이 조금 불편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기계를 잘 만지니까 좋은 기술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저는 제가 절대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22.학업형 남성 이OO)

③ 자신의 가치가 낮다고 응답한 경우

“항상 제가 기가 죽어 있는 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자신감이 없어요.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부터 제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주눅 들게 되고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 만나면 항상 주눅 들어있다고 자신감이 없다고...”(11.무업형 남성 김OO)

“그렇지 않다. 그냥 좀 제가 상황이 급한데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어떻게든지 되겠지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빛도 쌓인 것 같고, 집에 돈도 못 드리고, 동생 용돈도 못 챙겨주는 것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 못하니까 좀 만족스럽지 않아요.”(31.학업형 남성 이OO)

자아존중감은 삶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요인이므로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결과를 볼 때 학업을 통해 무엇인가 자아실현의 길을 가고 있다는 자각이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보이며, 직업의 경우는 삶을 윤택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절대적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이 직업을 통해 단순히 생계만이 아니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직업 선택이 되도록 직업에 대한 멘토링 교육이 필요하다.

6) 주변에 본인을 이해해주는 사람 유무 및 이유

무응답을 제외한 26명 중 20명의 다수가 주변에 본인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 이성친구, 친구, 직장동료들을 주된 예로 들었다. 친구 및 애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많았지만 유형별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거나, 본인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성향을 보이는 응답자 또는 본인을 이해해주는 주변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들도 6명이나 있었다.

① 주변에 본인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순위로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도 이제 생각을 열고 계시고 그 외에는 저를 좀 알바생이 아니라 동생으로 봐주는 알바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좀 사람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착하세요.”(2.학업형 남성 김OO)

“여자친구는 저를 좀 편견 없이 보는 거요. 대부분 일상에서 만나는 서로들은 편견을 가지고 보고 인터넷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편견 없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냥 학교 안 다니고, 창작 활동 한다고 하면 안 좋게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10.무업형 남성 최OO)

“벌카페라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돈보스코 직업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전부 다 좋아요. 다닐 때는 안 좋다고 두 분이 안 좋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 분들도 졸업을 하고 나니까 좋게 해주시더라고요. 가끔씩 연락도 하시고...”(22.학업형 여성 박OO)

② 주변에 본인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개인적인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제가 고민이 있어도 혼자 풀어보려고 하지 그걸 남한테 도움을 받는 건 잘 안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완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남이 손을 봐주는 것 외에는 따로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13.직업형 남성 김OO)

“이해를 해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한테 감정을 숨기는 편이라서... 얘기를 하면 떠날 것 같아서요. 아무리 친구라도 이견 아닌 것 같으면 떠나잖아요.”(16.직업형 여성 배OO)

“없습니다. 예전에는 1, 2명 정도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그냥 저 혼자 제가 뭐 그렇게 저 좀 잘 이해하고 잘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싫고...”(30.학업형 남성 이OO)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본인을 이해해준다’라는 의미를 ‘본인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함’ 정도나 ‘본인과 많이 친밀함’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엿보인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본인을 진정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이 갖는 의미와 그러한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더 필요하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나 상담기관은 청소년이 이러한 관계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7) 우울감을 느끼는 시기 및 우울 정도

응답자 모두 때에 따라서 우울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이 언급하는 우울감의 원인도 다양하였다. 외로움, 스트레스, 어두운 분위기, 트라우마와 같은 것들을 우울감과 동일시하거나 우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로 언급하였다. 전체적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는 크게 4가지 원인이 있었다. 첫째는 현실적, 경제적 어려움이었고, 둘째는 외로움과 소외감, 셋째로는 본인 상황에 대한 무기력함과 무능함이었으며, 넷째로는 가족력 또는 집안 상황이었다.

① 가벼운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

“네, 약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요. 사람이 항상 즐거울 수 없죠.”(2.학업형 남성 김OO)

② 우울감의 빈도가 높거나 전환이 잦은 경우

“많죠. 아주 크지는 않는데 얼마 자리를 구해야 되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언젠가 군대 가고, 사회 생활도 하고, 커서 뭐 될까? 이런 식으로, 우울해지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계속 받아요.”(11.무업형 남성 김OO)

“항상 그래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생각이 많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우울하고 그냥 피곤하게 살아서 그런지...”(14.직업형 여성 노OO)

③ 무거운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

“네. 그냥 경제적인 부분에서 뭔가 들이 닥쳤을 때 월세 내는 날이거나 그럴 때죠.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신병이 있었어요. 불안장애, 강박증, 폐쇄공포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몸에 신호로 나타나요.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20.학업형 남성 조OO)

“또 우울증 검사 같은 것도 받았는데 지금 보시면 다 심한 우울 상태예요. 상담사 분하고 같이 있는데 다 우울증이라고 심한 우울증. 어머니 우울증 있고 저희 형도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지체 장애 1급이고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집이 좀 이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정말 멋지게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 되면서도 머리는 집이 너무 싫은 거죠.”(30.학업형 남성 이OO)

④ 현실적 문제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많죠. 아주 크지는 않는데 알바자리를 구해야되는 것 도 스트레스 받고, 언젠가 군대가고, 사회생활도 하고, 한번씩 가끔 생각은 하죠. 커서 뭐될까? 이런식으로”(11.무업형 남성 김OO)

“네. 그냥 경제적인 부분에서 뭔가 들이 닳았을 때 월세 내는날이거나 그럴때죠”(20.학업형 남성 조OO)

⑤ 외로움 또는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

“혼자있을 때 아무도 만나는 사람도 없고 연락도 안되고 아무것도 하지않고 가만히 있을 때. 혼자 외롭다는 느낌 때문에.”(13.직업형 남성 김OO)

“항상. 진짜 우울한거는 작년부터 안하게된 것 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오래친구들을 안만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잖아요.”(17.직업형 남성 김OO)

⑥ 상황에 대한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경우

“약간 내가 무능력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 ”(23.학업형 남성 박OO)

“우울은 아니고 심심, 무기력, 되게 할게 없어서. 집에 있어도 할게 없고 밖에 나가도 할게 없으니까.”(29.직업형 남성 이OO)

⑦ 집안상황 및 가족력

“좀 힘들었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힘들었던 건 아니고 집에 일이 있어서 힘들었어요.”(1.학업형 여성 백OO)

“어느순간에 직장인이 돼서 갑자기 생긴 그런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좀 선천적인 것처럼 그런게 심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니라 많이 처져있어요.”(25.직업형 여성 강OO)

학교 밖 청소년이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처지에서 우울함을 느낀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해야 한다. 조사대상자 중 중증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적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정신적 상황에 대한 정밀한 판단이나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8) 우울함으로 인한 약 복용이나 병원 경험

우울함을 느낀 응답자 중 약을 복용하거나 병원을 경험한 응답자는 소수였다. 우울함의 정도가 약이나 병원에 도움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서 라기보다는 청소년 본인 자신과 부모 등 보호자 모두 우울함에 대한 대처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약을 복용하거나 병원을 다닌 경험이 있는 응답자라고 하더라도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으며, 단기간 또는 일회성에 그쳤다.

① 약을 복용하거나 병원 경험이 없는 경우

“없었어요. 그냥 혼자 풀었어요.”(3.학업형 여성 박OO)

“아니오, 처방을 해달라고 하면 처방을 해 주겠지만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27.직업형 남성 우OO)

② 약을 복용하거나 병원 경험이 있는 경우

“학교 맨 처음 다닐 때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정신병 비슷하게 너무 많이 심해서 위클래스 선생님이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거 말고는 조울증도 심하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우울증도 있고, 약 지어주고 미술 그림 그리고, 아빠랑 이야기하고 말을 안 해 주던데요. 그냥 약만 줄 테니까 약 먹으라고, 약 먹고 별 다른 거 없길래 안 갔어요.”(16.직업형 여성 배OO)

“제가 원래 자퇴하고 나서 상담을 많이 다녔어요. 조울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제가 너무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가본 거죠. 일단 스트레스가 많이 심하다고 그래서 진단을 했는데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날 잘 유도를 해주라고... 약은 몇 주는 먹었죠. 그 이후에는 그냥 괜찮을 것 같다고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시 우울해지고...”(11.무업형 남성 김OO)

“약을 복용한 적은 없으나, 상담 권유를 받아본 적은 있음. 학교 선생님이 우울증, 그러니까 자살 충동이 되게 높게 나왔다고 상담 받아볼 거냐고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저는 그렇게 제가 높게 나올지 몰랐고 다른 애들도 이 정도는 기분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만 우울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10.무업형 남성 최OO)

약 복용 사례가 소수이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우울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부족해서 자신의 상태가 심각함에도 약복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약 복용의 경우라도 청소년들은 사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울증에 대한 진단 및 약복용의 문제는 청소년 개인에게 맡기기보다 돌봄의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9) 자살 생각 경험

자살 생각을 한 다수의 응답자가 있었으며, 대인관계, 학교생활, 가정형편 등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자살 생각이 시도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현재는 자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부분이다. 성인 이전의 청소년기 시절에 받는 스트레스에 대처에 취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자살 생각 경험이 있는 경우 및 그 이유

“생각은 있죠. 시도는 아니지만.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너무 중이 멘탈, 누가 막 이렇게만 해도 엄청 막 이려고 약간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겠지만 저는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거죠. 옛날에는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1.학업형 여성 백OO)

“그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매일 그렇게 살았는데 시도한 적은 없었고 그냥... 매일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차라리 죽는 게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학교를 다니는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현재는 없음.”(10.무업형 남성 최OO)

“이렇게 살 바에는 안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뭔가 뜻 깊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가 매일 똑같고 원래 아까도 말씀 드렸드시피 잘 살다가 못 살면 상실감이 커서 그런지 그 끈을 아직도 못 뉘요. 왜 이렇게 살지? 구질구질하게? 어릴 때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그런 거죠.”(14.직업형 여성 노OO)

“고등학교 복학하고 자퇴했을 때, 진짜 완전 망나니로 있을 때 일도 안 하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주위에 잡아주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고 집에만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이게 뭔가 싶고 뭔지도 모르겠고 그때...”(16.직업형 여성 배OO)

“중학생 때 그랬어요. 대인 관계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관심 좀 가져 달라고...”(20.학업형 남성 조OO)

“생각은 있는데 시도는 별로... 생각을 했다가도 내가 왜 죽어? 이 새끼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황이 힘들어서 내가 죽어야지. 보통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왜 내가 죽어? 이렇게 전혀 이 돼서 이 새끼 조진다. 이려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진짜 그때 술 엄청 먹고 왜, 거의 한 달 가까이 하루에 한 번씩 30일 동안...”(29.직업형 남성 정OO)

자살 생각의 경우 중요한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아니라 생각의 강도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경우 자살생각에 대한 진술을 볼 때, 그것의 강도를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다. 청소년들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청소년들이 매일 자살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인 상태에서 청소년이 자살할 때까지 주변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우울과 자살의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개별적인 차이와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자살예방의 차원에서의 접근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살예방의 제도적 정책과 함께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줄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말해 삶의 의미와 희망, 인생의 감사할 것들과 행복에 대한 교육은 학교나 학교 밖 모두에게 행해져야 하며 시급히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10) 자살시도 경험

응답자 중 자살 시도 경험은 총 5건의 응답이 있었다. 자살시도 경험에 대한 응답은 가능했으나, 자살시도의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은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①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

“그냥 자해만... 그때는 막상 일자리도 잘 안 구해지고 어느 순간 제가 혼자 스트레스 받는 걸 애들을 만나게 되면 애들한테 또 화를 내게 되니까 애들하고 싸우게 되고 부모님하고도 싸우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적이 있었죠. 그냥 안정적인 취직만 하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힘들 때...”(11.무업형 남성 김OO)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랬을 거예요. 수면제도 먹고 여기 흥터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다 해보고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구나, 그게 쉬운 게 아니구나.”(14.직업형 여성 노OO)

“계획? 계획이라기 보다는 그냥 저희 집 옥상에 올라가면 한 개 더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서 좀 바깥 쪽 차도 쪽으로 앉으면 완전 절벽이에요. 거기에 앉아서 이려고 있었던 것밖에, 내가 생각은 했죠. 뛰어내리면 아플까? 아니면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뛰어내리는 도중에 심장마비로 죽는 다던데 그런 생각은 한 번 해봤어요. 주민들한테 걸려서 내려왔죠.”(16.직업형 여성 배OO)

“시도는 했었죠. 처음에는 집을 나오지 않았을 때 집에 있을 때 일을 하면서도 그냥 너무 싫고 집에서 계속 압박을 받는 것도 싫으니까 싫기도 하고 목을 한 번 집에서 했다가 그냥 너무 빨리 발견이 되어서 그랬던 적도 있고... 그 이후에도 몇 번 굶거나 아니면 단식을 한다든가 그게 자살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약 같은 거 있잖아요. 타이레놀 같은 걸 많이 사서 먹어본 적은 있었어요.”(17.직업형 남성 김OO)

“옛날에는 한 번 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긴 했는데 어떻게 살아났어요.”(19.학업형 남성 윤OO)

31명의 청소년 가운데 5명이 자살시도를 했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살예방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이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행복교육의 실질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삶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부정적 자아상을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바꾸는 교육이 필요하다.

11) 자살시도 후 도움이나 치료받은 경험

자살시도 후 도움이나 치료를 받은 경험은 자살시도 경험자 5명 중, 2명으로 나타났다. 도움 또는 치료를 받았으나 도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복지사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복지사의 단순한 직업적 활동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기억도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여 당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① 자살시도 후 도움이나 치료받은 경험

“네, 담임 선생님, 복지사 분들... 그냥 일하러 왔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19.학업형 남성 윤00)

“상담은 몇 번 있었는데요. 엄마가 어디 같이 갈 때가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상담소였고 엄마가 잠깐 10분 정도 들어가 있더니 그 다음에 저를 불러내서 상담을 그 분이 갑자기 저를 상담하는데 저는 좀 그 상담을 받았을 때 되게 불쾌해서 집 안의 환경이 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추궁하려고 들고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 나를 치료하려고 하지? 라는 식으로 부모님도 얘기를 하고 상담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었어요.”(17.직업형 남성 김00)

대부분의 청소년상담이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이나 멘토링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상담사 등에 대한 자격 심사에도 있고, 충분한 인성 심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동시에 가치와 행복교육을 위한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지도자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12.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 변화유형

기존 유형(패널 3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조사』

연구에 1~3년간 참여한 일반 패널의 분류로 학업복귀형(6명), 학업지속형(6명), 학업직업전환형(6명), 직업형(6명), 무업형(6명), 비행형(6명)으로 구성되었다(윤철경 외, 2015). 최근 유형인 패널 4차 유형은 3차 조사결과 이후 시점부터 지난 1년 내의 경험을 토대로 학업형(15명), 직업형(9명), 무업형(7명)으로 유형 분류하였다.

패널 4차 이행경로 변화 유형 분류는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ⅠⅡ장 이행경로 변화유형 분류 방법을 기준으로 긍정적 경로유지, 학업-직업형전환, 직업-학업형전환, 긍정적 경로 전환, 부정적 경로 전환, 부정적 경로유지 6가지 분류로 구성하였다(윤철경, 성운숙, 유성렬, 김강호, 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앞의 <표Ⅱ-5>와 같다. 기존 1~3차년 조사결과에 따라 분류된 학업복귀형과 학업지속형은 큰 범주에서 학업형으로, 학업-직업전환형과 직업형은 직업형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4차년도 조사결과에 따른 3개 유형을 연계하여 ① 학업에서 학업형으로 또는 직업에서 직업형으로 이행한 경우 ‘긍정적 경로유지’로, ② ‘학업에서 직업형 전환’, ③ ‘직업에서 학업형 전환’, ④ 비행경험형 혹은 무업형에서 학업형 또는 직업형으로 전환한 경우, ‘긍정적 경로 전환’, 반대로 ⑤ 학업형 혹은 직업형에서 무업형으로 전환한 경우 ‘부정적 경로 전환’, ⑥ 비행경험형 또는 무업형에서 무업형으로 이행된 ‘부정적 경로 유지’ 등 총 6개의 전환 경로로 구분하였다.

먼저 학업형의 경우 이행경로가 변화되어 추가 된 응답자를 포함하여 15명 이었으며 특징적인 것은 3차 때 ‘학업복귀형’과 ‘학업지속형’이었던 이들 중 1명을 제외한 11명 모두가 긍정적 경로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11명 중 6명은 대학에 합격하여 재학 중에 있으며 2명은 직업학교 및 인력개발학원에 다닌 것으로 응답하였고 2명이 수능준비 및 검정고시 합격 중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1명의 응답자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3차 때 ‘직업형’이었다가 ‘학업형’으로 경로가 이행된 응답자는 3명 이었으며, 그 중 2명은 대학에 재학 중이었으며 1명의 응답자가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3차 때 ‘비행형’에 속해 있던 1명의 청소년은 학교에 복학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가 변화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학업-직업전환형

전체 31명 중 학업-직업전환형은 학업형에서 직업형으로 경로가 이행된 응답자이며 1명이 있다. 2013년 학업중단 후 평일에는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로, 주말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학업복귀를 하였으며 2014년에 돈보스코 직업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파이프 회사에 취업하였으며 주말에는 꾸준히 방송통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응답하였다. 2015년에도 2014년과 같이 비슷하게 생활 유지를 하고 있다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마저 졸업하게 되었으며 2016년에

본격적으로 회사생활만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에는 돈보스코 직업 전문 학교요.”“돈보스코 다니면서 그때 입학한 거죠.”

“2014년도에는 제가 1월에 취업을 해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어요.”

“상담은 몇 번 있었는데요. 엄마가 어디 같이 갈 때가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상담소였고 엄마가 잠깐 10분 정도 들어가 있더니 그 다음에 저를 불러내서 상담을 그 분이 갑자기 저를 상담하는데 저는 좀 그 상담을 받았을 때 되게 불쾌해서 집 안의 환경이 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추궁하려고 들고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 나를 치료하려고 하지? 라는 식으로 부모님도 얘기를 하고 상담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었어요.”(17.직업형 남성 이00)

② 직업-학업전환형

전체 31명 중 직업-학업전환형은 직업형에서 학업형으로 경로가 이행된 응답자이며 3명이 있다. 2013년 당시 학업중단 전이었던 응답자를 제외한 2명의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했다고 답하였으며, 그 중 한명은 검정고시를 본 후 바로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2014년에는 2013년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청소년이 이 해에 학업을 중단하고 기술학원에 진학하였고 중단하자마자 검정고시 합격과 기술학원에서의 자격증 취득을 하여 취업을 했다고 답하였다. 다른 2명의 검정고시 합격 응답자들은 그 해 대학에 지원하였지만 1명은 합격하고 1명은 불합격했다. 합격한 응답자는 교통사고가 겹쳐 병원에 오래 있었다. 2015년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다니던 회사를 퇴사 후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미술공부를 병행했다고 하였고, 교통사고가 나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그 해에도 병원에서 재활 중이었다고 했다. 대학에 떨어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재수공부와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2016년에는 미술공부를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여 재학 중에 있었고, 병원에서 재활을 받고 있다고 했던 응답자도 복학하여 대학 재학 중에 있었다. 재수공부를 하던 응답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친구랑 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검정고시 따고”

“학원을 다녔어요. 재수 학원을”

“학생 때는 아닌 것 같고 2014년에(아르바이트를)했었고”

“2015년이 수시 준비 하나만 생각하고 그 전까지는 수시를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올해는 그리고 나서 컴퓨터 쪽을 기술을 제가 배우고자 해서 본격적으로 학원을 다닌 시작이 이번 연고고요. 여러 가지 준비를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28.학업형 남성 이○○)

“서울에 기술 학원이 있는데 가고 싶다고”

“그냥 한 번에 합격하셨어요? 8월에?”라는 질문에 “네”

“(직장을 그만둔 후)거의 놓고 그 다음에 그냥 이것, 저것 단기 알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 9월쯤에 미술 공부를 해서 지금 대학 다니고 있어요.”(18.학업형 남성 곽○○)

“한 번만에 붙었어요. 고득점으로 ”

“처음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라이브 카페라는 곳에서 제가 라이브 카페 가수로 일을 좀 했었는데”

“2014년에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으니까요. 2014년 1월에 아마”

“제가 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손상 돼서 식물인간이 될뻔 했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살아남아서 운동해서 이렇게까지, 원래 건지도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또 복학을 하게 됐고요”(30.학업형 남성 이○○○)

③ 긍정적 경로전환형

전체 31명 중 긍정적 경로전환형은 비행형에서 학업형으로 경로가 이행된 응답자이며 1명이 있다. 2013년에 일반고등학교 자퇴를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2014년에는 방송통신 고등학교에 재복학하여 그 해 다시 자퇴하였다고 응답하였고 폭행사건으로 소년원에 입소했다고 응답하였다. 2015년 소년원을 나온 후 국제금융고등학교에 재학하였으며 2016년 현재까지 학교에 등교중이나 자퇴를 고려중이라고 응답하였고 아르바이트로 퀵서비스 일을 병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3년에 일반고등학교 자퇴했어요.”

“폭행도 있고 사기도 있고 소년원에 입소했어요”

“2014년에는 국제 금융고를 바로 입학하셨나요?”“방송통신 고등학교요.”

“ 국제 금융 고등학교에 특별반이 있거든요. 거기 2년제, 한 달에 1번 출석하는 곳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퇴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현역 가기 싫어서요.”

“현재 퀵서비스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31.학업형 남성 이○○○)

④ 부정적 경로전환형

전체 31명 중 부정적 경로전환형은 학업지속형에서 무업형으로 경로가 이행된 응답자이며 1명이 있다. 2013년에 학업중단 후 검정고시 학원을 다녀 합격하였으며 합격 후 컴퓨터 그래픽 학원을 다녔다고 응답하였다. 2014년에도 꾸준히 컴퓨터 그래픽 학원에 다니다가 2015년 새로 바뀐 학원선생님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원을 그만 두었으며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업중이라고 응답하였다.

“2013년에 검정고시 학원, 학원 그리고 그 해 11월, 12월에 컴퓨터 그래픽학원”
 “2014년에도 1년하고 좀 더 배웠던 것 같은데”
 “2015년에는 다른 선생님이로 수업을 들었는데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특별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27.무업형 여성 우○○)

제 IV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 1) 학교 밖 청소년 예방을 위한 방안
 - 2) 학교 밖 청소년의 실질적 돌봄을 위한 방안

제 IV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기존 유형(3차 패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중단조사」연구에 1~3년간 참여한 일반 패널의 분류로 학업복귀형, 학업지속형, 학업직업전환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유형인 패널 4차 유형은 3차 조사결과 이후 시점부터 지난 1년 내의 경험을 토대로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으로 유형 분류를 하였으며, 패널 3차에서 패널 4차 이행경로 변화 유형 분류는 긍정적 경로유지, 학업직업형전환, 직업학업형전환, 긍정적 경로 전환, 부정적 경로 전환, 부정적 경로유지 6가지 분류로 구성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총 31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에 따른 특성을 탐색하였다.

먼저 학업형의 경우 이행경로가 변화되어 추가 된 응답자를 포함하여 15명 이었으며 특징적인 것은 3차 때 ‘학업복귀형’과 ‘학업지속형’이었던 이들 중 1명을 제외한 11명 모두가 긍정적 경로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11명 중 6명은 대학에 합격하여 재학 중에 있으며 2명은 직업학교 및 인력개발학원에 다닌 것으로 응답하였고 2명이 수능준비 및 검정고시 합격 중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1명의 응답자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 이었다. 3차 때 ‘직업형’이었다가 ‘학업형’으로 경로가 이행된 응답자는 3명 이었으며 그 중 2명은 대학에 재학 중이었으며 1명의 응답자가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3차 때 ‘비행형’에 속해 있던 1명의 청소년은 학교에 복학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결국 전체적으로 학업형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삶이 부정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나아가 학업직업전환이 된 1명도 진로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한 것으로 보아 부정적 경로로의 전환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 학업형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전환이

제도권 학교로부터의 이탈이지, 학업으로부터의 이탈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긍정적 경로유지를 할 수 있었던 데는 지원센터나 학교 또는 가족, 지인 또는 친구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좀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상담과 진로지도가 있다면 학업형의 경우는 긍정적 경로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권 교육에서 이탈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므로 공교육의 생산적이고 유연성있는 변화가 요구된다. 개인적 이유나 가정환경문제로 어쩔 수 없이 우회로를 거친 경우도 있지만 이들 중에는 학업을 지속하지 않고, 직업을 가졌다가 다시 학업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개별 학생들에 대한 설득력 있고 신뢰할 만한 진로상담이 이루어진다면 극복될 수 있을 문제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진로분석시스템이나 진로상담 기술의 지속적 연구와 적용이 필요하다. 결국 청소년 개인에 있어서 불필요한 인생의 시행착오를 지양하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을 위해서도 제도권 공교육의 변화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심이 되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청소년들에게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교육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교육의 교육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구조개혁 모색과 함께 다양한 대안학교의 제도적 수용 역시 확대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직업형의 이행경로의 변화로 3차 패널 때보다 적은 9명의 인원수였다. 이 분석에서 주목할 부분은 3차 유형과 4차 유형이 거의 변함없이 유지 되는 다른 유형들과 다르게 직업형의 경우는 3차 유형에서 ‘직업형’이었던 응답자들이 4차 유형에서는 비교적 많이 다른 길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9명의 청소년들 중 중학교 졸업 후 학업 중단한 1명의 경우를 제외하곤 11명 모두 고등학교 진학 당시 학교를 그만두었다.

다음으로 이들 중 긍정적 경로유지의 경우가 학업형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이다. 학업형이 11명인데 비해 이들은 8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고, 주목할 부분은 3명의 경우 다시 학업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1명의 경우는 부정적 경로전환의 경로를 밟아 결국 무직으로 전략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시사해주는 바는 직업형의 경우 학업중단의 계기나 사유가 직접적으로 취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명의 경우가 단순히 학교부적응이 원인이었고, 출결 문제 1명,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아닌 환경적 문제도 2명이나 되었다. 결국 진로변경으로 학업을 그만 둔 경우는 3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몇 가지 결론을 추론할 수 있다. 먼저 6명이 학교부적응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고, 진로변경의 원인이 3명에 불과했지만, 취업을 통한 긍정적 경로유지의 경우가 8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은 취업이 적성에 맞는 적지 않은 학생들에게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이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진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공교육에너지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방식과 대상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에게 이른 시기에 취업중심의 진로상담과 취업 교육이 있었다면 직업 선택에 있어서 단순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불안정한 직업상태가 아닌 좀 더 미래지향적인 직업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자신의 미래를 이른 시기에 준비함으로 경쟁력이 높아졌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너지의 낭비를 지양하고, 무한경쟁 시대에 청소년들의 미래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주기 위해서라도 직업형과 학업형의 조기 분류와 이들의 바람직한 경로 진행을 지원해주기 위한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독일과 같은 국가는 이미 그러한 조기분류를 통해 불필요한 교육에너지 낭비의 최소화과 성장동력의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바, 이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일차적으로 고등학교 입학 전이라도 청소년들의 개인소양과 성향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진로상담이 필요하다. 이는 고등학교 재학 시 취업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의 양산문제가 긍정적으로 해소하고 동시에 청소년들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줄 것이다. 그럼으로써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의 합리적 분배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역으로 직업형 가운데 3명이 다시 학업으로 전환하여 2명은 대학재학중이고 1명 역시 대학입시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이들에게는 좀 더 정확한 진로지도를 통해 직업으로의 이행을 통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업형의 경우 핵심적인 특징은 먼저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무업형’에 속하였던 ‘비행형’응답자의 경우 학업형으로 전환하여 고등학교 재학 중에 있지만 직업을 가지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모두 변화가 없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취업이나 학업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회적 관점에서 비생산적임은 물론, 개인의 측면에서도 존재론적인 의미를 상실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직업형이나 학업형의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개인적·사회적 가치창출의 가능성이 있지만 무업형은 전적으로 사회가 돌봐주어야 할 대상이기에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들의 경우 소극적으로 자기인생의 소모적 또는 낭비적 행로를 밟고 있지만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처럼 적극적으로 사회에 부정적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업형 청소년들을 위해 장기적으로 사회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 틀림없기에 대응책이 시급하다. 해당 청소년들을 보면 중3 말에 최종적으로 학교를 중단한 1명을 제외하고 조사대상 6명 중 5명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교를 중단한 경우이다. 그냥 놓고, 즐기고 싶은 욕망으로만 삶을 영위하고 싶은 상황에서 학교를 마치기 위해 노력하다 결국 포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무업형은 그런 관점에서 단순히 무업이 아니라 순간적이고 말초적인 충동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무관심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업형의 청소년들이 변화되는데 필요한 것은 당연히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 주는 일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을 통해 현실의 삶을 영위하도록 해주는 일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비행청소년 하나가 학업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 무업형의 경우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며, 따라서 어떻게 이들에게 삶에 대한 열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예방차원에서 무엇보다 부모교육과 가정환경의 긍정적 상태유지가 요구되며, 제도권교육의 변화를 통해 비행으로 전락하지 않고, 학교생활의 흥미와 재미 그리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사회화를 위한 보살핌의 의식과 대응이 요구되어진다. 결국 반사회적 존재로 성장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청소년 개개인에게 관심과 배려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2. 정책 제언

학교 밖 청소년들의 미래지향적 선도를 위해 필요한 개선방향과 그에 따른 정책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예방을 위한 방안

(1) 평생교육차원에서의 부모교육 정착과 ‘찾아가는 부모교육’ 확대

가정환경의 실질적, 효과적 개선을 위해 부모교육의 단순특강형태를 벗어난 체계적 지속적인 교육과정 확립이 필요하다. 현존하는 학교 밖 청소년문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부모교육은 일회성의 강의로 결코 충족되어질 수 없다. 물론 연구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부모가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분명 있다. 하지만 모든 조사 대상 청소년들이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부모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과 우울의 해소문제가 별개이며, 부모의 이해가 청소년의 정신적 문제해결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학업형의 경우 구체적이고 뚜렷한 미래설계보다는 부모로부터 주어진 의무감 등 단순이유에서 학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무업형의 경우는 그 근본적 원인이 공교육 이전에 일차적으로 부모의 자녀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자녀의 미래설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 즉 대화와 관심, 배려 및 학교와의 지속적 유기적 관계망 유지가 있었다면 보다 일관성

있고, 흔들림 없는 진로지도가 가능했을 것이다. 동시에 어떤 결정을 하든 부모의 든든한 이해와 정신적 지주로서의 존재가치가 분명하다면 청소년들의 자존감이나 삶의 만족도 역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학업중단의 문제를 제외하면 학교 폭력이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게임중독, 우울, 자살 등 청소년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은 학교 밖과 학교 안이 차이 없이 존재한다. 결국 예방차원에서의 학교 안 청소년 문제를 함께 고려할 때 부모교육은 이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2016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이 만들어졌다. 현재 여가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복지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기 자녀 부모,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학부모지원센터에서 학부모 대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의 경우 학부모지원센터의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에 약 58만명이 참여하였다. 다만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고, 상대적으로 부모교육이 절실한 취약가정의 부모는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이다. 특히 생계문제나 시간부족, 정보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취약가정의 경우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 ‘찾아가는 부모교육’의 확대가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인성교육전담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2010년 한 해 동안 쉼터 내 교사나 직원이 이용 청소년으로부터 폭행을 경험한 비율은 응답자 268명 중 180명으로, 67.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부에서는 2015년 7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어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화가 부여되고, 기존의 윤리교과 등을 통한 형식적 인성교육이 정부와 지자체의 구체적 정책수립과 필요한 예산 조달 및 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부는 2016년 2월 5일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하였고 상응하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학교 교육활동 전반의 인성 친화적 변화와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확산, 지원 및 인성교육정책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성교육환경의 확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청소년 인성의 실질적 변화에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실질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교사들의 인성교육 연수를 넘어 인성교육 전담교사의 양성을 위한 대학 내 인성학과 신설 및 국가공인 인성교육지도사 자격증 도입 등의 전문인성교육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3) 청소년을 위한 행복학 및 철학과목의 공교육 내 유입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처럼 철학이나 종교 등 의미나 행복 등의 주제를 다루는 과목을 공교육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수능이나 대학진학용 교육에서 벗어나 개별적 삶의 의미와 행복에 대한 포괄적 교육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학업형의 경우 학업자체가 아닌 공교육의 획일주의나 권위주의, 개성을 무시하는 교육체제에 대한 거부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그러한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형식이나 질의 변화가 요구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교육제도의 개혁이 요구되므로, 일단 단기적으로 자유학기제와 방과 후 학교를 이용한 인문학 교육의 강화를 꾀하고 장기적으로 수능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제도를 수정하여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여준은 물론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제도적 개선방향의 근거에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즉 수직적, 폐쇄적, 그리고 주입식 교육에서 수평적, 개방적, 그리고 개인의 인격과 차이를 존중하는 창의사고형교육이 그 뿌리로 자리 잡아야 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청소년을 ‘학교 안’은 정상, ‘학교 밖’은 비정상으로 보는 단순 이분법적 도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업중단과 학업지속이 청소년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 자기존재의 가치에 대한 인식 여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의 존재유무라는 프레임을 통해 청소년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2) 학교 밖 청소년의 실질적 돌봄을 위한 방안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2015년 5월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본 취지는 좋으나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우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고, 무엇보다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그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틀은 정해놓았지만 구체적인 범위나 한계, 그리고 의무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대부분 <~ 해야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지 언제까지 어떻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벌칙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분명 중요한 문제이지만 청소년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으로 보기 힘들다.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했을 경우 처벌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추가로 요구된다. 나아가 재정지원의 경우도 그 규모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즉각적 파악 및 연계시스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 15조 ①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할 경우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하며 ②항을 보면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역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실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비율이 40%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최인재 외, 2015), 학교와 교육청에서 발굴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해당 지역센터로 연계된 비율은 17.5%에 불과했고, 나아가 ‘청소년 쉼터’를 통한 지원센터와의 업무연계도 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백혜정, 송미경, 2015). 이는 여전히 관계 부처와 기관들 사이에 업무연계가 부족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로 배제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미 2012년 기준으로 소속이 파악되지 않은 청소년이 28만 명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윤철경 외, 2013) 2015년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현실인 것이다. 이 문제가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이유는 돌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소재와 신원파악문제와 별개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2015년 시행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일차적인 이유는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의무화하지 않고, 또 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제16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와 같은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5조를 의무화해야 하며 동시에 ②항과 마찬가지로 ①항에도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시에 대비하여 제20조 벌칙 조항에 추가로 벌칙사항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3) 학교 밖 청소년만의 Total-Care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교육강화

조사대상 31명 가운데 10명이 학업 중단 시 도움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상담센터나 위클래스에서 도움 받은 경우도 6명에 불과했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도움 받았다고 느낀 경우는 2명에 불과했다. 그런 상태에서 11명이 무계획이었고, 역시 다수가 미래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본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실질적 활동이 청소년들의 필요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는 사실이다.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기다리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돌봄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돌봄 프로그램들을 모두 통합한 Total-Care 시스템을 확립한 후, 돌봄의 주체를 중앙의 보편적 체계에서 지자체의 개별형 체계로 바꾸어 지역 현실에 부응하는 실질적이고 유연성 있는 돌봄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 유사한 형식이 될 것이나 위기 청소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만을 전담으로 한 지원체제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통합서비스 자체는 지역상황과 청소년의 유형별 차이, 나아가 궁극적으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학업형의 경우 다양성과 개성을 고려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안제시와 함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진로프로그램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며, 직업형의 경우 직업훈련기관은 물론 직업상담, 직업알선,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만을 위한 전담고용센터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의 경우 상담자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동시에 상담건수보다는 취업률이 실적이 되므로 1년 이내에 취업이 어려운 청소년들은 상담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는 부작용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개별적으로 전체 이행과정을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작성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도움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4)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교육 의무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서비스의 실질적 이용과 함께 학교 밖에서의 삶 전체를 위한 기초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기초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먼저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퇴동의서에 개인정보동의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의무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해주어야 하고, 청소년들에게는 학업중단을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학업중단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는 통합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 결석이나 가출 등으로 인해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지원센터는 각 지자체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소재파악 및 교육이수를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을 무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의 성공적 삶을 위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그 길을 제시해주는 것은 오히려 사회에서의 건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무업형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전담관리부서의 설립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은 삶의 동기와 의욕을 상실한 상태가 많다. 자기 스스로 도움받기를 거절하는 상황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부정적경로유지가 대부분이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의 도움이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방증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통합 서비스 내에서 무업형 청소년에 대한 전담관리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센터 내에 무업형 청소년 전담관리부서를 상설할 필요가 있다. 무업형 전담관리부서를 상설하기 전에 여가부, 지자체, 지원센터, 사회적기업 간에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무업형 청소년의 발굴-연계-지원-사후관리 등 통합적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 비용지불이 가능한 경우와 저소득층을 위한 무업형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대도시와 농어촌 모델을 구분하여 시범 실시할 필요가 있다.

(6) 1:1 멘토링제도 실시

학교 밖 청소년들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인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하고, 상담하며, 조언해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 멘토링이 의무화되어 있는 교대나 사범대학 학생들이나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학교 밖 청소년 멘토단>을 만들어 자원봉사 또는 일정급여를 지불하고 연수과정을 거쳐 필요한 청소년들을 파악하여 1:1 멘토로 활동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생 멘토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해당 센터와 근접한 대학생들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연합하여 매해 학교 밖 청소년 멘토단을 만들어 멘토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불어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꿈드림 멘토의 경우 영역을 구분해 놓고 있으나 청소년들이 정말 원하는 멘토는 교과목이나 외국어, 또는 특지 적성 지도 멘토보다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삶의 고민을 토로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나아가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존재일 것이다. 따라서 멘토링을 단순히 보충수업정도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선 멘토링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하고 사실 어려운 교육을 꿈드림 멘토의 경우처럼 1시간 정도의 기초교육으로 끝낼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주고, 학점연계봉사시간을 주는 것을 넘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멘토를 양성하기 위해, 재정적인 보수를 지급해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봉사라는 의미 외에 동기부여요소가 공존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7) 다양한 대안학교의 육성 및 제도권 유입 확대와 강화

제도권 교육의 다양성을 향한 노력과 함께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대안학교의 육성 및 제도권 유입 확대와 강화가 필요하다. 입시중심 수능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존하는 공교육 내에서 청소년의 인성 및 행복 나아가 삶의 질에 관한 포괄적 교육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효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공교육은 위에서 밝힌 바 최대한의 노력을 함과 아울러 현재의 공교육기관이 할 수 없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학교를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획기적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2016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시도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계획은 5개 권역의 시·도 교육청이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민간 대안교육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제도권 공교육과 대안교육을 융합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재 5개 권역 5개 학교를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대안교육 전문가의 선발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탁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내로 제한될 때 교육의 일관성 결여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2016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 지원 방안’ 역시 바람직하므로 보완,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학생들 안전관리 현황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대신, 해당시설에 있는 동안 취학의무를 유예해 주며 나아가 대안학교 등에서 쌓은 ‘학습 경험’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졸업장을 주도록 하는 방안의 본질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제도권 수용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 공교육 전체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 선택으로 보여 진다. 다만 장기적으로 대안학교의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미래지향적 융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안학교의 설립과 질 제고를 위한 지원노력을 정부가 기울일 필요가 있다.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기업과의 연계협력망 구축을 통한 실질적 직업 교육과 취업기회의 확대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을 위한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사관학교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가 있다. 전자의 경우 인력개발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을 통해 6개월 700시간의 직업교육을 시킨 후 취업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총 105명이 훈련을 수료하였고, 그 중 85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약79%의 취업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용노동부, 2015). 취업사관학교는 1년 동안 한 직종에서만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가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맞지 않는 특성이 있어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종 개발이 필요하다. 취업사관학교는 성인 위주로 청소년들이 이수하기에는 프로그램 특성상 유연성이 떨어져 탈락률이 높고 실패경험이 쌓여 거부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직업훈련을 받기 전에 소양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독일에서는 중학교 단계에 학업이수자와 중단자를 구분하여 도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업중단자를 위해서는 도제교육을 받기 이전에 전환기 진로교육 프로그램(School Transition Program: STP)을 실시하여 도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차상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부모가 계시지 않은 중도탈락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동의 해 줄 사람이 없어 취업 연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동의 규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는 그 수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도입할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이나 실적을 내기 좋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감안한 학교 밖 청소년 ‘취업성공패키지’의 신설이 요구된다.

그 외에 청소년지원센터와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기업이 직접 교육하고 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고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효과가 클 것이다. 매년 6~7만명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 중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다수인 현실에서 긍정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은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인력의 가능성을 보고 1차 선발한 후, 교육과 실습을 통해 실질적 검증을 거친 후, 최종 선발하여 고용할 수 있다면 맞춤형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참여기업에게 청소년 직업지원기업이라는 인증마크를 지자체수준에서 부여하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5). 비공개 내부자료.
- 김범구, 조아미(2013). 잠재계층분석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24(3), 5-30.
- 박창남, 임성택, 전경숙, 김성식(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백혜정, 송미경(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윤숙(2005).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중퇴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6(2), 295-343.
- 성윤숙, 박병식(2009).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윤숙, 손병덕(2014).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윤숙, 김정준, 김희진(2015). **청소년의 디지털 매체 및 서비스 이용실태 연구: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비교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윤숙, 박선영, 송원영(2016).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도 방안 연구: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 오병돈, 김기현(2013). **청소년복지정책 대상규모 추정: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3), 29-52.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최인재, 유성렬, 김강호(2015).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성윤숙, 유성렬, 김강호(2016).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2010). **학업중단 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이경상, 조혜영, 박창남(2003).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분석 및 취업지원 방안**.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숙영, 남상인(1997). **중도탈락 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최인재, 이경상, 김정숙, 장근영(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여성가족부.
- Denzin(1978).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str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2nd Ed.), New York: McGraw-Hi.
- Goetz, J. P. & LeCompte, M. D. (1984).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부 록

- 부록 1.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이행경로 심층면접 Guideline 및 설문지
- 부록 2.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이행경로 심층면접 조사내용 분류

[부 록]

부록 1.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이행경로 심층면접 Guideline 및 설문지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이행경로 심층면접 Guideline

Part 1. Introduction

◇ 조사 목적에 대한 소개

- 이 조사는 귀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 및 맞춤형 대책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고 이를 수렴하기 위해 인터뷰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들어가는 말

- 1) 본 인터뷰에서 나눌 내용은 모두 맞고 틀린 답이 없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소 생각하시던 생각과 의견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응답 중에 응답하기 곤란하시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아시는 만큼만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2) 응답한 내용 및 응답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비밀이 보장됩니다.

비밀에 대한 준수는 저희 한국 리서치에서 책임을 지고 준수해 드립니다.

다만 조사의 내용 분석을 위해 녹음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인터뷰 진행은 약 1시간~1시간 30분 내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Introduction

> 먼저 자세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한 인적 사항을 확인 하겠습니다

성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_____ 세
거주지역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동/읍/면
최종 학교를 그만둔 시기	_____ 년 (____ 학교 ____학년때)
현재 하는 일	

Part 1. 학교를 그만두기 전 생활경험

1. 가장 최근에 그만둔 학교를 다닐때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학교생활에서 확인)

- 학교의 분위기(엄격, 규범적, 자유로움) 및 이유
- 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
- 학교를 다니면서 어겼던 규범이나 규칙 및 어긴 이유
- (직업형) 학업을 수행하는 중 아르바이트 여부 확인 및 학업중단에 아르바이트가 미친 영향 확인

2. 학교는 어떻게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학교를 중단할 때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학교를 중단하게 된 과정을 본인의 스토리 식으로 이야기하도록 유도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
- 학교를 중단할 때의 학년과 상황
 - 학교를 중단할 때의 세부적인 과정 및 내용 (학교를 중단하게 된 과정을 스토리식으로 확인)
 - (1) 학업을 중단한 구체적인 계기나 사유(자퇴/권고 퇴학 여부, 비행 처벌 여부 등)
 - (2)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생을 설득하고 학업 중단을 방지하려는 기울였는지,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했는지 확인
 - (3) 학업을 중단할 당시에 상담 등 도움을 받았던 사람, 기관, 프로그램 이용 경험 여부
+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및 만족도와 이유
3. 학교를 그만둘 때 하고 싶었던 일 또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었나요?
- (있었다면)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왜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되었는지 질문
 - (없었다면) 목표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묻고, 목표가 없는 것이 불안하지는 않았는지 등 목표가 없는 상황에 대해 청소년이 받아들이는 생각과 감정 등을 확인

Part 2.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경험 I

1. 학교를 그만둔 이후 현재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 하루 일과를 자세하게 확인
(기상/취침 시간, 학교/검정고시학원/직장/아르바이트에 다니는 시간, 친구를 만나는 시간 등)
 - **(학업형)** 대학/중고등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학교를 다닐 때(학기중)와 방학 때로 나누어서 확인
 - **(직업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시간 등을 자세하게 확인

- (무업형) 식사, 운동 등을 하는지 여부 확인
- (무업형/비행형) 쉬거나 놀 때 무엇을 하면서 놀거나 쉬는지 (게임 등) 자세하게 확인

Part 2.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경험 II

1. 현재 학업을 그만두고 최근 1년(2015년 8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동안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 학업 중단 후 1년 전까지는 하지 않다가 최근 1년간 새롭게 시작하거나 하게 된 것이 있는지 여부
 - (직업 관련) 최근 1년 이전에 일을 했더라도 Part time Job에서 Full time Job 또는 다른 형태로 변화되었는지 여부 확인
 - 최근 1년 이전에 시작한 것 외에 그만둔 것 여부 확인
2. 학교를 그만 둔 후 대학에 다닌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Part 3.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경험 III (학업 관련 내용)’ 질문
3. 학교를 그만 둔 후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Part 3.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경험 III 에 (직업 관련 내용)’ 이하 질문

Part 3.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경험 III (학업 관련 내용)

1. 검정고시를 보거나, **대학교**를 다닌 경우: 검정고시 시기, 대학교 유형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
 - ① 중고등학교 재입학 ② 검정고시 준비 ③ 검정고시 합격
 - ④ 대학 입시 준비 ⑤ 대학 입학(휴학 / 중퇴 등 포함)
 - ⑥ 기타 (대안학교, 홈스쿨링, 인강 등)

1-1. (검정고시 / 대학 입학자 대상) 학교를 그만둔 후 어떤 공부를 했는지 단계적으로 말씀해주세요.

1) 검정고시 준비 및 합격자(② 검정고시 준비, ③ 검정고시 합격) 대상 질문

-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검정고시를 보는(본) 이유
- 학교를 그만두고 얼마 후에 검정고시 준비 시기
- 검정고시 준비 방법(혼자 또는 학원)
- 검정고시 학원 유형(온라인, 오프라인 학원)
- 검정고시 준비 후 얼마만에 합격했는지 여부(기간)
- 검정고시 준비 및 합격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 또는 도움이 된 것

2) 대학 입학자(⑤ 대학 입학(휴학 / 중퇴 등 포함)) 대상 질문

- 학교를 그만둔 이후 대학에 진학한 이유
- 입학한 대학명, 학과명, 현재 학년,
- 입학 시 상태(고교 졸업 / 검정고시), 입학 유형(수시/정시)
- 현재 상태 (재학 / 휴학 / 자퇴 등)
- (검정고시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정보획득 경로
- 해당 대학 / 학과를 선택한 이유 및 계기
- 학교를 그만둔 이후 대학을 진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된 사람 또는 도움이 된 것

1-2. (검정고시 / 대학 입학 준비자 및 입학자 대상) 아래 내용 추가 질문.

- 1) (④ 대학 입시 준비) 학업중단 후 대학에 가려는 이유
- 2) (공통) 학교를 그만둔 후 검정고시와 대학입시 준비 외에 추가로 배웠던 교육 내용 여부
- 3) (공통) 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경험과 비교하여 다른 부분 및 본인에게 유익한(더 잘 맞는) 이유
- 4) 현재의 생활이 만족스러운지 여부 및 그 이유 확인

1-3. 중고등학교 재입학자 대상 질문

- 1)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업을 복귀한 이유
- 2) 학업에 다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 3) 복교 후 적응 방법
- 4) 복교 한 학교 유형(기존 학교 또는 다른 학교) 및 복교 학교 선택 이유
- 5) 최종적인 학업 목표(대학진학, 고졸 등)
- 6) 학업을 복귀한 것에 대한 만족도

1-4. 기타(⑥ 기타 (대안학교, 홈스쿨링, 인강 등)) 대상 질문

- 1)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업을 복귀한 이유
- 2) 학업에 다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 3) 복교 후 적응 방법
- 4) 복교 한 학교 유형(기존 학교 또는 다른 학교) 및 복교 학교 선택 이유
- 5) 대안학교, 홈스쿨링, 인강 등을 통한 최종적인 학업 목표(대학진학, 고졸 등)
- 6) 학업을 복귀한 것에 대한 만족도

1-5. 학업 관련하여 PART II(최근 1년동안 한 일)에서 언급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이유를 질문

Part 3.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경험 III (직업 관련 내용)

2. 취업 /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직업 및 아르바이트 유형을 세부적으로 확인

- | | |
|-----------------|---------------|
| ① Full time Job | ② 단순 아르바이트 |
| ③ 직업훈련 | ④ 기타 취업 관련 행위 |

2-1. 학교를 그만둔 후 현재 (직업훈련/일)을 했다고 했는데,

- 1) 학업을 그만두고 (직업훈련/일)을 하게 된 계기
- 2) 직업 훈련을 받은 경험 여부 및 직업훈련 내용
- 3) 직업 훈련의 도움 정도 및 이유
- 4) 현재 일자리 또는 가장 오래 일했던 주된 일자리 1개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 질문
 - 취업 계기, 방법 및 이유
 - 일자리 관련 정보 획득 경로
 - 일자리 산업/직업 내용
 - 근로시간, 시급, 근로환경, 억울한 일을 당한 경험 등
 - 일자리 근무지,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이유
 - (그만두었을 경우)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 현재의 생활이 만족스러운지 여부 및 그 이유

2-2. (학업-직업전환형) 추가 질문

- 1) 학업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에서 직업을 갖게 된 계기
- 2) 직업을 본격적으로 갖게 되면서 얻는 것 및 달라진 것

2-3. 직업 관련하여 PART II(최근 1년동안 한 일)에서 언급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이유를 질문

3. (무업형) 현재 무업 여부에 대해 확인, 보호관찰 여부 확인

3-1. 보호관찰 대상 질문

- 1) (보호관찰을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았을 경우) 보호관찰에 대해 질문
 - 보호관찰을 받게 된 사건, 느낌
 - 보호관찰관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및 관계
 -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도움/만족 정도 및 이유
 - 앞으로도 비행을 계속 할 것으로 생각되는지 및 이유

3-2. (무업형) 대상 질문

- 1) 현재의 관심사, 관심사에 대한 정보탐색 여부 확인
- 2) 현재의 생활이 만족스러운지 여부 및 그 이유

3-3. PART II(최근 1년동안 한 일)에서 최근 1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다고 응답할 경우 이유 질문

Part 4. 학업중단 후 힘들었을 때 및 향후 목표

1. 학교를 그만둔 이후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무엇 또는 어떤 생각이 가장 힘들게 했나요?

1-1. 힘들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했나요? 혹시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나 기관이 있었나요?

-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 기관, 프로그램 이용 경험 여부 확인
- 도움 받은 기관 또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기관유형,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및 만족도와
이유 확인

2. 앞으로 하고싶은 일 또는 목표가 있나요?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지 말씀해 주세요.

- (대학에 다닌 경험이 있는 경우) 대학졸업 후 하고싶은 일, 목표 확인

3. 귀하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_____을 이용해볼 생각이 있나요?

- (현재 대학에 다니는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구하는 데 필요한 도움 추가로 확인
-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센터) 등을 다니면서 배울 의향이 있는지 확인
 - ① 꿈드림 센터 등에 대한 인지도

- ② (꿈드림센터 설명 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 여부 및 이유(참여 의사 有/無 모두에 대해) 확인
- ③ 희망하는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 (일을 한 적이 있는 경우) 직업훈련에 대한 인지도, 이용의향 및 이유 등을 추가로 확인
(직업전문학교, 취업사관학교, 취업성공 패키지 등을 예시로 제시한 후 확인)
 - ① 직업훈련에 대한 인지도 확인
 - ② 직업훈련을 받을 의사 여부 및 이유 확인
 - ③ (의사가 있을 경우) 희망하는 직업훈련 내용 및 이유
(의사가 없을 경우) 월 수업이 얼마 정도 지원한다면 직업훈련을 받을지 확인

Part 5. 대인 관계

1. 부모님의 양육방식
(허용적인 부모, 방임적인 부모, 민주적인 부모, 권위주의적인 부모)
2. 부모님과의 관계 변화(학업중단 전과 후 비교)
(달라졌다면) 달라지기 전과 이후 중 어느 것이 귀하가 생각하기에 좋은 관계라고 생각되나요?
달라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되나요?
- 정서적 지지, 경제적지지 등
3. 현재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및 1일 평균 대화 시간
4. 현재 주로 만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학업 중단 전에 만났던 친구들과, 학업중단 이후에 만났던 친구들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 학업중단 전후에 주로 만나는 친구 유형의 변화 여부, 만나서 주로 하는 일을 확인

- 학업중단 후 만난 친구를 만나게 된 경로, 친구의 유형, 친구의 비행성향 등 확인
- 학업중단 전에 만나는 학교친구를 계속 만날 경우 어떤 학교친구인지 확인(비행성향 등)

5. 학업을 중단한 이후 부모님이나 친구 외에 만났던 다른 어른들이 있나요?

- 학업중단 이후에 만난 어른 유형, 소속 기관, 만나게 된 계기 등을 확인

6. 지금까지 말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본인에게 제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Part 6. 현재 정신 및 심리상태

1. 하루 스마트폰은 얼마나 사용하며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무엇입니까?

2. 어떤 게임을 하루 몇시간 정도 하고 있으며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요?
-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주변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가요?
없다면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요즘 우울한 기분이 들 때가 있나요?

- 언제부터 우울감을 느꼈으며 얼마나 크게 느끼고 있나요?
-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러한 기분으로 인해 복용중인 약이 있나요?

5. 자살시도 경험이나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경험)

- 언제 그런 시도를 하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살시도를 하고 난 후 도와줬던 사람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세히 말해주세요
없다면 그 당시 필요로 했던 도움은 무엇입니까?
- 자살시도를 하고 난 후 치료를 받고 있거나 복용중인 약이 있나요?

(생각)

- 얼마나 자주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들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한 방해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 가족, 종교 등)
- 자살에 대해 깊게 생각했을 때 구체적인 방법까지 계획했습니까?
- 자살에 대한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 실제로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부록

부록 2.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이행경로 심층면접 조사내용 분류

질문: 가장 최근에 그만둔 학교를 다닐때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학교생활에서 확인

– 학교의 분위기(엄격, 규범적, 자유로움) 및 이유

□ 엄격함

5. 성지고등학교.

그냥 보통 학교랑 다르지 않았어요. 엄격했어요. 교회 재단이라서 되게 엄격했던것 같아요. 일단 제가 다른 고등학교에 간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 봐도 저희학교가 등교시간도 빠르고 자각도 되게 엄격했고요. 교내 흡연도 두발이나 복장도 엄격하고...

10. 구덕고등학교

많이 엄격했어요. 머리규정이나 그런것들 좀 엄격했어요.

14. 부산마케팅고등학교(여고)

전문계인데 그래도 많이 풀여지지 않았어요. 신발도 정해진걸 신어야되고 치마 길이도 정해져있고... 학교가 인문계 정도로 엄격했어요. 전문계 인데 그렇게 풀여지지도 않고

16.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자유로운 부분에서는 자유로운데 엄격한 부분에서는 엄격했죠. 자유로운 부분은 그냥 체육시간에 노는거 딱 그거하나... 그러니까 제가 체육을 좋아해서 체육시간에 하는게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동아리도 자유롭게 했던 것 같고요. 학교분위기는 엄격했어요. 규율, 복장 하나 다, 교복 사이에서 나오는 저희 학교교복이 있는데 그 교복을 우리가 입고갔는데 똑같이 그냥 나온거 줄여지도 않고 그냥 입고 갔는데 밑에단 박았나. 터라고 칼로때는데 짜지도 않고 선생님이 했는데 다 짜진적도 있었어요. 그런거는 엄격하죠. 무릎의 반 까지는 되는데 저희가 여기까지는 박혀있는데 여기부터는 주름치마 그런거였는데 여기단이 많이 내려오면 인도는데 저희가 교복 산 곳은 많이 내려온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했는데 했다고 그래서

17. 운암고등학교.

저때는 조금 특이한게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같이 배정받은 게 전교조 선생님들이 저희학교에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그렇게 한 학교에 많이 몰리는것도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다 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학교 교육열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질, 분위기는 굉장히 관촬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교육에 대해서는 되게 새로운

시도를 하시거나 특히 교과목이 한정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다양한걸 시도 해서 그런 것 들은 되게 좋았는데 학교같은 경우, 학칙이나 두발 규정 이 있었어요. 그런데 1,2 학년때는 패심했죠. 이렇게 머리를자 크다. 머리가 어느정도 길면 그냥 너는 내일부터 단정하게 해 와.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안자를수없게 가위로 잘라버리거나 바지 같은 경우에는 밑단품을 줄이면 바지를 그냥 자르기도 했고 다음날까지 안살수없게 만드는그렇게 했고 약간교육에 대한 분위기랑 학교안에 그런규정에 대한 분위기랑 되게많이 달랐어요.

23. 풍동중학교.

경기도 내 에서도 어느정도 순위권 안에 되는 학교라고 선생님들 이 강조를 하는분위기였고 소위말하는 날라리도 많은편은 아니 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이 굉장히 잘이끌어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규율이 좀 엄격했던 것 같아요. 학주 선생님이 좀 무서웠던걸로 기억해요.

25. 창문여자고등학교.

교칙이 강하고 학업같은걸 중요하게 여기는, 강했던

26. 강남중학교.

평범한 그냥학교 조금 엄격했어요. 벌점제도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28.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

분위기가 그냥 일반 실업계처럼 분위기가 전반적 으로 나쁜지는 않았어요. 활기차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실업계니까 공부보다는 노는쪽에 많이 치중된 그런 학교 분위기였죠. 엄격하기는 했어요. 학생의 신분에 벗어나는 술, 담배나 학교 안나오는 것도 다른 학교보다 엄격했고요. 자각도 두발은 그냥 타학교랑 비슷 했던 것 같아요.

31. 내성고등학교(처음에그만둔고등학교)

분위기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말쯤에 학교 패고 애들이랑 놀다가 갑자기 인문계로 가려니까 적응도 안되고 중학교 때 같이 놀던 친구들도 같은 학교가 아니고 그래서 적응을 못해서 가출해서 일단 친한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적응이 안됐어요. 또 선생님이 누워있자마라, 엎드려있지 마라, 그런 것 때문에 또 놀고 싶었는데

질문: 가장 최근에 그만둔 학교를 다닐때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학교생활에서 확인)

– 학교의 분위기(엄격, 규범적, 자유로움) 및 이유

□ 자유로움

1. 경민고등학교

그냥 일반 공고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희 학교 건물이 2개였는데 저희 과 동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섭고, 근데 저희반에 여자아이가 5명, 앞반에는 10명, 뒤반에는 1,2명 정도로 여자가 별로없었어요. 근데 여자선배들은 담배피고 학교 화장실 잠귀놓고 무서운분위기. 그냥 분위기도 무섭고 의정부에 공고가 2개가 있는데 의공고도 있고 여기도 있었는데 그 의공고보다는 낫다고 담임선생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갔는데 근데 의공고 다니는 애들 말을 들어 보면 별로 다르게 없는거예요. 제가 상상하던 분위기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의 교칙이나 규칙이 엄격한편이었어요? 두발을 감하게한다든지?

아니오, 저희때는 학생인권 때문에 못대리게하고 엄색도 다 허용하고 그냥 담배피지말라는 정도.

2. 연남중학교

제가 전학을 자주 다녔다고 했잖아요. 전학 오기전에 목포에 살았어요. 전라도 애들이 좀 드세거든요. 제가 몸도 왜소해서 많이 나서지 못했어요. 근데 서울 애들은 그것보다 부드럽게 드세지가 않고 괜찮다고 하면서 그런식으로 하니까 오히려서울 생활을 하다보니까 중학교 생활이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6.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

분위기는 좋았어요. 애들도 다 좋고 선생님도 다 좋았는데 제가 그때는 엇갈려서 안다니겠다는 욕심에 그만뒀는데 학교 안가고 애들끼리 놓고, 학교 안다니는 애들이랑 놀다가 그 정도로 엄하지는 않고 학교마다 다 똑같듯이 두발이나 복장정도.

7. 물금고등학교(일반고)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했다가 마용고등학교로 전학갔어요. 저한테 매우 안맞았어요. 그냥 전부 다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원래 거기가 공부잘하는 애들이 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대로 살아보자고 갔는데요. 도저히 적응이 안돼서... 적응이 안됐던건 아자, 아자를 못배서, 뽕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도망다니기 시작하다가 일부러 도망가다가 그렇게해서

마용고등학교

너무 프리했어요. 두발은 엄색, 파마도 자유고요. 그리고 수업시간에 그냥 3분의 2는 전부 다 자고 학교 안나오는 애들도 많고 많이 자유로웠어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좋게 느껴졌어요.

8. 신길고등학교

모르겠어요. 얼마 안다녀서 그냥 되게 활기찬 것 같았는데.. 그냥 처음 본 애들도 활기찬 느낌. 규범이나 규칙같은 것 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나는데

13. 영동일고

생긴지 얼마 안된 신설이라서 학생들은 다 대부분 좋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많고 일반적인 학교보다 좀 더 좋다는 느낌을 받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규범이나 교칙은 일단 다른학교와 비슷했는데 시설이 아무래도 다른학교에 비해 좋아서 그런 분위기상 더 좋다고 느끼는.

15. 웅천고등학교

너무 자유로웠어요. 학생들이 수업 도중에 나가고 좀 안 좋은 학교예요. 근데 요즈음은 바뀌어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나중에는 벌점주고마니까. 그게 선생님이 말을 안들으면 선생님이 주는 벌점이 30점인데 그게 200점이 채워지면 퇴학이 거든요. 친구들이 괜히 밖에 있으니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애들도 있고 자기들 마음이에요. 비오면 학교 안오고

18. 명곡고등학교

분위기는 자유로웠던 편. 그냥 두발검사같은 것도 심하게 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20.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

좋았죠. 뭐라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분위기는 그냥 다 친구들이었고 그냥 다 괜찮았어요.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았어요.

24. 세륜중학교

약간 자유로웠어요. 그냥 애들끼리 잘놓고 선생님들도 분위기는 좋고 복장은 다른학교처럼 차마 짧으면 혼내주고 다른건 없었어요. 교칙이나 규율도 엄격하지 않구요.

29. 상일미디어고등학교

약간 날라리나 양아치가 많은 그런 느낌. 원래 저희학교가 제가 2년도부터, 1학년때가 학교 바뀐지 2년 되던해 있었는데 원래 상일공고 라고 안좋은 곳 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미디어고등학교로 특성화 고등학교로 바뀌면서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2년제로 하다보니까 양아치애들이 많은곳이었어요. 과 마다 분위기가 달라서 저희과는 그나마 무리가 나뉘는거. 애는 애, 저는 저. 이렇게 무리가 나뉘져서 예를 들면 조용한 애들, 어디를 가나 똑같겠지만 조용한 애들, 시끄러운 애들. 날라리, 양아치들. 근데 저희쪽 애는 양아치는 없었고 좀 시끄러운 애들. 프리해요. 거의 단속을 안해서 머리도 그렇고 사복을 입어도 뭐라고 안하고, 저도 사복 입고 오고

30. 대전여자고등학교

학교 분위기는 다니려면 다니고 말하면 말아라.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 라서 사람이 풀어졌다고 할까요. 너무 헛된 그런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다니면서.. 학교를 전학간 계기가 자퇴하려고.

□ 평범함

9. 신일여자고등학교(실업계),

그냥 평범했어요.

11. 경주정보고등학교

엄격할때는 엄격하고 풀어줄때는 풀어주고. 엄격한건 수업을 들을 때 엄격한 선생님들이 있었죠. 자유로울때는 진짜 확 풀어주시니까 놀때는 놀라는식으로...

12. 포항여자중학교

좀 시끌시끌 했던 것 같아요. 산만하고 조용한편은 아니었어요. 엄격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았어요. 공부를 강요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9. 심인고등학교

분위기는 그냥 보통. 별다르게 크게 느낄거 없었어요. 두발

질문: 가장 최근에 그만둔 학교를 다닐때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학교생활에서 확인

– 학교의 분위기(엄격, 규범적, 자유로움) 및 이유

- 만 단속했어요. 길면 안되고 엄색 안되고,
21. 풍문여고
그냥 무난.
22. 백마중학교
애들이 착하고 선생님들도 좋고 좋은 분위기였어요. 교칙이
엄하거거나 그런건 없었어요.

27. 선유고등학교,
나쁘지는 않았고 약간 중학교때 보다 자유로운것도 있었고
머리 하고 담배 뽐내고 쉬는시간에화 장실가면 화장실 마다
뽐새거나 고3 학년층 은 완전 분위기는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학업분위기는 나쁜건 없었어요. 벌일도 없었고 무난하게

질문: 가장 최근에 그만둔 학교를 다닐때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학교생활에서 확인

– 선생님과과의 관계

□ 좋았음

1. 그냥 담임 선생님이랑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차기운 이미지였어요. 특별한 이벤트나 트러블은 없었어요.
2. 선생님들과 관계도 딱히 안좋았던 선생님은 없었던 것 같고,
특히 국어선생님께서 많이 저를 왓지 모르겠는데 예뻐해주시더
라고요. 담임 선생님만큼 친했죠. 다른 담임 선생님 만큼...담임
선생님은 아무래도말는 아이들이 많잖아요.국어선생님이나 과
목선생님들은 그 과목수업외에 만날일이 별로없잖아요. 그래서
담임선생님 만난것에 비해서 친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국어선생
님은 다른 사사로운 시간에도 부르셔서 뭐 좀 도와달라고 하시고
뭐도 갑자기 사주시고 가서 음료수 사주시고 그러니까
7. 일반고- 아무래도 공부도 안하고 아자도 빼먹고도 망치니까
별로 많이쑤쑤.
미용 고등학교-좋았어요.
9. 그냥 그랬어요. 선생님이랑은 좋았는데
10. 선생님 하고도 괜찮고, 담임선생님 하고 괜찮았는데 학교 머리잡
는 그런 학주선생님하고는 안좋았던 것 같아요. 머리가 되게
엄격하게 잡아서 음악선생님 이었는데 음악실에 데리고 가서
바리깡으로 머리 밀어 버리고 그랬거든요.
11. 엄격 하신분들은 엄격하고 착하신분들은 착하고, 다 괜찮았어요.
제가 원래 말쑥부리는애가 아니라서.
15. 그런건 그냥 좋았어요.
16. 선생님들 하고는 그렇게 좋은편은 아니었어요. 선생님하고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담임 선생님하고는 좋았어요. 과목마
다 들어오는 선생님들과하고는 사이가 그렇게... 학교에 가기
싫었거든요. 맨 처음에 학교 가기 싫고 맨처음에는 적응기간
때학교애들 하고는 다친해졌는데 선생님들이 바뀌고 나니까
완전하기싫은거. 영어같은 경우는 영어를 못읽으니까 모르겠어
요. 못읽겠어요. 어떻게 읽어내요? 물어보면 너는 초등학교때
안 배웠어? 중학교때 아무것도 안배우고 고등학교 올라왔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것도 있고 과학시간때도 몰라서 질문을 하면
가르쳐주긴 가르쳐주는데 기분안좋게 가르쳐주거나 이런게 있
어서 그 뒤로 처음에 과목 처음들어갔을 때 잘들었는데 점점갈수
록 선생님들이 화나게 하고 기분나쁘게 하니까그냥 수업 아예
안들어야겠다고 잠을 자면때리죠. 그것 때문에 싫어서 학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계속 그러지말자고 잡아서
2학년까지 버티다가 2학년 선생님은 또 잡는 선생님이 아니라서
그만됐죠.

17. 저는 미술 동아리를 해서, 학교에 미술 동아리가 따로 없어서
만들고 제가 부장을 하면서 후배들도 많이 만나고 선생님들이랑
계속 관계하면서.
20. 되게 친했어요.
21. 그냥 어떤선생님은 사이가 좋기도 하고 어떤선생님은 그냥 평범
하기도 하고 그렇게
22. 선생님들이랑 3학년때까지 관계는 좋았고, 고민도 잘들어주시고
중학교3학년때 담임선생님이 제일 좋았어요.
23. 비교적 좋은편 이었어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는편
이었고
24. 괜찮았어요.
30. 담임선생님 하고는 절 많이 좋아해주셨고 제가 학교를 다니는듯,
마는듯, 그래도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너는 그래도 학교 그래도
잘나와야되고 공부를 하든 안하든, 이런식으로 신경을 써 주셨
어요.

□ 좋지 않음

3. 그냥 너무 안맞았어요. 저도 그래서 그만두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쪽 체육 그 쪽 선생님이 너무 단호하게 전학을 가라고
그래서, 되게 그것 때문에 부모님과 학교측과 많이 싸웠어요.
5. 안 좋았어요. 저희 담임선생님이 특히 엄격해서 애들을 되게
많이 때렸어요. 과학선 생님도 엄격했던 것 같은데 별로 안마주처
서
8. 안좋았죠. 그냥 제가 학교 그만두고 자주 계속 빠지고 그래서
담임선생님이랑 좀 안좋았죠. 다른선생님이랑은 그저 그랬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자기 마음이에요. 뭔가 학생들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너는 내가 어떻게든 퇴학을 시키겠다.
자퇴를 시키겠다. 그런식이었어요.
25. 1학년때는 그냥 무난하고 엄청 어느다른애들 정도로 잔소리를
들어본적은 있는데수업에 집중을 안하냐는 정도로 있었는데
그렇게 그런건없었어요. 2학년 때 자퇴를 했었던 그 학년 담임선
생님이랑 사이가 안좋았어요. 근데 너무 나빴던거는 아닌데 그냥

질문: 가장 최근에 그만둔 학교를 다닐때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학교생활에서 확인)

– 선생님과 관계

저를 별로 안좋아했고 저도 별로 안좋아했고 이유는 시키는 걸 제가 잘안했던 것 같은데 심부름 시키면 다른애들은 되게 잘했는데 저는 왜 그렇게 사적인 걸 제가 해야되는지 모르겠었니까 사적인걸 시키셨거든요. 선생님 때문에 그만 둔 결정적인 계기는 아닌데 없지는 않아요. 이유가

□ 아무런 관계없었음/평범했음

4. 특별한 관계는 없었어요.
12. 그냥 선생님과 학생, 친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물어볼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런정도.
13. 친밀하기보다는 그냥 얘기를 하던 선생님. 따로 상담은 잘안했고 일반선생님 이라고 느끼는정도.

14.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냥 제자였죠. 말썽도 안파우고
18. 일주일밖에 학교를 안나갔으니까 특별한 관계는 없었어요.
19. 그것도 그냥 그저 그랬죠.
21. 그냥 어떤선생님은 사이가 좋기도 하고 어떤선생님은 그냥 평범하기도 하고 그렇게
26. 친했어요.
27. 선생님들도 별로 특이사항은 없었는데
28. 수업도 나쁘지 않았어요
29. 몇몇은 좋았는데 2명 정도는 제가 싫어했어요. 그 선생님도 저를 좋게 보지는 않았고
31. 내성고- 나쁜것도 없었고 좋은것도 없었고요.

질문: 가장 최근에 그만둔 학교를 다닐때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학교생활에서 확인)

– 친구들과 관계

□ 좋았음

2. 제가 약간 중학교 때 소심했어요. 목포에서 드센 애들 옆에 있다보니까. 위축되기도 했는데 서울애들이 약간부드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를펴고 서울에서 생활하게 됐고 그래서 반 친구들이랑도 친하고 옆 반 친구들이랑 도 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학 온 학교가 남자, 여자 합반이었는데, 여자애들이랑은 별로 안친하고 남자애들이랑 했던것 같아요.
7. 그냥 전부 다 좋았어요.
10. 반 친구들이랑은 친했어요. 그렇게 싫었던 애들은 없는데 일잔같은 애들이랑은 별로 안친했어요.
11. 다 좋았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14. 잘지냈어요. 지금 친구들도 다 고등학교때 친구들 이거든요.
15. 그런건 그냥 좋았어요.
16. 친구들 하고는 사이가 좋았는데
17.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는 좋았어요. 저는 제가 동아리를 직접 만들기도 했고. 물론 사이가 안좋은친구는 있죠. 사람간에 싫어하는 사람은 있으니까.. 그래도 다 원만하게 잘지냈어요.
19. 친했어요. 그냥 떠들거나 롤같은 게임 얘기하거나.
20. 친구들 하고도 잘지냈고
22. 2학년때 까지 애들이랑 좀 안좋았다가 3학년 때 애들이랑 친해진 편 이에요. 제가 몸에 지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틱장애 라고도 하고 그런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자주 놀리고 그렇게 알보는 경향이 있어서 많이 말다툼도 하고 싸우다가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친구들을 때린적이 한번도 없어서 예전에는 맞?만 했어요. 제가 일단 마음을 다르게 먹고 친구들이랑 마지막까지 안좋게 하면 나중에 연락도 안할것같아서 제가 먼저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말도 걸어보고 그렇게 했더니 친구들이 조금 감정적인게 풀려서 친해진 것 같아요.

23. 친구들 관계도 제 생각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26. 친했어요.

□ 좋지 않음

1. 그냥 별로 잘 적응을 못해서 개네들도 술마시고 담배 피는 무리들
3. 운동할 때 친구들은 약간 경쟁이거든요.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이 사람을 이겨야 내가 인정을 받는 건데.
4. 중학교 때는 운동만 생각해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학교 끝나면 바로 체육관에 가서 운동했어요.
9. 그냥 친구랑 싸웠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냥 이유없이 시비가 붙어서 싸웠던 것 밖에 기억이안나요.
24. 친구 딱 몇 명이랑 싸워서 안좋았어요.
27. 고등학교 친구들이랑은 잘안놀았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29. 저는 학교 친구들 보다 원래 중학교때 어울리던 애들이 있어서 개네랑 지금까지도 계속놀아서, 학교 애들이랑은 별로 안놀고, 학교애들은 1,2명, 1명이 제 중학교동창인데 같이 학교에가서, 꿈이 비슷해서요. 개랑 연락하는거 말고 학교 애들은안만나요. 학교 안에서는 어울리는데 학교 끝나고 학교 후 예는 안어울려요. 원래 보통학교 끝나고 노래방 가고 당구장 가고 그러는데 저는 따로 만나는 애들이 있으니까 개네들이랑 만 놀고

□ 평범했음

5. 그냥 나름 괜찮았어요.
8. 그냥 평범했어요. 잘 어울리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런 거, 갈등 같은 건 별로 없었어요.
12. 친구들도 친한친구들은 친하고 안친한친구들은 안친하고, 특별히 사이가 나쁜친구들은 없었어요.

**질문: 가장 최근에 그만둔 학교를 다닐때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학교생활에서 확인)**

- 친구들과의 관계

- | | |
|--|---|
| <p>13. 친구들을 많이 사귄편은 아니었어요. 워낙 연초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1학기 끝나기전에 자퇴를 해서 그렇게 많이 친한친구들은 없었고 몇 명은 알아요.</p> <p>21. 친구들도 무난하고 평범한 학생들처럼 평범하게 지냈어요.</p> <p>25. 그냥 무난했어요.</p> | <p>28. 학교에서 친구들 하고 관계도 나쁘지 않았고</p> <p>30. 친구 관계는 그냥 그럭저럭, 친구들 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고 친한친구들은 친하고 친구들도 그래도 많이 사귀었죠.</p> <p>31. 내성고-나쁜것도 없었고 좋은것도 없었고요.</p> |
|--|---|

질문: 규범 위반 경험

□ 지각 및 출결

1. 없어요. 그냥 학교에 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다 병결 처리고
5. 지각 같은거 좀 걸리기는 했고요. 그거말고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걸리면 맞아요. 벌점이라 그냥 얹드려 뺏쳐해서 대걸레로.
7. 일반고-아자빠먹기
미용고등학교-흡연, 그리고 중간에도 망가는거 그리고 학교 그냥 결석하는 거
8. 도망친거, 수업중에, 점심시간 때 계속 빠진거, 집으로 가고 그런거. 이게 2, 3번째인데 제가 가출한적이 있어서 7번 정도는 된것같아요. 너무 재미가 없고 틀 안에 갇히는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그냥나왔죠.
14. 학교를 안간게 어긴거죠.
17. 저는 일단 고등학교 3학년때 자퇴를 한 게 크게 어긴거고 그때는 무단결근이었으니까 그것말고는 학교다닐때는 사실 좀 모범생처럼 지내서 딱히 학칙을 어기거나 그랬던적은 없어요.
28. 일단 술, 담배는 넘어서 적은 없는데 주로 지각이랑 무단결석, 그런데 주 원인 학교를 제가 안나오니깐 학교쪽에서 학교로 무단결석이 많으면 약간 퇴학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른학교에 비해서 규칙이 강해서 자퇴희망서 라고 할까요. 그런거를 한 번 쓴 적이 있었어요. 학교를 안나가다 보니까.
29. 지각, 머리, 복장 정도. 딱히 크게 어긴건 없어서요. 교내봉사 하고 머리 밀리고

□ 화장/두발 등 교내규칙

2. 친구들이랑 놀다가 연남 중학교가 연남고등학교로 이어져있어요. 건물 하나를 기준으로 거기가 운동센터거든요. 아래에 유일하게 매점이있어요. 거기서 애들하고 점심시간에 가면 안되거든요. 절대로 가면 안되거든요. 봉쇄되어 있어서. 그 외에는 지각도 없었고 머리는 길어서 한 번 걸렸던 것 같고.. 심하게 어겼던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6. 많죠. 그냥 어기다보면 복장. 애들이 바지도 줄이잖아요. 저도 줄였는데 동복을 입는 날씨에 제가 하복을 입고다녀서 두발, 결석, 지각, 담배
9. 복장위반 귀찮이한거
10. 사소하게 지각하거나 그런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머리는 좀 많이 걸리고, 바리깡으로 밀려본적도 있어요. 2번정도.

15. 그냥 학교에 복장불량, 넥타이 안매도 벌점 들어오고
23. 지각 한 적도 있고요. 복장. 명찰을 안한다든지 치마가 너무 짧거나 또 학교가 화장품이 안되잖아요. 그런거 갖고 다니다가 걸린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24. 체육복 입고 등교하는 거
26. 학교 청소, 반성문 같은거 많이 썼어요. 주말에 모여서 여의도 돌고 반성문 쓰고
27. 신발 신고 다녀서. 원래는 실내화 신어야 해서요. 지각도 학교 그만둘 때 좀 많았어요.

□ 술/담배/오토바이 등

16. 2번. 친구가 보조배터리 있다고 해서 집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같이 가져가고 달라고 해서 그때 친구가 오토바이 타는 애라서 오토바이 뒤에 타라고 타고 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데 학교 방과 후 였는데 가방을 학교에 두고 와서 그 배터리를 들고 학교에 갔는데 오빠들한테 걸린거예요. 학교 선배들한테 걸려서 너희 학생부에 넘긴다고 그래서 그거 한 번걸리고 그래서 징계요. 그냥 교내 청소, 담배, 흡연 방과 후 에 그냥 학교밑에 좀 많이 내려가서 밥먹고 딱 한 대뺐는데 선생님이 와서
20. 일단 담배 같은 것 도 그렇고 아니면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는것도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밖에도 나갔었고 교문을 벗어난 거나, 화투 치지 말라고 하거나 그런것들. 징계는 담배 때문에 한 번 받았어요.

질문: 학업중 아르바이트 경험**□ 경험있음 (음식점 서빙)**

14. 1학년 때 아르바이트 했었고 2학년때도 했었는데 학교를 4, 5월부터 안갔으니까 학교 안갈 때 아르바이트 다녔죠. 곰창집에서 알바하고, 학교 6시에 마쳐서 10시 까지 하고 4시간 짜리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6시부터 10시 까지 하고 일주일에 3, 4번 출근 했었어요.
16. 주말 아르바이트, 뷔페에서 접시 치우고 테이블정리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부터하다가 중학교는 졸업을 했는데 그 틈 사이부터 쭉해서 고등학교 2학년 말, 그만두고 뷔페만 하다가
29. 고1 때 했던거 이후로는 고3 그만두기 전 까지 따로 아르바이트는 안했어요. 몇 번, 패스트푸드점이랑 편의점 정도, 학기중에는 패스트푸드만 1, 2달 했고 그 다음에 학교 자퇴 하고 편의점 1, 2달 정도.

□ 경험있음 (편의점)

13. 편의점 아르바이트, 학교 끝나고 저녁부터 할 수 있는 시간은 10시전 까지. 그때 최저 임금이 5,000원 좀 넘었는데 수습때고 하면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밖에 못받았어요.
17.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학교 그만두기 조금 전부터 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들어가면서

□ 경험있음 (기타)

15. PC방 아르바이트 했어요. 6시부터 12시. 솔직히 고칠 수 있는건 소리 안 들리는건 고쳐주고요. 카운터 보고 자리 치우는거 했죠. 부모님이 용돈을 안 주셔서
25. 촬영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 있음. 2달 동안 했는데 8번 했어요. 토요일 마다 갔으니까
26. 중학교 2학년 때 한달동안 전단지 단기 알바

□ 경험없음

1.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안 했어요.
2. 안했어요.
3.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운동을 해서 아르바이트는 안했어요.
4. 중학교 다닐 때는 운동해서 못했죠.
5. 한 적 없음
6. 한 적 없음
8. 학교 다니면서는 아니고요. 고등학교 자퇴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일을 했죠.
18. 없음
20. 아니요. 자퇴하고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21. 아니요.
22. 고등학교때 처음 시작 했어요. 중학교때는 없고요.
23. 한 적 없음
27. 아르바이트 해본적 없음

**질문: 학교는 어떻게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학교를 중단할 때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학교를 중단하게 된 과정을 본인의 스토리 식으로 이야기하도록 유도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 중단 학년****□ 중학생 때**

23. 중1 마치고.
24. 중2
2. 중3 졸업 후(고등학교 진학 안함)
4. 중 3 졸업 후, 일반고가 아닌 직업학교로 진학
12. 중3 9월
26. 중 3 졸업하고 바로 그만 둠

□ 고등학생 때

1. 고1
5. 고1
8. 고1 (두 달쯤 다님)
13. 고1 1학기
18. 고1
20. 고1 1학기
27. 고1
31. 고1 1학기(진학하자마자)

3. 고2 여름방학 시작 후
6. 고2 1학기
7. 고2 1학기
10. 고2 시작하는 시점
11. 고2 4월
14. 고2 10월
16. 고2 1학기
19. 고2 2학기
21. 고2
25. 고2 여름방학 끝난 후
30. 고2
9. 고3 1학기
17. 고3
29. 고3

질문: 중단계기 또는 사유

□ 진로변경

2. 사실 그때는 약간 제가 학교생활, 전학을 많이 다녀서 학교생활이 좀 친구가 없어서 왕따 그런게 보이는건 아닌데 약간 제가 학교생활에 질렸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법한 학생들이 상상하는거 있잖아요. 학교 그만다니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공부에 흥미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컴퓨터게임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쪽 으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직업학교가 있더라고요. 직업학교에서 IT쪽 인재양성으로 전문학교가 있는데 그 지원대상 중에 검정고시 졸업자 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고졸이 아니라도 검정고시는 되는건가요? 한 번 생각 한 후로 부모님을 설득해서 하게 됐어요.
3.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까지 운동을 했어요. 축구, 전문적으로 저는 특기자로 그 학교에 스카우트 돼서 갔는데 제가 부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술도 여러차례 하고 몸이 예전 같지도 않고 여자 축구가 솔직히 비전이 높은것도 아니라 서 접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측에서는 네가 특기자로 왔으니까 운동을 안할거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면 전학을 거의 안받아 주거든요. 그래서 전학이 안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담임선생님이 그러면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4. 일반고로 진학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태권도를 배워서 거기서 나중에 태권도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집에서 부모님도 너무 흔하니까 나중에 하기가 힘들니까 취업을 먼저 빨리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셔서
10. 중학교때부터 학교 규정 머리 같은거 잡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았고, 왜냐하면 제가 나쁜짓을 인해서 그렇게만 하는 것 으로도 계속 억울하게 혼나서 억울한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머리를 왜 잘라야하는지 이해도 안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만 두려고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였는데 저는 연극이나 음악이 하고싶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전문계 쪽 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문계에서 배우는것도 이걸 계속하는게 시간낭비 같아서 그만 뒀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만약에 다녔어도 도움이 됐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그냥 견뎌낼 수 있었을텐데 그걸 견뎌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만 뒀던 것 같아요.
13. 주된 이유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체대쪽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원치 않게 지원 날짜를 잘못 알아서 어쩌다 보니까 인문계로 들어간거고 인문계로 갔다가 적응을 못해서, 그리고 내가 체고쪽 으로 가는 것 보다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하면서 돈이 벌고 싶다는 욕망이 커서 자퇴를 말씀 드렸어요. 그렇게 자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전부터 중학생때부터 알바를 하면서 돈이 벌고 싶은건 있었고, 마침 계기는 인문계 라는 원치않는 고등학교를 가면서 적응을 못하다보니까 그런식 으로 됐어요. 사실 체고를 못가서 자퇴를 안 이유는 거의 반 이상은 아니라고 봐야죠.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더 컸어요. 체고로 전학을 안 한 이유- 딱히 그렇게 월등한건 아니라서 전학을 준비하기에는 그 전에는 테스트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됐던거고요.
18. 원래 실업계를 가려고 했는데 성적 때문에 떨어져서 그냥 인문계

를 넣어서가려고 하는데 서울에 기술학원이 있다고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기술 배우려고 학교 그만두고...원래 목표했던 데는 창원기계공고 성적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냥 학교 다니는데 제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침에 저희집에서 명곡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를 타고 가려면 6시쯤에 일어나서 아차하고 집에만 있으면 9시, 10시되니까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아서요.

21. 제가 일단 일반고에 다녔었는데 약간 일반고 뿐만 아니라 좋은 학교에 가려면 그냥 정시로 수능으로 대학을 가거나 수시로 대학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수시로 가려면 내신을 조금 높은 등급을 받아서 대학에 가야 되는데 제가 뭔가 가고싶은 학교에 가기에는 수시로 가기에는 약간 내신이 모자라기도 했었고 수능으로 가는게 더 마음이 편해서 수능으로 대학 가려고 학교 그만둔거예요. 솔직히 학교를 다녀야 할 이유를 잘모르는게. 그냥 약간 제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약간 고등학교같은 경우는 뭔가 대학을 가기 위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고등학교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성적이 어느정도 나오고 괜찮았으면 그냥 나왔을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평범하게 사는데 제일 좋은게 평범하게 중, 고등학교 나와서 쫓가는게 원래는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했을텐데 제가 더 좋은학교에 가고 싶으니까 어차피 수능 정시를 볼거면 요새는 내신을 안보고 수능 100%거든요. 옛날이랑 다르게,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어서 학교를 그만둔거예요.
26. 결정하긴 하는데, 생각해 둔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못 들어가서 포기했어요. 입학면접에 떨어지서

□ 출결

6. 그만둔 계기가 1학년 때도 출석률이 좀 안좋았거든요. 초반에는 괜찮다가 2학기중 후 반쯤에 제가 안나오다가 무사히 그냥 2학년 까지 올라가다가 2학년 때 제가 그냥, 그만두겠다고 집에도 다 얘기하고 출석도 안좋고 이 상태로 취업 나가도 갈 때도 없고 그냥 그만두고 생각 좀 하다가 그만두게 됐는데 나뉘었던 이유는 아침에 학교 나간 다음에 친구집에 가서 자고, 자고 일어나서 좀 일이 많았어요. 가출도 하고 집에가면 당연히 혼나니까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무서워서 가출도 하고 집에 안들어가고 학교도 안가고, 그러다가 집에서 동의해서 자퇴서 내고, 선생님님 퇴학 당한다는데 그냥 자퇴서라도 내라고 그래서 자퇴서 냈어요. 퇴학 당하면 다시 못오니까.
7. 일반고- 처음에는 제가 계속 짜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자는 빼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벌써 마음을 잡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또 몇 명 친구들이미용고에도있어서 또 미용고 에 뽐혀서 미용고로 그냥 가겠다고 엄마보고, 그래서 전학하게 됐어요. 그 다음 미용고는 거의 퇴학을 자퇴로 바꾼거예요. 결석일수 때문에... 거기 친구들 이랑 같이 학교 잘안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석일수가 다 채워져서 그래서 퇴학을 당해야되는데 자퇴할 기회를 주셔서 자퇴했어요. 바로 퇴학이었어요.
8. 신길고등학교 다니다가 여러번 빠져서 선생님이 너는 다니면 안되겠다. 기술학교로 가든 자퇴를 해라 라고 그래서 그냥 자퇴하기로 했어요. 당시 담임선생님이 무슨 기술학교 2년제인가 거기

질문: 중단계기 또는 사유

- 로 가라고 하셨는데 거기로 갔건지 아니면 자퇴를 할건지 선택하라고 했는데 전 자퇴를 택했죠.
29. 봄 방학 끝나고 바로, 그때 40일 인가 출석일수를 못채워서 50일 정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출석 일수를 못채워서 퇴학처리 해야되는데 그냥 자퇴처리라도 하라고 퇴학처리 되기전에... 원래는 퇴학처리인데 차라리 자퇴가 퇴학보다는 낫다고, 꼬박꼬박 나가도 안된상황, 그러니까 결정은 됐는데 아직처리가 안됐으니까 그 처리가 되기전에 네가 자퇴를해라. 그게 더 나으니까
31. 내성고- 한달 가출 해서, 한달 뒤 에 학교에 가서 자퇴서 내고, 가출한 이유는 자퇴 하려고 학교 가기 싫어서 그냥 집도 싫었고, 방송동신고등학교는 여기는 같은 또래가 거의 없고 어른들만 있고 또 거가는법을 사 먹어야 되거든요, 밥 먹음 친구가 없으니까 맨날 혼자 먹고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것도 아니고 왜 맨날 혼자 먹어야 되는지 이 생각이 들면서 다니기 싫어져서 안다니다가 그 때 딱 제가 그때쯤에 소년원에 갔거든요, 폭행으로
19. 고등학교 1학년 11월 31일에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가족구성이 저와 어머니밖에 없어서 제가 그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그래서 학교 다니기가 조금 힘들더라고 고요, 그래서 잘안가게되다가, 유급됐다고 그래서 차라리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는게 좋을 것 같아서 자퇴했어요. 그러니까 2012년 1월부터 11월 까지 그 때는 학교를 그냥 아예 안나갔어요.

□ 가정환경

9.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그만뒀어요. 언니가 사고를 많이쳐서 그거 돈을 학교가 면 돈 내잖아요. 책값 그런 것 때문에 언니가 저지른게 너무 많아서 책값이 부족해서. 약간 그것 때문에 그냥 친구랑도 싸우고 힘들어서, 괴롭하지는 않고 그냥 말싸움이 심해져서
17. 저희집이 앞에서도 말씀 드렸따시피 학구열이라든가 그런 압박이 되게심해요. 그게 저희집 뿐만 아니라 외갓집이나 친가에서도 다 같이 저한테 들어오니까 왜냐하면 제가 형이 4살 위로 있는데 형이 어릴때부터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크게 잘하지 못해서 공부에 대한 기대가 저한테 오면서 압박이 심했거든요. 나이가 어릴때는 거기에 대해서 순응적이었기 때문에 잘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중학교때부터 견디고 공부만 했었죠. 근데 제가 아까 고등학교 들어가서 미술동아리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미술을 되게 좋아하고 미술에 대해서 흥미가 있어서 고등학교 진학 할 때 예고에 진학을 하고 싶었어요. 그것도 대구에 있는 대구예고라고 경기도쪽 으로 올라가서 수도권에 있는 예고를 다니고 싶었는데 부모님의 학구열이 되게 강하시니까 미술을 절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2학기때 제가 도저히 못버티서 내가 부모님이 원하는대로 인문계 고등학교 갔으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미술을 전공 할 수있다. 미술학원 이라도 다니게 해 달라고 그래서 미술학원을 다녔거든요. 엄마가 아프셨을 때, 미술학원을 한 달 정도 안갔다가 그게걸리고, 부모님이랑 크게 싸우고.. 아빠랑 싸운 다음날 피곤해서 쪽잠했는데, 월요일까지 잤어요. 그때부터 학교에 안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그때부터 거의 티치를 안하게 되고
23. 부모님은 대안학교에 가기를 원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의 권유

로 생각을 진지하게 해 보다가 그만두는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부분도 있었고 학교가 점점 너무 경쟁적이고 안좋은것들이 너무 많 아자잖아 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출이 되는걸 많이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사람 으로 키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사를 하는 계기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랑 완전 상반된 생각으로 그만뒀어요. 저는 더 많이 경험하고 그냥 더 많이 배우고 싶은 욕심에 그만두게 된 것 같아요. 학교를 그만 두는건 사람들이랑 다른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부분에 있어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저희 담임선생님 영향도 조금 있었고

□ 학교 부작용

1. 네, 적응도 안 되고 제가 원래 조금 중학교 때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가 엄마가 너무 싫어해서 병원에 안 다니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갔는데 적응을 잘 못해서 다시 병원에 정신과를 다니게 됐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위에 심하게 놀리곤 했는데 그때는 방에서 자도 놀리고 거실에 나와서 자도 놀리고 인방에 가서 자도 놀려서 도저히 잠을 못 자니까 아침에 학교도 못 갈 정도로 피곤해서. 그것도 그렇고 병걸 치료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담임이 휴학을 하든지 1학년 또 다니든지 자퇴를 하든지 이래서 사실 근데 그때는 그리고 학교를 다녀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컴퓨터 쪽이 아니라서.
5. 아침에 제가 6시 쯤에 집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면 거의 11시에 들어왔어요. 힘들어서 제가 그만두기 전에 2명 정도 그만두는걸 보고 저도 그만둘지 말지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힘들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두고 싶다고, 근데 안된다고 그래서 시험을 안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도 알겠다고
12. 딱히 그냥 이유는 없고 학교라는 자체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일 반복적 으로 교복입고 학교가서 공부해야되고 등수를 매기고 그 등수가 공개적 으로 매기를 하잖아요. 그런것도 싫었고 다 마음에 안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교복입고 학교가는 자체가 싫었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다가 그게 갑자기 폭발한 것 같아요. 계기는 없고 다니기싫다. 가기싫다. 애들 보기 싫다. 선생님 보기 싫다. 다녀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다녀야되지? 다녀서 뭐하지? 계속 공부만 시키고 공부만하고, 다녀야 할 이유를 몰랐던 것 같아요. 학교가는게 교도소가 기분이었어요.
14. 그런건 아니었어요. 학교를 그만두게 웃긴게 시험을 잘못쳤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짜증나서 그만뒀어요. 중국어 시험인데 공부 진짜 열심히했거든요. 1개 틀렸는데 그게 너무 열이 받아서 그만뒀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좀 있었어요. 원래 평소에는 그만둘 생각을 안했는데 뭔가 저는 보이는 만큼 결과가 안나오면 만족을 못하는 스타일 이라서 이렇거면 학교를 왜 다니지? 그러니까 나쁜친구를 사귀는것도 아니고 그런것도 아닌데 학교가 좀 답답한 건 있었어요. 뭔가 학교에 있으면 지루하고 그게 제일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게 너무 재미가 없다. 왜냐하면 1학년 때 잘 다녔는데 2학년때 그렇게되면 2학년때 디자인과 들어갔거든요.

질문: 중단계기 또는 사유

그 학교 들어간 이유도 디자인과 때문에 들어갔는데 가르치는게 다 재미가 없고 시시하고 그래서 그만둔 이유가 컸어요. 수준이 낮기도 낮고, 근데 저희 집안 자체가 그 쪽으로 재능이 있어서 다른친구들한테는 수준이 낮지 않았을거예요. 근데 다 아는건데 아는걸 배울바에 왜 있지? 그나마 중국어도 1개 틀리고 내가 한 대로 결과가 안나오니까 짜증나서 학교 안나간 시점이 중간고사 치고 나서부터였어요. 실무같은게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거 배울 때 원래 저는 독학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알고있는걸 가르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복습하는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미 아는걸 왜 복습하지? 이런게 저는 심해서, 귀찮음, 학교도 집 바로 앞인데 근데도 가기 싫었던거는 여기서 더 이상 얻을게 없기 때문에 얻어가는게 없으면 할 필요가 없죠.

16. 학교는 그냥 나랑 안맞다는 생각으로 그만뒀어요. 선생님 하고 트러블은 계속 일어나고 뭐만하면 계속 일어나고 학생지도부에 계속 끌려가고 그래서... 첫 번째때는 그냥 계기 없이 어린 마음에 내가 이걸로 꼭 성공할 필요도 없고 학교에 컴퓨터 과학교 등학교라서 컴퓨터를 많이 배우는데 컴퓨터에 소질이 없으니까 이걸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만두고 다른 검정고시를 보고 나는 다른걸로 해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20. 원래 저는 학교 자퇴를 싫어한 사람이었는데 중학교때는 학교도 잘안나가고 그러다가 고등학교때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다니는 시간이, 진짜 어릴때부터 학교 가는게 너무 싫었어요. 재미가 없었죠. 친구들 만나서 노는건 좋았는데 그냥 수업 듣고 자한테 솔직히 도움이 안되는 것 들을 배우는다는 자체에 서 흥미를 되게 많이 잃었었어요. 저는 예체능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학교에서 예체능을 배울길은 없었고 밖에서 음악, 왜 싫어했는지 몰랐었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게 됐을때가고 1때였어요. 그래서 자퇴를 결심한거죠.
25. 그냥 부모님이랑 상의하다가 저는 원래부터 중학교때부터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지 않았고 엄마가 중학교때 만 다녀봐라, 고등학교 때 보라고 그래서 참고 다니다가 더 이상 못다니겠다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이유를 못찾았어요. 필요성을 못찾아서
27. 어느날부터 가기가 싫어졌어요. 원래 학교는 어렸을 때부터 가는걸 싫어해서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돼서 또 하기싫은걸 해야되니까, 학교에 가서 일정시간 거기 있고 공부도 하고 원래 어디가는걸 어렸을 때부터 되게 안좋아했어요. 집에 있는걸 좋아하고
28. 제 습관이 원인이었죠. 중3때는 연합고사같은걸 보잖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연합고사를 안보고 들어갔어요. 인문계가 아니고 실업계라서 솔직히 고등학교도 친구 따라서 간 경향이 컸고요. 고등학교 입학이 확정 됐을 때부터 중학교는 안나가고 된다는게 습관이돼 버렸고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니까, 그러다보니까 고등학교도 그 습관이 그대로 간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학교를 그만다니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필요성을 못느꼈기 때문에, 그냥 놀려고 나가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 소문같은게 많잖아요. 실업계라서 그런게 더 심해요. 실업계는 대학이 아니고 직업으로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위 진짜 잘하는애들만 은행에 갈 수 있고 나머지는 거기서 거기라는 소문이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죠. 그런소리를 들으면 공부할 줄하는 편도 아니니까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학교를 나오도

안나온거랑 똑같다. 그냥 졸업장만 딸 뿐 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런것도 있고 버릇도 있어서 학교를 잘 안나갔고요.

□ 친구영향/주변상황

11. 주변 친구들 영향이 가장 컸어요. 그냥 제가 1학년 하고 2학년 한 달 정도 다닐무렵에 애들이랑 맨날 어울리니까...반 친구도 있고 여기 친구들 만나고 계속 어울리다 보니까, 주변에 자퇴한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울리다 보니까 재들은 일단 학교 말고 검정고시를 따는걸 추천했었고, 자기들은 일단 일바를 하면서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부러웠었고 한 번 해보겠다는식으로 저도 그냥 모양을 잡았죠. 사실 학교 다니는거랑 검정고시 따는거랑 고민은 좀 됐었는데 학교도 거의 등교하고 이러니까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도 힘들었고, 등학교도 힘들었고 마음을 딱 잡았어요. 다른건 없었어요.
15.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것 에 영향이 없지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각도 하게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조는데 그래도 벌점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벌점이 쌓이면 어느정도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교내봉사 하고 벌점이 많으면 교내봉사하고 사회봉사하고 특별교육까지 받고 그 다음에 퇴학이예요. 근데 교내 봉사 할때도 제가 자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회봉사로 넘어 갔는데 사회봉사하면서 또 자각해서 특별교육으로 넘어가고 그러다가 특별교육은 똑바로 갔는데 또 벌점 받고 퇴학. 퇴학을 시키는게 아니고요. 부모님을 모셔와서 자퇴를 하라고 차라리, 내년에 다시 들어올수있게, 퇴학은 안시키고 자퇴를 권유하죠. 학교에서, 저는 별로하기 싫었죠. 쪽팔리니까
22. 방송통신고등학교 진학 이유- 입학원서 쓰고 그리고 입학을 하는건 일반학교랑 똑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몸과 상황이 안좋으니까 일반 고등학교로 가면 애들을 또 만나잖아요. 주변에서 배정되는거 보니까 몇 몇 애들은 만나게 되는 것 같고 또 개네들이랑 부딪히기 싫기도 해서요. 또 놀림거리가 되기 싫고 제가 돈보스고 직업전문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방송통신고등학교도 병행학습을 한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직업학교에서는 평일에 금요일까지 기숙사에 있었고, 방송통신고등학교에는 일요일에만 가면 되니까 2주에 1번씩, 그래서 일요일에 출석을 했고, 그래서 두 학교를 다 다닐수 있었어요.
24. 그냥 학교 친구들이랑 싸우고 멀어지고 학교가기싫어서 유예처리, 며칠동안 안오면 유예되는거 유급돼서 아마 그리고 아예 안갔어요. 약간 친구들 까리 다른 친구가 다른애를 왕따를 시켰는데 제가 시켰다고 약간 그렇게 말해서 혼자 밥 먹어야되는게 싫어서 안갔어요. 유예 될 때 담임이 찾아왔었는데 담임이 별로 안좋아해서 그냥 얘기하고 선생님들이 학교에 오라고 했는데 싫다고했어요.
30. 중학교도 시골에서 나오고 어린시절을 시골에서 보내서 저는 친구들은 아는 친구들만 알고 모르는 친구들은 그렇게 고등학교 가서 만나게 됐는데 시내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받아들이 지지가 않는거죠.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고등학교때 소외감을 많이 느꼈고요. 개성이 너무 강하니까 학교에서 공부만 하기에 너무 힘든거죠. 그래서 학교를 나오고 자퇴를하자고

질문: 학교 측 반응

□ 선생님하고 상담 함

4. 일반고에 진학하지 않는걸, 중학교때 선생님이랑 조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미래에 어떻게 진로를 정할지 그런것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6. 많이 막으셨어요. 얘기보다는 행동으로 많이 막아주셨어요. 처벌 같은거 말고 그냥 제가 늦게와서 선생님이 교무실밖에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그걸 참지 못하고 바로 나간적도 있고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포기해서
7. 일반고- 선생님이 계속 다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학교에서 상담선생님과도 상담하구요. 미용고는 자퇴 하라고 선생님이 말하셨어요.
10.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방학 끝나고 나서 전화로 그냥 안간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은 말리려고 하는데 그냥 제가 안가겠다고 하니 까 알겠다고 그러고 자퇴 하고 나왔어요. 처음에 말리고 근데 부모님 하고 다 얘기했다고 하니까 선생님도 어쩔 수 없고 그만두 라고
12. 처음에 안갔어요. 아프다고 안갔는데 자꾸 안오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학교 가기 싫어하는거를, 그래서 일단 학교 오라고 해서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안 간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계속 오라고 전화는 왔죠. 안간다고, 원래는 이번년도 다니는거 쉬고 다음연도에 다시 3학년 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미루다보니까 안갔어요. 선생님은 조금만 다니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금만 더 다니면 되는데 왜 내년에 하려고 하냐고
14. 연락 엄청 많이 왔었고 저희 담임선생님이 저를 잡았어요. 소질이 있는데 왜 안하냐? 근데 소질이 있기 때문에 안한거죠. 거기서 얻을게 없으니까, 선생님은 너는 재능이 있다고 조금만 더 배우면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해요. 제가 여기서 얻을게 있는데, 저는 또 고집이 세진 않지만 하나 내가 이거 무조건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하고, 난자 퇴할거야. 그러면 자퇴하고
16. 담임선생님은 마음에 안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서예나 하러 가자고 그래서 생활지도부에서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예도 하고 마음의 안정이되나갈래 아니라고 했어요. 위클래스 내려가서 선생님이라 상담하고 올라오는데 학교가 너무 싫으니까 패려고 가방 들고 나가면 선생님이 붙잡으러오고 부모님한테 계속 전화 하고헤진이가 학교에서 없어졌습시다. 아빠 전화와서 너 어디갔는데? 집. 알았다. 부모님은 별로 그런게없어서, 선생님은 계속 잡아도 부모님이 별로안하니까... 1학년을 선생님 때문에 버텼어요. 학교 자퇴 하면 선생님 쪽으로 안줄아지는게 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라리 2학년 때 자퇴 해야겠다고
17. 학교 담임선생님도 찾아와서 학교로 다시 오라고 지금 부모님께서 병가처리를 하고 계신데 학교로 돌아와도 큰 지장이 없다고
18. 부모님과 똑같이 물어보셨죠. 자퇴하고 뭐할거냐고 계획 없으면 차라리 학교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근데 제가 하고싶은 걸 말했죠. 서울의 기술학원 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열심히 하라고
23.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선생님 재껴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여러가지로 선생님이라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대안학교로가기로 결정하고 그만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했어요.

26. 많이 충격받으신 것 같고 원래 포기하고 나서 다른 직업학교 같은 곳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려서 안심하신 것 같아요.

□ 방치함

1. 그렇지는(계속다니라고는)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반 애들이 승현이 학교잘 다녔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저한테 학교 잘다니라고 까지는 안하셨던 것 같아요.
2. 학교측에는 인박했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안가고 검정고시보겠습니다. 거기까지얘기 했어요. 그랬더니왜? 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사정이 있다고 얼버무렸어요. '담임선생님은 그래? 그렇구나 하셨어요. 제가 굳이 말을 하려고 안하니까 선생님도 굳이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5. 제 기억으로는 따로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잘
9. 별다른 상담을 안해서 잘 모르겠어요.
11. 그 전부터 제가 학교를 안가니까 연락이 오잖아요? 제가 자퇴 생각이 있으니까 당분간 학교에 안나갈거라는식으로 말을 했는데 선생님도 알겠다고 넘어갔다가 제가 그때 찾아간거죠. 선생님도 붙잡았죠. 너는 사고도 안치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퇴를 하냐고, 내가 마음이 그래서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자퇴하는 그 날 가서 이야기는 많이 하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못하게 설득한건 아니었어요. 다른 기관에 상담을 추천해 주시지도 않았구요.
13. 담임 선생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가족들 하고 먼저 한 번 얘기를 하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드려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또 그날에 다시 부모님 하고 대화를 했었고 주로 부모님 이랑 친척분들하고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차피 자퇴를 하는 부분은 부모님에 대한 동의를 있어야지 할 수 있는거라서 전적으로 부모님한테 맡기신 것 같았고요. 선생님은 그저 어떤 것 때문이냐, 이유 정도 물어보시고 어떤상황이라고 그때 개인적인 일 때문에 다니기 싫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그 정도만 대화를 했었고요. 그냥 자퇴하기로 했느냐? 그러면 이런거 써와라. 이것 외에 대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퇴 후, 진로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처음 이야기 하고 자퇴를 하기 까지는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 2주 정도로 기억나네요.
20. 일단 그분들은 제가 많이 망가질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계획이 있었고 하고싶은 게 확실하게 있어서 제 계획을 설명드리니까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믿고 해주겠다고
21.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좋게 말하면 쿨하고 나쁘게 말하면 무관심한 선생님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알았다고만 하셨어요. 선생님이 뭔가 제 2학년 담임 선생님이 평소에도 애들한테 무관심한 선생님이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선생님 중에 제일 무관심한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건데요. 아마 다른 친구들은 다른 반 친구가 만약에 학교를 그만 둔다고 그랬으면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학업을 중단하면 무슨 2주 동안 있는 거
22. 취업이 요즘 잘안되잖아요. 그래서 취업이 잘되려면 기술을

질문: 학교 측 반응

-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선택한거는 오히려 부모님이란 제가 잘 생각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신걸로 기억이네요.
24. 선생님은 계속 학교로 다시 오라고 권유를 한 번 정도
25. 왜 그러냐 묻길래, 그냥 그만 다니고싶다 대답했어요. 부모님이란 도 얘기를 했고 절차를 밟을 때 담임선생님이 네가 자퇴를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서류를 써야되는지 아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럴때는 또 굉장히 사무적으로, 그래서 죄송 하다고 근데 어떻게 하겠나는 식으로 했어요.
27. 학교에서는 딱히 아무것도 안취해졌어요. 그냥 부모님한테 얘기 만하고 담임선생님이 휴학도 있고 대안학교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냥 나갔죠. 담임은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고 반 애가 이런말을 했었는데 1학년인데 이미 자퇴를 해서나이가 2학년인 애가 있었 거든요. 그래봤자 며칠 놀다가 다시 오게 된다고
29. 3학년 인데 아깝다고 뭐 해 먹고 살게냐고 그래도 학교는 졸업해야지 이런 형식적인 얘기.
30. 그런건 없었고 그 분 입장에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선생이 돼서 학생 계속 앞길을 막고싶지는 않다고 공부도 못하게 하느니 그냥 아무말 말고 학생하고 싶다는대로 내버려 뒀야 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말을 학생 네가 하고 싶든대로 자유를 만끽해봐라. 이런식으로 많이

□ 오히려 권유함

3. 솔직히 저는 자퇴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학교를 다니고 싶었는데 학교 측에서 그런 거니까, 계속 학교를 다니고 싶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담임 선생님이 권유를 하셨는데 그냥 좀 자퇴할 때 좀 전학이나 아니면 학교를 계속 다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냥 담임 선생님이 검정고시 봐서 대학을 가라고 이 정도만 도와주셨어요
8. 선생님이 먼저... 자기가 마음에 안드는 학생들 한테는 무조건 다 그랬어요. 제 친구들도 같이 고등학교 다녔던 쌍둥이 친구들이

- 두 명었는데 그 친구들도 나왔죠. 자기가 감당이 안 될 학생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15. 학교 측에서 자퇴를 꼭 해야 한다고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부모님을 다음날에 엄마랑 같이 학교에 가야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진짜 아팠는데 저희 어머니가 혼자갔어요. 제가 병원에 있고 그 때 엄마 혼자 갔는데 인성 부장 선생님이 엄마한테 화를 내는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왜 안데리고 왔냐. 아픈데 어쩔 수 없다고 엄마도 반박을 했죠.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이해가 안되나봐요. 그래서 화를 내다가 엄마가 뭐 이런학교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럴거면 애 자퇴 시키라고 그때 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온 애가 4명이 있었어요. 근데 2명은 그 때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와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식이었어요. 그래서 2명은 주고 1명은 전학을 가고 저는 거기서 자퇴를 한거죠. 전학은 모르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갔다가 화가 나서 그 학교에서 엄마도 연성을 높이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자퇴 처리를 했어요.
19.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일단 고등학교는 나오게 좋다고 자퇴 하지 말고 일단 4교시 만 하면서 1년 버티면 졸업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그 때 까지 나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했어요.
28. 무단 결석이 쌓이고 그러다보니까 학교쪽에서 자퇴를 시킨거죠. 권유를 한거죠. 한 두 번은 만류를 하셨죠. 학교를 다니는게 좋지않냐. 학교를 안다니면 큰 오점이 될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생각이 없던 시기라 제가 제 몸이 하는대로 그냥 뉘엿기 때문에 자퇴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담임선생님은 기억이 가물 가물 한데 담임선생님도 저만 자퇴를 하기 직전이었으니까 신경 써주기 보다는 약간 엄포하듯이 자퇴바로 처리 될거라고 그런식으로 밖에 얘기를 안하셨던 것 같아요. 챙겨주는건 없었고
31. 무단결석이 많으니까 선생님들도 퇴학당 할 바 에는 자퇴서를 내라고 퇴학 당하면 안 좋으니까

질문: 부모님 반응

□ 허락하지 않음

2. 아버님은 반대하셨죠. 아버님은 정상적으로 남들처럼 고등학교에 가라. 네가 뭐가 잘라서 하여튼 남들처럼 같은 길을 가라고 했는데 요. 부모님은 그래서 IT 산업이 미래에도 있고 네가 하고 싶은 건 상관없다. 그게 어머니 의견이셨고... 아빠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고 어머니한테만 말하고 고등학교 그만 두고... 검정고시 합격하고 말씀 드렸어요. 죄송하다고
3. 그러니까 너무 화가났죠. 진짜, 저보다 부모님이 화가났고, 학교측과 되게 많이 싸웠죠. 싸우다, 싸우다 안되니까 집이 대전이니까 대전에 있는 학교도 많이 알아봤어요. 전학이 되는지,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만 돼도 받아줄텐데 2학년 이니까 그것도 여름방학 시작했으니까 안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쩔수 없이

- 많이 싸우다가 어쩔수 없이 선택한거예요. 그런건 자퇴를 하고 엄마가 교육청에 신고라도 해볼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체육 그 선생님이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5. 그냥 무조건 안된다고, 제가 시험을 아예 안봤을때도 무조건 안봐도 되니까 학교는 가라고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6. 얘기는 거의 안하고 욕 많이 먹고 많이 울었죠. 계속 다니라고 했는데 제가 말을 안들으니까
8. 집예요? 집에는 그냥 학교 자퇴하겠다고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엄청 반대 하셨는데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고 그러라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셨죠. 선생님이 애가 지금 아예 다닐 마음이 없다. 이렇거든 차라리 방송국 관련 된 학교로 가든가 아니면 자퇴를 시켜라. 그게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모님 모시고 와서 제가 그때 어머니이 일을 하셔서 이모가

질문: 부모님 반응

와서 서류 작성하고 자퇴서하고 그랬죠.

10. 처음에는 말렸는데 제가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또 인문계에 가서 배울수 있는것도 없으니까 다른걸 하겠다는 전체 하에 그만둘 수 있었어요.
11. 일단 견려는 보라고 하셨죠. 근데 힘들면 그만뒤도 된다는말은 했었는데 견뎌보겠다고 한 달 정도 여유를 갖고 쉬고 있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나가보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돼서 학교 찾아가서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바로 거기서 자퇴 처리하고
12. 말리셨죠. 엄마는 그랬던 것 같은데 네가 선택한거다. 나중에 엄마 탓 하지마라. 계속 가기싫다고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15. 부모님도 화가 나셨는지 저보고 막 집에와서 뭐라고 하는거예요. 도장들고 가라면서, 그래서 도장 들고갔는데 자퇴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26. 부모님 많이 혼났어요. 너무그랬죠.

□ 허락함

4. 저는 그때 계속 태권도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는편 이 아니라서 남들보다 빨리 돈을 버는게 낫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9. 엄마랑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그만두고 학원같은거 다니라고 밖에 안했어요. 그냥 엄마는 평소에 제가 하게 놔두시는편 이에요.
14. 엄마를 설득했죠. 근데 제가 한번 마음 먹으면 사람 설득을 되게 잘하거든요. 엄마한테 그만두고 바로 검정고시 보고 뭘할지 생각해 보고 집에서 빈둥빈둥 안놀 테니까 자퇴 시켜달라고 엄마를 설득시켰죠. 근데 엄마는 항상 저를 믿어줬어요. 내 편 돼주고 하니까 엄마도 조금 설득하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안된다고 하죠. 근데 고등학교 졸업도 한다고 하니까 아무문제가 안되니까 검정고시 쳐서 대학도 갈 수 있고 대학 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전문대 나오나. 검정고시 보나 똑같다. 사회인식이 안좋을 수는있는데 똑같다고 자퇴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그러면 알겠다고 저를 많이 믿어줬어요. 제가 나쁜애들이랑 노는것도 아니었으니까 엄마도 자퇴 하라고 하고
18. 그냥 제가 인문계를 싫어하는걸 아니까 자퇴 한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며 칠 더 생각을 해보고 확실해지면 바로 그러자고 하셔서 며 칠 있다가 자퇴서 쓰고 서울로 올라갔죠.
20. 아빠는 되게 호의적 이었어요. 엄마도 그렇고 근데 워낙 저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도 학교를 거의 안나가다시피 했으니까. 그걸 부모님도 많이 봐왔고, 그리고 저희 집안이 그렇게 있어요. 하고싶은걸 네가 하고 후회도 네가 하는거다. 이런게 있어서 근데 솔직히 제가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막무가내로 자퇴 한다고 했으면 말리셨겠죠. 근데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그때는 하고싶은거 하라고 하셨어요.
21. 처음에는 당연히 놀랐죠. 자기 자식이 멀쩡하게 다니던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처음에는 놀라셨는데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면 뭔가 그렇구나, 듣고알았다고...이야기는 1, 2주 정도. 짧은 건지 긴 건지 잘 모르겠어요.
24. 왜 학교 안가냐고 묻고 말하고 그러다가 안가게됐어요. 그냥 힘들었겠구나. 다시 다니라고했는데 제가 계속 싫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28. 부모님이 가장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부모님은 웬만하면 다른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학교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부모님이 저를 많이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선택을 존중해주신, 어떻게 보면 자퇴도 제 선택인데 제 행동을 존중해주신게 더 컸던 것 같아요.

□ 무관심

16. 부모님은 그냥 네가 하고싶은대로 해라. 내 선택대로 자퇴해야겠다고 아빠한테 자퇴 하겠다고 하니까 네 마음대로해라. 학교가서 도장 찍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그래 하셔서 그래서 가서 도장 찍었어요.
17. 자퇴 도장 찍기 전에 여름 방학 때부터 제가 이미 집은 나와 있었고요. 부모님이랑 따로 떨어져서 살았고요. 그래서 거의 학교에 돌아갈 이유가 없기도 했고 학교에 돌아갈 상황도 안 되니까 거의 제가 협박하다시피
27. 잠만 자고 졸으니까 3학년 까지 다녀서 졸업하라고 엄마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는 별 다른 반응 없었어요
29. 제가 워낙 아빠한테 알리기 싫어서 전화 다 거부해놓고 제가 혼자 몰래가서 도장 갖고 아빠가 도장 찍으라고 했다고 전화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넘어가서요. 원래부모님 와야되는데 저는 도장찍고 제 삶은 알아서 살겠다고 런식으로 숨겼어요. 한 달정도, 그 후 예집을 나가서 또 고 1때 놀던 선배들 하고 자취방이 있어서 같이 2주 정도 있다가 아빠한테 연락이 와서 마지막 기회라고 빨리 지금 들어오면 살려준다고 그래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자퇴는 그때말하고, 사실 자퇴 했다고...화를 안내셨어요
30. 하려면 하고, 근데 네가 아마 학교를 자퇴 하고나서 네 미래에 무슨 일을 하든간에 실패를 해서 거지가 돼서 누굴 원망해도 나는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고
31. 그냥 알겠다는 식으로 처음에는 부모님이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학교 다니기 싫다고 말하니까 알겠다고

□ 권유

23. 부모님이 종교적인 이유로 먼저 일반 중학교 자퇴를 권유함

질문: 학업 중단 시 도움 받은 경험

□ 위센터/청소년 관련 센터

1. 그때 제가 의정부시 청소년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었고 교회에서 얘기를 돌봐주는 선생님을 좀 했었는데 그때 좀 원래는 육아 교육으로 갈지 컴퓨터 쪽으로 갈 건지 보다가 인문계는 가망이 없을 것 같아서 컴퓨터 쪽으로 갔는데 또 얘기도 보고 하니까 학교 다닐 때는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이 자퇴할래 묻고 그러니까 그냥 자퇴하겠다고 쿨하게 저는 확고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와 같이 상담 해 주던 선생님한테 자퇴 할까, 말까 계속 제 마음을 얘기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5. 선생님이 위클래스라고 저희 학교에 상담센터가 있었는데 그 쪽으로 보내서 상담 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두달 정도 무슨계기로 그만두고 싶든지 묻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든지 묻고 이렇게 오랫동안 흥미가 없다고, 선생님이 아자를 빼줬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아자 대신 선생님이 아자 말고 다른 운동을 하라고 해서 제가 아자시간에 따로 검도인가 배웠어요.
12. 선생님이 그런것 이었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위센터갔어요. 상담내용은 그냥 가서 별 기억이 없는데. 딱히 도움이 된 것 같진않 아요.
14. 학교에서 자퇴를 하려면 어떤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들었어요. 그 상담을 받고 절차를 밟아야 자퇴가 된다. 그래서 상담 받고 자퇴했죠. 그런 어떤 센터에 가서 받았어요. 양정쪽에 있었어요. 청소년 무슨 센터가 있었는데
16. 위클래스 자주 갔었거든요. 선생님도 많이 돌봐줘서 위클래스에서 학교 가기 싫은데 거기서 적응하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적응하고 그랬는데 2학년 때는 친구들 하고 별로 안친했어요. 1학년 때는 친구들 하고 친해서 어느 정도 초반에는 선생님이 잡아줬는데 후반은 친구들 때문에 버텼거든요. 근데 2학년 올라가서 친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1학년 때 싸웠던 애가 우리반에 오고 별로 안친한애가 우리반 애와서 친해지려고 해도 1학년때 자기들끼리 다 친해진 애들이 올라와 버리니까 내가 낯 자리가 없다고 할까요. 그렇게 돼 버린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내가 다닐수 있나. 버림목도 없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컴퓨터 그것도 그렇고 안맞아서 아예 이걸 아닌 것 같아서 그만뒀거든요. 선생님하고 상담했는데 1학년때 너무 많이 하니까 지쳤다고 할까요. 너무 망나니 같이 그렇게 했었으니까 애는 아닌것같다고
27. 위센터라는 상담실 거기도 갔었어요.

□ 당시 학교 선생님

7. 일반고- 상담 선생님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지는 기억안나요.
19.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선생님들도 계셨고 교감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이랑 교장선생님 도 계셨고
20. 일단 부모님과 했었고 학교선생님들이랑도 했었고 그리고 음악선생님, 그러니까 배우는 선생님과도 얘기를 했었고 친구들과도 얘기를 했었어요.

□ 선배/후배/친구/지인

18. 저희 어머니께서 성당을 다니시는데 그 성당에 수녀님 아시는분이 서울에 뭐가 있다고 말을 해주셨나봐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고 엄마도 좀 찾아봐서... 그래서 서울기술학교를 알게 된거죠.
25. 영화 동아리를 다녔었는데 고 2때부터, 그때 자퇴를 이미한 친구나 오빠들, 언니들, 선생님,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때 네가 딱히 할거없으면 졸업장 따라고 그정도, 딱히 생각나는건 없어요. 그렇게 임팩트 있게 얘기한건 없어요.
29. 고 1때 담임선생님. 너는아깝다. 똑같은 얘기죠. 고 3인데 조금만 버티지 왜 안나왔냐고...기관은 특별히 없어요. 학교 자퇴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니던 동아리가 문화의 집이라는 곳을 다녔어요. 여긴 구청 비슷한건데 주민센터에서 복지기관, 이런거예요.

□ 입학 예정 학교 선생님

2. 제가 직접 IT학교를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방문 상담 받았어요. IT학교에 있는 상담사분이 상담을 해주셨는데, 그 상담사 분들이 예상 외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상담하러 온 건데 굳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뭐가 좋다는게 아니고 저희 학교가 아니더라도 IT는 미래에도 어찌고 저찌고, 저희 학교에 와야한다는 식이 아니라서 많이 참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2. 돈보스코에서 상담은 받았었어요. 서울 신길동에 있으니까 멀지도 않아서 찾아가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가서 상담받고 입학하기로 결정한거예요.

질문: 학업 중단 시 도움 받은 경험의 도움 정도

□ 도움 됨

1. 도움 됨
2. IT 학교 상담사 도움 됨 (하지만 교내 상담사나 외부 상담 기관은 이용해본적 없음)

□ 도움 안됨

5. 도움은 안 됐어요.
7. 별로 없음
14. 목표가 있었던건 아니고 배울게 없으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이 시간에 공부를 더 하면 더 했거나 아니면 돈을 벌었으면 돈을 벌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 있는 시간 자체가 그냥 시간 낭비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우는것

질문: 학업 중단 시 도움 받은 경험의 도움 정도

- 도 없이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벌면 통장으로 들어오고 학원에 가서 전문적으로 배우면 지식이라도 쌓일텐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배울 것도 없고 시간만 때우고
19. 복지사는 그냥 일하러왔다. 이런생각밖에 안드는... 특별히 기억 남는거 없어요.
27. 특별히 학교 얘기는 별로 안했던 것 같고 사생활 이야기 하고,

제 특기 살려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걸 만들어 달라고, 그래봤자 상담실 푼말 그런거 그려주고

질문: 중단 시 목표/계획**□ 진로 관련 목표**

2.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중학교만 다니고 그러기엔 다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거는 진짜 하기 싫고 그나마 재미있는 건 좀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 큰일 나겠다. 대학교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돼서 내가 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라고 있는데 옛날부터 게임을 많이 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컴퓨터였어요. 동영상 편집도 다뤄보고 학교 방과후 시스템으로 컴퓨터 프로그램도 다뤄보고 그랬거든요. HTML 이런 것도 알게라도 배웠고, 그래서 이거 할 때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직업 학교에 가려고 했죠.
4. 중학교 때는 태권도랑 운동 쪽으로만 계속, 고등학교도 원래 체고에 가려고 했었는데요. 바로 직업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금영 쪽이나 이렇게 빠지니까 그때 목표가 바뀌었죠.
9. 그냥 학원만 다녔어요. 그만두고... 간호조무사가 맞다고해서 간호조무사 학원 다녔어요. 할머니가 그거 어울린다고 해서... 할머니 병 간호 다 해서 간호조무사가 어울릴 것 같아서 간호학원 다니라고 그래서
12. 요리를 배우고 싶다. 요리 하는게 좋고 잘하니까 요리 학원까지 다녀야겠다 마음까지 먹었는데 안했어요.
15. 그때 피아노 치려고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 강사라서 피아노 11년 정도 쳤는데 피아노 하다가 피아노도 어쩌다 보니 그만 두게 됐어요. 그때는 뭐가 된다고 보다는 뭐 하나라도 배우자는 식으로 피아노만 계속
18. 학교 그만둘 때도 굉장히 목표 자체가 서울의 기술학원으로 가는게 목표. 원래 기계 만지는걸 좋아했어요. 산업기계박람회같은거, 로봇박람회도 많이 가고요.
20. 음악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걸 정확하게 알게 됐을 때가 고1 때였어요.
22. 저는 기계 만지는 기술직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었고. 들어갈때부터 열심히 배워서 자격증도 하나 따 상태고 그래서... 제가 다닐 당시에는 엔지니어라는 좋은 표현을 써서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좋게 받아드렸고 그래서 기술을 배워서 직업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29. 원래 만화쪽을 그리다가 그 쪽이 만화영상미디어과, 제 과가 그건데 원래는 웹툰작가 같은거 하려고 배우러 갔는데 배울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화 그림 그리는 것도 귀찮아서 그러다가 춤추다 보니까 춤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 쪽으로 팔까하다가

-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취미로 남기고 지금은 의상디자인
30. 좀 어리석을수도 있는데 주변에서 저보고 너무 잘생겼다고 연애 안하면 어쩌냐고...연기자로 연예인 연기자. 제가 아마 자퇴를 했던 것 도 많이 놀고싶다. 나 놀거야.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도 했기 때문에 1년은 무지하게 피 날 정도로 놀았던 것 같아요. 놀고 또 어떠한분 들을 만나고 원하는 게통 쪽 사람도 만나고... 자퇴를 해서 내가 하고 싶은걸 열심히 해보자고 감정고 시를 고득점을 받아서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에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도 실용음악과 보컬쪽으로

□ 검정고시/대학진학

3. 그만 두고 바로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어요. 학교 그만 둔 다음날 바로 검정 고시 학원 등록 했어요.
7. 일반고중단사- 미용고를 가서 뭘하겠다기 보다는 친구들 보면 다니는 친구들 보면 머리도 자유롭고 그냥 교복도 예뻐서 원가가 보고 싶었어요. 미용고 중단 할 때에는 검정고시 따는 것 외에 내가 무슨 뭘 해야겠다는 목표는 따로 없었어요.
14. 일단 검정고시부터 봐야 되니까 공부를 하겠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를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검정고시가 애들이 다 쉽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엄마한테는 검정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목표 자체는 검정고시를 보는 게 목표였지만 공부는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돈 벌고 아르바이트 비 벌어서 쓰고...
21. 정시로 대학 응시
25. 그때는 그냥 남는 시간에 영화 찍고 대학교에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혹시라도 가게 된다면 이런 대학교를 생각을 해보아겠다고 그런 생각하고 영화를 나는 해야지

□ 무계획

1. 당장은 잘 놀러 다니자.
5. 그때는 그만두고 싶었어요. 힘들어서 지금이라면 안하겠지만 제가 그때 어려서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6. 그냥 그만 둘 때 진짜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안나다가 그만두고 3일 지났을 때 제가 후회를 좀 했었거든요. 학교에 나갔는데 애들은 교복 입고 학교를 가는데 나는 놀러가니까 너무 심심하고, 학교 친구들 보고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후회하다가 알바도 잠시하다가

질문: 중단 시 목표/계획

10. 없었던 것 같아요. 막연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학교를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그 만큼 시간을 투자 하라고 저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구체적으로 어딜 다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11. 일단 기술 같은게 따고 싶었죠. 그냥 돈 벌이를 하려면 용접 같은거.. 아빠 따라서 해보고 싶었고... 그런데 어떻게 배워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하고싶은게 있었던 걸 부모님한테는 이야기 다 했었죠. 근데 도와준다는 말은 했는데 초반에는 하다가 제가 마음을 접으니까 그 때 부터는 또 다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자퇴를 했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거 자기가 생활표를 짜라고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기술 배우고 싶다고 말은 했었어요. 아빠도 최대한 해 줄 때 까지는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또 말만 그렇게 하고 안하게 된거죠. 부모님은 계속 도와주려고 하는데
12. 처음에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목표가 없었어요. 사람은 모로 가도 서울로 가아지 잘된다고 그런 생각 때문에 반 년정도를 알바를 해서 집을 나올 때 쯤 그 돈으로 서울에 가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인생의 목표라든가 앞으로 나는 뭐가 하고 싶든가 옛날에 미술을했으니까 미술이 하고싶다. 이런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정말 부모님 하고 따로 떨어져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게 다 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13. 그냥 잘되겠지. 이런 생각만 갖고 무계획으로 나왔어요.
14. 아예 안했어요. 약간 학교 다니는것도 귀찮고 집에서 놀수있으니까 솔직히, 아무것도 생각 안하고 그냥놀자.
16. 아니요. 목표는 없었어요.
17. 잡자기. 그냥 그때는 그냥 거기에 너무 가이 싫었어요.

28. 당시에는 없었죠.

31. 계속 놀려고 했었어요. 친구들 하고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술도 마시고 놀고싶어서

□ 일자리 및 다양한 경험

8. 하고 싶었던거는 일 경험같은거 다른거. 학교안에서 할 수 있는거 말고 밖에서 할 수 있는거 다른 경험들 하고 싶었어요. 특별히 관심분야는 그때 없었고 일단. 아르바이트같은거 하고 싶었다. 돈 벌고 싶었다. 그런거... 아르바이트는 경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이것, 저것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13. 돈을 벌고 일을 하는거 였습니다. 아직은 그 때 나이로는 뭐가 하고싶다기 보다는 이것, 저것 하면서 돈을 벌면서 경험을 쌓고 싶었던 거죠. 특별히 정해진건 없었어요. 나이도 어렸고 사실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알바가 손에 꼽힐정도라서
23. 그냥 일반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 들을 배우고 싶었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대안학교는 일반학교에서 배우는 것 도 배우고 일반학교에서 배울수 없는 것 까지배우는. 대안학교에 가면 당연히 학교에서 하는 공부들도 하고 학교에서 만큼 깊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부분 대안학교들은 악기를 중심으로 가르쳐주고 독서활동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학교에서 깊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클럽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야외 활동이나 대외활동을 많이 한다 든지 그런

질문: 중단 시 불안 유무**□ 불안함**

2. 많이 걱정됐죠. 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제가 검색을 해도 별로 안나오고 어떻게 검색을 해야 할지 키워드를 모르잖아요. 검색고시, 대학교 이런식으로 해도 안나오고 누가 직접 먼저 해 본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처음이라는 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는데 발자국이 없고 제가 찍어야 되는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고 막연함이 많았어요. 생각을 했는데 그냥 고등학교 다닐까? 이런 생각도 많았어요.
4. 처음에 좀 불안하기는 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쇠를 깎고 이만한 기계를 만지니까 무섭기도 했죠. 처음에는 다나기도 힘들고 기숙사 생활이라서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11. 그만 두고 한 달 정도는 방황했었죠. 막상하고나니까 진짜 할게 없으니까. 제가 바로 자리를 못잡는 거죠. 이것도 하고 싶은데 해보려고 하니까 또 안될 것 같고 제가 자신감이 별로 없어서 뭔가 하고는 싶은데 못하는거죠. 그러니까 일만하고 있고, 그렇게 돼서 다 버리고 아르바이트만 했었죠.

12. 불안했죠. 지금도 불안하죠. 나만 뒤처지는게 아닌가? 그리고 그만두고 내가 확실하게 직업을 가질수 있을까? 그래도 최소 고등학교는 나와야 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14. 그런건 있지만 저는 항상 내 앞가림만 잘하면 그런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속이 없어서 불안한 것은 있었죠. 못된짓을 해도 학교에서 어떻게 해 주잖아요. 우리학교 학생이니까 어떻게 선처를 해주세요. 그런건 있었죠. 뭔가 내가 나쁜짓을 할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있으면 든든할텐데 근데 사고를 안칠거면 상관없죠. 아직도 후회는 안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나쁜짓을 한 것 도 아니고 내 자신이 몇몇하나까 상관 없는거죠.
19. 있었죠. 일단 내가 다른 또래들이랑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22. 제가 만약에 졸업을 해도 취업이 확실하 결정되는 것 도 아니라서 그건 걱정이 됐는데 취업은 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몸 상태가 안좋아서
23.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FM적인 성격으로 당연히 이 길을 밟아 보고 앞으로로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거든요. 지금까지 그

질문: 중단 시 불안 유무

선택이.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알 수 없는 세계잖아요. 한번도 학교를 그만 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움 보다는 많이 설레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25. 근데 불안했는데 좀 불안해하는게 싫었다고 할까요. 더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안 그런척 하고 더, 근데 사실 그 때는 불안하다고 그 때도 제가 괜찮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더 의식적으로 안 그러려고 하고

26. 앞으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거

□ 불안하지 않음

1. 그런 게 있기는 했는데 학교를 다니는 것만큼 힘들지 않았어요.
3. 불안했다기 보다는 화가났어요. 학교에서 자퇴하라고 하는게... 그래도 하다보니까재밌더라고요. 공부하는게 엄청 어려웠는데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냥 굳이 저는 공부가 운동보다 더쉬운것 같아요. 그 만큼 성적이 바로 오르니까, 그래서 괜찮았어요. 힘들었지만
5. 그 때는 제가 어려서 그런 것 도 없었고 아무생각이 없었어요.
7. 그 때는 너무 산났어요. 뭔가 해방된 느낌 감옥에서 딱 나온느낌 미용가가 자유로워도 좋은감옥이라 느껴서 뭔가 좀 더 새롭고 날아갈 것 같았어요.
8.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 때는 그냥 철이 없어서 학교 그만두면 놓고 그럴거니까 좋았죠.
10.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학교 다니는 게 저한테는 너무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학교로부터 자유롭고 제가 할 수 있는걸 할 수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13. 어느정도 예상은 했고 삼촌이 얘기를 해준 부분도 있어서 딱히 두렵거나 막연한 느낌은 없었어요.
15. 그런건 없었어요.
17. 그때 당시에는 너무 학교를 안나간것도 충동적인 결정이고 그리고 말씀 드렸다시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제 주변의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때 당시에는 학교를 안나가니 잠을 더 잘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학교라는 그런것들에 대해서 물론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건좋았지만 그 학교가 저에게 어떠한 뚜렷한 소속감을 준다거나 이런것들은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런것들에 대한 박탈감은 없었어요. 오히려 학교를 그만뒤서 박탈감을 느끼는거는 최근들어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과는 다른생활을 하나까 삶에 있어서 다르니까 이제 재들과 나는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느끼는거죠. 그때 당시에는 뭐.

20.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빨리 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21. 제가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학교를 다니든 그만두든, 저만 바로 서면 어디에있든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결정을 하기전에는 당연히 학교를 다닐까, 그만둘까, 그랬지만 아예 결정하고 부터는 흔들림 없었고 지금까지도 한번도 학교 그만 둔 걸 후회한적이 없어요.
24. 없었어요.
27. 없음
28. 네, 자퇴를 하고나서 1년 가까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놀고 나서 지나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학교가고 저만 이렇게 학교를 안가서 그 때부터 이질감을 느꼈죠. 그래서 그 때부터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검정고시를 따고 차근차근 나아갔던 것 같아요.
29. 긍정적이라서 그냥 별로 별 생각 없었어요. 모든방면에서 다, 학교 자퇴 해서 더 좋은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가 학력, 학벌 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림쪽은 솔직히 학력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학력을 따지는 성격이 아니라서
30. 많이 띄워주고 많이 업되게 했죠. 사람이 저를 많이 업되게 했고 너는 뭘해도 잘 될거라고 자퇴한게 무슨 문제냐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위안의 말 이라고 생각해요.
31. 그만 둘 때는 전혀. 근데 나중에 19살쯤 됐을 때, 애들 취업하러 간다, 직장 간다 이런식으로 얘기가 들릴 때 좀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 학교를 그만둔 이후 현재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하루 일과를 자세하게 확인**

(기상 / 취침 시간, 학교/검정고시학원/직장/아르바이트에 다니는 시간, 친구를 만나는 시간 등)

- 기상시간**□ 오전기상**

1. 아침 7시, 씻고 옷 입고 밥 먹고 학교 가고.
2. 늦잠자요, 11시 쯤 일어나요. 정신차리고 오후부터 자격증 같은거 공부하죠.
4. 주간 할때는 7시쯤 에 일어나고요. 야간할때는 5시반 쯤에 일어나요.
5. 6시.

6. 7시
9. 11시쯤일어나요.
10. 아침 10시, 11시. 일어나서 학원가는 날은 학원 가고 학원 안 가는날은 그냥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실용음악학원)
13. 주로 아침에 9시에서 12시 사이
14. 8시 20분. 출근시간이 10시니까 8시 20분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거죠.
17. 아침에 7시 반 정도

질문: 학교를 그만둔 이후 현재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 하루 일과를 자세하게 확인

(기상 / 취침 시간, 학교/검정고시학원/직장/아르바이트에 다니는 시간, 친구를 만나는 시간 등)

– 기상시간

18. 7시 반
19. 주간근무시-7시반

□ 오후기상

7. 12시, 일단 빠르면 12시.
8. 오후 3, 4시 기상해서 식사 후 다시 취침. 그 후 저녁 9시나 10시 기상

11. 오후 1, 2시
12. 일찍 일어나면 12시, 늦게 일어나면 2, 3시
15. 대략 3시쯤에 일어나요.
16. 12시에 기상
20. 오후2,3시쯤
27. 오후 6시, 8시.

질문: 학교를 그만둔 이후 현재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 하루 일과를 자세하게 확인

(기상 / 취침 시간, 학교/검정고시학원/직장/아르바이트에 다니는 시간, 친구를 만나는 시간 등)

– 취침시간

□ 9~12시 이전

1. 밤 12시
17. 12시에 거의 자요.
22. 11시 정도.
29. 11시나 12시쯤에

□ 12시 이후

2. 새벽 3시
7. 새벽 3시
8. 아침 8시

9. 2시 (잠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음)
10. 새벽 3시
11. 새벽 4, 5시.
12. 새벽 3, 4시
13. 12시에서 1시 정도 사이
15. 잠은 7시쯤에 자고요.
18. 12시, 1시쯤
20. 아침 5시에서 7시 정도.
27. 아침 7, 9시.
28. 새벽 2, 3시.

질문: 학교를 그만둔 이후 현재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 하루 일과를 자세하게 확인

(기상 / 취침 시간, 학교/검정고시학원/직장/아르바이트에 다니는 시간, 친구를 만나는 시간 등)

– 식사시간

□ 2끼 이상 잘 챙겨먹음

4. 회사 밑에 가축사 있는데 거기서 씻고 옷 갈아입고 바로 나와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출근을 하죠.
10. 하루에 2~3끼는 먹어요. 저녁은 거의 집에서 먹고 그 사이에 한 번 나가서... 식사는 집에 반찬 있는거 그냥 먹거나 아니면 반찬 없으면 나가서 먹거나 그래요.
11. 하루에 2끼. 집에서는 잘안해요. 대부분 밖에서. 일 할때는 6시쯤 끼니를 그냥 한가할 때 먹고 일을 만악에 쉬면 그냥 아침 점심은 포기하고 저녁에 애들끼리 만나서 밖에서. 게임방에 있는 라면이나 볶음밥 같은거나 밖에서 식당 같은곳에서 먹죠. 간단하게...

- 새벽쯤 배가 고프면 편의점에 가서 먹을걸 사서 먹고 자고 그래요.
12. 아침 12, 2, 3시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저녁도 드시고 하루에 2끼정도
15. 가게에서 먹어요. 6시 안에 먹어요. 끝날 때 사장님이 자주 사주시긴 하는데 자주 먹는 편이에요. 집에 새벽에 들어와서 밥이 있으면 밥 먹고 자고 그건 알아서 해요.
17. 아침은 안먹고요. 점심은 여성회에서 같이먹고요. 주로 사먹고 그 다음에 저녁은 퇴근을 하면서 집 앞에 김밥천국이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도시락이 잘 나오기 때문에 주로 사서 들어갑니다. 사서 먹어요.
18. 시켜서 먹을때도 있고 만들어서 먹을때도 있고

질문: 학교를 그만둔 이후 현재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 하루 일과를 자세하게 확인

(기상 / 취침 시간, 학교/검정고시학원/직장/아르바이트에 다니는 시간, 친구를 만나는 시간 등)

– 식사시간

23. 아침은 항상먹는 편 이에요. 과외 끝나면 집에와서 간단히 점심먹음
24. 완전 규칙적으로. 가족들이랑 다 같이
27. 알아서 챙겨먹어요. 세끼 잘 챙겨 먹어요.

□ 잘 챙겨먹지 않음

1. 아니요, 그러니까 엄청 배고플 때까지 안 먹다가
2. 점심을 거의 아침 겸 먹음
5.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말고 점심은 학원에서 먹고,
6. 첫 식사는 점심쯤에 학원 식당에서. 하루에 한끼 정도만
7. 12시에 일어나면 집에서 밥먹어요. 그리고 보통 친구들 만나서 저녁 먹는편 이에요.
8. 3, 4시에 일어나서 그때 저녁 겸 먹고 그때 밥을 먹고 다시 자요.
9. 그때마다 다른데. 12사반에 먹을때도 있고 2사썸에 먹을때도있고. 저녁은 7시 반.

16. 1시 까지 편의점으로 가요. 편의점에 가서 3, 4시쯤 편의점에 폐기가 나오거든요. 그 폐기로 밥때우고... 밖에 아무데나 가서 밥먹거나 아니면 돈 없으면 밥 안먹고 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똑같이 편의점에 가서 폐기 먹고... 저녁 알바 하는데 거기는 식비 자체가 안나오고 이런것도 없어서 밥 안먹어요. 배고파도 어쩔 수 없죠.
17. 아침은 안먹고요. 점심은 여성회에서 같이먹고요. 주로 사먹고 그 다음에 저녁은 퇴근을 하면서 집 앞에 김밥천국이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도시락이 잘 나오기 때문에 주로 사서 들어갑니다. 사서 먹어요.
25. 아침은 잘 안먹어요. 거의 아절. 정해진건 아니고 언니랑 저랑 너무 배가 고프면 간단하게 거기있는 빵을 먹으면서 해결하고 사장님이 점심시간에 주로 오세요. 그러면 사람이 한 명 더 생기니까 저희 끼리 구내식당에 갈때도 있고 다같이 거기서 만들어서 먹을때도 있고

질문: 여가활동

□ 주로 집

1. 학교에서 그 강의실에서 동기랑 얘기하고 핸드폰 게임 하고 놀아요. 집에서 과제하거나 TV보거나 영화 다운 받아서 보는 것 도 좋아하고 일본 드라마도 많이봐요. 밖에서 만나기도 하고 근데 보통 저희집으로 많이 와요. 저희집이 비어 있을 때가 많아서 친구들 불러서 치킨 시켜서 먹고 영화보고
3. 운동을 쉬고 집에 있었어요. 그냥 자체가 좋았죠. 쉬는 거니까.
5. 여가시간은 따로 없어요. 그냥 저녁에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거나 자죠.
6. 집에가면 잠도 오니까 그냥 집에가고, 한 번 씩 친구는 만나는데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다음날에 또 잠을 못잔상태가 되니까 힘들어서 그냥 친구들은 적당히 만나고 시간되면 집에 와서 씻고 자요. 게임은 하는데 TV는 안봐요. 그냥 친구들은 게임방. 서든어택, 몇 명은 던파가고 몇 명은 오버워치나 롤하러가고
9. 집에서 TV보는거, 할머니가 시장 가자고 그러면 시장가고... 그 다음에는 친구랑 카톡하고 그 다음에 할거 없는데... TV는 예능이나 그런거봐요. 저녁 먹은 다음에는 그냥 할머니하고 놀아요. 평일에는 할머니랑 나가고 토요일에는 남친이 일 끝나고 부르면 나가고
19. 저는 게임도 잘 안하고, 하나 있긴한데 폰게임. 괴리성밀리언아서 라는. 집에서 야간 할 때는 피곤해서 자고요. 주간은 끝나면 집에 가서 수능 공부 잠깐 하다가 자요.
21. 그냥 주말에 가족이랑 같이 맛있는 걸 먹으러 가거나 산에 가거나 그렇게 하고 수능이 얼마 안남아서 그냥 친구는 안만나요. 친구랑 연락은 하는데 만나서 여가시간을 보내는건 없고.. 저는

별로 외로움도 안타기도 하고 요새는 핸드폰이 있어서 카톡으로 자주 연락하니까 굳이 만날 필요를 잘 못느끼겠어요. 네이버웹툰. 거의 하루종일 공부만해요. 밥먹고 운동도 하고, 점심하고 저녁사이엔 집에서 런닝머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집 근처 헬스장에 가서 약간 운동 하기도 하고요.

24. TV보다가 엄마랑 같이 저녁요리 하고 공부하다가 자요. 약간탭으로 영화나 사극,드라마,일본영화. 일본어. 요리좋아해요.
25. 알바 외에 시간들은 집에서 완전 자유시간이잖아요. TV를보거나 그 날 마다 항상 달라요. 너무 피곤하면 잘때도 있고 장을 보러가서 메뉴를 만들때도 있고 그래요. 무한도전 예능은 꼭 1편 보고, 드라마는 요즈음에 하는걸 봐요. 얼마전에 시작한걸 봐요.

□ 게임/핸드폰

2. 게임 하든가 놀든가 TV보든가 PC방가든가 자유시간으로 하고 싶은거. 지금 개강시즌 들어가서 안나가고 있는데 그 전에는 친구들도 방학이라서 같이 돌아다니다보니까 같이 거기꺼서 돌아다니고 해수욕장 가고 어디가고, 외박도 많이 하고, 평일에는 친구들을 거의 만나죠.
4. 그냥 노래방 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하거나 밥을 먹거나... 한 주의 첫째랑 둘째날은 일하느라 피곤하니까 다음날 또 출근을 해야되니까 노는 날 은 주간 막날에 끝나고 놀아요. 거의... 쉬는날엔 서울 올라가서 게임, 아니면 나가서 놀아요.
7. 일어나서 그냥 때마다 다른데요. 운동할때도 있고 앞에서 헬스할 때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영화볼때도 있고 아니면 그 시간 동안 저는 경우도 있고, 4시쯤 여자친구나 친구 만나서 밥먹고 PC방가

질문: 여가활동

- 고, PC방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적으면 3시간 많으면 5, 6시간 주로 LOL게임해요. 그 다음에는 여자친구가 집에 가거든요. 통금이 있어서 데려다주고 친구들 만나서 술먹고 노래방에 가든지 한 번 더 PC방가든지, 거의 아침 다 돼서 들어가요.
8. 설 때는 잠자는거 아니면 게임방 가서 TV를보고있다가 12시정도에 친구한테 전화가 오면 게임을 하러가요. 아침 6시나 8시에 들어와요. 그 쯤 들어와서 다시자죠. 일주일에 PC방은 2, 3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PC방 안가는날은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서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 때문에 나가요. 보통 친구 말고 형, 누나들 만나요.
10. 10시, 11시쯤에 일어나서 5, 6시 학원 갈 때 까지 그 사이에는 거의 컴퓨터를 하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게임도 하고 제가 방송하는 것 도있거든요. 거의 게임 방송 이고 제가 녹음한 음악도 가끔, 방송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제가 하고싶을 때 해요. 그냥 방송을 하면 그 시간에 들어가서 봐야 되고요. 그 영상을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할 수도 있거든요. 업로드 해 놓은거는 계속 볼 수 있는거고 라이브로 보려면 들어와서 봐야되고, 게임방송은 되게 많이 하는데요. 블리자드게임도 하고 슈팅게임도 하고 다들 하는 게임이요. 플레이 하는 영상을 보여 주는거예요. 학원 끝나고 나면 또 집에 와서 방송 그냥하고
11. 일어나면 읍내 여기 친구랑 계속 놀다가 친구 출근 하면 저도 출근 하니까.. 지금은 그만 됐는데 원래는 3시에서 11시 까지.. 대부분 애들끼리 게임방도 가고 아니면 집에서 TV보고 게임은 롤 그런거
12. 컴퓨터하고 TV보고 핸드폰 하고 그리고 저녁 때 엄마, 아빠 오면 저녁 먹고 TV보고 핸드폰 계속 하다가 게임도 하고 검색도 하고 그냥 여기저기 보는 것 같아요.리듬게임, 그러니까 춤추는 게임 이예요. 방향키로 하는건데요. 노래 나오면 그게 나오면 그거대로 누르는 거예요. TV는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13. 주로 나가있거나 나가서 약속이 없으면 집에 주로 있는편 이고요. 집에서 TV나 핸드폰이나 PC를 하는 정도고, 컴퓨터는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주로 게임을 하는편입니다. 총게임이나 아니면 리듬, 여러 가지 가리지 않고, 장기로는 게임을 잘못해서 단기적으로, 오버워치나 서든어택, 친구를 만나면 주로 날마다 다른데 가끔씩 게임방 갈 때도 있고 아니면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러 가거나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게임방에 자주가는 편은 아니라서 밥을 먹거나 술을 먹는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5. PC방 가고 당구치고, 일 끝나고 집에 4시 쯤 오면 자기 전까지 3시간 정도 그냥 계속 폰 만 보죠. 그냥 계속 폰 만 보죠. 게임은 롤이요.
18. 수업 끝나고 헬스 갔다가 집에 와서 저녁먹고 컴퓨터 좀 하다가 드라마 하나 보고... 게임은 롤, 피파. 주말에는 고향에 갈 때도 있고 그냥 이라고 있다가 헬스 갔다가 와서 학교 애들 만나서 술 한잔 먹고
20. 게임방도 가고 당구장도 가고 카페도 가고 술도 먹고 그냥 놀아요.
28. 가끔 게임도 하고 책도 읽고 남는 시간에 약속 있으면 친구들 만나러 가고 일은 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가시간을 많이 사용해요. 책은 소설책, TV는 가끔, 요즈음 유행하는 오버워치도 하고 리그 오브레전드, 웬만한 게임은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게임을 골고루, 친구들이랑 새벽에 PC방에 가기도 하고 술도 먹고 그냥 놀려고 만나는 거죠.

29. TV나 핸드폰게임 정도, 일단 9시반 이후에 군인은 나가면 안돼서요. 원래 집에 있어야 되는데 보고를 하기는 하는데 집에 있다고 하고 밖에서 노니까, 대부분이 다 그러는데 안걸리니까, 근데 걸리거나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가서 인적사항이 등록하면 걸리는 거죠. 오전은 거의 집에 박혀 있다가 연락 있으면 나가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좀 수동적 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연락이 없으면 집에 있고 그냥 집에있고 싶으면 집에 있고 나가고 싶으면 친구한테 연락하고

□ 단체활동/야외활동

17. 끝나면 저는 시민단체에서 일 하니까 저녁에 집회가 있으면 나가는편 이고요. 아니면 공부모임이나 독서 모임 같은게 간혹 2주에 한 번 정도 있기 때문에 그때 저녁에 모임하는 장소에 가서 들어오면 주로 저녁에 밖에서 활동을 하고 들어오면 11시 정도, 그러면 그때는 씻고 바로 자는거죠. 온라인게임, RPG게임을 주로 하고요. 마비노기 영웅전, 롤은안해요. 그런 대전게임은 별로 안좋아해서 총 게임은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적이 없거든요. 주로 몬스터를 잡거나 캐릭터 레벨을 올리는 게임을 하죠.
22. 운동 가끔씩 하고요. 축구 하러 나가고, 그런거 외에는 없어요. 일요일에는 제가 성당활동을 하니까 좀 다르고요. 성가대에서 기타 반주를 해요. 그래서 조금 다르고 토요일도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주말은 다른 것 같아요.
23. 개를 키우고 있어서 개랑 산책을 해요. 30분정도, 그리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영화를 보거나 그런식으로
26. 당구장, 노래방, 친구들이 성인이라서 술도 먹고, 끝나면 가끔 여자친구 한번씩 만나고 아니면 직원 동료들 하고 술 한잔 하고, 그 사무실에서 영화보든가 이런식으로, 친구들은 다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요. 따로 만날 시간이 없어요. 게임같은건 따로 안해요.

질문: 아르바이트

□ 경험있음

1. 얘기 돌보기
5. 딱 1번해봤음 (편의점3일)
7. 아르바이트는 배달같은 것 도 한번씩 하고, 돈이 없으니까 인력소나 아니면 가사원 같은 것 도 그런식으로.. 오랜시간은 맞는데요. 그냥 틈틈이 라고 해야되나, 그러니까 했다. 안했다. 이런식으로 오랫동안 했어요
8.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했어요. 집안이 안좋으니까 나가서 돈 달라는 소리 안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일 만했죠.
16. 학교 다닐때도 계속 아르바이트함. 학교를 자퇴 하고 나서 휴대폰비 하고 쓸 용돈도 안주고 휴대폰비 도 안내주고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집 밥이 저장 안맞아요.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식단 이라서 제가 먹고 싶은 반찬이 없어요. 골뱅이나오고 그럴거든요. 못먹으니까 밖에서 거의 다 사서 먹으니까 그 돈도 부족해서
17. 부모님이 학구열이 강해서 학원도 막 다니다가 자퇴하기 직전에 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하기 전에 반향심에 학원도 안 나가다가 그냥 부모님을 설득했죠. 내가 학원에 안 나갈 바에 그냥 돈을 벌겠다. 어차피 저는 부모님한테 용돈도 안 받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용돈을 안 줄 거면 내 돈 내가 쓸 돈은 내가 벌겠다고

- 그래서 간단하게 편의점 알바를 했고 주말에는 시내에 큰 뷔페에서 하루 당일치기 알바도 친구 따라 가서 하고
18. 현재는 아르바이트 안하고 있음
 19. 학업 중단 후, 택배 상하차 일 해본적 있음 (2, 3번 정도, 일당 8~10만원)
 21. 20세 때, 수능 끝나고 3개월동안 식당 서빙 해본적 있음
 25. 아르바이트 끝나고 월, 목요일은 과외를 하고
 28. 학생때는 아닌 것 같고 2014년에 했었고.. 현재는 가끔 단기 아르바이트 (대타)를하고있음. 주차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카트 아르바이트, 음식점 서빙.
 29. 아르바이트는 틈틈이 계속했죠.

□ 게임/핸드폰

2. 대학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 하지 않음 (미성년자였기 때문)
3.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운동을 해서 아르바이트는 안했어요.
4. 해본적 없음
9. 해본적 없음. 그냥 마땅히 구할때가 없어서. 그리고 거의 다 주말에는 못 쉬니까 교회 때문에 어쩔수 없어서
10.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한 적은 없음

질문: 학기 중/방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 학기 중 경험있음

1. 그냥 수업 듣고
7. 치킨집 배달 아르바이트, 오토바이 타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오토바이가 타고 싶어서 했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도 아니고 탈 수 있는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13. 편의점 아르바이트, 학교 끝나고 저녁부터 할 수 있는 시간은 10시 전 까지
14. 1학년 때 아르바이트 했었고 2학년 때도 했었는데 학교를 4, 5월부터 안 갔으니까 학교 안 갈 때 아르바이트 다녔죠. 곰창 집에서 알바하고..

15. 학교 다닐때는 PC방에서 일했었어요.
16. 뷔페 아르바이트(자퇴 후에도 계속 함)
18. 중학교 때 단기 알바 경험 있음

□ 방학 중 경험있음

1. 그러니까 보통 교회 수련회 많이 가고, 아니오, 한 번 가면 많이 가는 게 아니고 유아부도 가고 소년부도 가고 부탁 받은 건 거의 다 가고 수련회 안 갈 때는 다른 수련회 준비하고...
7. 방학때도 쪽 치킨집 배달 아르바이트 함

질문: 기타 청소년 상황

□ 새로운 활동 시작

1. 그러니까 그 동아리가 되게 복잡한데 제가 약간 리더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후배들 케어하고 얘기 듣고 회의 임원진 회의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만나서 놀기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연합 동아리니까 다른 저희 구역에 있는 캠퍼스들끼리 모여서 놀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 새로운 공부 시작

2. 말은 이렇게 해도 좀 귀찮으면 좀 3시에 공부를 시작하기도 하고, 정보 보안 산업기사 자격증 공부
5. 6시에 일어나서 학원 갔다가 집에 나중에 밥먹고, 자고, 수업이

질문: 기타 청소년 상황

- 8시 40분이라서 제가 좀 일찍가서 공부를 하거든요. 수업은 제가 원하는 것 만 선택해서 듣고 4시쯤 끝나고 집으로 오거든요. 집에와서 인강듣고 책 좀 보다가 자요.
6. 일어나면 바로 씻고 머리 말리고 옷 입고 바로 나가요. 인력개발원 수업료가 있는데 매일 달라서, 그냥 용접도 배우고 배관도 배우고 설비랑 기계 정비랑 하는 이유는 그냥 집에서 이거 하라고 하고 돈도 잘버니까.
7.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 쪽 검도를 했었어요. 그 뒤로 안 하고 따로 운동 학원 같은 거 다니면서 헬스나 복싱해요.
8.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 그런거는 안했구요. 다치는데로 다 하는
10. 학원은 일주일에 2번 이고요. 하루에 1시간 과외처럼 하고 요요. 학원가는 시간은 5시구요. 학원에서 배운 기타 연습하고, 보컬 연습이요. 음악은 학교 다닐 때부터 꾸준히 조금씩 배웠었어요. 어릴때는 피아노 배웠고 학교 다닐때는 기타, 베이스 배웠고 지금은 기타랑 보컬 배우고 있어요. 집에서 악보 보고 피아노 연습 했었고요. 사실 보컬은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노래부르고 하는게 부끄러워서 안배웠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잘하고 싶어서, 해야할 것 같아서 보컬을 배우기 시작한거고, 기타도 더 쳐보고 싶어서 커파슈 2층 버리스타 학원에서 배웠어요. 쿠팡에 싸게 떠서 아빠가 해보라고 해서 제가 커피같은 것 도 좋아할 수 있느냐 흥미가 있을 수 도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걸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해봤는데 별로라서 자격증까지는 안따고 그냥 수료만 했던 것 같아요. 3개월 과정 이예요.
13. 인터넷 서핑할 때 자주가는 사이트는 가끔씩 필요한게 있을 때, PC관련된 사이트 들이나... 부품이나, 제가 PC를 바꾸고 싶은것도 있어서 이것, 저것 부품을 알아보거나, 게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더 크고요. PC는 그냥 바꾸고 싶은 마음에 이것, 저것 부품을 알아보는 정도, 아니면 제가 어떤 게임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그런 것 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한, 아니면 그것외 에 비슷한게 또 있는지 사뮈를 주로하고요. 딱히 게임 관련된 사이트는 검색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게임쪽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 하기 위한 서핑인거고요. 그쪽이 더 많죠.
21. 교과서 보고 기출문제도 보고 그런식으로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학원은 사실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하면 재수종합반학원을 가는 데 가는 이유가 관리가 안되니까 관리를 해주는게 더 큰 이유가 있잖아요. 수업을 듣기보다는, 근데 저는 솔직히 약간 자기관리를 잘하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도 잘하고 운동도 맨날 꾸준히 하거든요. 그래서 잘해서 별로 그 필요성을 못 느껴요. 부족하면 다니겠는데 부족하지 않으면... 인강도 필요한것만
24. 원래 검도 했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여기는 여러 가지 스포츠 프로그램도 하고 두드림도 사무실이 따로 있었어요. 거기에 아시는분이 호구 쓰게 있거든요. 그거 주신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받고 얘기하다가 너 학교 어디다니냐고 그래서 그만 됐다고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해볼래? 이렇게 말해서 검도하게 됐어요.
25. 영어 공부는 계속 하고있어요. 워킹 홀리데이 가는거에 관심 있어서... 인터넷 으로, 그리고 친구들도 어떤방식으로 수업하는 곳 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곳에서 저렴한 곳을 찾아보는 식으로
28. 씻고 밥 먹고 그냥 일어났기 때문에 학원에서 과제 이런거.

기술 관련된 걸 많이 복습하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있어요. 언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게임 같은걸 만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언어는 안배웠고 몇 가지 게임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죠. 학원은 가는 시간은 6시에 집에서 나와서 밤 10시, 주말에 가끔 하루 대타로 아르바이트 갈 때도 있고요. 돈이 궁하면 아르바이트 친구들한테 말해서 대타로 댈때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그냥 텅골거나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놀고

□ 아르바이트

3. 검정고시 학원다닐때도 잠깐 했어요. 주말에 그냥 그때는 음식점, 분식집에서
14. 뭘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어릴때는 진짜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진짜 부유했는데 원래 가난한사람이 잘 살게 되면 그렇게 없을지 몰라도 잘살던 사람이 못살게 되면 상실감이 크거든요. 제가 장녀거든요. 친구들이 저거쓰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지만 엄마가 혼자서 돈 힘들게 벌고 하는걸 봐서 나도 저거 갖고 싶으니까 사 달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자퇴 하고 나서 완전 고빠가 풀린거죠. 알아 하면서 돈 번거 다쓰고 뭘 배우고 싶다는 생각보다 온전히 내 돈을 벌어서 쓰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어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15. 어머니 한테 피아노를 배운 것 에 대해서 처음에 피아노를 배우려고 생각을 하셨고, 어머니는 강사니까 당연히 배울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피아노를 학원 선생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전공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한테 배우다 보니까 트러블도 생기고... 제가 고등학교 그만 두고 집을 나간적이 있어요. 1년 동안 나갔을 거예요. 자퇴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그럴거면 나가서 살라고 아빠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반항을 한다고 알았다고 하고 집을 나왔죠. 그때 친구가 일을 하던애가 있는데 돈을 모아서 그 애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개가 집 하나를 잡아서 같이 살다가, 검정고시 시험보고, 저는 떨어지고 친구는 붙고 그래서 학원도 안다니고 그랬죠. 생활은 아르바이트 하다가 돈이 너무 부족 하니까 집도 팔고 위에 공장에 올라갔어요. 경기도 안산에 거기서 5, 6개월 더 살았죠. 휴대폰 뒤에 카메라 공장 이었어요.
16.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사촌동생이랑 정말 살아요. 전기세, 수도세를 제가 내요. 여름에는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밥 안먹고
19. 그때는 컴퓨터가 좋아서 조립하고 부품 보는거. 컴퓨터가 좋은건 게임이 영향있죠. 하드웨어 보는게 좋아서이고 야간근무 때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하는거죠.
29. 8시에 집에서 나가서 근무하는 곳으로 8시 반에 출근해서 거의 평상적으로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가끔 훈련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거는 빨개요. 그냥 평상시에 6시에 퇴근해서 집에 6시 반에서 7시쯤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씻고 밥 먹고 핸드폰 하거나 TV 보거나...

□ 기존상황 유지

12. 집밖에 거의 안나가는 편이에요. 한달에 나가면 2, 3번. 그냥 나가는게 귀찮은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가 나를

질문: 기타 청소년 상황

보는 자체가... 관심을 끄는 것 같아서, 재 똥똥하네? 이런식으로 쳐다보는 눈빛도 싫고 그냥 귀찮은 것 같아요. 상황을 비꼴시도 안 해봤구요. 다른걸 해봐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딱히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해야지, 하고 찾아 보고 그냥 미루고, 안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딱히 이유는 없어요. 자퇴하고 나서는 그만두고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싶지 않아요.

20. 그냥 아무것도 안해요. 일단 담배 하나 피고 밥을 먹거나 안먹거나 하다가 연습실에 가서 음악 연습하고 바로 사람들 만나러 나가죠.
27. 인터넷, 그림 그리고 게임, 모바일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RPG, 정격적으로 하는건 운동도 체력장 가서 뛰고 근력 운동. 일주일에 6번 하루에 1시간 씩.

□ 외부활동/외부생활 시작

4. 제가 작업 학교 처음 들어와서 가숙 생활을 했는데 집에서 떨어지는 게, 가숙사도 규칙이 있어서 처음에는 지내는 게 힘들었죠. 별점도 받고 혼나기도 했는데...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제 시간에 10시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밤 10시 전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와서 10시되면 가숙사 문을 잠그거든요. 거기서 못 들어온 사람들은 벌점 체크하고
9. 할머니병 간호를 거의 다 제가 했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랑 지금도 몸이 안좋으시구요. 저 중학교 때 하리수술 한 번 하고 그리고 고 1때 쯤 뇌졸중으로.
17. 주로 여성학이나 아니면 소수자 인권, 주로 인권 관련된 도서를 읽고 공부를 하죠. 대구 여성회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제 활동의 방향성과 고민지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 를 하는거고 그 다음에 강사로 뛰거나 이런 미래에 대한 준비, 처음에 활동 보조인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장애 인권 강사 양성 과정 같은거를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강사로 활동 하기 위해서 인권 강사 양성 과정을 몇 번 듣고 심화과정도 몇 번 듣고 그리고 간간히 강사활동을 하고 제일 최근에는 대구여성회 도 저기 걸려있는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과정이나 성평등강 사양성 과정을 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거는 저는 대구여성회

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들죠.

22. 평일에는 고양시 탄현동에 청소년 별카페 라고 있어요. 거기다 동아리를 만들어서 프로그램 같은걸 했었어요. 거기다 학교 밖 청소년 그런 애들이긴 한데 주로 그런애 들을 뽑는거 라고 들었는데 개네들 학교를 다녔어요. 일반학교를, 저만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저만 일반고에 안다녔고. 거기서는 밴드활동이랑 인문학 사진이랑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을 들었었어요. 일주일에 토요일에 한 번 씩 가서 들었고. 제가 사교성이 별로 없어서 친구들이랑 지금도 원활하게 못지내요. 대학교 친구들 이랑, 원래성격이 그런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디에가도 친구들이랑 잘 못 지내요. 이상하게 처음에는 사이가 좋다가도 2학기 부터는 안좋아지더라구요.
23. 일어나면 큐티를해요. 콰이어 타임의 약자인데 성경구절을 읽고 뭐라고 말해야될까... 혼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갖는 타임이거든요. 10분정도. 중국어 선생님은 교회에서 만나서 하는거예요. 3시간 정도 9시부터 12시 까지 1대 1 과외형식으로... 주말은 한달에 1번 동아리가 있어서 한달에 1번 정도 가고 병원에 다니고 있어서 병원에 가기도 해요. 또래 상담 동아리 라고 고양시 청소년 복지센터에 있는 동아리예요. 그 동아리가 또래를 상담하는 그런건데 요즈음 하는거는 동아리구성원들에 대해서 좀 더 친해지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있고요. 또 상담을 해서 서로 나누는 그런시간도 갖고 있어요.

□ 비행

31. 일단 밥 값이 제일 많이 나가고 제가 먹는걸 너무 좋아해서 밥 값 하고 담뱃값, 그리고 일 마치고 애들이랑 도박 하거든요. 많이 딸 때도 있는데 버릴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이 잃고, 또 한번씩 여자친구 만나러 가서 돈 좀 쓰고 애들끼리 술 마실때도 쓰고

질문: 이행 경로

□ 학업복귀형

1. 2013년 8월 검정고시, 9월 수시전형, 10월 면접, 11월 발표-2014년 학교생활-2015년 학교생활-2016년 학교생활
2. 2013년 2월 중학교 졸업, 4월 검정고시 학원 등록, 6월 검정고시 학원 중단, 8월 검정고시 합격, 9월 IT 관련 직업학교 지원, 10월 IT 관련 직업학교 합격-2014년 3월IT관련직업학교입학-2015년 학교생활-2016년 2월 IT 관련 직업학교 졸업, 4월 아르바이트 시작, 6월부터 아르바이트와 병행하며 독학으로 자격증 공부 중
3. 2013년 7월 고등학교 자퇴, 검정고시 학원 시작-2014년 8월

검정고시 합격, 10월 대학 원서 접수 후 합격 통지-2015년 3월 대학 입학-2016년 학교생활

4. 2013년 직업학교 진학(돈보스코 직업 전문학교), 방송통신 고등학교 진학2014년 직업학교 졸업 후 1월 취업(파이프 회사), 주말마다 방송통신 고등학교 등교-2015년 회사 생활, 방송통신 고등학교 졸업-2016년 회사 생활
5. 2013년 4월 검정고시 응시(합격)-2014년 특별한 일 안함-2015년 수능 공부 시작(독학), 대학 입학-2016년 대학 재학 중
6. 2013년 5월학교자퇴,특별한일안함,가꿈단기아르바이트함(고깃집서빙)-2014년 9월학교다시복학하는교육받음(1주일동안)고등학교 복학(같은 곳)-2015년 9월 학교에서 공장 취업시켜 줌,

질문: 이행 경로

공장에서 일함(12시간 씩, 첫 월급 190만원)-2016년2월 고등학교 졸업, 3월 인력 개발원 학원 다니기 시작함

□ 무업형

7. 2013년 3월 미용고 입학, 7월 미용고 자퇴-2014년 3월 청소년 회관에서 검정고시 준비, 4월 검정고시 1차 응시(불합격), 8월 검정고시 2차 응시(불합격)-2015년 아르바이트-2016년 아르바이트
8. 2013년 4월 고등학교 자퇴, 5월 YMCA 다니기 시작, 주말아르바이트 시작-2014년 (YMCA는 학교밖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고싶은 것 들해주고 그런 수업같은거 했어요, 말타는 것도 했고 농사 채소 키우는것도 했고, 가끔 놀러도 가구요.)-2015년 YMCA 다님 1월달까지 YMCA 다님 (3년 동안 띄엄띄엄 다님), 3월 키즈카페 아르바이트 시작, 9월 키즈카페 아르바이트 그만 둬, 10월 백화점 아르바이트 시작-2016년 3월 백화점 아르바이트를 직원으로 전환, 8월 백화점 그만 둬
9. 2015년 간호 학원 다님(이수함), 네일학원(3개월, 이수함) 다님
10. 2013년 연극극단에서 아르바이트 일함(연극극단에서 일을 해봤는데 자퇴 하고 바로 했었거든요, 그냥 홍보 일바요.)-2014년 4월 처음 검정고시 볼, 인터넷 개인방송 시작함. (시작한게: 제가 연극 계속 하고 싶었는데 연극을 안하기로 하고...)
11. 2013년 4월 학교 자퇴, 6월부터 아르바이트 시작(PC방)-2014년 PC방 아르바이트,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2015년 아르바이트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 직업형

13. 2013년 2월달까지 아는 자인 일을 무보수로 도와줌, 4월 검정고시 합격, 6~7월부터 집에서 휴식(무직상태, 주로 집에서 PC 게임을 하면서 지냄)-2014년 아르바이트 다시 시작(대형마트 카트팀(주차장 관리 업무나 카트 매장에 보급을 해 주는 부서)에서 1년 반동안 일함)-2015년 7월 대형마트 일 그만둬, 그 이후 2달간 비슷한 아르바이트함 12월 몸을 다쳐서 일을 그만둬-2016년 특별한 일 안함. (올해 계속 겨울에 놀러 다니면서 스키장도 갔다오고 그러다가 크게 한 번 다치고 입원하다가 다시 관참아져서 또 놀러가고 그리고 다음에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시간은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약속을 잡고 놀러 가든지)
14. 2013년 8월 검정고시 합격, 그 이후 서빙 아르바이트 함, 겨울 즈음 백화점 아르바이트 시작-2014년 백화점아르바이트 2015년 초에 백화점 아르바이트 그만 둬-2016년 4, 5월부터 꽃집 일 시작
15. 2013년 가을 후, 친구와 경기도 안산 공장에서 일함(5개월 정도), 집으로 다시 들어감-2015년치킨집 일 시작-2016년 현재 치킨집 일 하고 있음
16. 2013년 6월 자퇴, 주말 아르바이트(뷔페) 함-2014년 같은학교 로복학(2학년으로), 다시자퇴, 주말 아르바이트(뷔페) 함-2015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함-2016년 8월 검정고시 시험 볼(부합격), 편의점 주간/과일주스 가게 아르바이트
17. 2013년 장애인 단체(시민단체)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일을

시작함-2014년 검정고시 합격함, 방과후 학교(비영리 단체)에서 상급 교사-2015년 카페 매니저 아르바이트, 게스트 하우스 아르바이트-2016년 현재 대한 여성회(시민단체)에서 일함

18. 2014년 3월 자퇴, 서울 기술학원 진학, 8월 검정고시 합격, 12월 기술학원에서 자격증 취득 후 회사 취직-2015년 6월 회사 퇴사, 그 후 창원으로 내려와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함, 8월 미술공부 시작-2016년 현재 대학 다니고 있음

□ 학업지속

1. 2013년 5월,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 8월 검정고시 응시(합격)-2014년 수능시험응시(원하는대학불합격/ 숭실대 사회복지학과와 시립대 사회복지과) 솔직히 말이 수능 준비지 그냥 놀았죠, 그때는컴퓨터가 좋아서 조립하고 부품 보는가-2015년 특별하게기억나는일없음,수능시험응시(원하는대학불합격) 12월부터공익근무시작-2016년 공익 근무 중
20. 2013년 자퇴 후, 아는 사람에게 음악을 배움, 8월 검정고시 응시(합격), 대학 수시 준비-2014년 대학 합격
21. 2013년 7월 자퇴 후 혼자 수능 공부-2014년 4월 검정고시 응시(합격), 수능 응시, 수능 후 단기 알바-2015년 8월 검정고시 과목 중 일부 고득점을 위해 재 응시, 수능 응사-2016년 수능 준비
22. 2013년 중학교 졸업, 돈보스코 직업학교 입학, 방송통신 고등학교 진학-2014년 2월 직업학교 졸업, 기사 자격증 공부-2015년 3월 아르바이트 시작(6월까지), 12월 방송통신 고등학교 졸업-2016년 3월 폴리텍 홍성 대학 입학, 8월 휴학
23. 2013년 중학교 자퇴, 첫 번째 대안학교입학 (엘함람, 한달 만에 그만둬/신설 학교 라서 학생들이 거의 없고 커리큘럼이 안좋아서) 두 번째대안학교입학(푸른꿈 비전스쿨, 3개월만에 그만 둬/친구들이랑 안맞아서), 이후 혼자서 공부시작-2014년 4월 중학교 검정고시 응시(합격),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 가서 프로그램 참여-2015년 세번째 대안학교 입학(스카이 아메리칸 스쿨)-2016년 4월 고등학교 검정고시 응시(합격), 아르바이트 함
24. 2012년 학교 그만두고, 2013년 7월까지 두드림 센터 다님, 8월 중등 검정고시 응시(합격)-2014년 고등학교 다니기 시작함 (경기 여자 고등학교)-2015년 고등학교 재학-2016년 고등학교 재학

□ 직업전환

25. 2013년 8월 검정고시 응시(합격), 학교 자퇴하고 영화 동아리 다님-2014년 10월까지영화동아리다님, 여러종류의아르바이트를함 호떡 집에서 일했었고 그리고 카페 겸 옷 가게 거기서도 일했었고 대학로에서 연극할 때 표 티켓팅 해 주는 것도 일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카페, 왜냐하면 기간이 좀 길어요, 그 전까지는 짧았는데 영화 동아리 그만 두니까 영화 촬영할 일이 없으니까 그만 둘 이유가 딱히 없어서 길게 하다 보니까-2015년아르바이트 함-2016년 아르바이트 함
26. 2013년 중학교 생활-2014년 2월 중학교 졸업, 3월 돈보스코 직업학교 및 방송통신 고등학교(졸업 안함)입학-2015년1월

질문: 이행 경로

- | | |
|---|---|
| <p>돈보스코 직업학교 졸업 후 관련 기술쪽으로 취직해서 12월달까 지 다님-2016년 7월 현재 다니는 직장 다니기 시작</p> <p>27. 2013년 검정고시 학원 다니기 시작함, 8월 검정고시 합격, 11월 컴퓨터 그래픽 학원 다님-2014년 컴퓨터 그래픽 학원 -2015년 8월에 컴퓨터 그래픽 학원 그만 둠</p> <p>28. 2013년 6월 검정고시 학원 다니기 시작, 8월 검정고시 합격(합격)-2014년 3월 수능 준비를 위해 학원 다니기 시작(2개월만 다님), 수능 응사-2015년 수능 준비, 대학 수시 준비(주로 실기 준비)-2016년 3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원 다니기 시작</p> <p>29. 2013년 자퇴-2014년 2월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작(한 달),</p> | <p>대안학교 다니기 시작함, 잡모아를 통해 서울 종합 예술 학교 다님(한 달), 가출하다가 독립하기 시작함-2015년 11월 군 생활 시작-2016년 8월 검정고시 응시(합격)</p> <p>30. 2013년 4월 검정고시 응사-2014년 대학 입학 후, 바로 교통 사고 남(2년동안 병원 생활)-2015년 병원 생활-2016년 3월 대학 복학</p> <p>31. 2013년 일반고등학교 자퇴-2014년 방송통신 고등학교 자퇴, 소년원에 감-2015년 국제 금융 고등학교 입학-2016년 현재 킥서비스 일 하고 있음, 국제 금융 고등학교 재학 중</p> |
|---|---|

질문: 직업형태 전환

- | | |
|---|---|
| <p>□ 전환함</p> <p>4. 2014년 정규직 취업 후, 계속 유지</p> <p>8. 2015년 백화점 의류 판매를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2016년</p> | <p>3월 직원으로 전환</p> <p>26. 첫직장과 현재 직장은 직종이 달라졌죠. 작년에는 기술쪽으로 했는데 올해는 그냥 컴퓨터쪽으로 직종을 변경했습니다.</p> |
|---|---|

질문: 최근 1년 새로 시작한 것

- | | |
|---|---|
| <p>□ 공부/학원</p> <p>2. 보안자격증과 관련 인터넷 강의수강 중 → 자격증과 인터넷강의 수강 등을 통해 학점을 보충 (학점은행제)하여 4년제 학사를 취득할 계획임</p> <p>10. 2달전부터 음악학원을 다니기 시작 했고요.</p> <p>23. 중국어 공부, 영어 공부 시작</p> <p>28.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원 다니기 시작함. 여러 가지 준비를 작년보 다는 훨씬 많이 하고있는 것 같아요.</p> <p>□ 취업/창업 준비</p> <p>3. 9급 경찰 공무원 준비할 예정</p> <p>25. 가게 준비하는 거</p> | <p>□ 취미</p> <p>12. 매니큐어 바르는거.</p> <p>□ 아르바이트</p> <p>14. 꽃집 일 시작</p> <p>15. 치킨집 일 시작함</p> <p>16. 집에 돈 안주다가 준거. 맨날 돈 돈 거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안드린거고 학교를 안다니니까 드리는거죠. 너 학교안다니날바에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돈이나 벌라고 해서 이렇게 된거죠.</p> <p>31. 킥서비스 일 시작</p> |
|---|---|

질문: 최근 1년 새로 그만둔 것

- | | |
|--|---|
| <p>□ 공부나 학원을 그만 둠</p> <p>7. 청소년화관에서 검정고시 공부 했었는데 안하고 있어요.</p> <p>9. 작년 여름 간호 학원 다니다가 중단, 네일아트 학원도 다니다가 중단</p> | <p>27. 컴퓨터 그래픽 학원 그만 둠</p> <p>□ 운동/활동/일을 그만 둠</p> <p>5. 킥싱 하다가 그만둠</p> |
|--|---|

질문: 최근 1년 새로 그만둔 것

8. 직장을 그만둬
17. 일단 그 전 보다 사람은 훨씬 안만나고요. 제 또래는 대부분 학생이고 주로 학생이 아니더라도 저 같이 시민 사회 단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사도 다르고 말할 때도 말을 하는 언어 자체가 다르니까 섞이기 힘든거죠. 그래서 작년 부터는 아예 만나갔어요. 그리고 또래도 거의 안만나고

□ 게임

31. 게임(서든어택) 게임은 원래 했었는데 이제 안해요. 그냥 게임 시간도 아깝고 시간이 제일이갑고이게 딱 소년원 갔다 나와서, 소년원 안에 있어도 시간 아깝다는 생각을 이제 애들도 다 20살이고 20살 다 돼 가는데 안에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나가면 시간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게임으로 시간 낭비를 제가 많이 해서 게임을 안 하기도 해서 몇 달 전부터 게임을 끊었어요.

질문: 검정고시 준비/실시 이유

□ 고등학교 졸업장

5.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 되니까 그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7. 미용고를 그만둘 때 그냥 검정고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고졸은 해야 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다가 보단 어른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특히 엄마랑 검도 관장님. 그 두분 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웬지 알바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 할 거 아니면 고등학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10. 그게 자퇴 하면서 검정고시는 보라고 부모님 하고 얘기를 했던거고 고등학교 졸업 정도는 해야될 것 같아서 봤던 것 같아요. 그건 다 주변환경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생각한건 아니고 사람들이 다 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된다고 말을하니까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실업계로 전학가지 않은 이유 : 지금 인문계 얘기 했었고 전문계로 갔으면 내가 좀 더 원하는 걸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다른학교로 전학 생각을 안한이유는 정보가 별로 없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한 학년 내려가야 돼서 안했던 것 같아요.
14. 고졸은 해야죠.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쪽은 그래도 학력을 많이 안따지거든요. 남들은 다 고졸은 하잖아요. 중졸은 잘없잖아요. 옛날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했죠. 시험을 쳤죠. 중졸은 좀 제가 봐도 중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이상 하잖아요. 집에 돈이 없나? 왜냐하면 고등학교도 돈이 들잖아요. 1년에 2, 30만원 내는 걸로 알고 그리고 교복 살 돈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남들이 다 하는거 같아요. 우리 엄마가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도 남들이 다 하는 만큼만 해라. 왜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검정고시 본 사람들은 인식이 안좋다고 학교에서 무슨문제가 있어서 검정고시를 볼 거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중졸인 애들을 볼 때 말쑥한 사람을 못봤거든요. 그것도 나쁜인식인데 누구든 그렇거예요. 고정관념 이긴 한데 나 자신도 재는 검정고시를 쳤으니깐 나쁜짓을 했을거 라고 생각을 받겠지만 저는 중졸인 애들 중에 말쑥한 애들을 못봤거든요. 차라리 말쑥한 애가 주변에 있었으면 그래도 중졸인 애들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라고 생각을 할텐데 중졸 중에서 말쑥한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15. 그래도 고졸은 하자. 그냥 다시 학교다니는건 싫고 학교는 가기 싫었어요. 검정고시는 군대갔다와서, 검정고시를 보면 군대를 가야되더라고요.
16. 고등학교 졸업장. 할머니가 저를 싫어하세요. 사촌들은 전부 다 학교 잘다니고 졸업해서 대학교 까지 갔는데 네 인생은 왜이러냐. 엄마, 아빠가 이혼하셔서 차라리그릴바에는 너 우리집에 살지 말고 엄마한테 가서 살아라. 이렇게 안좋게 이야기가 나오고 마주치면 할머니가 화를 내요. 이럴바에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으면 할머니가 화를 덜 내실까 해서 간 것 같아요.
18.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은 하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엄마가 내려왔을 때 검정고시나 하나 따지고 해서
19. 검정고시는 따야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학교는 제대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냥 계획은 딱히 없었는데 고등학교는 제대로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22. 방송통신고등학교진학- 일단 취업을 하려면 학력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 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에서 추천해줘서, 왜냐하면 보통 직업학교는 일단 가족생활이니까 고등학교를 같이 병행학습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하루만 가도 되니까 거기를 추천 받아서 되게 좋게 생활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저 혼자 졸업했어요.
25. 졸업장은 당연히 있어야되는거 아닌가. 그렇게 그 때 생각했어요.
30. 갑자기 또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너무 공부도 안하고 맨날 놀면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또 자퇴를 한 입장이고, 공부를 안하면 아무것도 안되고 쓰레기 밖에 안되니까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게됐죠. 그때는 대학교 진학 생각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거기 같이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피폐 하게 살다시피 했는데 노래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저한테 는 노래를 하고 싶으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더 잘되는 거라고 그래도 최소한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대학교 문턱만이라도 밟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했어요.

질문: 검정고시 준비/실시 이유**□ 주변의 권유**

3. 전문적으로 저는 운동 특기자로 그 학교에 스카우트 돼서 갔는데 제가 부상이 많았고, 몸이 예전 같지도 않고, 여자 축구가 솔직히 비전이 높은 것도 아니라서 접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네가 특기자로 왔으니까 운동을 안 할 거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했어요. 고 2때는 전학을 받아주는 학교가 별로 없는데, 그 때 담임 선생님이 검정고시를 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13. 일단 삼촌의 압박이 있었고요. 고 2, 4월에 시험을 봤네요. 학교 그만두고 1년안에 10개월 있다가
17. 주변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한번 쳐 보라는 식으로, 저는 원래 학교 자퇴 하고 검정고시에 응시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활동 보조인 하면서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니까 학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회인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시민단체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대학교 졸업하셨고 다 대구대 사회복지학과는 나왔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라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시는분들이니까 그게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서 고등학교도 딱히 검정고시 칠 생각도 없었고 대학교도 가가싶었는데 같이 일을 하시던 분이 몇 번을 이직을 했거든요. 그 뒤로도, 그러다가 같이 일을 하시는 동료분들이 한번 쳐 볼만 하지 않냐고 이래서

24. 엄마 아는분이 계시는데 그 이모가 과외도 하시고 좋은 대학교 나오셔서 공부 좀 하시니까 이걸 듣고 검정고시 보라고해서 봤어요. 부모님도 권유했어요.
27. 가족이 하래요. 엄마. 딱히 그때 하는 것 도 없었고 해서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 일단 졸업장을 따니까. 엄마가 마침 그 때 알아본게 있는지 거기에 다니라해서
28. 자퇴한 친구가 있어요. 같이 자퇴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검정고시를 본다고 했을 때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저 친구는 검정고시를 보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하니까 그 친구를 보고 뭔가 느껴서 같이 그 친구랑 학원을 다니고, 검정고시 따고, 자극을 받았죠.

□ 대학진학

1. 부모님 때문에 검정고시를 본 건 아니고 봐야되니까 보긴했는데 그런거죠. 엄마 한테도 몇몇해야 되고 어차피 대학도 가야되니까
2. 제가 원하는 IT 관련 직업학교를 가려면 검정고시를 봐야했어요
21. 대학가려고 했으니까

질문: 검정고시 준비기간**□ 6개월 이내**

2. 검정고시 학원은 중학교 졸업하고 2개월 있다가 바로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세달 다녔구요. 시험 보기 전까지(8월 시험)는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5. 시작하기 2달 전 쯤에 급하게 학원을 다녔어요.
7. 자퇴하고 6개월 뒤부터 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용고 2학년 그만두고 해가 지나가고 4월, 8월달이었어요. (시험 2번 응시) 4월달에 시험보고 틈틈이 조금씩 가서 공부해서 8월에도 봤는데 불합격했어요.
13. 한달. 짧게했죠.
14. 자퇴는 10월인데 자퇴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할 수 있는건데 10월에 하고 시험이 바로 2월 인가 있었는데 그게 안됐어요. 기간이안 돼서, 그 다음에 8월에 시험이 또 있었는데 그건 바로 쳤거든요.
15. 학교 그만두고 한달뒤에 바로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은 3, 4달 다녔구요.수업은 4, 5시간 했어요.
16. 하루에 2시간. 점수를 하고 시험 치기 전까지 2달정도
17. 원서 점수를 보통 8월달에 시험을 치면 6월달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서점수를 하고 까먹은거예요. 시험일자도 까먹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검정고시 원서 냈다면서요? 시험은 언제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 보니까 바로 이번주인가예요. 그래서 그냥 보지않았죠. 원서 비용 얼마 안하는데 날리죠. 그랬었는데 그래도 쳐 보라고 그래서 그냥 기출문제, 작년 시험 문제 한번

- 풀어보고 채점해보고 그냥 가서 시험봤더니 통과했어요.
21. 그냥 아예 공부 안 하고 봤어요. 어차피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고 해서 어차피 고2, 고3 걸 공부하면 자동으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이 그냥 봤거든요.
23. 중등검정- 그때도 계속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4월달에 검정고시를 봤어요. 고등검정- 3개월
24. 조금 하다가 안해서 일주일만 하고 봤어요.
25. 그냥 전 날에 수능처럼 몰아서 봐요
28. 1, 2달 다녔으니까 2013년 6월, 7월에 다녔던 것 같아요.
29. 준비는 안했고 이번에 군대에 있을 때 고졸 못하는 사람들 신청해서 할 수 있게 해 주거든요.
30. 2개월 정도 다니다가 그만 뒀어요. 그 다음에는 학원을 가지는 않고 스스로 공부했어요.

□ 6개월 이상

1. 학교 자퇴 전에 조금 학원도 알아보고 자퇴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퇴하고 거의 1년 후에 검정고시를 보는 거였는데 학원을 1년짜리가 있어서 회원권이 있어서 엄마가 그걸 끊어주고 다녔죠.
3. 2013년 여름에 그만두고, 바로 학원다녔고 시험은 2014년 8월에 봤어요. 그 동안쪽 공부를 했죠. 왜냐하면 운동만해서 기초가 없으니까 1년공부
10. 고 2때 자퇴하고 그 다음해에 바로 봤어요.

질문: 검정고시 준비방법

□ 학원

1. 학원
2. 학원 & 독학
3. 학원
13. 학원에서 했었어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학원에서는 마음에 안드는 학과는 잦는데요.
15. 학원 다녔어요.
21. 작년 8월 전에 7월에 검정고시 학원에 가면 한 달 전에 딱 잡아주는게 있는데 딱 그것만
23. 중등검정- 학원에서 4번 특강 듣고, 고등검정- 종합반, 학원다님
25. 당연히 무작정 학원 등록을 했는데 비싸게 등록했는데 잘 안다녔어요. 사실공부는 안하고 봤어요. 이를 다녔나? 진짜 안 다녔어요. 그냥 안다녔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전날에 수능처럼 몰아서 봐요. 그래서 지금 봐서 될 수 있는게 없어서 사회 이런거, 책 꺼내보고 학원에서 받은 책이 있으니까 근데 생각지도 못한, 옛날에 배우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게 나오고 도덕도 내가 알던 도덕이 아닌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부 안하고 봤는데 어떻게 잘 그냥 봤어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거죠.
28. 학원을 2달. 중간에 1, 2번은 빼먹었지만 전체적으로 잘다녔던 것 같아요.
30. 시내에 학원이 있더라고요. 저 혼자 하기에는 너무 대책이 없고 공부도 안하게 될 것 같아서 학원도 알아보려니까 또 시내같은곳 은 한 두 군데 있더라고요. 저는 학원만, 그때는 학업에 대한 욕구도 없었고, 학원 안다닐때는 공부하는 문제집이 있더라고요.

□ 독학

10. 준비는 그냥 인터넷에서 기출문제집 사서 그거 풀어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문제집 풀면서 기출문제집을 봤는데 되게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출 문제만 풀었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집 한 권 풀었던 것 같아요.
14. 포기할건 포기하고요. 제가 수학, 과학을 못 하거든요. 근데 영어나 이런거는 잘하니까 영어 믿고 가고, 기출문제는 보기는 봤었어요. 대충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되니까, 보고 어려운데? 그러면 공부를 하고 인어려우면 안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아는걸 공부하는 것 도 시간낭비 잦아요. 그래서 그냥 보니까 특별히 공부를 안해도 될 것 같아서
16. 준비 안했어요. 교재를 받았었어요. 아는 오빠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봐서 그 교재 있었단걸 받았어요. 보기는봤죠.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체육, 이런거랑 보고 싶은거만
17. 그냥 기출문제, 작년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고 채점해 보고 그냥 가서 시험 봤더니 통과 했어요. 검정고시 자체는 쉬우니까요.
24. 그냥 대충 책 한 번 읽기만 했는데, 두드림에서 전에 검정고시 봤던 언니들이 봤던 책 빌려서

□ 센터

7. 양산청소년문화회관. 그냥 청소년 회관 가서 아침 10시부터 12시 까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다녔어요. 그냥 2주 갔다가 안갔다가 이런식으로 잘안갔어요. 총 한달 반 정도. 못일어나서 못갔어요.

질문: 검정고시 학원 유형

□ 센터

7. 거의 그냥 강의가 아니고 학교처럼 선생님이 오세요. 그래서 그냥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다 계셔서 시간표 짜서 오세요. 청소년 회관 선생님들은 전문적이고 솔직히 괜찮았어요. 거기서 해줄거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프린터도 전부, 그래서 솔직히 돈을 내야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여긴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노래방도 있고 PC방도 있어서 갔거든요. 가다 보니까 엄마였나, 누가 말을했어요. 엄마였을 거예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 저한테 말해줬어요. 공부하는 데가 있다.
29. 원래 다니는 기관에 대안학교 같은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검정고시 공부 할 수있게 해주더라고요.

□ 오프라인 학원

1. 종합반(오프라인). 검정고시 보기 전까지 다니긴 했는데 잘 다니진 아니고 문자가 오면 가서 얼굴 비추고 조용히 빠져 나와서

집에 가고 놀러 가고 그랬어요.

2.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뉘져 있어요. 저녁반도 있고 저는 그 중에 오전반에 갔어요.
3. 학원에 아침 9시에 가면 1시에 끝나요. 오프라인 강의죠.
13. 오프라인 학원
15. 부산에 있는 한양학원으로 다녔어요.
20. 한양학원.
27.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9시였나 8시였나
28. 종합반 이었죠. 아침에 8시에 집에서 나와서 4시쯤 끝났던 것 같아요. 학원다니게 도움이 많이됐죠. 원래는 공부를 엄청 못했었는데 1, 2달 열심히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 검정고시 합격 여부

□ 합격

1. 자퇴하고 2013년 8월에 보고 합격했어요.
2. 중학교 졸업 후, 그 해 8월에 본 검정 고시 시험에서 바로 합격했어요. 100점 만점에 94점 나오더라고요
3. 1년 정도 준비하고 그 다음해에 합격했어요. 학원에 아침 9시에 가면 1시에 끝나요. 그리고 바로 도서관에 가서 거기서 8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태권도 학원 갔다가 집오고 그랬어요. 그냥 혼자 앉아있는 연습부터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미 쏠리고 나가고 싶고, 근데 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니까
5. 한번보고 바로 합격했어요.
13. 검정고시는 땀입니다. 고 3, 4월인가 그랬을거예요. 19살 4월, 2014년 4월, 4월, 8월 시험이 2개 있는데 그때 6월에 자퇴를 해서 2014년도 4월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죠.
14. 공부는 안했죠. 근데 합격은 했어요.
17. 합격함. 자퇴하고 2년 뒤 2014년에 봄
18. 한번에 합격함
19. 합격
23. 한번에 모두 합격
24. 한번보고 바로 합격했어요.
25. 한번보고 바로 합격했어요.
27. 한번에 다 합격함

28. 2013년 8월에 한번 보고 합격

29. 이번에 봐서 합격했어요. 합격하면 포상휴가 같은 것 도 받는데 공부하느라 안하고 가서 봤는데 간이라도 보려고 봤는데 붙었어요. 이번에
30. 한번만에 붙었어요. 고득점으로

□ 부분합격

7. 시험은 2번 봤어요. 부분 합격은 2개 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어요. *검정고시중단이유: 2번 다 떨어지고 나서, 혼자 해보려고 학원 다녀봤거든요. 한양학원이라고 검정고시 전문학원이 있어요. 동네에 있길래 등록해서 다녔는데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못따라 가서 한 달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도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따라 왔어요.
16. 딱 한번 시험 본 적 있음. 부분 합격이라고 해야되나

□ 불합격

15. 시험은 봤는데 떨어졌어요.
20. 딱 한번만 봤어요.

질문: 검정고시에 도움을 준 사람

□ 부모님

3. 부모님이죠. 경제적인거랑, 절 믿고 제가 하고싶다는걸 그냥 같이 도와주셨어요. 대학 알아보는 것 도, 대학가서도 경제적 어려움없이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검정고시 학원 선생님들이 진짜 잘해줬어요. 기초가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공부 어떻게 해야돼요? 그러면 알려주고, 진짜 제가 모르는걸 다 가져가도 알려주시고 이것말고도 진로쪽으로도 여기 학교 알아봐? 이렇게 다 챙겨주셨어요. 열심히 하려는 애들한테는 열심히 해주셨어요.
7. 어머니죠. 제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해 줄 수 있는건 다 해주세요. 학원비도 마련을 해주시고 엄마가 청소년화관도 알아봐 주신거니까 그런식으로 다 도와주시죠.
14. 엄마가 책값 내준거, 그것도 엄마가 준게 아니고 나라에서 카드를 주거든요. 그게 책을 살 수 있는 카드를 줘요. 1년에 5만원 정도 밖에 못쓰지만 그 5만원으로도 책을 샀는데 안보고, 나라에서 도움을 줬네요.
15. 학원 비는 어머니께서 내주셨어요. 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냈어요. 어머니께서 먼저 내 주고 제가 일해서 다시 갚았어요. 도움을 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 지인/친구

1. 있어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검정고시는 과목 하나가 일정 점수를 넘어야 되니까 영어 때문에 합격을 못할 것 같아서 그러면 내년 4월에 또 봐야 되니까 엄마가 영어 과외를 하자고 그래서 과외를 알아보다가 교회 사모님이 자기가 무료로 해 주겠다고 그래서 검정고시 책 가져가서 사모님이 많이 봐주셨어요.
16. 친구. 개도 검정고시를 봐야돼서 같이 보러갔었거든요. 같이 준비했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있고 같이 문제 내주고 그래서 부분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국어, 사회, 암기과목을 진짜 못해요. 국어도 진짜 못하겠는데 친구 때문에 국어 합격하고 체육이랑 이런 것 도 내가 문제가 없었는데 친구가 문제를 줘서 합격하고

□ 법인/센터

18. 늘푸른 전당 이라고 거기서 검정고시 시험 강연같은거, 시험기출 문제 같은거 한 번 인가 두 번 갔어요. 복지법인 그런게 있어서 거기서 했는데 1, 2번 가다가 귀찮아서 안갔어요.

질문: 대학진학 이유

□ 본인의 목표

- 교회에서 어차피 얘기 볼 때마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단법인을 낸 거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때는 청소년 애들을 만나거든요. 그때 보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좋아하는 대상이고 도움이 주고 싶으니까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나 아동 복지 그런 발달사를 공부하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게임을 많이 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컴퓨터였어요. 동영상 편집도 다뤄보고 학교 방과후 시스템으로 컴퓨터 프로그램도 다뤄보고 그랬거든요. HTML 이런 것도 알게라도 배웠고, 그래서 이거 할 때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하고 싶어서...
- 계기는 따로 없고 그냥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예전에 타투그림을 그리려고 했었는데 부모님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셔서 그냥 그 상태로 바로 입시 준비를 했어요. 대학 가서는 인테리어를 하고 싶었어요.

□ 주변의 권유/영향

- 그냥 뭔가 고등학교가 아무래도 검정고시다 보니까 나중에 되게

후회될 것 같아서요. 대학에 안가면요. 그리고 또 부모님도 권유하셨고 저도 대학에 가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 제가 지금까지 연락한 친구는 1명 밖에 없거든요. 개가 가니까 저도 가야겠다고. 근데 대학은 저랑 안맞았어요. 제가 선배랑 사이가 별로 안좋아요. 그래서 다니기도 불편하고 제가 말을 안듣거든요. 계속 저한테 어디로 오라고 시키고 하니까 저도 무시하면서 다니고, 위에 선배들 무시하고 다니니까 사이가 별로 안좋았어요.
- 일단 엄마랑 아빠는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원래 저도 대학생각은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갈까, 말까 생각하다가 엄마랑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 제가 양아버지처럼 모시는 스승님의 권유도 동기가 되었어요. 원래는 공부도 하는 등, 마는 등 했는데 그 분이 그래도 너 이왕 공부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보고 검정고시 또 떨어지면 또 검정고시 공부해서 대학교를 가라고

□ 학력

- 일단 취업을 하려면 학력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 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학력이 아무래도 조금 뒤 받침을 해줘야 면접을 봐도 뽑아주실 것 같고 그래서 대학교 까지 입학했어요.

질문: 대학명/학과명/현재상태 및 학년

□ 학업복귀형

- 한영신대학교/아동 기독교 복지학과/재학/3학년 2학기
- 한국 IT 직업 전문학교/정보보안학과/졸업
- 원광 대학교/경찰 행정학과/재학/2학년 1학기
- 고신 대학교/화학신소재/휴학 수능 준비 중/1학년 2학기후,

□ 직업

- 예술대학교/실내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재학/1학년
- 제가 지금까지 연락한 친구는 1명 밖에 없거든요. 개가 가니까 저도 가야겠다고. 근데 대학은 저랑 안맞았어요. 제가 선배랑 사이가 별로 안좋아요. 그래서 다니기도 불편하고 제가 말을 안듣거든요. 계속 저한테 어디로 오라고 시키고 하니까 저도 무시하면서 다니고, 위에 선배들 무시하고 다니니까 사이가 별로 안좋았어요.
- 일단 엄마랑 아빠는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원래 저도 대학생각은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갈까, 말까 생각하다가 엄마랑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 제가 양아버지처럼 모시는 스승님의 권유도 동기가 되었어요. 원래는 공부도 하는 등, 마는 등 했는데 그 분이 그래도 너 이왕

공부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보고 검정고시 또 떨어지면 또 검정고시 공부해서 대학교를 가라고

□ 학업지속형

- 명지전문대/실용음악/휴학/2학년 1학기까지 마침
- 폴리텍 대학/컴퓨터응용기계과/휴학중/1학년 1학기 마치고 휴학

□ 직업전환형

- 서원대학교/실용음악과/학교 다니는 중/1학년

질문: 대학교 입학유형

□ 수시

1. 저는 그냥 일반 학생부, 검정고시 점수가 등급으로 환산 돼서 들어가는 거였어요. 수시는 면접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떨어질 거 면접은 많이 보면 좋은 거니까 전형료는 비싸지만 넣어보자고 생각해서 제일 가고 싶었던 충신대에 넣고 그리고 넣고 싶은 학교가 저는 전형료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넣고 대학교 지원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는 넣어볼까, 찾아보다가 아빠가 한영신학교를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딱 가고 싶은 과가 있어서 거기 지원해서 2개 봤죠.
2. 10월, 수시라고 해야되나, 보는기간이 있잖아요. 모집기간 맞춰서 갔어요. 그게 정확히 기억은 안나요.
3. 검정고시 점수로만 수시 입학 했어요. 제가 운동을 하고 1년 공부를 해서 여기 들어 왔는데 저희 학교 성적이 되게 높아요. 수시면 1, 2등급 이란 말이에요. 검정고시면 거의 올백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점수예요.
18. 검정고시 하고 실기시험, 면접까지 수시로, 한달 준비했는데 면접을 잘봐서 합격한 것 같아요.
20. 저 같은 경우에는 랩을 하는 사람이니까 학교에서 보컬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랩도 하고 화성악 같은 문제 같은 것도 풀고, 그런 것도 하니까 바로 됐죠. 수시가 19살 때 14학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수시 준비는 옛날에 혼자 했었던 것도 있고

공부한 것도 있으니까 따로 준비라고 하기 보다는 할 거 했죠. 할 거 하는 게 준비한 거죠.

22. 수시로 넣어서, 근데 제가 수능을 안봤어요. 못봤어요. 원래 봐야되는데 그 날 늦게 일어나서 수업료를 날렸어요.
30. 수시였습니다. 수능은 안 봤던 걸로 기억해요

□ 정시

4. 정시

질문: 대학교 정보획득 경로

□ 인터넷

1. 모집 요강,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입학처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봐서
2. 인터넷으로 여러 IT계열학교를 직접 찾아봤어요. 직접 가서 상담사와 상담하기도 하구요.
18. 인터넷으로 인테리어디자인과를 찾아보니까
20. 그건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3. 검정고시 점수로만 수시 입학 했어요. 제가 운동을 하고 1년 공부를 해서 여기 들어 왔는데 저희 학교 성적이 되게 높아요. 수시면 1, 2등급 이란 말이에요. 검정고시면 거의 올백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점수예요.
18. 검정고시 하고 실기시험, 면접까지 수시로, 한달 준비했는데 면접을 잘봐서 합격한 것 같아요.
20. 저 같은 경우에는 랩을 하는 사람이니까 학교에서 보컬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랩도 하고 화성악 같은 문제 같은 것도 풀고, 그런 것도 하니까 바로 됐죠. 수시가 19살 때 14학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수시 준비는 옛날에 혼자 했었던 것도 있고 공부한 것도 있으니까 따로 준비라고 하기 보다는 할 거 했죠. 할 거 하는 게 준비한 거죠.
22. 수시로 넣어서, 근데 제가 수능을 안봤어요. 못봤어요. 원래 봐야되는데 그 날 늦게 일어나서 수업료를 날렸어요.

30. 수시였습니다. 수능은 안 봤던 걸로 기억해요

□ 소개

3. 검정고시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구요. 저도 많이 알아봤죠. 인터넷도 쳐보고 수시 요약된 것 도 봤어요. 여기 말고도 많이 넣었는데 여기가 제일 높았어요. 좀 유명하고 그래서
4. 외삼촌이 알려줬어요.
22. 엄마가다해주셔서
30. 노래 알려주신분이 같이 알아봐주시기도 하시고, 인터넷으로도 알아봤고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런데 들어가서 제가 보컬 이다. 근데 이 보컬을 더 체계적으로 더 깊이 공부를 해 보려고 한다. 근데 대학교를 가려고 하고 있다. 근데 대학교에 대해서 내가 알고있는게 없다. 혹시 알고 있는 사람있냐고 이런식으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시는분들이 있으니까.

질문: 대학교 선택사유

□ 원하는 진로 학과

1. 사람들이 착할 것 같은 느낌. 남자들도 다 착할 줄 알았는데 남자들 다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유아 교육과나 사회 복지로 갈까, 고민을 했는데 보통 아동 학과는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하면 1학기나 1년을 더 다녀야 되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커리큘럼은 4년 안에 자격증 2개가 다 나오거든요.
3. 운동 그만두고 좀 막막했어요. 뭘 해야될지 근데 이것도 부모님이 권유를 했어요. 약간 네가 운동도 했고 경찰시험 보려고 필기, 실기 시험도 봐야되니까 이런 전공을 살려서 나가면 어떠냐고 그랬는데 처음에 별로 생각이없었다가 검정고시 공부하면서 꿈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해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과에 지원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했는데 그 다음 부터는 제가 더 좋아서 이 쪽으로 가게 됐어요.
20. 음악을 좋아해서, 현재 대학 만족도- 적성에는 잘 맞는데 솔직히 대학에 와서 실망 많이 했어요. 배우는게 좀 그것도 없어서, 좀 그랬죠. 실용음악과는 사람들도 많이 소개시켜주고 그럴줄 알았는데 저희 학교만 그런 것 일수도있어요. 그래서 다른걸 알려주거나 필요없는걸 알려주거나 아는걸 알려주는게 많죠.
22. 딱 저한테 맞는, 제가 배우려는 그런과가 그 컴퓨터 응용기계과 외에는 맞지 않아서 컴퓨터 응용기계과를 선택하게 됐고요. 이게 제가 돈보스코 다닐 때 배우던 과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실습면에서 제가 다른애들보다는 우월하고 이론은 제가 또 뒤처지는 편이고 그래서 성적은 중간은 나온 것 같아요. 학점은
30. 원래는 연극영화과, 연기공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제 노래를 가르쳐주신분 때문에 실용음악과 선택 했어요. 그분도 과를 시험 쳐서 들어가라. 원래는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계기로 그분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르고
2. 인터넷으로 여러 IT계열학교를 직접 찾아봤어요. 직접 가서 상담사와 상담하기도 하구요.
18. 인터넷으로 엔터테인먼트디자인과를 찾아보니까
20. 그건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3. 검정고시 점수로만 수시 입학 했어요. 제가 운동을 하고 1년 공부를 해서 여기 들어 왔는데 저희 학교 성적이 되게 높아요. 수시면 1, 2등급 이란 말이에요. 검정고시면 거의 올백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점수예요.
18. 검정고시 하고 실기시험, 면접까지 수시로. 한달 준비했는데 면접을 잘봐서 합격한 것 같아요.
20. 저 같은 경우에는 램을 하는 사람이니까 학교에서 보컬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램도 하고 화성악 같은 문제 같은 것도 풀고, 그런 것도 하니까 바로 됐죠. 수시가 19살 때 14학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수시 준비는 옛날에 혼자 했던 것도 있고 공부한 것도 있으니 따로 준비라고 하기 보다는 할 거 했죠. 할 거 하는 게 준비한 거죠.
22. 수시로 넣어서, 근데 제가 수능을 안봤어요. 못봤어요. 원래 봐야되는데 그 날 늦게 일어나서 수업료를 날렸어요.
30. 수시였습니다. 수능은 안 봤던 걸로 기억해요

□ 흥미로운 학과

2. 이름이 멋있었어요. 정보보안 이라고 하면 멋있잖아요. 그것 말고도 게임기획도 있는데 게임쪽은 아무래도 남들한테 말하고 다닐 때 좀 그래 보여서, 게임도 많이하는 것 같고 돈도 못벌 것 같아서 남들 시선을 제가 의식했던 것 같아요. 계속 남들이 보기에 있어 보이는걸 해야겠다고
18. 그냥 집을 제 마음대로 꾸밀수 있다는게 좋잖아요. 건축하는건 법이 많은데 집안은 법이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위법되는 것 없앨 것 같고 외출 것 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제 마음대로 꾸밀수 있을 것 같고

□ 성적 맞춰서

4. 그냥 맞춰서

질문: 대학진학에 도움을 준 사람

□ 가족

18. 딱히 그런건,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그리고 학원비 지원해 주시고 할 수 있다고 계속 응원해 주시고 입시보러갈 때 태워주 시고
20. 일단 부모님이 저한테 존재는 큰데 그렇게 많이 의지하고 기대고 싶지는 않거든요. 원래 제 자체가 누구한테 기대는 게 싫어서, 쪽 팔리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됐죠. 부모님한테 보여주 고 싶어서 뭔가를 계속
22. 엄마

□ 선생님

3. 학교는 수능을 안보고 점수로만 갈 수 있는 대학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과가 유명하고 높은곳을 제가 찾아서, 검정고시 학원 선생님들 도움도 받아서 갔어요.

질문: 입시준비 경험자/ 대학에 가려는 이유**□ 본인의 필요성**

2. 학업 중단 시점(중학교 졸업 후)부터 IT 관련 직업 학교에 진학하고자 했음
5. 현재수능준비과정- 학원은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것도 학교처럼 너무 오랫동안 잡아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학교처럼 스케줄이 빡빡하더라구요. 그냥 계속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인강듣고, 이투스, 40만원인가 내면 원하는걸 다 들을수 있다고 그래서요.
13. 대학진학에 대한 생각- 지금와서 하고싶은게, 전부터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좀 찾은 것 같아요. 잡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하고싶은게 생겨서 그것 때문에 대학교를 다시 진학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부모님의 권유

3. 그냥 뭔가 고등학교가 아무래도 검정고시다 보니까 나중에 되게 후회될 것 같아서요. 대학에 안 가면요. 그리고 또 부모님도 권유하셨고 저도 대학에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28. 대학은 가야 된다고 어머니께서 그러셔서. 약간 부모님 욕심도 들어가있고 제 욕심도 들어가있는데 제 욕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때 학교를 안다녔으니까 뭔가 학교를 다시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고 캠퍼스 같은걸 즐기고 싶기도 하고 아직 어리잖아요. 20대초반 이니까, 그래서 대학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부모님은 대학교는 나와야된다고 약간 사회적인... 서울에대준비하고있음 대학입시준비및방법- 정해준 학교가 있고 그 학교는 실기를 봐서 제가 만든 그런 게임같은거를 포트폴리

오로 제작을 해서 그걸실기로 제출하는 거죠. 수능성적은 필요 없고 실기가 80%들어가고 학생부 20%인데 학생부는 검정고시 성적이죠.

□ 학력의 필요성

19. 일단 검정고시라고 낙인이 찍혀 있으면 안좋게 보니까 그걸 무마시키려는 용도로... 예전엔 사회복지계열에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경제나 경영. 수능준비- 현재수능 준비를 혼자 하고 있음 (내년응시예정). 예전에는 학원 다니고 인강 듣고 그랬는데 지금은 수능공부는 혼자서
21.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해서 사실 지금이랑 생각이 좀 달라서 그 당시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는 좀 어려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좋은 그런 학벌도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학교에 가면 좋은환경, 좋은친구들, 뭔가 배울점이 많은 친구들도 만나고.
22. 학력 때문에. 저는 일단대학교를 어디를 가도 좋으니까 가고 싶었어요. 어디든지. 안좋은곳이라도 가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 다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좋은거는 기술을 배우는 학교로 대학을 갔으니까. 처음에는 고 2때 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고 3이 되니까 대학에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성남이랑 경수캠퍼스가 또 있어요. 거기 2개 면접을 보고 떨어져서 마지막에 홍성캠퍼스 라는곳에 지원을 했었는데 거기도 추가합격으로 제가 턱걸이로 합격을 해서 짜릿했어요. 기분이, 그러니까 추가모집할 때 제가 신청을 해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 의미도 크고 결과가 나왔을 때 되게 좋았어요.

질문: 입시 외 추가 교육 내용**□ 예체능**

3. 학원 끝나고 도서관 갔다가, 태권도 학원 갔어요.
5. 운동은 있어요. 킥복싱. 6개월정도 했어요.
20. 운동을 좋아했어요. 유도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다가 질려서 안하고 어떻게 보면 다 취미생활이죠. 수영은 어렸을 때부터 선수생활을 해서 그냥 엄마가 다니라고해서 다녔어요.
27. 중 2때부터 입시 미술학원을 그냥 그림 잘 그리려고 다녔어요. 다닌건 좋아했던 것 도 있고 그나마 학교보다 재미도 있고. 검정고시 끝나고 컴퓨터 그래픽 학원 다녔어요. 거기서는 말 그대로 그림 그리는거, 이것, 저것 많이 배워요. 틀린점 고쳐주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이냐

□ 컴퓨터 관련

1. 컴퓨터 학원을 다녔던 것 같은데... 딱히 뭘 배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2. 옛날에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게임이 만들고 싶어서 게임 만드는 것 도 몇 번 배워봤고.. 네, 근데 어차피 툴이예요. 게임을 만드는 툴로 어디 검색 해서 강의 강좌 같은거 보면서 게임도 이런 저런거 해보기도 했고, 근데 배웠다고는 할 수 없죠. 혼자서 해 본거니까... 캐릭터 그리는 것 도 혼자서 조금하고, 또 주위에 친척 누나가 캐릭터 디자인학과 라서 그 누나한테도 배웠고
22. 컴퓨터응용선단가능사 라는 필기에 합격을 하면 실기를 보잖아요. 실기까지 합격 하면 컴퓨터응용멀링가능사 라고 또 있어요. 그걸 필기를 면제를 시켜줘요. 그 2개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이 잘돼요.

질문: 학업에 복귀한 이유

□ 친구 영향

6. 그냥 복귀한 이유는 제가 가고싶어서, 아무도 가라고 말은 안했는데 제가 간다고 얘기를 해서 애들이 부러워서, 교복도 다시 입고 싶은데 나가니까 할 것 도 없고, 나이도 어리니까 아무것도 안되니까

□ 고등학교 졸업장

16. 19살 때 제가 복학을 했거든요. 18살 때, 주위에 친구들이 학교를 다닐거 아니에요? 학교 다니고 교복입는 모습이 너무

- 예쁘고 학교 다니고 있고 제 시간에 가서 제 시간에 마치는게 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목표는 없었죠.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 그거 딱 하나.
31. 그때는 그래도 고등학교가 졸업 하고 싶어서

질문: 학업에 복귀에 도움이 된 것

□ 상담

6. 도움은 저 다닐 때 선생님이라 집에서 누나도 얘기해주고
24. 두드림에서 상담을 받았던게 학교 다니게 한건있죠.

질문: 학업에 복귀후 적응 방법

□ 분위기

24. 송파애들 근처 학교애들 보다는 확실히 애들이 착해서
31. 일단은 아는 애들도 많고 다 우리 나이 또래고 방송통신 고등학교는 거의 다 할아버지 밖에 없었는데 거기는 다 학생들이니까, 또 자유시간도 많고 좀 자유롭고 그런게 좋았어요.

질문: 복귀한 학교 유형

□ 학업 중단 전과 같은 곳

16.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똑같은곳에 똑같이 복학을 했어요. 그 다음해에 2학년 때 그만두고 또 다시 2학년 으로 복학했어요

□ 일반 고등학교

24. 일반 고등학교로 복귀

□ 전문계 고등학교

31. 국제금융고등학교, 거기 2년제, 한달에 1번 출석하는 곳에 다니고 있어요. 한달에 한번 그때 가서만 수업해요. 그냥 그 날 시험 공부만 하고 조금씩 내주고

질문: 최종학업 목표

□ 대학 진학

24. 대학 진학

□ 자퇴

31. 지금 자퇴를 할까 생각중이에요. 현역가기 싫어서요. 중졸이면 현역은 못가고 공익, 면제는 아니고 공익.

질문: 복귀 만족도

□ 만족

6. 정말 만족해요. 그 나이 때는 학교로 가야지
24. 그래도 요즘은 재미있어요. 공부도 그냥 좀 하나까 몇 등급이 확 오르니까 오르네? 열심히 하게되고 오히려 선생님들이랑 친하게 지내요.

□ 불만족

16. 친구사이에 생긴소문을 선생님이 오해해서 화가 나서 다시 자퇴.

그래서 선생님 앞에 휴대폰 던지고 그냥 나왔거든요. 거기서 또 너무 화가나서 진짜 이 학교를 못다니겠다고 뭐만하면 다 내 잘못이냐고 그래서 그만뒀죠. 너무 억울해서 이런학교를 다닐 바에는 차라리 검정고시 보고 내가 사회생활 한다고...

□ 보통

31. 보통이다. 한달에 한번도 불만스럽고, 교육 안입는 것도 좀그렇고

질문: (직업형) 직업 유형

□ 단순 아르바이트

1. 애기 봐주기(②단순아르바이트)
2. 마트에서 제품 운반(②단순 아르바이트)
3. 지역 아동 센터 (②단순 아르바이트)
6. 공장에서 QC 업무 (②단순 아르바이트)→ 주말 아르바이트
7. 치킨집 배달 (②단순아르바이트)→ 가장지속적으로한아르바이트 임 →아래세부 내용은 치킨아르바이트정리함. 일부 단기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아빠일을 해봤어요. 목공 인테리어, 가사원 인력, 가사원에서 인력 같이 공장같은 곳에 보내주는거고
8. 백화점 의류판매(②단순아르바이트)→가장 지속적으로 한 아르바이트임. 토키즈카페서빙. *그 이전에 단기 알바 내용 고등학교 자퇴하고 나서는 장어집 주말 아르바이트 (3개월), 그 후 고깃집 서빙, YMCA 청소년 카페 등
10. 파리바게트 빵포장/계산업무(②단순아르바이트)→가장지속적으로한아르바이트 자퇴이후 쪽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연극 홍보 업무, 피자스쿨, PC방등)
11. PC방 카운터 아르바이트 (②단순아르바이트)→ 가장 지속적

으로 한 아르바이트(1년반) PC방 이후,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 (2개월)

20. 보쌈집 서빙(②단순아르바이트):6개월 미용실 보조일(②단순아르바이트):3개월
21. 샵샤브집 서빙(②단순 아르바이트) : 3개월 (현재는 안함)
22. MBC 드림 센터 세트 작업 (②단순 아르바이트) : 인터뷰 당일 시작
23. 레스토랑 서빙 (②단순 아르바이트)
24. 버거킹 (②단순 아르바이트) : 고 1때 경험
25. 빵집(②단순아르바이트)
28. 치킨집아르바이트(②단순아르바이트)→2014년에단기. 모델하우스주차아르바이트(②단순아르바이트)→2015년에단기

□ Full Time Job

13. 대형 마트 카트팀 업무 (①FullTimeJob)→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자퇴후, 가장 장기적으로 한 일
14. 백화점(①FullTimeJob)→자퇴후, 가장 오래한 직업. 꽃집에서일

질문: (직업형) 직업 유형

함(①FullTimeJob)->현재직업

15. 치킨집(①FullTimeJob)
16. 편의점(①FullTimeJob)->학교 자퇴 후, 본격적으로 한 일
17. 대구여성회(①FullTimeJob)
26. 유통&서비스업(①FullTimeJob): 2개월됐음
31. 커서비스(①FullTimeJob)

□ 직업훈련/기타

4. PVC 파이프 회사 관리 업무 (기타): PPI 평화 파이프
18. 단열재공장(③직업훈련)
19. 공익근무/지하철역(기타-공익근무)

질문: 일을 하게 된 계기**□ 생활비 마련**

2. 20살 민증은 나왔는데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기는 뭐하잖아요. 그리고 제 앞가림은 제가 해야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 선을 뽐을 때 미필은 안뽐더라고요. 군대를 안갔다고 하면, 제가 면접까지 간 적은 있어요. 서류 통과해서 면접까지 간 적이 있는데 그 쪽에서 물어봤어요. 미필자네요? 죄송한데 군대 아직 안갔다고요? 그래서 20살이라서 아직 안갔습니다. 그랬는데 신체 검사를 받으셨어요? 네, 아직 안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면제면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데요. 근데 아직 신검도 안받아서, 저희가 군대를 안갔다고하면 신입사원 채용에서 직원교육을 다 돈들여서 시켜놨다 군대갔다 오면 다 까먹을뿐더러 저희가 또 인원이 비워지게 된다고 그래서
10. 돈이 필요해서...제가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하려면 컴퓨터가 좋아야 되거든요. 다른 음악 같은거는 제가 배우고 집에서해주는 데 방송은 제가 하고 싶은거니까 그건 제 돈으로 사야될 것 같아서 컴퓨터 하고 마이크 하고 그런거 사려고 아르바이트 했어요. 컴퓨터도 100만원 넘고 밖에서 제가 돈을 얼마 벌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돈을 다 벌면 그만뒀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0만원 하고 몇 십만원씩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15.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16. 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휴대폰비 하고 쓸 용돈도 안주고 휴대폰비도 안내주고 내가 밥을 먹어야되는데 집 밥이 저랑 안맞아요.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식단 이러서 제가 먹고싶은 반찬이 없어요. 골뱅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못먹으니까 밖에서 거의 다 사서 먹으니까 그 돈도부족해서... 그리고, 부모님이 네가 학교를 그만 뒀으면 네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지 왜 우리한테 손을 벌리냐 해서 알겠다고 내가 알아 구해서 생활하고 내가 돈 벌어서 하겠다 했는데 이제 말이 바뀐거죠. 생활비 내라.
20. 생활비를 벌려고 했죠.
23. 당장 시험이 끝났으니까 쉬고는 싶은데 집에만 있기에는 무료하고 용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24. 그냥 먹고싶은거 먹고 사고싶은거 사려고, 그리고 저는 엄마 생일선물 사주려고 모으고 있어서
28. 계기는 돈 때문이죠.

□ Full Time Job

1. 교회에서 집사님들이나 공장이나 이럴 때 좀 봐줄래? 그러면 몇 시간 봐주고 돈 좀 벌고...
4. 부모님이 운동(태권도)을 하는 것보다 취업을 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하셔서
11.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하게 PC방인데 여기 최근에 했던거 말고, 애들은 학교에 간 시간에 저는 나와야되니까 PC방 놀러 혼자가는 데 거기 가게에 알바생들이랑 친해지고 사장님하고도 친해져서 어쩌다보니까 저도 맥컴퓨터 만질줄아니까 관계가 섞인거죠. 그래서 어느날부터 제가 가끔 카운터도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순간 제가 알바생이 된거죠. 그러다가 그때부터 거의 시작했죠.
14. 백화점- 친구가 한번 가보자고해서

□ 흥미

4. 오토바이가 타고 싶어서 했어요. 돈으로 살수있는 것 도아니고 탈수있는게 그것 밖에 없었어요.
8. 백화점의류판매- 그게 처음에 들었을 때 백화점이라고 해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가서 했어요. 키즈카페알바- 그거는 어머니가 거기서 알바를 주말에 가끔씩 하시다가 자리가 빈다고 해서 저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개를 받고 장어집알바 - 어머니가 전단지를 보고 그거 해보면 어떨겠냐고 해서 저는 좋다고 바로했죠. YMCA청소년카페알바- YMCA에서 하는 카페가 있는데 탈학생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거든요. 그래서 거기 커피에도 관심이 생겨서 거기다니면서 그 쪽으로 했어요. 교육은 늦게 받았고 일 할 때는 만들면서 연습. .일을 하면서 배웠어요.
21. 그냥 20살 되니까 친구들도 아르바이트 하길래 저도 뭔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해봤어요.
31. 일단 오토바이를 타는 것 도 좋아했고 그리고 또 그냥 하루종일 일하고 또 자기일 하는데로 돈을 받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돈을 잘 벌수있어서

□ 필요성을 느껴서

3. 학교에서 알게 돼서 제가 지원했어요. 지원해서 성적 보고 뽑힌거죠.
26. 이유는 없고 그냥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질문: 취업 계기**□ 돈이 필요해서**

15. 시급이 배달 아르바이트중에 제일 높아서
16. 용돈도 부족하고 휴대폰 비용도 부족했죠.
18. 학교가 너무 답답했어요. 답답 했고 빨리 그 학교에 있을 때 부모님한테 돈을 너무 많이 받았었거든요. 돈도 벌고 싶었고

□ 거리/기타

11. 자퇴 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25. 사실은 그 전에 탐앤탐스라는 프랜차이즈에서 하루근무를 했었는데 그 때 엄청 언어폭력적으로 점장한테 욕먹고 태어나서 처음들 어보는 욕들. 울고 나왔어요. 저는 오늘하루 일한걸로 끝내겠다고 일당도 못받고, 안하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거예요. 남 밑에서 일을 못할 것 같다고 눈물 흘리면서 나오고 나는 이제 어떻게하지? 알바 못할 것 같은데? 생각을 하면서 알바몬을 다시 봤어요. 집근처에 종합병원에 있는 카페인데 그냥 아무생각 없었어요. 나는 이미 너무 상처를 받아서 아무곳이나 가자. 어디든 똑같은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 메리트 없고 가깝긴 하지만 아무생각도 없었어요. 메리트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최저임금이고 돈도 안되는데 하면서 후회했는데 그냥 다녔어요.
28. 치킨집- 일단 집이랑 가까웠고 시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모델하우스- 별다른 이유는 없고 집에서 가까웠던게 두 번째였고, 두 번째는 단순 노동이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이 갔던

것 같아요. 어려운 기술이 아니니까

□ 추천/소개

4. 직업학교에서 추천해줬어요.
7. 친구들이 치킨 집 여러 군데를 알아요.
8. 백화점의류판매- 아는형소개로들어갔어요. 키즈카페- 어머니가 먼저 키즈카페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17. 대구여성회로 바로 채용이 된게 아니라 대구 시민센터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청년 NGO활동과 지원사업. 지역의 청년들도 모집하고 참여할 NGO단체들도 모집을 해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원하는 기간만큼 NGO기관에 들어가서 인턴십 생활을 하는게 있는데 게스트하우스를 그만두게 된 계기가 이 사업을 보고나서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 정직하게 이런사업이 있어서 여기에 이력서를 낼 겁니다. 통과되면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통과 되었고 대구여성회도 제가 선택한게 아니라 거기 그 사업에 운영위원들 면접관들이 이 이야기는 대구여성회에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파견이 된거죠.
24. 저한테 초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중간에 안하게 돼서 저 혼자 열심히 했어요.
31. 아는 동생이 일해서 어떻게 친구도 그 때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물어달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면접은 안봤어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돼요.

질문: 일자리 획득 정보**□ 관련 사이트 정보**

10. 알바천국.
13. 그냥 집이 근처다 보니까 알바천국 같은 어플을 통해서 그런 광고문을 보고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는 친한 친구도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일을 하려고 했다고 해서 그때 친구랑 같이 일을 하게 됐고요.
15. 그냥 알바천국 보고 갔어요.
16. 알바천국.
21. 알바몬
22. 알바몬에서 찾아보고 구직하는데 찾아봐서 알아보고 간거예요.
23. 알바몬.
24. 알바천국
25. 알바몬.
28. 치킨집-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알바사이트 있잖아요. 알바천국 같은 곳에서 보고 면접보고, 모델하우스- 그것도 알바사이트에서 찾아서 했죠.

□ 추천/소개

1. 영어 가르쳐 주신 사모님 얘기도 몇 번 봐주고 용돈 같이 주시다가 군데 제가 그렇게 하는 걸 알고 같은 교회 분들이 부탁을
2. 친척형의 소개로. 목포 친형이 여기에 2명 구한다고 같이할까? 그래서.
7. 놀러가거나 아니면 배달하는데 들리고 하다가 사장님을 알게됐고 제가 만약에 거기 일이 없으면 저보고 배달하는식으로 해서 여러군데를 하게됐어요.
8. 아는형, 엄마
11. 원래 다니던 PC방에서 사장님하고 친해지고 알게 돼서 아르바이트를 시작
18. 돈보스코 학원에서 소개
20. 보쌈집- 학교 사람들도 거기서 일을 많이 하고, 그 학교 사람들한테 소개를 받아서
26. 친구 소개로

질문: 일자리 내용

□ 서비스 직

1. 3, 4살짜리 애들과 같이 놀아주거나 아침에 만나서 놀다가 밥 먹이고 재우고
3.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까지 애들 가르쳐주고, 과목 그런거 없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약간 해주는 그런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이라고 대학생들 상대로 좀 시급이 높아요. 애들 가서 놀아주고 상담해 주고 공부도 봐주고
8. 백화점의류판매- 의류판매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직원으로 전환했어요. 키즈카페- 보통은 애기들 노는곳 이니까 안전요원 같은거 애기들 다치지않게 보는거랑, 그리고 식당으로 나뉘져 있어서 거기서 커피 만드는 곳이 있어서 커피랑 음식 나오면 서빙같은거
11. 그냥 가기는 좌석이 넓지 않아서 학생들 상대니까 카운터 보고, 라면 끓여 주고 청소.
14. 백화점- 백화점에 들어가면 앞에서 막 뭐 얘기하면서 인사하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처음에 그거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거 하다가 나중에는 백화점에 VIP가 있는데 그 쪽으로 했었어요. 차 문 열어주고 그런거 했었어요. 근데 그걸 오래했었죠. 왜냐하면 저는 서비스직도 잘 맞는데 활발하게 움직이는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할때는 위험하기는 해요. 차가 계속다니는곳에서 일을 하니까, 근데 재미있었어요. 시간도 잘가고
19. 길 안내 하고 시각 장애인 안내 하고 또 기계 고장 나면 손 보러오고 스크린 도어는 리셋 한번 하는 간단한거.
25. '빨띠에'라는 곳 인데 여기,저기 있대요. 근데 거기서 오픈을 하고 아침에 샌드위치를 그 날 마다 만들고 아침에 카페 오픈은 어디를 가든지 비슷해요. 머신키고 다 정리되어 있는 걸 다시 꺼내서 진열을 해놓고 청소가 안된부분이 있으면 하고, 아침에 손님 일찍 오면 받고 그거예요. 오픈하는게. 30분은 혼자하는데 빵이 그 날 마다오는데 그게 양이 많아요. 제가 30분 정도 샌드위치도 만들어야 되고 손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30분정도 있으면 같이 일하는 언니가 와요.
28. 치킨집- 홀서빙 같은거, 음식점에서, 치킨만든게 6, 70%고 서빙은 30%정도로 주방 일이 6,70%였죠. 모델하우스- 주차 아르바이트죠.

□ 단순/생산

2. 마트에서 운반 같은거죠. 새로 과일 같은게 들어오면 그런거 옮기고 그런식으로
6. 세탁기 앞에 표면을 인쇄하는데 검사하는 걸 해요.
10. 카운터에서 빵 포장하고 계산하고.
13. 주차장 관리 업무나 카트 매장에 보급을 해주는 부서에서 일했어요.
16. 판매, 진열 다
18. 단열재 만드는 공장에서 프레스 좀 하고, 또 프레스 나온거 다듬기도 하고 기계로
20. 보쌈집- 식당서빙, 미용실- 보조업무
22. 제가 주로 하는건 세트작업 같은데 일단 밤 12시 까지 다시 출근 하라고 그래 서일단 제가 일하는 쪽은 새벽까지 일하는 경향이 많대요. 세팅하고 물건 들어 올리고 소품 같은거

□ 배달

7. 여러 군데 치킨 집에서 배달일해요. 지금도 한 번씩 사장님한테 전화와요.
15. 처음에는 배달로 갔다가 지금은 주방에서 닭 튀겨요. 그게 아르바이트생들이 핑계를 대면서 오늘은 병원에 간다. 오늘은 어디에 간다고 쉬어서 배달이 빠지면 배달로 가고 홀이 빠지면 홀로 가고 주방이 빠지면 주방에 가요.

□ 필요성을 느껴서

4. 정직원, 사무실에서 교대 해주는 사람들이랑 인수인계를 먼저 무슨일이 있었는지 들어 보고요. 그리고 팀원들 한테 파이프를 포장하는 사람들 한테 무슨일이 있었다고 조회를 할 때 얘기를 해줘요. 그거 끝나고 일정이나 전달사항 있으면 받고 그리고 시작하는 거죠. 퇴근하기 1시간 전쯤에는 하루 생산한 거 정산해서 컴퓨터로 올리는 거 하고요.

질문: 근로시간

□ 8시간 이내

3. 하루에 4시간씩
10. 하루 7시간
14. 백화점-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은 10시간 인데 내가 일을 했던 시간은 5시간 이었어요. 5시간은 쉬었으니까 .꽃집-9시간, 점심

시간 1시간 빼면 8시간한달에 6번 철수 있고 추석이나 설날 있으면 휴가 다 받고, 여름휴가도 다 나와요.

17. 보통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
21. 6시간
23. 5시간.
24. 5시부터 9시반.

질문: 근로시간

25. 7시 20분에 오픈하고 3시 반. 주5일.
28. 치킨집- 7시간(총4개월일함) 모델하우스- 9시간(2개월)

□ 8시간 초과

1. 시간은 불규칙적, 완전 늦게까지 볼 때도 있고 잠깐 봐줄때도 있고
4. 주간에는 7시 50분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나요.
6. 오전 9시부터 밤 9시 (12시간)
7. 주 5일, 오후 5,6시부터 12시까지
8. 백화점의류판매- 평일: 10시부터 평일날은 9시반 까지 주말: 10시부터 10시 까지 키즈카페-평일/주말,오전 9시 오픈부터 저녁 8시 마감. 거기가 아침 10시 인가 9시 인가 오픈을 해서 저녁 8시몇분 까지 했어요.
11. 아침 9시부터 9시 까지 12시간.
15. 4시부터 12시, 2주에 1번씩 쉼
16. 9시간. 야간근무시 땀 저녁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19. 하루 12시간

22. 아침 9시 밤 12시 두 번출근.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연장을 하면 연장수당은 주니까요.

26. 9시까지, 끝나는 시간은 6시반이나 7시죠.
31. 오전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 8시간

2.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점심 시간 1시간 빼고
18. 9시부터 6시. 주5일
20. 보쌈집- 7, 8시간 (저녁 6시부터 1시 반)

질문: 급여/시급**□ 최저시급**

8. 백화점의류판매- 아르바이트는 일당 6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한달로 계산하면 아르바이트는 180만원 이상 받아요. 직원들은 한달 150만원 정도고 키즈카페- 딱 최저시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최저시급.
10. 시급은 최저시급이었으니까 5,000원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13. 늘 최저임금이었어요. 5000원 대
14. 백화점- 시급은 모르겠고 월급이라서, 한달에 7, 8일 쉴 수 있거든요. 월급이 4대보험 떼면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계약한 월급은 145만원 인데 연장수당을 다 줬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대보험 안떼면 155,160만원 정도 나왔으니까 그때는 나이도 어려서 4대보험을 많이 안땀어요. 그때는 좋았죠. 돈도 많이주고
24. 시급이 그 때 5,000얼마인가 최저시급.
25. 최저임금 받았는데 사장님이 6,300원을 다음달부터 주신다고 해서 6,200원 인가, 6,300원 받고 있어요 지금.
31. 시급이 아니고 건당. 기본 3,000원. 일단 지역 마다 다 달라요. 일단 부산안에서만 하고, 이게 음식대행 이거든요. 저희 업체가, 한 번씩 잔심부름이나 개인물품 같은걸 쿵 으로보 내거든요. 한번씩 그렇게 개인물품을 여기서도 천 까지가면 2, 3만원씩 받고 거리가 멀수록 돈을 조금씩 더 받아요.

□ 최저시급 이상

1. 3, 4, 5만 원. 한 번 할 때마다

2. 하루 5만원
3. 시급 9,500원
4. 지금은 세급 안때면 197만원 인가 200만원 정도 돼요. 지금은 180만원 정도 돼요
6. 일당 13만원
7. 처음에 고등학교 1, 2 학년 때는 5,000원 받았고 고등학교 3학년에서6,000원인가, 그리고 지금은 7,000원.
15. 7,000원. 한달에 160만원에서 170만원.
16. 6,000원. 주간근무(현재)는 한달에 40만원에서 50만원. 야간근무할때는 110만원, 120만원.
18. 140만 원.
19. 30만원
20. 보쌈집- 7,000원
22. 한달에 150만원 정도 된대요.
23. 한달에 150만원 정도 된대요.
28. 치킨집-6,000원. 모델하우스-하루5만원

질문: 근로환경

□ 편했음

14. 백화점-1시간 일하고 1시간 쉬고 교대로 일하는거라서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은 5시간, 근데 계약시간은 10시간 이죠. 그것도 돈은 4대보험도 다 들어 주고
15. 저는 정규직이었어요. 저만 4대보험도 넣어주셨어요. 분위기는 엄청좋아요. 조금씩 기쁨이 튀면 애들이 좀 다치긴 해요.
16. 완전 편했죠. 점장님도 편하고 다 편했어요. 제가 하고싶은거 할 수 있으니까 드라마 보는 것 도 좋아하고 영화보는 것 도 좋아서 영화보면서 안내 할 수 있는거 같아요. 그게 너무좋아요. 가만히 앉아서 손님 오면 일어나고... 터치하는게 없어서 그러니까 하고있죠. 같은 편의점에서 파트만 바뀌서 하는거예요.
31. 사장님도 나이가 드신분도 아니고 30대 중, 후반 이거든요. 좀 젊은 세대, 그런 느낌이라서 저희랑 맘도 좀 통하고 저희도 잘 행거주려고 하고 그냥 아버지처럼 행거주는게 있죠. 애들이랑 싸울뻔했는데 사장님 때문에 애들 그냥 맞고만 있고 안때리고 때리면 같이 억이잖아요. 사장님 때문에 그냥 맞고만 있다가 돈 받고 끝내고 좀 많아요. 나쁘지 하면 사장님이 혼낸다고 그래서. 지금 빛이 있어서 회사에제가 사장님이라 친해서 옷 좀 산다고 몇 십만원씩 빌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쌓여서 지금 300만원. 아직 못갚고있어요. 기간 없이 갚고 싶을 때 갚으라고 그래서, 근데 그게 좀 오래돼서 이제 갚아야 되는데, 그거말고도 나갈때가 많아서 머리 아파요.

□ 힘들었음

4. 일요일도 다 일을 하거든요. 빨간 날 무시하고 다 일하는데 무조건 3일은 주간 이고 3일은 야간, 3일은 휴무. 1년에 쉬는날은 2번 밖에 없어요. 추석이라 설날. 주간은 11시간 이고 야간은 13시간. 지금 되게 안좋아요. 위생적 으로 원료가 가루라서 먼지도 많고 한 번 일하고 퇴근 할 때 보면 몸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에어로 불어로 안탈려서 위생적 으로 안좋은 것 같아요. 마스크는 다 안쓰고해요. 배합실 쪽만 원료 되게 많은쪽만 방진마스크 쓰고
10. 아니요, 되게 힘들었어요. 일도 힘들고요. 제빵사 하고도 안맞아서 힘들었어요. 제빵사가 자기도 일이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는걸 히스테리 부리듯이... 다른데 좀 그게 빵이 나오면 제가 빨리 포장하고 진열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라고 계속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13. 정규직은 아니었어요. 저희는 계약 방식이 사람이 많이 왔다가 쉽게 빠지고,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쉽게

왔다가 단기로 일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는 오래 하되 믿음직하게 느낄 때만 협력업체 본사에서만 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4대보험 들어서 계약을 해 주는데 그게 아니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만...저는 아르바이트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나이가 고등학생인 게 커서 정규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됐었고 4대보험에 들어가면 고등학생 때는 돈이 더 중요할 때니까 몸이 다치는 것보다, 그래서 4대보험에 안 들어가려고 잠깐 아르바이트식으로 했었죠. 다른곳, 다른마트, 직업, 모든걸 통틀어서 제일 프리하게 일을 했던곳 중 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다른 점포도 왔다. 갔다 많이 했었는데 거기 만큼 제일 편하고 일을 쉽게 했던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22. 근무시간도 불규칙하구요. 따로 식비도 지원이 안돼요. 그래서 월급 받으면 4, 50만원은 날라가는 것 같아요.

23. 손님이 너무 많아서 일의 강도가 쎄요.

28. 치킨집-청결은 나쁘지 않았어요. 작아서 문제였죠. 일은 좀 힘들었어요. 치킨을 튀기고 만들 때 어려웠거든요. 되게 덥기도 했고 또 그게 치킨을 하루에 100마리, 200마리씩 튀기다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모델하우스-그냥 단순히 서 있는게 힘들었죠

□ 힘들었음

1. 애기 있는 집에 방문
3. 학기중에서 방학때 까지 한 학기 동안 100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간 조율 해서 하면 돼요.
6. 나쁜편도 아니고 좋은편도 아닌 것 같아요. 잉크를 맞으면 안좋으니까 어쩔수 없으니까. 그걸하고나면 너무 허리가 아파서요. 숙여서 검사를 해야 되니까, 하고 나면 침 맞으려 다녀야돼요.
18. 위험한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강화같은게 크게 2개 있으니까 더운거 말고는 딱히 없었어요.
19. 공익요원은 저 포함해서 지금은 10명 있어요. 주/야간근무는 조가 딱히 안정해져있고 시간표도 랜덤이라서
24. 깨끗했어요.
25. 그냥 병원안 이고, 시끄러울 일은 없고, 카페가 작고요. 그냥 뛰어다녀야 하는건 아니예요. 바쁠때만 바짝 바쁘고 정신적으로 강도가 어느곳보다 더 센거예요. 병원 직원처럼 행동을 해야한다고 할까요. 저는 그저 카페 알바생인데
26. 재밌고 별로 다른건 없는데요. 그냥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6명 정도.

질문: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 당한 경험

□ 있음

4. 제가 작년에 회사에서 한 번 맞았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맞은거죠.

꿀절까지는 아니고 타박상, 팔이 안파질정도로 맞은거죠. 경찰에 신고했었어요. 그래서 법원까지 갔었어요.

6. 그럴 때 있었어요. 잔업 계속 시켰을 때 정말 싫었어요. 강제적으로

질문: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 당한 경험

시켰을 때 빠지고 싶은데 일주일을 다 잔업을 하니깐, 솔직히 잠도 오는데 계속하니깐, 안빠져서

8. 백화점의류판매- 일적으로 쉬는거는 자기가 주 이틀쉬면 저는 무조건 주 하루만 쉬고 시차같은게 있었는데 자기가 시차를 맨날 쓰고 저는 진짜 한달에 1, 2번 받을까 말까 했어요. 키즈카페- 임금체불 거기 사장이 안주려고 했던건 아니고 받아야될건 받아야되니까 다 한 두 달씩 밀렸어요. 그래서 따로 아는 누나랑 형이 있었는데 형이 아는분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그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돈 받을거 받고 끝냈거든요.
14. 일이 안억울하고 부당하지않은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사람관계에 있어서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부당하다고 생각한적은 없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저보다 나이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가 옳다는식으로 얘기하는건 싫었죠. 누가봐도 아닌데, 그런건 있었어도 딱히 부당하고 억울한 일은 없었어요. 고객 이랑 억울한 일은 그거는 자기들이 갑이고 내가를 이니까 어쩔수 없는 거죠.
16. 억울한 일 이라기보다는 화나는 일이 많죠. 진상손님이 많으니까 제 얼굴에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상처를 보고 칼빵 맞았냐고 말을 하니깐 그게 상처가 되고 화가 나니까 같이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 없음

1. 없어요. 되게 다 즐거워요.
7. 없었어요.
10. 손님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은 있으나, 특별히 부당한 일을 당한 경험은 없음
11. 딱히 없었어요. 알바생 형 이랑 누나도 잘 대해줬고 사장님도 친절하시니까
15. 네, 그런건 없었어요.
18. 아니요, 없어요.
23. 그런건 없었어요.
24. 그런건 없었어요. 그냥 조작법이 좀 어렵고
28. 아니요,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다 착하셔서
31. 없어요.

□ 모르겠음

2. 아직 오래 안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질문: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학업전념**

18. 몸도 좀 힘들고 그리고 감정고사도 준비해야 되고 한 번 쳐보려고 하는데 그때 내년부터 감정고사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21. 공부 하려고요. 원래 3개월 정도만 하려고 했어요.
23. 그냥 필요한 용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중국어 공부를 시작 하면서 아예 못하게 됐어요.

□ 해고

11. 어느순간, 그게 원래 제가 다닐때만 해도 좋은 PC방이었는데 다른곳에도 계속 PC방이 생기고 하니깐 손님들이 없는거죠. 그래서 사장님도 직원을 구하는게 아니고 월급을 적게해서 하던지 아니면 자르겠다고 이런식으로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 발로 나온거죠.
20. 보쌈집- 사장이 바뀌었어요. 그분은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일하는 사람들도 다 자르고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동업하고 있는거예요. 미용실- 힘들고 보수도 너무적고

□ 힘들어서

8. 백화점의류판매-좀 쉬고 싶었어요. 휴식이 필요해서. 쉬는게

없다는게 지쳤어요. 그게 힘들어서 주 하루 쉬는게 키즈카페- 거기사장님이랑 조금 안좋아서 그만뒀어요.돈도 그렇고 돈을 너무 늦게줘요. 월급 날짜 안맞춰서 2, 3주 뒤에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줘서 그것 때문에 짜증도 났었고 일시키는 것 도 짜증이 났었고, 그냥 괜히 기분 나쁘게 시켰어요. 목을 막 이렇게 치면서 이거 하라고 기분 나쁘게 시켰어요. 성격이 원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을 함하게 쓰시니까 우리가 듣기에 기분 나빠서 그만뒀죠.

10. 진상손님이 한 명 있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것 도, 손님 대하는 것 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만 뒀어요. 도넛에 설탕 발라달라고, 사람 엄청 뒤에 줄 서 있었고, 그때 크리스마스 근처라서 저 혼자 있고 바빠 죽겠는데 도넛에 설탕 발라달라고 계속 그래서, 그냥 서비스로 사장님이 그냥 서비스로 해 주신 건데 저한테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손님이 많아서 오늘은 그냥 가라고 했는데 계속 해달라고 화를 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때부터 손님한테 스트레스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3. 7월에 직급이 올라가고 나서 제가 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일 이라서 제 스스로 힘들어서. 그때 조금 버텼던 시기가 있어서 사람 인원도 별로 없었고, 아르바이트 인원도 없었고,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에 제가 조금 버티기 힘들어서 그때 잠깐 나갔어요.
14. 백화점- 평생 여기서 일 할 수는 없다. 거기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았고 저 위에 있는 선임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었거든

질문: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도 알죠. 거기가 직장이고 자기 평생 직업이니까 상관 없겠지만 밑에서 알바처럼 하는 애들은 몇 개월 못하고 그만 두는데 저는 그래도 1년 넘게 일을 하고 그만 둔 거니까 내가 계속 여기서 일할 수도 없고 나이도 계속 먹어갈 텐데 계속 여기서 일할 수 없다고 공부를 해야겠다고 나온 거예요. 몸도 안 좋았어요. 그때

22. 거기서도 친구들이 놀리니까 어디를 가도 놀림을 많이 받으니까 앞에서는 안놀리고 뒤에서 저 안 볼 때 수군거리면 많이 속상했죠.

밤에 11시 까지 하는거라서 좀 피곤한적도 있었고 그런 것 밖에 없었어요.

24. 귀찮아서, 힘들고 학교 끝나고 하니까, 휴일에는 8시간 인가 했었던거요.

28. 치킨집- 제가 그 때 손목부상을 당해서 물리치료를 한 달 가까이 받아서 그것 때문에 그만뒀어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그냥 달아서 그 일을 그만뒀죠.

질문: 직업훈련 경험 및 내용

□ 받아본 적 있음

2. 현재 IT 직업 학교 졸업은 했으나, 군대 미필이라 취업 불가함

4.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업학교에서 1년 정도 기술을 배우고 취업을 해서 17살 때 취업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직업 학교 처음 들어와서 기숙생활을 했는데 집에서 떨어지는게, 기숙사도 규칙이 있어서 처음에는 지내는게 힘들었죠. 벌점도 받고 혼나기도 했는데 하다보니까 실력느는 것 도 재미 있고 남들 도와주는 것 도 재미있어서.

7. 학교 그만두고 한 달 정도 용접 배웠어요. 그것도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뭐라도 해봐야겠다고 근데 그건 방위산업체가려고, 그래서 자격증 1개라도 취득하려고 했는데요. 자격증 없이도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때려치고 바로 방위산업체 갔다가 거기서 또 때려쳤어요. 그런생각은 안하고 조선소도 망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다지 흥미가 없었어요. 오로지 방위산업체 때문에 갔었어요. 자격증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그만두고 방위산업체 신청해서 들어갔는데요. 직업훈련이 있다는건 친구들이 알려줬어요. 노동청 이런데서 봤다고...

8. 한달동안 바리스타 교육받은 적 있음(주2~3일) 커피 내리는거랑 샷 내리는거, 로스팅. YMCA에서 고등학교 2학년 12월달부터 카페교육을 해줬어요. 55만원정도 지원을 해주셔서, 그냥 선생님 이 하고 싶은게 있냐고 물어셔서 카페수업을 직접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걸 회의를 해 보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얘기를 해주겠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게 돼서 55만원을 지원을 해주셔서 했죠. 프로그램은 잘모르겠고 그냥가 페 YMCA카페 그라시아 배우는거 였는데 그냥 배우는거 였어요. YMCA에서는 돈만 지원을 해주고 그 근처에 유명하신분 한테 해서 저희가 배운거죠. 학원에 가서

9. 대전고용센터(네일아트교육) 국비로 다녔어요. 집에만 맨날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언니가 고용센터에 같이 가자고 해서요. 책으로도 가르치고 실습도 하고, 간호학원은 엄마가 추천해서 다닌거고 네일아트는 제가 하고싶어서 다닌거고

14. 인테리어디자인, 그때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걸 했었죠. 돈을 주는건 없었어요. 9월부터 학원 다니면서 한달에 30만원에서 35만원 나왔어요. 직업훈련 받고 국비지원 이라고 학원비는 나라에서 다 내주고 다달이 30만원인가 35만원 줬어요. 9월부터

해서 1월까지 했었어요.

18. 돈보스코, CNC. 처음에 컴퓨터에서 도면을 짜서 기계모양이 있잖아요. 이런 모양 같은거 동그라미 같은 것 도 컴퓨터로 파서 코드를 짜서 기계에 넣으면 이렇게 기계가 만들어요. 깎기도 하고 파기도 하고

22. 돈보스코(직업훈련학교다님), 공고나 다른 고등학교에 가면 기계를 만질수 있는 그런 횃수가 많지 않아요. 근데 돈보스코 직업 전문학교는 기계가 되게 많아서 실습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론도 잘 가르쳐 주셔서 일단 기술은 기계를 많이 만져봐야 잘 알 수 있고 잘 다룰 수 있는 거라서 제가 그런면에서 많이 혜택을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록금도 안내고 다녔고 오히려 저희가 한 달에 30만원씩 수당을 받고 배웠어요. 훈련수당이라고 받으면서 일을 했어요. 한달에 30만원씩

26. 돈보스코(직업훈련학교다님) 기계조립과

29. 저는 잡모아로 기억하거든요. 잡모아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 거기서 취직을 시켜주는거. 서울종합예술학교라는 학원 다녔어요. 그냥 의류쪽에 대한, 그러니까 디자이너에 대한 처음과정을 이론부터 해서 프린트 물을 주면 그거 보고 의류 같은걸 제작도 해보고 패턴이 있는데 의류 만들 때 도면같은거, 그런 것 도 배우는데

질문: 직업훈련 도움 정도**□ 도움이 됨**

4. 많이는 안되고 약간은 됐어요. 그 이유는 돈보스코 에서는 원래 PP라는 회사에 들어 갔을 때 금영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그 쪽에서는 금영쪽으로 가면 발전이 없다고 그래서, 금영쪽이 좁고 그래서 거기서 안보내 주고 압출이라는 곳 으로 보냈어요. 파이프 생산하는 곳 으로 보냈는데 저랑 같이 온 사람들은 원래 금영 쪽 으로 보내준다고 그래서 왔는데 압출로 보내서 다 그만뒀거든요. 저랑 5명이 같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저 혼자 남아서, 1년도 안돼서 다 그만뒀어요.
8. 많이는 안되고 약간은 됐어요. 그 이유는 돈보스코 에서는 원래 PP라는 회사에 들어 갔을 때 금영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그 쪽에서는 금영쪽으로 가면 발전이 없다고 그래서, 금영쪽이 좁고 그래서 거기서 안보내 주고 압출이라는 곳 으로 보냈어요. 파이프 생산하는 곳 으로 보냈는데 저랑 같이 온 사람들은 원래 금영 쪽 으로 보내준다고 그래서 왔는데 압출로 보내서 다 그만뒀거든요. 저랑 5명이 같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저 혼자 남아서, 1년도 안돼서 다 그만뒀어요.
10. 바리스타에서 배웠던건 도움이 조금 있었어요. 파리바게뜨에서 커피 할 때 도움이 됐어요.

15. 5개월 정도 배우고 그리고 인테리어 회사로 취직했어요.
18. 돈보스코 학원에서 단열재 공장 일자리를 소개시켜 줌

□ 도움안됨

7. 한 달 정도 하고 그만 뒀어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예요. 그냥 단순 노동인데요. 쉬는 시간도 적고 그냥 거의 11시간, 12시간 가만히 서서 움직여야 되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29. 제가 제대로 수업을 안받았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달라서요. 그림 그리는쪽, 약간 패션 일러스트나 디자인을 하러가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것도 필요한 과정 이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 보통

9. 보통. 다 어려워서. 외울게 많아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질문: (학업전환) 학업을 하다가 직업을 갖게 된 계기**□ 부모님의 권유**

4. 부모님이 권유하셨죠. 근데 , 그때 엄마랑 처음에 제가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직업 학교 안 가고 계속 운동만 하겠다고 그랬죠

□ 본인선택

30. 노래하고 싶어서

질문: (무업형) 현재 무업 여부**□ 무업이 아님**

7. 고 1때부터 쪽 해온 치킨 집 배달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 무업임

8. 저는 9월 말에 다시 일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결정해 놓은곳은 딱히 없고요. 그냥 다시 백화점 쪽으로 일하려구요. 일이 일단 쉽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했던일이 관찰을 것 같아서. 제가 자취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달

- 월세 낼게 없어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9. 현재는 특별히 하는일 없으나 인터뷰 다음날 면접보러 갈 예정임
사람인에서 아무거나 엄마가 일하는 거 지원했는데 아모레퍼사픽에서 연락왔어요. 엄마가 빨리 대출원금 갚으라고 지원했어요.
11. 이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현재는 그만 둔 상태임
12. 자퇴이후 아르바이트 한번도 해본적 없음
13. 군입대 예정으로 현재 무업 상태임

질문: (무업형) 현재 보호관찰 여부 및 경험

☐ 보호관찰 받고 있음

31. 중학교 3학년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때 까지 계속 받았어요.
소년원(춘천)경험도있음 2015년 10월~ 2016년 5월 (7개월)

질문: 보호관찰 대상 보호관찰 받게 된 사건과 느낌 및 보호관찰과의 관계

☐ 별 다른 느낌과 관계 없음.

셨고 말투도 진짜 착하 셴고, 다른 선생님들은 일단 빨리 끝내고
다음 학생 받으려는게 심했어요.

31. 폭행도 있고 사기도 있고, 중학교 3학년때는 절도였어요. 선생님이 3번 정도 바뀌었는데 마지막 선생님이 제일 좋았어요. 일단 진짜 신경을 써주는 느낌이 딱 들고 저 때문에 맨날 고민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잘하고 싶고 그냥 계속 선생님과 제자로 남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소년원 갔다가 나오니까 바뀌어 있더라고요. 일단 전화 똑바로 안받으면 너 진짜 잘못되면 큰일난다고 이런식으로 맨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무슨일, 외출제한 그것 때문에 외박이 잘안됐거든요. 근데 한번씩 외박도 빼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말에 공감을 제일 잘 해주셨고 이해도 잘해주

질문: (비행형) 보호관찰 프로그램 도움 및 만족 정도

☐ 특별한 것 없음

폭행을 알면서 묵인하고 되게 심하거든요. 특히 소년원에서 춘천은 소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신입때는 욕도 많이 듣고 많이 맞아서 무서웠는데 좀 적응을 하니깐 그래도 괜찮았어요. 안에서 마지못해는 초반만 빼고 안에서 돈 걱정도 없고 편하고 돈 걱정이 일단 없는게 제일 좋았어요.

31. 재판 받을때는 솔직히 소년원 갈까봐 무서웠는데 가고나니까 일단 반성보다는 기분좋은 것 밖에 없었고 오랜만에 위탁 한달있다가 나온거거든요. 한 달있다가 나오니까 사회 느낌도 좋고 애들 만날 생각에 기분만 좋아서 반성할 생각을 그때 못해서, 그러다가 또 사고쳐서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보호처분을 받았거든요. 보호가 6개월인데 일단은 맨 처음에 엄마한테 미안한 것 뿐이고 그리고 갑자기 같이 있던 친구들도 다 9호받고 내려오는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분은 좋았거든요. 친구들 다 같이 있어서, 근데 막상 춘천 소년원에 가니까 위탁이랑 분위기가 전혀 다른거예요. 또 고참문화도 있고 폭행도 엄청 심하고 선생님들도

질문: (무업형) 향후 비행 계획

☐ 계획 없음

31. 아니요. 그런건 이제 안할거예요.

질문: 현재의 관심사

□ 음악/악기

7. 저는 학교 그만두고 음악이나 운동 배우는게 나아요. 검도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꾸준히해 왔으니까 한 번 썩하고 있는거고 음악같은거는 제가 노래를 부르는걸 좋아해서 피아노랑 같이 배웠어요. 실용음악 학원이 있어요. 신도시 가까운데 있어서요. 갔는데 한 두달 하다가 그만뒀어요. 엄마가 돈 비싸다고 못 내준데요. 배워보고 내가 재능이 있으면 한 번해 볼 생각인데 재능은 없는 것 같아요.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요. 지금은 군대부터 해결해야 돼서. 지금 관심사는 군대말고는 없어요. 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검도 관장이 유일한 꿈이었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하기 싫어졌어요.
10. 방송, 보컬, 음악. 방송하는게 사람들도 많이 보러오고 하나까 제가 학교 다닐때부터 학교 축제 같은 것 도 많이 나가고 무대에 많이 섰거든요. 방송도 무대 같은거니까 그게 좋아서 했었어요. 아직 유튜브는 안하고 있어요. 방송은 수익도 괜찮아요. 일단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고 그걸 녹화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러면 유튜브 영상보기전에 앞에 광고 나오잖아요? 그 광고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상을 많이 보면 조회수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어요.
16. 하고 싶은건 딱 하나 밖에 없었어요. 기타.
20. 그냥 원래부터 음악을 좋아했었는데 곡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음악도 하고 싶어서 바로했었죠. 음악을
30. 보컬 연기. 학교 그냥 거기 안가고 지금은 연극영화과 알아보고 있어요. 아니면 제 아시는 선생님분이 있는데 그 분이 대학교를 차리리 가지 말고 연기자로 처음부터 데뷔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요즈음 연기 공부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스스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노래는 이제 안하겠다고. 마지막 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공부하려고요. 또 공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건 어쩔 수 없는거니까 당연한거니까 일도 하면서 제 건강도 다시 찾고 그렇게 하면서 연기를 좀 더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 공부

13. 제가 조금 말을하는걸 좋아하거나 상대방과 대화를 했을 때 심리쪽으로 남들보다 잘 보다 보니까 심리학과쪽이나 그런 상담쪽으로 공부를 해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때 부터 고민상담이나 아니면 좀 진로상담이나 제 진로는 못보지만 남에게 많이 하다보니까 내가 이런얘기를 듣고 상담을 해줘서 길을 찾아주는게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느껴서. 저는 친하다고는 볼 수 없는 사이에서도 고민이 있으면 늘 얘기를 하라고 해요. 얘기하는걸 좋아해서요.
24. 그냥 일본 대학에 가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아직도 고민이에요. 역사쪽으로 공부 하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그거 다 밝히고 논문 쓰고 싶어요. 근데 일본대학 가고 싶은데 다른 애들이랑 맞춰서 대학교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일본대학에 가려면 준비할게 아직도 많아서 재수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건지 계획 세운걸 보여주고

아무튼 엄마는 기술쪽으로 하는걸 원하세요. 상관없어요. 요리도 좋고

□ 자격증

4. 자격증 같은 거를 따고 싶기는 한데
12. 월해도 다 돈이드는 것 같아요. 집안 형편이 엄청 어려운건 아닌데... 그냥 이런쪽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한 번 배워볼래? 그냥 그 정도. 근데 막상 배우려고 하면 형편이 어려우니까... 사실 부모님은 형편이 어렵다는 소리는 안하지만 딱 제가보는 기준에서

□ 일/아르바이트

8. 지금 약간 하고 싶은게 있는데 술집 서빙이나 클럽에서 일하는거. 한 번 해 보고 싶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직장 선택 기준은 돈이요. 저는 180만원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돈을 벌고요. 그냥 무조건 돈만버는 것 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딱히 하고 싶은거는 저는 제 전셋집을 마련하고 싶어요. 제 돈으로. 2순위는 제가 개인방송 같은거 해보고 싶은게 돈 여유가 없어서 돈도 많이 모으고 전셋집 잡으면 하려고
11. 딱히... 그냥 불안은 한데 일단 돈이라도 벌자는식으로 아르바이트만
14. 저는 그런건 없고 프리랜서가 하고 싶어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거요. 좀 여유있게 일하고 싶어요.
31. 그냥 돈버는거. 아예 할줄은 모르는데요. 요리도 하고 싶고 요리만. 중학교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밖에 없어요. 그냥 중학생부터 제가 하고 싶은거 다 하고, 일단 학교는 계속 다니고 결석은 안할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할거 다 하고 일도 하고 좀 재미있게 보내고 싶어요. 일단 여자들도 많이 만나고, 일도 좀 빨리 기술같은거 라도 어릴 때 기술이라도 배우고, 취미생활도 늘리고

□ 기타취미

9. 그냥 손톱 깎고 노는거. 재미는 있는데 어려운 것 뿐이에요. 쉬운게 없어요. 다어려워요.
25. 제 취미예요. 부동산 자리가 나왔는지 보는게 취미예요. 그냥 자취방도 보고, 그런거 구경하는게 재미있어요. 지역도 인터넷카 페에서도 보고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보고 아는 사람들한테 듣기도 해요.
26. 운동 같은 거
27. 요즘은 게임 새로했는데 너무 중독성이 있어서. 캐릭터 일러스트, 그림 그리는거는 평생 안고기가 되니까
29. 제가 이 옷 예쁘다고 생각하면 그리는거라서. 의류 디자인 같은거 좋아해요.

질문: 학업중단 후 가장 힘들었던 시기

□ 또래 영향

1. 그냥 저를 잘 이해를 해 준다고 했던 친구가 자퇴한 이유도 아는데 그 친구랑 저랑 싸우다가 너무 친구가 화가 나서 네 꼴이 비었으니까 자퇴를 했겠지, 이렇게 말을 했을 때나 동기랑 트러블이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15. 친구들 졸업식날. 그냥 착잡했어요. 친구들 졸업한거 보니까 부러웠죠.
22. 그냥 평소에도 친구들이랑 사이가 안좋기도 했지만 또 학교가 멀잖아요. 제가 다녔던 학교 중에 홍성이 충남에 있으니까 제일 머니까 외롭기도 하고 사이가 안좋으면 더 외롭게 느껴져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하는 것 도 방형이랑 안전해서 지금 현재 휴학 했지만 힘들어요. 많이
23. 두 번째 대안학교를 그만둘 때, 그만두기 전부터 딱 그만두고 조금 후에 상황이란 1년 4개월 정도 집에 혼자있을 때. 좀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저한테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어떤게 더 완벽한 선택일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둘때는.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집에 혼자 있을때는 혼자 놓여진 상황이 처음이었거든요. 가족들이 썩 나가고 썩 들어오니까 하루종일 저 혼자집에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친구들이랑 연락도 제가 일부러 끊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저랑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그 친구들이 힘들다고 하면 제가 이해할수 있는데 제가 힘들다고 하면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는거예요. 너는 배부른 소리라고,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많이 안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좀 많이 외롭고 친구가 너무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하려고 하니깐 엄마, 아빠한테는 그렇게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내가 무엇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25. 동아리 나와서. 나오면서 아예 소속감이 없어지는거.
27. 그만 두기 직전 너무 우울했어요. 학교 관두고 1년 동안 심리상담도 받았어요. 학교생활 때문에 우울했어요. 일단 중학생때에 비해서 완전 애들도 바뀌었고 어떻게 친구는 만나긴 했지만 중학생때 보다 모르니까 중학교는 3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대고등학교는 처음이니까, 그리고 공부도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고 학교 화장실에서는 담배냄새 나고 갑자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만 둔 직후에도 마음이 우울해서... 이전에 있던 우울감이 계속 돼서

□ 주위 시선

6. 학업중단 하고 힘들었던때가 그냥 힘들었던것도 있었고 친척들이 얘기할 때.
8.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만두고 나서 몇 달 안됐을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 안다니고 뭐할까나,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런식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럼 저는 제가 하고싶은거 할거다. 아니면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마음처럼되냐. 그런식이었죠.
10. 확실히 학교를 안다니니까 주변사람들이 뭐하냐고 물어볼 때 딱히 할말도 없고, 그냥 얘기할게 없으니까 조금 주눅 드는 것 같아요.
30. 제가 지금도 힘든데 다 자각자식. 그렇게 굉장히 또 큰 것 같습니다.

자각자식도 크고 안다녀서 생긴 것 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부터 학교 자퇴하고 자존심도 세다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자각자식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점차 생각해보니까 깊은 결점인 것 같고 또 고쳐야되겠다고 생각도 들어요. 남들은 다 학교도 다니고 저렇게 졸업도 해서 대학교도 가는데 나는 고등학교부터 자퇴해서 이게 뭐냐고, 이런생각으로,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 미래 불안감

4. 우선 감정고시 준비할 때와 그 전이요.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막막해서, 이게 잘 하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몸이 힘들었던 것보다 마음이 힘들었던 게 더 커요.
11. 자퇴 하고 바로 거의 방황할 때 계속 우울했었죠. 그때 1, 2달정도는 진짜 많이, 거의 혼자 살다시피 방에서 힘들어 하고, 계속 자퇴하고 나서 자기하고 싶은거 하려고 했는데 막상 나와서 안되니까 부모님 하고 많이 다투기도 했었어요. 일단 돈문제도 있었고 막상 또 이렇게 하려니까 마음이 안사는 거고 서로 다툼도 있고,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해줬는데 왜 안하냐고 이렇거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라고 계속 싸웠죠. 제가 일단 알바라도 하겠다고 했어요.
12. 그만 두고 지금까지도 계속 힘든데 1, 2년 동안 계속 그냥 멍 때렸던 것 같아요.
19. 일단 가족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거는 항상 느끼고 있어요. 일단 제가 상황이 다른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로 좋은게 아니기 때문에

□ 학업

4. 그러니까 약간의 후회는 있어요. 일반고에서 배우는거를 저는 중학교 까지 밖에 못배웠으니까 같이 못배우는게 좀 후회스럽고요. 또 힘든거는 직업학교에 소년원이나 보호관찰 받은 사람들도 많이 와서 자주 다툼이 많았어요. 저는 되게 피해다녔고 그 사람들 끼리 자주 다투는 걸 많이 봐서 나한테까지 오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고요. 취업하고 나서 3개월 정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취업하고 나서 5개월 정도 포장만 했었어요. 파이프 포장만 했는데 야간할 때는 지루한 것 도, 불량 같은거 체크 안하면 혼나고 그런 것 도있고
5. 작년, 공부를 안하다가 하니까, 안하다가 해서 힘들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8개월 정도 밖에 없었는데 아예 공부를 해놓은게 없으니까 그때 막 시작을 하려고 하니깐
21. 제일 힘들때는 재수가 힘들었는데요. 왜냐하면 보통제가 18살, 19살 때 집안 다른길로 갔어도 결국 목적지는 같다고 했잖아요. 저는 딱 친구들처럼 20살에 대학에 입학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거 원가 남들이랑 다른길을 가고 내가 늦었다는 생각을 하게됐어요. 그래서 원가 내가 늦었구나.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낮고 그때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는데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보면 그 경험으로 제가 단단해지고 그걸로 인해 지금은 오히려 자신감이 있다고 할까요. 오히려 남들 신경 안쓰고 제가 꿈도 생겼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걸 위해서 도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남이랑 비교를 안하게됐어요.

질문: 학업중단 후 가장 힘들었던 시기

28. 작년쯤이었을거예요. 좀 육체적인 것 보다는 정신적인게 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한 해를 보냈잖아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다른 부모님 한테도 대학은 같거다. 친구들한테도 대학 붙는다고 자신 만만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다 뜻대로 안되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컸던 것 같아요.

□ 경제적

16. 일이 안구해질 때, 일이 안구해져서 나도 답답한데 부모님 뭐라고 할 때

17. 일단 학교를 그만두고 반년동안 알바를 하다가 집을 나왔는데 나와서는 알바를 못구했어요. 다음달 월세를 고민을 했을 때 현실적인 두려움이 닥쳐오니까 그때 제일 힘들었고요. 돈 때문에 힘들었던거요. 지금도 그렇긴한데 한번은 통신요금이 잘못돼서 너무 크게 나와버린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막았는데 그 신용카드 빚이 지금 너무 커서 금전적인게 너무 힘들죠.
20. 자퇴하고나서는 힘든적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되게 힘들어요.

질문: 학업중단 후 가장 힘들었던 시기의 대처방법**□ 종교생활**

1. 열심히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곳에 안가요. 학교를 며칠 안가거나
2. 1차적으로 엄마한테 너무 힘든데 그냥 고등학교 갈걸 그랬나, 이런식으로 상담도 하고 아니면 교회에 목사님한테 상담도 하고 기도받고 그런걸로 위안을 얻었고요.

□ 억압/참음

12.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울거나.
28. 푸는 방법은 딱히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가끔 화가난 적은 있어도 크게 화난적은 없고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잘안하고 저 혼자 해결해 보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 외부활동

4. 산책 한다.
8. 그냥 YMCA다니는거, 그때 거기다니면서 놀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었고요. 놀러가는 것 도 있어서 거기다니면서 스트레스 풀었고 또 그때 여자친구가 있어서 YMCA다니면서 만난 여자친

구였는데 그 친구 때문에 힘이났죠.

□ 가족/친구/지인

11. 친형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21. 그냥 친구들한테 하소연 하고
23.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아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계속 불러서 밖에 데리고 다녀주시고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 비행

4. 저는 원래 스트레스 같은거 화가나면 일단 참거든요. 그냥 참고 그러는데 회사 가서 담배피고, 회사 다니기 시작하면서 피기 시작했거든요.
16. 집 나갔어요. 일은 구해야되는데 일이 안구해지니까 저도 답답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언제 집에있는지 아니까 그 시간에 들어가서 자고 씻고 나오고 이렇게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안만나려고 피해 다니고 일 구하고 뒹뒹하게 다니고 있어요.

질문: 도움받은 사람 또는 기관**□ 가족**

3. 부모님밖에 없었죠. 특히 엄마.
11. 친형이 돈 필요할 때도 많이 도와줬고 또 힘들 때 형이 내려와서

위로도 해주고 그런 게 아주 좋았었죠. 근데 요새는 다 컸다고 이제 그런 게 아예 없어졌어요. 저한테 도움을 준게 제 친형인데 친형이 그럴거면 일이라도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형이 부모님처럼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도와주겠다고 일단 일자리

질문: 도움받은 사람 또는 기관

라도 구해보라고 그거라도 시작하면서 돈을 벌고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걸 하라고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나가본거죠.

□ 센터/학교

21. 일주일에 1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다님(8개월동안) 저 작년 10월부터 심리상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가면 심리상담받는 게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10월부터 받았어요. 올해 6월달 까지 받았나. 10월부터 6월 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관찮은데 재수를 할 때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상담 종결을 하기 전에도, 저도 잘 몰랐는데 선생님이 상담을 종결할 때는 원가 내담자와 상담자의 헤어지는 것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저는 이 정도는 됐겠다.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꼈고 선생님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느꼈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로부터 3주 뒤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마무리 하는 동안, 지금까지 어떤 게 달라졌고 앞으로는 뭔가 이런 얘기하고 또 선생님이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또 다시 와서 상담 요청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12.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울거나.
28. 푸는 방법은 딱히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가끔 화가난 적은 있어도 크게 화낸적은 없고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잘안하고 저 혼자 해결해 보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 종교관련 사람들

2. 딱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목사님, 사모님. 믿을 수 있는 사람들
8. 교회 아는 지인분 소개로 학교연맹 YMCA시흥쪽 에 5월부터 다녔고요. 어머니랑 얘기해서 다니기로 했고 다니면서 장어집 서빙을 주말만 했어요. YMCA는 그냥 학교 자퇴했다는 얘기를 들어서서 여기를 다니면 어떻게냐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셔서 어머니가 너는 자퇴를 했으니까 너도 나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다녔어요.

□ 센터/학교

22. 별카페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이 다 좋은 말 해 주시고 긍정적인 말씀만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23.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를 보고 제가 검정고시를 인천에서 시험을 봤는데 거기 학교 앞에서 팜플렛을 나눠주더라고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보고 일산에 있는지 찾아봤더니 있어서요. 저는 그 상담이 시작하기 전에 상담 마칠때쯤 제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질줄 알았는데 제가 기억하는건 약간 일부분 이긴 한데 제가 적성검사를 해서 선생님이랑 그 부분에 대해 토의를 한적도 있었고 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꺼 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건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영어과외를 받았던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랑 지낸 시간은 별로 길지않은데 비슷한 상황에 놓여본적 있는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 아는선생님이 갓셨었는데 그 분은 코칭을 하시는분 이라서 제가 계획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시간표를 짜고 공부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26. 돈보스코담임선생님. 모르는거 거의 다 가르쳐주시고 약간 헤맬 때 옆에서 계속 도와주셨어요. 진로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27. 심리상담센터.병원까지는아니고, 엄마가 알아봐서 갔어요. 일단 처음에 가지마자 검사 여러 가지 하고 그 다음에는 같은분이랑 계속 상담했어요.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하다가 다른곳으로 옮겨서 저도 거기에 가서 하고
29. 저는 잡모아로 기억하거든요. 잡모아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먼 거기서 취직을 시켜주는거

□ 직업관련 지인

4. 힘든 거 있으면 저희 팀장님이나 얘기를 하죠. 부팀장님이나
13. 제가 홈플러스에서 일했던 소장님.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고 젊은데 소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거기에 대한 능력, 그리고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걸 정리 하는 해결방법, 소장님 젊었을 때부터 얘기를 들어봤는데 젊었을 때부터 이것 저것 일을 되게 많이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임팩트가 컸고요. 아직은 그 소장님 빼고는 없는 것 같네요.

□ 직업관련 지인

1. 동기랑 많이 얘기를 했죠.

질문: 향후 진로

□ 대학/공부

3. 저는 아무래도 경찰시험 합격하는거. 시험은 내년쯤 볼 생각이에요. 선배님들도 그렇고 거의 다 휴학을 하고 공부에 매진을 하거든요. 학원을 다니고 서울로 간다든가, 그래서 저도 이번 2학년까지만 마치고 3학년때는 휴학을 하고 학원다니면서 할 생각이에요.

그냥 저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부모님이 그랬는데 찾아보고 정보를 접하면서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학교 들어가서 경찰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5. 이게 별로 안남아서 공부좀 하면서 다른 대학 가려고요. 서울쪽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요.과는 일단보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 향후 진로

9. 유치원교사, 애기들을 좋아해서요. 근데 다 대학 나와야 돼서 못할 것 같아요. 검정고시도 없고.
19. 지금 뭐 그냥 수능. 대학에 가면 하고 싶은 건 생각 안해봤어요. 예전에는 설문 했을 때 무슨 CPA 따졌다는 애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21. 의대에 가고 싶어요. 의대 가면 공부를 일단 많이 해야겠죠.
23. 일단 중국어를 오래 공부 해서 내년에는 중국에 여학연수를 가거나 대학에 입학할 것 같아요.
28. 일단 대학교에 들어가게 첫 번째 목표고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군대를 가야겠죠. 군대를 갔다오면 대학교를 마치고 평범하게 그냥 큰 욕심없이 취직하고 살고 싶네요.

□ 취업

21. 그냥 사회 복지를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린이 집 선생님이 하고 싶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복지관에 취업을 하거나
6. 앞으로는 용접을 하고 삼촌 밑으로
14. 저는 계속 디자인쪽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테리어가 2순위였어요. 사실 저는 만화가 그리고 싶었거든요. 인테리어는 저희 아빠가 어렸을 때 하던거고, 저는 그런게 좋았어요. 이 공간에 들어와서 내가 안정감을 얻고, 이런게 좋아서 나도 남한테 그런 걸 전해주고 싶었으니까 그런게 있었는. 아무튼 남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 좋았어요. 만화를 그리는 것도 그걸보는 사람은 재미있을수도 있고 감동도 받을수 있는거잖아요? 내가 그리는 것도 재미있고
22. 기술자요. 기계만지는, 고치는 것 도 좋고 하여튼 기계만지는. 아까 산반이랑 밀링이랑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큰 중장비 같은 기계예요. 그걸로 쇠나 알루미늄 그런 철 같은 물질을 깎으면 모양이 나오는데 그런거예요. 그리고 돈보스코에서도 배운게 그거고요. 그런걸 다루는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27. 일단 돈 벌기, 취업,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프리랜서쪽 하고 싶어요. 회사생활을 못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랑 만나게 불편해요. 가족들도 그렇게 말해요. 회사생활 못할 것 같다고하면 자살할 것 같대요. 반응을 다 맞춰줘야되니까
29. 패션디자이너하다가 힘들면 웹툰으로 갈아타서 웃은 좋아하니까 패션 디자이너 만화를 그리자는 생각으로, 그것도 정 안되면 컴퓨터 배워서 게임일러스트라도 아직은 준비하고 있는건 없어요. 어쨌든 전역도벌어서 전역하고 할 수 있으니까 뭐든지 공부하는 내년부터 8개월 동안 준비해야죠. 회사에 들어갈지 창업을 할지 고민이라서요. 괜히 회사 들어가서 좋은 디자인이 나왔는데 그게 거기서 먹히면 아깝잖아요. 제 브랜드를 내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있고요. 아니면 인스타 이런거, 외국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었거든요. 사진올리면, 이번에 무슨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는 어디 회사고 어디 회사인데 여기에 와서 일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 이런것도 와서요.

□ 창업

8. 저는 직장 가지고 카페경영같은거, 사업해보고 싶어요. 제가 원래 처음으로 마음에 들었던게 커피쪽이라서. 즐겁게했던 것

도 그거예요. 제가 만든다는게 너무 좋았고요. 거기에서 일하면서 너무 재미있게해서요.

15. 사업하고 싶어요. 치킨집 같은. 제가 그냥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8. 인테리어 사무실 하나 차리는거. 아파트 시공사에서 아파트시공 다 끝나면 여기에는 팔하는게 좋을 것 같냐고 이렇게하면 어떻게 같냐고 물어보고 이런 이렇게 하자고 하면 저희가 가구 같은거 공수해서 갖다놓고 그러는거죠.
25. 창업 준비하고있어요. 내년초에 가게를 10월에 그만두니까. 실제로 팔하려고 보니까, 좀 더 따지게 되고 나는 욕심이 없다고 했는데 점점 더 예상보다 초과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이게 반복되니까 계속 안되는거예요. 마땅한 자리가 없다는 생각에, 사실 지금 저한테 맞는 자리가 없어서 계속 보고 있고 제 계획대로 라면 11월이나 계약이 되면 공사를 내년 1, 2월 쯤에 해서 가오픈이라도 3, 4월에 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 군입대

2. 아무래도 제가 이쪽분야나 직업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학교는 나왔지만 제대로 어떤직업이 있는지 조사를 잘안했어요. 군대 때문에,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군대 특기병으로 군대를 갔다오는 거고요. 정보보호특기병이 있어요. 그쪽이 제 IT계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쪽인데 그쪽이 군복무가 2, 3년이 되는데 그 사이에 보통 일반군으로 지원하면 그냥 2, 3년이 날라가는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빨리 빨리 가 좋고 정보보호병으로 복무를 하면 그 복무기간동안 경력으로 쳐준대요. 그러면 군대에서 나오면 21살에 4년제 학사를 가지고 3년 경력이 쌓여있어서 엄청빨라요.
4. 좀 더 다니다가 다음 달에 10월에 심검 받고 내년에 군대 갈 생각이에요. 군대는 운전병이나 지원해서 갈 생각이예요. 산업체라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냥 군대 가기로 했어요. 엄마도 상관 없다고 걱정 말고 갔다 오라고...
7. 지금 현재 군대 가는 것 말고 관심사는 없어요.
11. 지금은 빨리 돈을 모으든지 아니면 군대를 빨리 다니고 싶어요. 군대는 그냥 공익이요. (중졸이라서) 일단 빠르면 이변년도 안에, 늦으면 내 년 초쯤에. 제가 용접 같은걸 좋아하니까 작업복을 입고 집 만드는거, 그걸 해 보고싶죠. 제가 만드는걸 좋아해서요.
13. 일단 지금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대에게서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하는 진로는 준비를 해볼까? 라는 생각밖에 아직은 없습니다. 관련과에 대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저 혼자 알아보기 힘들면 군대 갔다와서 보려고요. 열심히 생각하고있는 그런걸 찾아보지 않을까요.

□ 음악

10. 일단 방송을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제 앨범도 내고 싶고 작곡도 제가 배웠거든요. 음악, 기타 하고 더 배우고 작곡도 제대로 배우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 만들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도 여러 가지라서 제가 녹음하는거는 랍곡이

질문: 향후 진로

- 고요, 그 때 노래도 하고 싶어서, 노래를 잘못해서 녹음을 안하는 거거든요. 또 게임 노래 같은거 있잖아요. 리듬게임, 디제이 매이 악스 같은거 그런 노래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장르를 뭐라고 해야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렉트로 쪽이죠. 전문방송인이 되고 싶은 이유는 수익도 괜찮고 자기가 하고싶은거 하면서 돈도 버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 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냥 회사 다니는거는 제가 하고싶은 일도 아니라서요. 회사 가는거 집에서도 보면 저희 부모님도 일을하시는데 그냥 돈 벌려고 일하는 거니까 그런거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16. 가수나 뮤지컬배우, 노래부르는걸 좋아해요. 활동적인걸 좋아하고 춤추는걸 좋아하고...뮤지컬 배우가 좀 대중들한테는 안알려져있잖아요. 소수의 인원들이 많이 보는 그런거잖아요. 근대 이게 노래를 부르면서 연기를 하면서 춤도 출 수 있는거잖아요. 다재다능 하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대 현실적으로 하고 싶다는건 그냥 딱히 내 앞가림 잘하자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 벌고 내 앞가림 잘하는거. 일단 검정고시 자격을 따고나서 친구가 농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계돈을 좀 많이 준대요. 공장에서 일하는건데 거기에 가서 일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20. 그냥 군대 갔다와서 계속 음악 하고있을 것 같아요. 군대는

올해 12월에 가고요. 음악은 일이 아니라 회사를 많이 알아볼 것 같아요. 기획사 같은 녹음작업도 많이 돌리고 그렇게 해야죠.

□ 기타 및 계획 없음

12. 앞으로 하고싶은 일이나 목표같은거 없어요.
17. 저는 일단 기본적인 목표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게 목표예요. 캐나다가 살기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고 캐나다가 제도나 정치가 워낙 잘 되어 있고 지금 있는 총리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진보적인 나라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서 캐나다로 지정하게 되었고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이민이구요. 그 이민이 안 되면 계속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꾸준히 인권 활동하면서 살아가는 게 목표죠. 유명한활동가는 딱히 되고 싶은 목표는 없고 그냥 아름아름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싶고 수도권으로 진출할생각도 없고 그냥 지역에서 여성이 나 소수자를 위한 상담소나 쉼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해요.

질문: 대학 졸업 후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도움

□ 정보 및 연계

1. 그냥 솔직히 사회 복지가 학연, 지연, 혈연의 끝판왕이거든요. 약간 교수님들이 면접자리 얘기를 해 주기도 하고 보통 복지관은 공채 모집을 잘 안 하고 공석이 나면 실습생이나 봉사자들한테 한 번 일 해볼래? 이런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실습할 때도 잘 해야 되고 봉사도 뭔가 내 재능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너무 봉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봉사해서 인연을 잘 쌓아야지,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 말고 학연, 지연, 혈연, 그런 거 말고 그런 것의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3. 학교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하는데, 거기에서 도움을받아요. 견학하는 것 도 있고 선배님들중에 경찰이된 선배님들이 와서 초청강의 많이 하고 학교가 생각보다 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그런 정보를 학교에서 많이 얻는 것 같아요.

18. 인맥
20. 남이야 당연히 도와줄수 있죠. 다리를 건네준다든지

□ 자격증

2. 자격증이요. 현재는 2개(정보처리산업기사,네트워크관리사2급) 있고, 지금 1개(정보보안관리사) 준비중이구요. 사회에 나가면 자기를 어필할수있는게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직 안겪어서 모르겠지만 들은 얘기가 그래요.

□ 잘 모르겠음

29. 그걸 알아봐야 돼요. 아직은 잘모르니까

질문: 꿈드림센터 인지도

□ 알고있음

7. 들어본적 있음.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상담도 했었고

통기타 였나 작은기타 였나 그것도 했었고

9. 가 본적 있음 (대전 은행동에 위치한 꿈드림센터)
10. 한번 가 봤어요.

질문: 꿈드림센터 인지도

11. 들어본 적은 있음
16. 기본적 있음. 얼마전에 갔었거든요. 한두달 전에 갔을 때 이런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지 잘모르겠다고 알아보는 알아본다고 했었거든요.
19. 들어본적있음. 애기도 들었고 전화도 왔었는데 저는 일을 하는 입장이라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안될것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 고요. 제가 스케줄이 안되니까
24. 학업 중단후,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꿈드림 기본적 있음. 그만 두고 시간이 있으니까 피아노도 배우고 검도도 배우고 그러다가 검도 선생님이 소개를 해줬던 것 같은데, 과자먹고 상담하고 일주일동안 어떤일이 있었는지 상담하고 뭐가 기본이 나뉘는지 말하고, 도움은 그래도 가만히 집에 있는 것 보다는 상담도 하고 그랬으니까 좀 더 낫죠.
27. 현재 다니고 있음. 여기 말고 또 상담받는곳이 있거든요. 영등포꿈 드림센터라고 거기 일주일마다 한번씩 가는데 거기서 취업이 최우선 목표니까 그 쪽으로 가자고 얘기는 맞춰줬어요. 근데 거기서 9월부터 거기 애들한테 일반자리를 주선해 준다고 들었는데 학원 다니게 되면 못할 것 같고
31. 들어본적있음. 보호관찰소에서 많이 들어봤고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도움이 되거나 그런건 없었어요.
□ 모름
2. 들어본 적 없음
3. 아니오,이 설문조사 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5. 들어본 적 없음
8. 잘모름 YMCA같은건가요? 잘모르는데.. .지금 그게 YMCA가 그 이름 으로 바뀐 것 같아요.
15. 들어본적 없음
18. 없을걸요.
20. 아니오, 없어요.
26. 들어본 적 없음

질문: 꿈드림센터 방문의향

- 의향 있음**
19. 지금은 어려운데 만약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가봤을 것 같아요.
26. 방문 의향 있음
27. 가 본 이유는 어차피 시간도 별로 안 들고 돈 준다고 해서
29. 도와준다는데 도움을 받아야죠.
- 의향 없음**
8. 지금은 없고요. 딱히 없어요. 가봤자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고 다른 학생들, 애기들이니까 저는 가봤자 선생님들밖에 없으니까 혼자 하기도 그렇고..
9. 방문한적 있으나 크게 관심없음. 검정고시가 있어야 하지만, 본인은 검정고시를 볼 의향 전혀없음
10. 그때 전화 와서 한번 가 직업체험 했거든요. 거기서 상담하고 거기서도 직업쪽으로 많이 도와주는데 저는 직업을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서 거기랑 좀 안맞는 것 같아요. 상담하시는 분도 저를 위한건 없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아까 오전에도 전화했거든요. 어떻게 지내는지, 커피하는 것 도 있다고 했는데 저 커피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해도 된다고 전화했었어요.
12. 별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찾아와도 안할 것 같아요. 해본적은 없는데 뻔한 것 같아요. 워싱턴인가 거기갔을때도 상담하는데 다 알고있는 내용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제가 실천을 안하는 거라서 상담을 해도 그냥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15. 없음. 뭔가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제가 배우는걸 잘못하거든
- 요 수업듣는 것 도 잘못하고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요. 상담은 도움이 없지 않아 있겠죠. 학교의 진로관련된 상담.
20. 아마 물어보셨어도 저는 안간다고 했을꺼예요. 그냥 그런곳을 싫어해요. 청소년 그런거나 공공기관에서 해주는 프로젝트를 싫어해요. 딱히 계기는 없는데 거기 가서 시간을 낭비하는게 싫어요.
31. 지금은 일 때문에 바빠서 못하는데 나중에 기회되면
- 의향 없음**
7. 방문 의향은 잘모르겠어요.
11.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고 왔다, 갔다 하는게 힘들어서 정확히는 잘모르겠어요. 계속 왔다, 갔다하면 돈도 들고 그래서

질문: 희망하는 프로그램 및 이유

□ 자격증 및 취업관련

11. 저는 서비스보다는 취업을 위해서 뭘 배우고 싶어요. 정확히 생각은 안해봤는데 일단 평범한 아르바이트 보다는 사회생활이 하고싶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밑에서부터 배우는거죠. 그렇게 견뎌도 보고 싶어요. 저는 사무직보다는 뭘 만드는데. 원래 제가 처음에는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요리 배우려고 하니까 요리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 아니면 돈을 잘못벌잖아요. 그럴바에 기술쪽으로 들어가는게 낫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 못할 것 같아서 다 내려놔요.
31. 요리, 일식, 무조건 자격증, 제가 옛날소년원에서 생각했던게 자격증, 일단 쓸데없는 것이 없잖아요. 일단 자격증을 쉬운 것부터라도 여러개 모아보고 싶어요. 자격증이 여러개 있으면 뭔가 다재다능 한 것 같고 면허증이라도, 일반 그냥영어, 한자 자격증도 다 모아 보고 싶거든요.

□ 상담

15. 그냥 무슨상담을 받아보고 싶냐면 진로를 받아 보고 싶어요.
26. 진로상담. 직종을 찾아주는

□ 예체능/인강

10. 저는 예체능 쪽을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19. 교육은딱히...저는 돈이죠. 교육적인 인강같은거, 사설인강.

질문: 직업훈련 인지도

□ 들어봤음

2. 고용노동부나 이런 곳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나 그거는 들어봤어요. 학교에서도 그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졸업생들 위주로
13. 얘기만 들어봤지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조사전부터 이런 직업훈련이나 이런식으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게 있다고 얘기만 들었던게 설문조사 처음 할 때 들었던거죠.
14. 구청에서도 전화가왔었어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근데 돈을 버니까 끊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말도 안되는게 이걸 알바라고 생각하지 직업이 아닌데 지금 당장 그걸 끊으면 생활을 못하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 무슨 보탬이 되는 것 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만둔 것 도 있었고 일을 그만두고 구청에서 자기들이 도와준다고 네가 말하는 말썽한직업, 평생직업으로 할수 있는 걸 우리가 도와줄테니까 하라고, 그게 학원 다니고 절차를 밟으면 구청에서 일자리도 소개시켜 주고 그런거 였거든요.
16. 친구가다니고있어요.
18. 직업훈련 받은적 있음
19. 들어본적있음. 취업 성공패키지 한 번 흥미 를가진적이 했어요. 컴퓨터 쪽에 뭔가 있더라고요. 자격증 따게 해준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여기는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사람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자격증 취득을 하고 바로 일을 하게 해주는곳이지 대학진학하는 사람은 안된다는 얘기를 해서
22. 취업패키지 프로그램을 작년 12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청했다가 대학교 합격 돼서 취소했어요. 엄마도 그걸로 지금 직업을 구하셨고, 아빠가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사서자격증이 있어요. 도서관, 그래서 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은 많으니까 일단 교육받고 취업

인계를 받아서 취업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또 계약기간이 1년이 끝나서 이번 8월에나오셨어요.

26. 들어본적 있음
27.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고
29. 취업 성공패키지
31. 네, 많이 들어봤어요.

□ 듣지 못함

5. 들어본 적 없음
15. 들어본적 없음
20. 없어요.
28. 들어본적 없어요.

질문: 직업훈련 받을 의향

□ 의향있음

2. 군대 제대 후, 이용의향 있음 (현재는 미필이라서 필요 없다고 판단함)
7. 제가 해보고싶은건 배우었는데 제가 배우고싶은게 뭔지 잘모르겠어요. 저도 찾고싶어요.
8. 받을 의향은 있으나 현재 여건이 안된다고 생각함.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매달 돈을 내야되는데 그걸 받으면서 직장을 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9. 저는 헤어요.
13. 지금은 생긴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으니까
14. 제가 내년 초쯤 다시 한번 직업훈련을 받을수 있어요. 이게 한사람 한테 주어진게 3번 이거든요. 계속 무직인 상태로 있으면 다시 구청에서 연락이 와요. 돈 벌수있는데 왜 안버냐고 지금 일바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제대로 된 직장이 아니니까 그 쪽에서 그러면 한 번 더 학원 수강을 받을수 있으니까 그때되면 그쪽으로 배울까 싶기도하고
15. 용접은 배워보고 싶어요. 돈 많이 벌잖아요. 돈 잘벌리면 용접을 계속해야죠.
25. 받을의향은 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니까 자택에 원가 하는 게 피곤해서
29. 전역하면 언제라도, 배워야될 것 같아서요. 기초가 없으니까

□ 의향없음

10. 받을 의향 없음. 그건 다 직업이잖아요. 저는 직업이 아니고 창작이 하고 싶은 거니까...
16. 아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해야되는데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간다고 하면 돈을 모아놓고
26.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 조건에 따라 다름

17. 저 같은 경우는 직업훈련 보다는 공부 차원으로 접근을 하니까 듣고 싶은 강의는 워낙 많죠.
18. 배우고 싶어진다면, 지금은 딱히없어요.
20. 받을 의향 없고, 만약 돈을 준다면 폐이가 얼마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27. 할수 있다면, 근데 그게 어느정도 인지 구체적으로 가늠이 안되니까. 기술을 누구한테 어떻게 배우냐가 중요한데 이런 정보를 얻기어려워서. 기간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할 것 같아요.
31. 만약에 빚을 다 갚고나면 거의 80에서 90%.

질문: 희망 자원 금액

□ 100만원 이상

4. 월급까지는 아니라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만 되면

□ 100만원 이하

8. 50만원. 크게바라는건 아닌데요. 약간 큰가. 50만원은 넘어야될 것 같아요.

16. 50만원에서 60만원정도 주면 가겠죠. 제가 생활할 만큼의 돈이 그 정도가 필요한거니까요. 그러니까 집에 돈 안주고 내 용돈하고 내가 먹을거 먹고 이런거, 휴대폰비랑 밥먹는거 교통비 포함해서 거의 5, 60만원 나가니까요.

질문: 부모님의 양육방식

(허용적인 부모, 방임적인 부모, 민주적인 부모, 권위주의적인 부모)

□ 두분 다 엄격

17. 부모님 양쪽 다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심하면 손, 발 묶여서 거꾸로 매달려서 맞기도 하고 벨트로 채찍질하듯이 맞기도 하고 쇠파이프로 맞기도 하고 공부를 못하거나 학원에 늦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주로 공부

때문이죠. 주로 공부고, 아니면 약간 버릇 없는 행동. 저는 학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분의 학대 방식이 달라요. 아버지는 저를 직접 때려요. 어머니는 나를 앉혀두고 네가 잘못했으니 너를 잘못키운 내 잘못이라고 네가 나를 때리라고 학대를 해요. 그러면 누가 때릴수 있겠어요. 그거는 청소년한테 굉장히 안좋은거거든요. 그것도 학대라서 두분의 학대방식이 달라요. 처음에는 물론

질문: 부모님의 양육방식

(허용적인 부모, 방임적인 부모, 민주적인 부모, 권위주의적인 부모)

어머니도 직접 때리기도 하셨죠. 종아리 걷으라고 해서 맞고

□ 두분 다 자유로움/민주적

3. 전혀 엄격하지 않고요. 그냥 공부도 네가 하고싶으면 해라. 대학 가서도 시험 공부하는데 전화해서 아빠, 나힘들어. 그러면 공부하자. 공부안해도 돼. 약간 이런식으로 말해요. 제가 열심히하는걸 아니까.
4. 일단 저희 엄마는 민주적이고 저희 아버지는 허용적이고,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줬으니까. 아빠뒤에 졸졸따라다녔던 것 밖에 생각이 안나요. 원래는 지방 아빠랑 시골에서 살았고요. 엄마는 서울에서 살고 계셨어요. 따로 살았던 거죠. 근데 이혼은 아니고 별거.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는 서울로와서 엄마한테 온거죠. 그때부터 엄마랑 같이 살게된 거죠.
5. 자유로워요. 원래는 관찮았는데 아빠가 월하다가 안좋게 됐나봐요. 그래서 집을 또 안좋은곳으로 이사를 가고 둘이 이혼하니까 좀 그때부터 그냥 그래요.
8. 엄격하신건 없고요. 그냥 편하다고 해야되나. 편하게 대해주세요. 제가 불편함이 없게 제가 자취를 하니까 가끔 만나는데 그때 만날때라도 불편함도 없고
10. 제가 하고싶은거 할수있게 풀어주세요.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설득해서해요. 제가 고집이 있어서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빠는 그냥 협회장을 하시고요. 엄마는 아동센터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프로그램이나 그런 내용을 잘알고 계신 것 같아요.
12. 자율적 이예요.
13. 제 생각을 제일 많이 해주고 제일 우선적 이면서 제일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위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건 권위적인 편이고요. 나머지는 민주적이랑기보다는 제가 원하는걸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누나들에 비해, 제일 많이 받고 자랐죠. 위험한거나, 저 고등학교때 원동기면허를 따고 배달알바가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에 대해서는 반대 흘해서 못했었고요.
18. 옛날에는 권위적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들어오고 나서부터 부모님 두분 다 저하고 싶은대로 해보라고 밀어주세요. 아빠랑 말도 잘안했었거든요. 무서웠으니까 그냥 말을 잘 안했어요. 불만 그런건 없고 그냥 말을 잘 안하셨거든요. 그때 또 엄마는 그때 저보고 공부좀하라고 중학교때는 제가 하고 싶은게 없으니까 일단 공부라도 해놓으면 나중에 하고싶은게 생기면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20. 좀 프리 했어요. 민주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셨어요.
23. 부모님 두 분 다 민주적인것같아요.

□ 편부모 엄격

9. 부모님이 어려울 때 이혼하고 현재 할머니와 엄마와 같이 살고 있음. 엄마- 자유롭진 않아요. 그냥 나가지 말라고밖에 안해요. 부사동에 어떤사람 성폭행당해서 성폭행범들이 돌아다닌다고 아빠-연락하지않음
14. 제가 7살 때 이혼하셨어요. 어릴때는 많이 맛있어요. 학대수준은

아니고 왜냐하면 엄마가 어릴 때 애기들은 말하면 못알아듣잖아요? 때려야 알아들으니까 어릴때는 맛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나서 부유했었는데 이혼 때문에 폭삭망했다는 생각이드니까 어릴때부터 계속 우울했어요. 엄마랑 같이 살 때 엄마가 가장이 됐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엄마가 매일 일 하시고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데리고 사는거지. 나가서 돈만 벌어오시니까.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맞고 커서 그런지 암전했는데 동생은 버릇도 없고 개념이 없어요. 그런거보면 엄마가 미안하다고 항상 그랬거든요. 어릴 때 때리고 키우고 관심 못줘서 미안하다고. 지금은 제가 무슨애기를 해도 다 들어주시고 미안한 마음이 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면 엄마가 이해해주세요.

□ 편부모 자유로움

24. 그냥 착하고 친구 같아요. 엄마는 외식을 할 때도 외할아버지도 같이 살거든요. 다 모여봐. 이래서 이번에는 어디가서 뭐 먹는게 좋을 것 같아? 네가 알아봐. 이렇게 얘기하고 할아버지도 다같이 네가 알아보고 얘기하고 그렇게 정해요. 친아빠랑 엄마는 이혼해서 지금은 새아빠랑 살고있어요. 친아빠랑은 별로 안친하구요.
28. 중 3때 이혼하시고, 지금은 누나랑 엄마랑 살아요. 민주적인 부모에 가까울 것 같아요. 의사결정을 할 때 서로 얘기를 많이하는 편 이예요.

□ 상황에 따라 다름

11. 제가 말썽만 안부리면 자유롭죠. 어차피 이렇게 된거 하고싶은거 하라고. 도와줄때까지 도와줄수있다고 하시니까. 저는 둘째니까 첫째는 이미 집을 나오고 없는 상태니까 둘째한테 관심이 끌린 거죠. 너라도 제대로 하는 거 바랬는데 막상 또 자퇴를 하고 나니까 초반에는 뭐라고 많이 했었죠. 근데 그 뒤로 계속 방황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일자리도 잡고 그러니까 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계속 자유롭게 해 주셨어요.
15. 15. 들어줄건 들어주고 안들어줄건 안들어주세요. 제가 뭐 배우고 이러는거는 같이 알아봐 주고 하는데 다른거는 전혀 상관을 안해요. 아빠는 묵묵하고 원만해서는 성질을 잘안내요. 말은 많고 항상 웃기는 웃고 그러는데 제가 예를들어 학교에서 담배를 피고 걸렸잖아요. 그러면 크게 뭐라고 안하고 아빠 혼자 생각하세요. 그냥 아빠 혼자 생각하다가 욕하지 않고 침착하게 물어봐요. 엄마는 이해를 1%도 안해요. 엄마 주위 사람들의 아들들은 다 잘하는거죠.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는거죠. 용돈은 원래 안줬어요. 아빠가 원래중학교 때 까지는 줬는데 일하고 난 뒤로부터는 잘안줘요. 일주일에 1만원. 중학생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16. 어릴때는 엄한데 제가 도를 지나치면 엄하고 아닐때는 관찮아요. 집에 너무 일주일 내내 안들어오거나 3일내내 안들어가면 전화해서 너 안들어오냐? 이렇게 하고 하루외박은 그냥 넘어가주고
26. 어떨때는 엄격한데 어떨때는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고 다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엄격하신편 이예요. 약간 고민이 많았을때는 관참구요.

질문: 부모님의 양육방식

(허용적인 부모, 방임적인 부모, 민주적인 부모, 권위주의적인 부모)

□ 한분은 엄격/한분은 자유로움

1. 잘못됐지만 최선이었겠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안 좋았지만 지금 다 커서 부모님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 좋은 영향은 아니었지만 엄마, 아빠 성격에서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다정한 분은 아니거든요. 그게 저한테 안 좋은 영향이었지만 다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정한 말을 해 주기 보다는 성적을 잘 받으면 용돈을 준다든지, 저는 용돈보다는 다정한 말 한마디를 바랬는데 엄마는 용돈을 주거나, 엄마의 최고의 찬사는 용돈을 준다든지 이런 거... 아빠는 권위적이고 엄마는 민주주의,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가 누워 있으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2. 두분 다 권위적인건 아니세요. 그냥 아빠는 옹고집이 있으신거고 이렇게 해, 이거 아니고 이게맞지, 이런정도 예요. 아빠와 의견갈 등이 좀 있는편 이예요. 반면, 어머니는 부드럽게 해서 의견이 달라도 제가 얼떨결에 어머니 의견에 따라가요. 엄마가 말을 너무 잘해요. 말을 못이겨요. 논리적으로도 제가 져요.
6. 어머니는 스타일로 따지면 잘모르겠고 아버지는 무섭고 그냥 아버지라는 존재가 인식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걸 설명 못하겠어요. 그냥 아버지는 말도 잘안해봐서 아버지랑 친하지 않아서요. 엄마는 친하죠.
7. 약간 엄격해요. 엄마는 그런데 아버지는 안 그래요. 아버지는 묵묵한 분이라고 해야 되나...그냥 잘 얘기를 안 해요. 아버지랑
21. 아빠는 제가 자라는데 있어서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거의 엄마가 끼쳐셨어요. 아빠가 바쁘셔서 계속 바쁘셨기 때문에 아빠랑은 살면서 말올해본적이 별로없어요. 거의 7살 때부터 13살까지는 아빠는 없고 그냥 엄마만 있었어요. 사실 태어나서부터 6살까지는 엄마랑, 아빠랑도 거의 말을 안하고 다른분이 키워주셨대요.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랑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예요. 아빠는 권위주의적 이고요. 엄마는 약간 허용.
22. 일단 아버지는 많이 무서우시고 엄마는 제 얘기를 잘안들어주려

는 것 같아요. 말을 중간에 끊는 스타일이라서 아빠랑 엄마랑 사이가 평소에도 많이 안좋아요. 그래서 많이 부딪혀요. 소리를 지르거나 말하다가 조금만 잘못해도 욕박지르시고 그러니까 무서워요. 만약에 엄마한테 운동 배우고싶다고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안된다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중하게 제가 생각해본건데 이러면 안될까요?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도 엄마가 안된다고 하시는 편이예요.

25. 민주적인 것 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엄마만요. 아빠는 권위적인 부모

□ 방임형

27. 엄격하지 않고 그냥 아빠는 별로 관심이없는 것 같아요. 서먹한건 아니고 태도는 친근한데 방임. 어떻게 보면 관리를 안한다고 볼 수 있죠.
29. 그냥 자유분방, 근데 아빠도 집에 잘안와서요. 저도 잘안들어가는 편이고, 그냥 편하게 있는데
30. 부모님은 많은 사람들한테 반감이 많이 성질을 내고, 어머니는 또 우울증이 되게 심하셨거든요. 욕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것 도 제가 하리 잡고 안된다고 해서 안뛰어내리시고 그 높은곳에서 뛰어 내리려고 했던 것 도 제가 직접 봤어요. 가르침을 직접주시진 않으셔도 아버지께서 살아가셔서 저렇게 일 열심히 해주시는 것 만으로도 저한테는 여러 가지 배울점이 많은 것 같아요.
31. 이혼 하셨어요. 1, 2년 됐어요. 아버지랑은 연락은 안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짝잡으려고 했고 어머니는 풀어주시고

질문: 학업중단 전 후 부모님 관계 변화**□ 관계가 더 좋아짐**

1. 아빠랑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는 신학 강의하는데, 그래서 좀 사실 집에 오면 말을 잘 안 하거나 아침 일찍 나가서 저 잘 때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 얘기를 잘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그냥 장난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왜 저래?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는 장난으로 말을 했는데 아빠한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진짜 많아서... 네, 그래서 그냥 얘기를 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고등학교를 결정할 때나 그때도 아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 주기도 하고 사실 자퇴할 때 엄마는 이해를 못 했는데 아빠는 많이 이해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 학교 태워주기도 하고

학교 잘 가라고 같이 올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면으로 아빠를 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3. 아빠랑 사이가 더 가까워졌어요. 부모님이랑 학교 그만두고 나서 제가 운동할때는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많이 못붙어있었는데 같이 집에서 사니까 더 친해진 것 같고 근데 부모님이 되게 속상해 하셨어요. 운동 그만둘 때, 특히 아빠가 되게 많이 그랬거든요. 제 친오빠도 운동을했었는데 그만뒀고, 저도 그런상황이 되니까 아빠가 되게 많이 속상해하셨는데 제가 한번만 믿고 해달라고 하니깐 아빠가 그때부터 제가 하는 것 에 대해서 많이 밀어주셨고, 엄마는 항상 제 편 이었으니깐...
4. 엄마가 그렇게 가라고 했어요. 취업해서 멀리가는 것 도 생각을 했으니까 보내줬지 않을까 관철은 것 같아요.

질문: 학업중단 전 후 부모님 관계 변화

16. 전은 더 사이가 안좋았고요. 후가 사이가 좋아요. 정반대죠. 학교를 그만두고 아빠와 가정사를 이야기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나니가 아빠가 허리아프고 수술하시고 그랬을때도 아빠옆에 내가 같이 있어주고 간병을 해주고 이러다보니까 아빠랑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안믿을걸요. 믿지는 않을걸요. 마음으로 지지해 주죠. 아빠가 무뚝뚝한편 이라서 어린마음에 제가 질물랐는데 맨날 학교를 데려다줬어요. 짜지 말라고. 학교 그만 두기전인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때는 용돈을 맨날줬는데 그만두고 나서는 안주죠. 딱 끊겼죠. 휴대폰비도 제가 내고 다내죠.
18. 학교 그만두고 나서부터 아빠랑 친해졌어요. 오히려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님하고 더 좋아졌어요. 모르겠어요. 멀리 떨어져있 다 보니까 전화도 더 자주하게 되니까 그리운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 아픈데없냐고 묻고 밥먹었냐고 묻고 장난도 많이쳐요. 지금은 그냥 제 의사를 말하면 들어주시려고하고 하고싶은건 다 하게 해주세요.
20. 더 좋아진 것 같아요.
23. 중단한 후에 좀 더 많이 친밀해진 것 같아요. 제가 집에 혼자있고 친구들이랑 연락을 끊으면서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부모님이 친구가 돼서 많이 도와 주셨거든요. 그리고 약간 학교를 안다니다 보니까 앞날이 불안보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부모님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25. 엄마랑 특히. 일단 학교에 규칙적인 생활이 있고 학교에 맡기는거 같아요. 미성년자니까, 그래서 엄마가 편하게 있었는데 제가 자퇴하고 보험을 새로 들었어요. 어떻게 될지모르니까 학교에 안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불안해하고 저한테 무신경한 것처럼 행동을 했었거든요. 안들어보고 근데 이것저것 물어보고 어디에 가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면 저는 그럴 때 말을 많이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꾸준히 1, 2년걸린거지만 지금 학창시절보다 서로에 대해서 알아요. 부모님들은 서로 다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엄마 를알고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 분생각하잖아요. 근데 엄마로 보지 사람으로 보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엄마를 보면 객관적으로 보고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엄마가 아니라 엄마 이름을 대면서 그 아줌마를 알고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가까워졌고 진짜 알게됐어요.
26. 아니요. 그렇게 많이 달라진건 없어요. 후에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취업하고 나서 그때부터 좋아졌어요.
27. 대화가 많아졌다. 나빠지지는 않았죠.
29. 저도 출근하면 아빠도 출근하고 아빠 출근 하면 늦게오고 저는 집에서 자니까, 아침에 잠깐 마주치는 정도. 오히려 더 나아졌다고 할까요.

□ 자유롭게 해줌/방임함

5. 원래 고등학교 다닐때는 엄마가 엄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방임하는 그런식. 제 기준으로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너무 그랬는데. 아빠는 원래 방임이었어요.
7. 학교 그만두고나서 엄마가 좀 더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엄마는 계속 믿어주는 것 같고 아버지는 어렸을 때 말했는데 자퇴하고 나서 말쑥수가 줄어들었어요. 이유는잘 모르겠어요. 실망했나?

- 그런 이야기는 아버지랑 해본적은 없어요. 경제적인 지원은 똑같 아요. 그냥 학생때는 사먹을돈만 있었으면 됐는데 지금은 PC방갈 돈도 있어야되고 그러다보니까 좀 더 달라고 하는데 돈 있을 때 엄마가 줘요. 아버지보고는 달라는 소리 안하고
11. 아버지가 좀 많이 달라졌죠. 제가 원래 진짜 밤 늦게 돌아다녔던적이 한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자퇴하고 나서도 거의 12시를 넘긴적이 없어요. 제가 그걸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아빠랑 그걸 때문에 많이 다투고 그랬다가 올 해부터 제가 성인이 됐고 맨날 친구집에서 자고 그러니까 아빠도 어느순간부터 자유롭게 해주신거죠.
15. 엄마가 좀 프리해졌어요. 저를 보는데. 원래는 좀 엄격했는데 프리해진 것 같아요. 원래 학교 아닐때는 집에 가서 휴대폰을 보면 휴대폰 보지말라고 그런말도 하고 잠만자면 휴대폰도 뺐고 그랬는데 그 뒤로는 휴대폰을 뺐기 보다는 집에 늦게 들어와도 아무소리도 안하고 아무말 안해요.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를 포기한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완전 포기했다기 보다는. 제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포기한 게 아니고요. 네가 뭘 하든지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그런 걸 포기한 것 같아요. 제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고요.
31. 그래도 저를 이해해 주시려는게 있었어요. 전에는 학교 무조건 다녀 라고 하셨는데 제가 계속 학교 안가려고 하고 사고치고 놀고 그러니까 이제는 힘드셔서 부모님이 좀 놓아주려는게 많이 보여요.

□ 사이가 안좋아짐

6. 자퇴하고 나서 부모님하고 말도 안했어요. 말걸어도 무시하고 아버지한테도 혼났죠. 혼나다가 학교 다시 간다고 하니가 태도가 바뀌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은데 내가 공부를 안해서 욕먹고 있어요.
22. 일단 중학교때까지 조금 좋았어요. 엄마, 아빠가 자상하시고 좋았는데 갑자기 2, 3년 전부터 20살 생일이 지나면 네가 성인이니깐 독립하라는식으로 말씀도 하시고 서운하게 말씀하 세요. 근데 형한테는 그런말씀을 안하세요. 제가 형이 있는데 형이랑 저랑 비교를 많이하세요. 기분 나쁘게, 근데 저는 그걸 듣고있어요. 참아요. 맨날, 왜그러냐면 형이 더 잘한 사실이 맞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많이 슬퍼요. 형이 지금 군대를 갔는데 힘든곳을 갔어요. 해병대를 갔는데 형은 이렇게 힘들어도 잘참고 있는데 너는 여태까지 살면서 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때도있고, 그냥 엄마, 아빠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도 감정조절을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고등학교때부터, 왜냐하면 주변에 고민이나 그런걸 털어놓을 사람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었어요. 저도 잘못된 방법이었는데.
14. 제가 7살 때 이혼하셨어요. 어릴때는 많이 맞았어요. 학대수준은 아니고 왜냐하면 엄마가 어릴 때 애기들은 말하면 못알아듣잖아요? 때려야 알아들으니까 어릴때는 맞았어요. 부모님이 이혼하 시고 나서 부유했었는데 이혼 때문에 폭삭망했다는 생각이드니까 어릴때부터 계속 우울했어요. 엄마랑 같이 살 때 엄마가 가장이 됐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엄마가 매일 일 하시고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데리고 사는거지, 나가서 돈만 벌어오시니

질문: 학업중단 전 후 부모님 관계 변화

까.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맞고 커서 그런지 암전했는데 동생은 버릇도 없고 개념이 없어요. 그런거보면 엄마가 미안하다고 항상 그랬거든요. 어릴 때 때리고 키우고 관심 못줘서 미안하다고 지금은 제가 무슨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시고 미안한 마음이 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면 엄마가 이해해주세요.

□ 연락을 끊음

17. 이전에는 엄마 아빠가 공부만 하라고 했죠. 집에서는 제가 컴퓨터로 공부를 하는 것도 1분단위로 체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보통 1, 2시간 하면 보통이고 3, 4시간 하면 많이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집에서는 컴퓨터를 30분하면 많이 하는거였어요. 자퇴후에는 아버지랑 집 나와서 얼굴 딱 한번 봤고, 얼굴 보려고 연락한거 말고 아버지하고 한번도 안했고 형은 지금도 어디서 뭐하는지 모르고 번호도 모르고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저한테 연락이 오는거죠.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때

□ 달라진거 없음.

2. 학업 중단 후에는 별로 달라진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빠한테는 비밀로 했으니까 함격하고 아빠한테 전화했을 때 아빠를 속인게 되잖아요. 아빠는 제가 고등학교 잘다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빠한테 배신감을 드린 것 같기도 해서 아빠가 걸로 표현은 하지 않았는데 좌손함이 지금도 있어요. 학업중단 말고 그 전에 한번 달라진 게기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그걸로 두 분 다 바뀌시더라고요.
8. 똑같아요. 안좋아진 것 도 없고 좋아진 것 도 없고 평소 그대로예요. 저는 고등학교때도 안받았어요. 제가 아르바이트할때는 거의 진짜 안받았어요.
9. 비슷해요.

10. 아니요, 그대로예요. 부모님은 그대로인데 제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12. 달라진거 없어요. 이야기는 원래 많이안해요. 아버지는 그냥 밥시간 되면 밥먹어라, 물어볼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정도인 것 같아요.
13. 알게모르게 바뀐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닐때는 학교만 꾸준히 다니고 대학교까지 가면 좋겠다는식으로 보여졌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부모님이 어떤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다닐때는 크게 다른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때 자퇴를 하고나서 무엇을 할지 의문이 컸던 것 같아요. 길게 쉬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14. 네, 없어요.
21. 아빠랑은 원래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빠랑은 계속 안만난다고 했잖아요. 어릴때는 아빠가 성격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이 먹어서 생각하는건, 밤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까지 일하면 사람이 너무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으니까 그냥 사소한 걸로도 화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릴때는 성격이 왜 안좋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이해가 되요. 어릴때는 싫어했어요. 계속 싫어했어요. 지금도 안좋아요.
28.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어머니가 누나보다 저를 많이 신경쓰는 정도. 비슷하게 신경을 썼죠. 그때 누나도 학생이었고 저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누나도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도 그랬으니까 비슷하게 신경을 썼는데 이제 어머니는 저희누나에게 결혼하라고 하고 저는 아무래도 남자기 때문에 이것, 저것 신경쓸게 많잖아요. 누나에 비해서 저를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질문: 하루 평균 대화 시간

□ 1시간 이내

6. 얘기를 하면 30분 정도.
11. 엄마랑 친구처럼 편해요. 30분. 진짜. 제가 아버지를 많이 무시워 했거든요. 지금도 무섭지만. 이야기를 거의 안해요. 그냥 엄마랑은 잘통하니깐 아빠랑은 얘기를 하면 안성부터 높으시니까 얘기를 잘통까내는거죠. 근데 엄마는 얘기를 꺼내면 들어주시니까 아빠는 좀 별로예요.
13. 30분이상은 안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대화하는 시간만 따지면 10, 20분 밖에 안되죠. 누나들과 오하려 더 많이 얘기하는 편이고, 저같은 경우에는 가족들하고 대화를 많이 안해요. 가족들 간에 말할거리도 없었고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할 이야기

- 가 없고 서로 닫고 있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저는 받고 살았고, 그러다보니까 대화를 안하게 되면서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야기하는게 곱고럽다고 해야되나, 직설적으로 말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할 이야기도 없었고, 부모님도 말수가 없는편 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님과 의 사이는 나쁘지는 않은편입니다. 남들이 보면 되게 좋은편이죠. 말을 안해도 부모님이 아껴주시는건 느끼고 있고요.
16. 10, 20분. 왔나? 밥뭇나? 아니. 밥무라. 뭐있는데반찬? 뭐이런거. 뭐먹었나? 오늘 안힘들었나? 괜찮았다. 재밌나? 이런거.
24.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해요. 잘갔다와. 갔다와서 얘기하고 차고 친구 고민 이런거 다 얘기해요. 친구가 이랬는데 왜이래? 보통 엄마요.

질문: 하루 평균 대화 시간

26. 부모님과과의 관계는 친하지 않다. 많으면 5분.
 27. 대화는 별로 안하고 엄마말 일방적으로 듣고, 시간으로 따지면 진짜 몇 분 안돼요. 10분.
 28. 딱히 중요한 얘기는 안하는데 사생활 가끔, 이래서 어떤일이 있었다. 부모님은 사업 하시니까 오늘 일하는데 이런일이 있었다고 얘기 하시고 저는 그걸 들어주는 편이고 저도 제 생각을 가끔 얘기하는 편이고

□ 1시간 이상

1. 옛날에는 대화를 많이 했는데 엄마가 공장 일을 다니셔서 오면 힘들니까 일방적으로 저 혼자 떠돌고 엄마는 되게 기계적인 리액션... 같이 있거나 얘기하는 시간이 1~2시간 정도.
 2. 지금 아빠랑 있을때는 많지는 않는데 하루에 30분, 밥먹을 때, 엄마랑은 통화로 여러번 나눠서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아빠랑도 잘지내고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랑은 시간이 많은데, 글썄요, 아빠는 바쁘시고 피곤해 하시니까 매일.
 4. 집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저녁에 뭐먹을까요? 밥 먹을거냐고 잘챙겨먹고 다니냐고 그런거 얘기하죠, 회사에서 밥 잘먹냐고 불편한건 없냐고 그런거 얘기하죠.
 5. 사소한 이야기부터 밥 먹었나? 이런것부터, 공부 잘되고있는지도 묻고
 7. 엄마랑 주로 하구요, 보통 1시간 정도
 10. 저녁에 부모님이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 하는 정도, 아니면 엄마가 학원에서 오늘 뭐 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대화해요, 엄마는 하루에 뭐 했는지 많이 물어보고요, 아빠는 일자리 관찮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고 학원도 관찮은 거 있으면 얘기를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12. 엄마한테 얘기하는거죠, 제가 일어나면 엄마, 아빠는 다 일을 가니까 집에오면 6시, 그러면 3, 4시간은 하는 것 같은데
 14. 엄마랑은 되게 친구같은 사이라서 집에 같이 있으면 말은 많이해요, 회사에서 전화도 하고, 친구들한테서 엄마랑 진짜 사이좋다는 얘기 많이들어요, 집안이 막 이상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풍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안 분위기가 안좋은지는 않아요.
 15. 좀 많이해요, 1, 2시간, 엄마하고요, 그냥 대화하는거예요, 아빠는 주말에 대화를 좀 해요.
 18. 만나면 계속 말해요, 1시간 같이있으면 2, 30분정도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TV보다가 이야기도 하고 어디갔다 오면 어디갔다 왔나부터 시작해서 영화보고 왔다고 그러면 영화뭐봤는데 이렇게.
 21. 1시간.
 22. 엄마랑은 엄청 많이해요, 3, 4시간, 2, 3시간은 얘기하는데, 5, 6시되면 뭐 여쭙보고 싶은 것 도 여쭙보고 그러는데 자상하게는 말씀 안하세요, 예전보다는, 그리고 아빠는 거의 말을 안하고요, 보통그렇잖아요.
 □ 상황에 따라 다름
 20. 그건 너무달라요, 근데 서로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분위기를 되게 많이 타서, 술먹고 오거나 하면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아날날은 아예 안하기도 해요, 제가 고민이 있으면 먼저 말을 하죠.
 □ 거의하지 않음/연락하지 않음.
 8. 짧게 주에 4번 정도, 엄마랑, 아버지와는 진짜 한달에 1번 통화하는 정도예요, 집에 가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쪽집으로 가는게 아니고 엄마가 저희집으로 반찬같은거 갖고 올 때 많이 하죠.
 9. 엄마가 늦게 들어와서 별로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요, 식당일 하시는데 밤 10시에 들어오시고, 6시에 나가세요, 보통 피곤하다고 바로 주무세요.
 17. 학교 그만 두고 그러면 부모님하고 관계는 거의 끊어진 상태
 29. 거의 안보내요, 아빠도 바쁘고 저도 약속이 있고, 항상 그랬기 때문에, 원래 저는 가족한테 의지하는편이 아니라서
 31. 안할때가 많아요, 집에서 안자고 사무실에서 자거든요, 집에는 옷갈아 입으려갈때만 가고

질문: 현재친구 유형

□ 학교 다닐 적 친구

1.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대학교 동기들, 교회 언니, 오빠들이랑 동아리 사람들.
 2. 전학가기전에 목포친구들 중학교 동창들 있었고요, 중학교 1, 2학년때 친구들, 서울에서 중학교 3학년때 사귀었던 친구들, 그리고 직업학교에서 만난형들, 이렇게 3부류, 그 외에는 교회친구들이죠.
 3. 예전 운동할 때 친구들- 애들 시험 끝나고 오면 연락 아직도 가끔씩 하는데 전 보다 만나게 편해졌죠, 예전 일반친구들-(초등학교, 중학교) 운동할때도 일반학생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는데 가끔씩 연락해요, 대학친구들- 아무래도 새로 만난 친구들이랑 붙어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더 편한 것 같아요.
 5. 지금은 주로 만나는 친구가 딱히 없어요, 딱 1명, 초등학교때부터 친구라서 그냥 제일 편하게 대할수 있는, 대학교 다닐 때 한 명 있었어요, 자주 만만나니까 연락이 뜸하죠.
 6. 중학교때부터 친구들, 고등학교 복학한 후 친구들, 졸업하고나서 연락 끊었어요.

질문: 현재친구 유형

7. 학교 그만두기 전에 만난 친구들 (중/고등학교동창,검도같이한친구들) 학교종단 후 만난 친구들- 그냥 친구의 친구. 그냥 서로 데리고 와서 놀고 있는데 친해져서 한 무리가 됐어요. 중학교 친구의 경우, 현재 본인의 삶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생각함. *중학교 친구인데요. 오토바이도 훔치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검도도 그만두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놀기 바빴어요. 도망치기도 바빴고, 그러다가 많이 걸렸어요.
8. 주로 최근에 만났다는 없는데 만나면 다 중학교때 친구가 소개시켜준 친구. 중학교때 알던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자기 친구들을 소개시켜준거죠. 지금은 20살이니까 거의 술을 많이 먹죠. 그 전에는 주로 노래방하고 PC방 가고 앉아서 이야기 하고 그런거.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생이고, 고등학교는 나오고 대학교를 안가는 친구는 있어요. 그 친구는 일을 하고있어요. 아르바이트
9.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는 3명 밖에 없어요. 할머니댁 온 한명은 중학교 때 알았던 애고 2명은 중학교때 학원다닐 때 알았던 친구요. 고등학교친구는 있는데 핸드폰 바꿔서 연락이 안돼요. 타지역애들, 타지역에 사는 후배랑 친구들- 그냥 어떤애가 페이스북 친구를 걸었는데 아직 못만났어요.
11. 지금 초등학교 친구부터 초, 중, 고, 이렇게 지금까지 아는 애들도 있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사귀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때 친구들은 같은반도 있고 원래 알던 애들도 있고 그리고 만나다 보니까 새로운 친구들도 알게되고, 새로운 친구들은 친구들이랑 놀다가 친구가 부르거죠. 무리로 하면 9명. 같이 만나긴 하는데 요새는 잘안만나요. 군대간 애들은 갖고 몇 명은 일하느라. 다른지역에 있는 애들도 있고
14. 고등학교 친구들 이고요. 다 집안사정 알고, 끼리끼리 맞아요. 집안이 엄청난 애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철이 든거죠. 공통점이 하나씩 다 아픔이 있는 애들이고 그런 애들이랑 노는거죠. 다 일하거나 학교 다니거나 철든 애들이랑 노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끼리끼리 노는거죠.
15. 초등학교 친구도 있고 중학교 친구도 있어요.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군대 간친구도 있고 10명 되는 것 같아요. 학교 그만두고 새로 만난 친구들은 없어요
16. 자주 만나는 친구라기 보다는 친구들은 드문드문 만나고 남자친구.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는 1, 2명. 친한친구는 중학교 3학년때 만난 친구들 4, 5명. 이 친구들은 2명은 학교를 그만뒀는데 친구 5명 인데 3명은 다 졸업했어요. 1명은 복학해서 졸업하고, 학교 그만두고 만난친구는 1명, 아는 동생도 친구처럼 지내고 아끼는 동생.
18. 중학교 친구들하고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이 거의 20명되는데 청원 내려 갈 때 마다 한번씩은 다 보고 와요. 돈보스코는 없어요.
19. 중, 고등학교 친구들, 대구에 있는 친구들 가끔씩 만나고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거의 안보죠. 예전에 재수학원 다닐 때 알게 된 형들이나 공익 하면서 만난 형들이랑 거의 다 안봐요.
20. 대학교 사람들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만났던 동네친구(중학교)
21. 똑같아요. 중학교 친구, 제가 고등학교를 오래 안다녔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처음에 오면 같은 학교 다녔던 친구들이랑 계속 친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밖에 없고
23. 중학교 1때 학교다니면서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알게된 친구도 있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된

친구도 있어요.

24. 학교 친구들이요. 동네 친구들은 별로 그냥 연락 안하게돼요. 아무래도 지금 가까이 노는 학교 애들이랑 연락 많이하고
25. 중학교 친구 1명, 고등학교 친구 1, 2명. 동아리친구,이런식으로 그게 끝이에요.
26. 중학교때 친구들 학교 그만 두고 사귀 친구는 같은 동네친구랑 종로쪽에 사는 친구. 친구소개로.
28. 중학교때부터 똑같이 보내온 친구들. 학업중단하기 전이랑 후도 만나는 친구가 그렇게 안바뀌었어요. 그냥 가끔 가다가 만나서 노는 친구. 그러니까 동네에서 가끔 봐서 그러면 같이 있을때도 있고 술 친구도 있고 술 먹치고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다 학원시절 친구들 이에요.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중학교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29. 중학교때, 2, 3명. 주말에만 잠깐보니까. 좀 같이 배운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은 잘안만나요.
30.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때부터 알던 친구도 있고요. 10명이면 다. 나쁜 짓은 안 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퇴해서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고 들어서요. 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친구.
31. 지금 주로 만나는 친구들이 회사에 친구가 1명, 후배도 1명. 중학교 친구들부터 동네 친구들.

□ 직장동료

4. 회사 또래 친구들- 요즘 몇 명 들어오기는 해요. 들어오기 시작했어 요. 작년부터 들어오기 시작. 직업학교에서 만난 친구- 저랑 똑같이 취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놀고 있거나 아무것도 안하는 애도 있고 군대 준비하는 애도 있고 중학교 때 친구들은 지금 전화번호가 없어서 연락도 안되고요.
13. 학교다닐 때- 일반적인 평범한 친구들, 학교 다니고 놀기도 하는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 그때 같이 일을 하게된 친구 1명 외에는 학교 친구랑 연락하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일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이거나 제가 PC에서 알게되어서 대화나 이런쪽. 제가 활동 하고있는 쪽에서 좀 친해진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편입니다. 게임이면 게임속에 분류되어 있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관련. 또 제가 아는형님이 개인방송을 하시는분 인데 거기에서 관련되어 있는분들 하고 그렇게 두 가지
17. 지금 친구들은 저와 비슷한 환경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또래의 사람들. 노동운동하거나 그래도 제 또래가 좀 있으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거의 대부분 만났죠. 학교때 친구들은 지금 거의 다 연락이 끊겼고요. 한 명 정도 연락 할까 말까

□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

10. 중학교때부터 같이 학원 다니던 친구들 대부분 학교 그만두고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 (직접 만난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음)
27. 중학교때 친구들은 오래전에 끊겼어요. 연락을 안하게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들이랑은 전혀 안만나요. 학원 친구들은 학원에서 잠깐 얼굴보는 정도. 따로 학원을 나와 얘기 하지는 않았어요. 같은 게임에서 만난 친구랑 가끔 연락만 하는 정도

질문: 현재친구 유형

☐ 거의하지 않음/연락하지 않음.

12. 안만나요. 만나자고 하는데 싫다고 안만나요. 그냥 나가고 싶은 것 도 있고 자랑을 하잖아요. 자기들은 뭐했고, 대학갔다.

그러거 듣기도 싫어서. 만나지 않고 그냥 톡으로 자주는 안하고 일주일에 1번.
22. 없어요. 고등학교때 경기도 일산 쪽 학교를 안다녔기 때문에 애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놀러나가는게 부러워요. 또 동아리친구들

질문: 학업중단 전 후 친구 변화

☐ 관계가 멀어짐

1. 학업중단전에 만난친구들이랑 지금 만난 친구들이 큰 차이가 있어요. 대학 동기들은 그냥 대학동기. 그러니까 마음속의 깊은 얘기는 안하고 방학때도 만나자고 얘기만 하고 안만나고 학교 다닐때만 급친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중학교때 친구들 만날 때처럼 기쁘지는 않아요.
4. 중학교 때는 운동만 생각해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학교 끝나면 바로 체육관에는 가서 운동했어요. 체육관은 제 또래가 별로 없었구요. 지금은 보통 회사 친구나 직업 학교 친구들 이랑 놀죠.
5. 원래는 대인 관계가 괜찮았는데 엄마랑 이빠랑 이혼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만나는걸 별로...
9. 핸드폰 바꾸면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연락을 다 끊었어요. 그냥 계속 남자 친구 소개해달라고 해서 짜증나서 끊었어요. 남자 친구한테 말해서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23.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연락은 매일하는 사람도 있고 한달에 1번 정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친구는 줄어든편이에요.
25. 최근 3개월동안 많이 만났고 전에는 거의 안만났어요. 남자친구 말고아니예요.
29. PC방, 술, 노래방 정도. 거의 술 이간한테 요새는 술도 잘안먹어서 노래방, 모르겠어요. 인생의 권태기 같아요.

30. 예전 친구들은 지금은 다 절교를 했다고 볼 정도로 아예 안만나요. 배운애들도 아니고 말이 안통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애들 무시를 안하려고해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 정말로 무시하 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만나 게됐죠

☐ 더 좋아짐

3. 인간관계가 학업중단전 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냥 운동했을때는 친구들이 약간 경쟁이거든요. 경쟁속에서 살아남아야되고, 이 사람을 이겨야 내가 인정을 받는건데 사회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선배도 많고 후배도 많고 그러니까 사회 생활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좀. 이제 경쟁을 안해도 되니까 편해진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대하는게. 예전에는 예민했었는데 이제는 안그렇고. 그냥 운동한 친구들은 제가 운동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한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네 앞에서 좀 뽕뽕하고 싶어서 솔직히 열심히 공부할한 것 도있어요. 나는 이렇게 운동을 그만두고도 열심히 한다고 뽕뽕하게 하려고 했는 데 개네는 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친구들이 더 편해요.

질문: 학업중단 이후 만난 어른 또는 기관

☐ 인터넷

30.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 인터넷 같은곳에서 제 고민같은걸 말하고 이걸 풀어줄 사람. 그렇게 돌아서 만나서 고민상담같은 것 도 하고 이런데서 제 의미같은 것 도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아는 지인

1. 엄마 친구. 평생 만났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이모가 절 많이

봐줬는데 엄마가 일을 다니니까 이모가 저를 데리고 많이 놀러도 다녔죠. 찜질방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네.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 전 엄마한테 말 못하는 것도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 상처 받을 까봐 말 못하는 것도 이모한테는 많이 해요.

26. 아는 지인 분 아버지.

☐ 학교/학원 선생님

질문: 학업중단 이후 만난 어른 또는 기관

3. 부모님과 검정고시학원 선생님 이외는 없어요. 외부기관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4. 돈보스코직업학교라서 천주교쪽 인데요. 그 쪽 신부님들이나 아니면 삼촌이요. 또, 도움을 준 사람들은 많죠. 학교 선생님들이나 직업학교 선생님들 이나 직업학교 같이 다니는 사람들중에서도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군대 갔다온 형들도 많아서 취업하면 뭐가 힘들고, 혼날 일도 많다고 그런 것 도 많이 얘기 해주시고
14.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상담선생님이랑 학원강사선생님이랑, 학교 그만두고 도움이 됐던 어른은 모르겠고 알게된 어른들은 많죠. 백화점에서 같이 일한 소장님, 주인님, 다 어른이죠.
18. 미술 학원 선생님
20. 고등학교때 음악 학원 선생님 되게 좋은분 이었어요.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고 음악적인 얘기하거나 인생 얘기 많이하죠.
22. 중 2, 3학년 때 제가 미술치료를 받았었어요. 그 선생님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
23. 작년에 교회에서 만난 선생님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저 자신을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편 이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람이 성격이나 삶의 자세를 보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작년에 학교 영어선생님 이셨던분 인데요. 그 선생님은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능력이 굉장히 많은 분 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야로 다양한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그걸 내걸로 만들어서 다른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성 자체가 내가 더 많이 포용하고 그런분이셔서 정말 멋있다. 라고 생각한건 그 선생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24. 두드림에서 검정고시 준비하려고 할 때 3일인가 무료로 봉사해주는 대학생 언니들이 있어요. 공부 알려주는 그런거했었어요. 또 기억나는건 과외 이모밖에 없어요.
25. 동아리 선생님
27. 입시 미술학원 다닐 때 선생님이 여러명 있었거든요. 담임선생님 이라고 해야 되나, 애들 전담하는 분이 저하고 대화를 시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학원에 며칠 빠진적이 있거든요. 근데 왜빠졌냐고 그때부터, 제가 아무말 안하고 있는데 계속 기다려주시고...

근데 전 그게 불쾌했어요. 다가오려고 하니까
29. 없어요. 어른을 워낙 불편해해서 예의는 갖추는데, 나눔 기관선생님 중에서 방민정 선생님이라고 차장인가. 지금은 장인데 결혼을 하고 임신하셔서 아직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을 많이안 해서, 잘챙겨주셔서, 동아리 활동할 때, 그래서

□ 아르바이트 사장님/ 동료

2. 아르바이트 고용해주셨던 서울 전단지 과장님. 제 인생의 첫아르바이트였고 과장님이 첫아르바이트인데 많이 사회생활도 알려주시고 시간 날 때 마다 같이 밥도 먹고 많이 챙겨주셨어요. 바쁘신데도 일부러 해주시고 일도 빠주시고
8. 키즈카페 할 때 같이 일한 형. 제일 잘챙겨줬던 것 같아요. 놀러가면 맛있는것도 사주고 같이 있어주고, 제가 집에 못들어갈때도 같이 밤새주고 그랬거든요.
11.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사람. 교회 사람들 대부분 밖에서 만난거는 제가 알바하면서 만난분들이고 또 제가 자퇴하고나서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 쪽에서 거의 2, 3달정도 다니다 보니까 그 쪽분들 이랑 또 정이 들게 되거죠.
13. 게임 방송하는 아는 형
15. 치킨집 사장님
16. 점장님, 사장님.
31. 현재 퀵서비스 사장님

질문: 어른 또는 기관 만난 계기**□ 일하는 장소**

2. 아르바이트
8. 아르바이트에서 만남
13. 게임방송도 하고 그분도 상담방송을 주로 하는분 이라서 주 콘텐츠가 그거라 그 형님을 알게됐어요. 상담이나 게임이나 포괄적으로 콘텐츠를 하는 분이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임팩트있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제 생각의 범위 밖에서요. 그 형이 나이가 좀 있다보니까 배울점이 많다 생각해서 좋아하게된 계기도 있었구요. 친해지고 싶고 배울점도 많은 것 같아서 잘따라다보

니까 친해졌고 그래서 간간히 만나서 밥도 먹거나 그 쪽 관련된 지인분들 하고도 친해져서.
26. 일을 부탁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했었어요.

□ 소개

1. 엄마
4. 엄마랑만 알고있는 삼촌이었는데 그 때 그 삼촌이 엄마한테 얘기를 해줘서 저한테 얘기를 한거죠.

질문: 가장 의미있는 사람 및 이유

□ 가족

1. 가족, 그냥 요즈음 되게 마음이 인간 관계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이지는 않아서 어차피 재네도 친구들을 생각할 때 어차피 재네도 그냥 잘 지내면 되지, 이런 마인드, 내 노력을 들여서 엄청 잘 지내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가족 말고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2. 어머니, 제가 결정을 어려서 못할 때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결정력을 실어준 사람,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딱 길을 제시해 준 사람, 마냥 어머니 존재 뿐만 아니라 옆에서 같이 고민 해주고 그랬어요.
3. 저네 그 고민을 잘 털어 놓지 않아요. 부모님 외에는.. 그 중에도 엄마..
4. 엄마가 제일 중요하죠. 제 부모님이니까
6. 어머니, 제일 편해요. 제일 말하기도 편하고 얘기도 잘들어주고 어머니도 아는건 많으니까 모르는거 있으면 물어보고
7. 어머니
11. 일단은 부모님이죠. 그리고 형제, 마지막 세 번째는 친구. 부모님 보다는 친형, 형이 저보다 사회생활을 많이 해봤으니까 형의 조언을 더 참고 하는 것 같아요.
12. 엄마죠. 그냥 옆에 있는 거
13. 가족, 그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
15. 부모님이죠. 부모님 생각하면 힘이 난다고 할까요.
16. 아빠, 가족이니까, 할머니는 솔직히 큰 아빠가 돌봐도 되는 부분이고 작은 고모나 큰 고모가 돌봐도되는 부분인데 굳이 우리가 돌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불효이긴 한데 솔직히 할머니가 맨날 욕하고 나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돈달라고 그러고, 돈달라고는 아빠는 안하거든요. 아빠는 너가 쓰라고 얘기하는데 할머니는 돈얼마벌었노? 얼마있노? 이런식으로 해버리니까 그게 너무 싫은거예요. 근데 정작 고모들은 할머니한테 돈 한푼도 안주고 내가 다주고 아빠랑 자랑 다하는게 너무 싫은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건 아빠. 아픈데 일 계속 하니까
18. 가족, 그냥 가족자체.
20. 저는 무슨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23. 제 동생이요. 저는 저희동생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아이를 보면서 깨닫는 것 도 많고 물론 동생이니까 철부지 같은면이 있지만 저를 지탱해주는 항상 응원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도 계시지만 동생이랑 친한편 이라서 그런지부 모님이 엄마, 아빠 죽으면 너희 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동생은 둘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25. 엄마. 근데 뭔가 시간이 갈수록 이해되는, 근데 원래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미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에피소드가 저도 있었는데 지금은 10가지가 있었다면 그게 다 없어졌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되게 연민도 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미운 부분이 없어요.
26. 부모님, 키워주셨으니까
27. 가족, 그 중에서도 언니. 당장 엄마, 아빠죽고 나면 언니만 남으니까
28. 당연히 첫 번째로 어머니죠. 일단 엄마잖아요. 친구들은 많을수 있어도 부모는 한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째는 어머니 라고 할 수 있고 가족이 1순위죠. 누나도
30. 부모님하고 이모님, 제가 아플 때 병수발을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

□ 애인/친구

9. 남자친구(2014년도부터만남, 친구의친구소개) 남친이랑 말을 많이 하니까 남친. 그냥 힘들 때 위로를 해줘서 언니문제로 위로를 많이 해줬어요.
10. 제일 중요한거는 가족이나 여자친구나 다 중요하죠.
29. 중학교때 친구들, 서로 같이 자고 진짜 맨날 만났어요. 하루도 안빠지고
31. 전 여자친구나 부모님, 가족.

□ 애인/친구

5. 없는 것 같아요.
14. 없는 것 같은데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다 중요하고 소중하죠. 왜냐하면 진짜 친한사람만 지내니까 소중하지 않았으면 안눌랐겠죠. 소중하지 않으면 알고도 안친했죠.
19. 딱히 생각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친하다고 하면 대구에 있는 친구들.
21. 저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저라고 밖에 얘기를 못하겠어요.
24. 아... 강아지, 제 강아지, 두 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질문: 하루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

□ 3시간 이상

8. 거의 하루종일 같이 있는 것 같은데, 12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 일정이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면 밥 먹으면서 핸드폰 무조건

보고요. 또 잠들면 다시 일어나서 핸드폰 계속 봐요. 그래서 12시간은 되는 것 같아요.

11. 일 안할때는 거의 10시간? 12시간 일을 하고 있으면 별로 안쓰는데 이렇게 쉬는날이면 계속 붙잡고 있어요. 잘 때 빼고

질문: 하루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

- 계속 붙잡고 있죠.
15. 4시간, 5시간.
16. 4시간.
22. 5시간.
24. 6시간, 음악 듣고
26. 3시간. 출근할 때와, 퇴근하고 집에서
27. 4시간은 되는 것 같은데
28. 5시간 정도. 보통 게임 하고 있으면 잘 확인은 안하는편인데 좀 걸어다닐 때, 아무것도 안할 때, 밥먹을 때는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하죠.
29. 6시간.

□ 많이 사용

2. 많이 사용, 주로 이동할 때, 틈날 때 마다 지하철 탈 때도 있고 뭔가 좀 가만히 있어야 될 때, 기다려야될 때
3. 많이 사용
13. 무엇을 하고 있지 않으면 핸드폰을 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4. 시간날때마다 보죠.
23. 자주 사용하는 편이지만 집착하지는 않음
25. 일할 때 빼고 심지어 저는 강의도 인터넷으로 보니까

31. 하루종일.

□ 3시간 이하

5. 엄청 많이, 2, 3시간. 학교가 멀어서 자지 않는 이상 게임을 하니까
7. 2, 3시간.
9. 2, 3시간. TV에 빠지면 핸드폰을 안봐서
17. 하루에 2시간.
18. 하루에 2, 3시간.

□ 적게사용

4. 일 할때는 거의 안써요. 회사일로 전화하는 것 만하고 거의 안써요. 일이 많아서. 쉴때는 조금 쓰죠.
5. 지금은 많이 안써요. 공부 하느라고
10. 폰은 거의 안써요.
19. 별로 사용하지 않은 편임
20.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하고 필요할때만
21. 거의 안써요.

질문: 스마트폰 주 사용 용도**□ SNS**

4. 페이스북 보거나 카톡하거나
7. 페이스북이나 문자, 전화
9. 주로 페이스북 보고 카톡
10. 카톡 밖에 없어요. 전화하고
12. 검색하거나 노래 자주 듣고 카톡하고 게임하고, 카톡은 주로 게임에서 만난 언니랑
14. SNS보고, 근데 저는 보기만 보고 활동은 잘안해요. 글을 쓴다든지. 남의것만 보고, 그래서 딱히 하는게 아니라 그냥 보는거죠. 할게 없으니까
15. 페이스북 보고 여자친구랑 연락하고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17. 페이스북이랑 웹툰을 보죠.
18. 페이스북, 카카오톡.
21. 스마트폰 웹툰 볼 때랑 친구랑 카톡할 때, 사전찾을 때
22.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주로 게임 같은거, 근데 저는 이상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엄마가 항상 쥐고있다고, SNS는 70%되고요. 게임은 30%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 SNS구경하고 인스타 카페 커뮤니티 같은거, 잡다한거 쓰잖아요. 자유게시판에, 그런 글 의미 없이 읽고 쇼핑물도보고
26. 페이스북, 게임같은거
28. 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게임은 어쩔 때, 한번하면 계속하는데 금방 질려해요.

31. 카톡, 여자친구하고 페이스북, 콜 이런거.

□ 미디어 시청

1. 일드나 영화 볼 때가 아니면 보면서 많이 해요. 게임, 그리고 카톡하고
6. 요즘에는 유튜브 밖에 안봐요. 많이 본건데 케익 만드는거나, 어디 회 뜨는지 그런거 부위 보고 한 번씩 토목장인들
8. 연락이랑 카톡 같은거, 방송보는거 개인방송하는 사람들 볼 때
11. 일단 못봤던 드라마도 보고 애들이랑 카톡으로 대화도 하고
13. 주로 유튜브 시청합니다. 그냥 재밌어보이면, 흥미가 있으면 다 보는편입니다. 동영상 많이 보는편입니다. 이걸봤을 때 내가 관심을 갖거나 내가 관심이 있고 이걸보면 재미가 있는 지루하지 않은 그런 동영상들을 많이 봅니다. 게임이나 뉴스나 아니면 우주라든지 재미있는거, 이런 좀 흥미롭네, 이런건 다 보는편 이예요. 시간 때우기용으로 보는거고요.
16. 드라마. 카톡은 많이해도 30분 안될걸요.

□ 학습

23. 카톡하거나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단어를 찾아보거나 글 같은 거 읽거나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브런치라는 앱이 있는데

질문: 스마트폰 주 사용 용도

거기에 여러사람들이 글을 써서 올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적으니까 그런걸 통해서 여러사람의 생각을 읽으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 음악 2. 음악 듣거나 모바일 게임, 길찾기 5. 음악을 제일 많이 들어요. 20. 지도 보거나 네이버 검색, 음악 듣기 24. 음악 듣고 전화, 문자밖에 안해요. 페이스북도 비활성화 했어요.	2학년때부터 안해요. 귀찮아서 □ 음악 3. 남자친구랑 카톡도 하고, 게임이랑 드라마를 몰아보기 하고 있죠. 19. 폰게임, 인터넷 서핑도 가끔 하고 (디씨갤) 27. 요즘은 게임 (2시간 정도)
---	---

질문: 하고 있는 게임 내용 및 시간

□ 모바일 게임 1. 바운스랑 카카오 게임도 하고 2. 몬스터 넷마블 9. 프렌즈팝. 12. 애니팡, 쿠키런. 22. 모두의 마블, 1, 2시간 정도. 컴퓨터 게임 가끔씩 하는데 PC방가서 하는데 피파클라이딩 가끔씩하고 31. 스마트폰은 섰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 롤(리그오브레전드) 5. 학교 다닐 때 휴대폰게임은 했었는데 지금은 안해요. 예전엔 롤게임 잠깐 했었어요. 하루에 3, 4시간 정도. 친구가 전화 오면 같이 PC방에 가거나 아니면 혼자 있을때는 집에서 하고요. 7. PC방에서 롤게임, 짧으면 3시간, 많으면 5, 6시간. 8. 리그오브레전드름. PC방에 가서 하죠. 핸드폰으로 안하고, PC방에서는 저녁 12시쯤가면 6시니까 6시간정도. 11. 폰게임은 잘안해요. 롤게임은 많이 하면 4, 5시간 하고 있으면 애들이랑 같이 하니까 일단 즐겁고 그리고 그 게임이 제가 크게 되면 또 거기서부터 기분이 좋은거죠. 14. 컴퓨터로 하는건 하는데 휴대폰으로는 안해요. 롤도 하고, 저는 매일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할시간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니까 할 시간이 없죠. 근데 가끔가다가 쉬는날이라든지 너무할게 없으면 게임도 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안해요. 15. 폰 게임은 잘안해요. 롤은 4, 5시간 해요. 16. 일주일 평균하면 하루에 2, 3시간 정도. 외박하면 PC방요, PC방에서 계속 게임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하루를 꼬박 새는거죠. 리그오브레전드나 아니면 오버워치, 롤 아니면 서든어택 이런거. 요즘 핫한게임이 오버워치인데 18. 롤 게임하루에 1, 2판 정도해요. 한판에 1시간반 정도. 게임은 오래안해요. 딱히 그런거는 모르겠고 그냥	28. 오버워치나 롤, 2, 3시간. 요즘은 책이 60%정도로 게임이 40% 29. 롤 게임, 1시간 정도. □ 오버워치/서든어택 6. 한번씩 시간날 때, 3시간 정도, 서든어택 13. 모바일 게임은 하나도 안하고요. PC게임은 오버워치, 블랙스쿼드, 지금은 아정도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했던거 3개만 꼽자면 롤은 많이 안했었고요. 주로 카스, 그록, 카운트스트라이크, 클옵오브페시브, 아니면 어세신크리드. 좋아하는 이유는 총을 쓰는 것 외에 어려운건 없잖아요. 그대신 RPG라든지 아니면 롤 같은 경우에는 이것 저것 알아보고 공부해야 되는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게 마우스 클릭으로 게임을 끝낼수 있는걸 많이 선호를 했던 것 같아요. 20. 오버워치나 서든어택. 그냥 처음에는 억지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하면하고, 안하면 안하고 26. 오버워치. 많이하면 4, 5시간. 세븐나이츠, 그만두기 아까워서(3년동안하고있음) □ 기타게임 17. 게임은 하루에 2, 3시간 정도 하고요. 주로 접속해서 게임을 한다기보다는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랑 채팅을 하죠. 19. 밀리언아서, 그렇게 오래는 안하는 것 같은데 1시간. 27. 컴퓨터게임은 1시간반, 2시간 안돼요. 일단 짧은 시간에 목표를 달성하고 보상이 떨어지니까 좋아해요.
--	---

질문: 평소 자신에 대한 만족도 및 이유

□ 만족함

2. 나름 만족하고있어요. 예전에 생각했던 막연함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때 생각했던 것 보다 뛰어넘은 것 같아요.
3. 70점.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해요. 모든걸, 제가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근데 성격이 안좋아요. 좀 예민해서 가족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잘못해요. 약간 툴툴되고 화도 잘내요.
4. 지금 만족하는데요, 저는.
6. 저는 100%.
10. 현재생활은 대체적으로 만족해요. 일단 제가 하고싶은걸 할 수 있고 그냥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워요. 확실히 보장된건 아니니까 불안한 것도 있는데 그건 괜찮아요. 저 스스로는 보통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제 주관을 가지고 사는 건 만족스러운데 조금 하려는 목표를 질질 끌고 게으르게 하는 게 불만족스러워요.
15. 만족스럽다.
18. 만족스럽다.
22. 그냥 생활하는건 100% 만족하고 있고요.
27. 자신보다는 이 상황이 만족스러워요.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게. 현재 생활은 굉장히 만족스럽긴한데 언제까지 이럴수있을까 불안감은 있죠. 평생 이렇게 놀고만 있을수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하는데 그럴능력은 되나, 능력이 안되면 노력을 해야되는데 지금 그러고있지 않으니깐 .

□ 보통

1. 절반. 일단 너무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있는 공부나 이런 거는 좋은데 그 외에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라 잘 지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원래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얘기를 안하게 돼요. 그냥 같이 있는 거지 관계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50%.
5. 그냥 보통. 일이 제가 남들보다 늦어서 그게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9. 귀찮은게 너무 많아서 보통 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안해서 귀찮아서 그래서 할머니가 어디가자고 할 때 귀찮다고해서 만족하지 않다고 한거예요. 고등학교 그만두고 그 이후로 바뀐거 같아요. 그래도 현재생활이 답답한거 말고는 크게 불만은 없어요.
11. 지금 생활에 불만은 없어요. 적당한 것 같아요. 그냥 놀때는 놀고 일할때는 일하고, 그걸로 일단 만족을 해야죠. 더 벌려고 욕심부리면 또야 브라이트를 구해야 되니까 그 자리를 잡아서 꾸준히 해야지. 본인 만족도는 딱 보통이에요.
19. 만족감있어요? 지금은. 지금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도 아니고 하다못해 근무라도 편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20. 딱 그때 생각했던 것 들은 다 이뤄졌었죠. 별거 아니었는데 일단 검정고시 불지마자 바로 대학에 입학하는게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그거는 이뤄졌으니깐 근데 앞으로 하고 싶은게 많아서 저한테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회사 기획사 문제도

있고 제 실력에 대한 부정도 있고 그런 것 들이죠.

21. 제가 진짜 수능을 잘 봐서 의대에 붙으면 100%
28. 50%정도요. 게으르다. 좀 그런게있어요. 약간 체형적으로나 몸이나 그런것에 대해서는 딱히 신경을 안쓰는데 정신적인 부분에서 게으르고 귀찮고 그런 부분이 제일 마음에 안드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현재생활은 지금은 만족스러워요.

□ 만족하지 않음

7. 아니요. 제 멘탈이 마음에 안들어요. 일도 오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꾸준히 인내심이 없다고 할까요. 꾸준함이 없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8. 100점으로 보면 60점정도. 제가 하고싶은게 있는데 전셋집이나 있는데 아직 제가 그걸 실천을 안해서 점수를 낮게 줬어요. 지금은 일을 쉬고 있기 때문에 실천은 아예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 지금 생활은 불만족해요. 생활 패턴이 늘 늦게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냥 게임하고 늘 그렇게 있는게 좀 안좋은 것 같아요. 저에 대한 만족도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전혀 만족스럽지않다.
13. 30점. 4년 동안하고싶은걸 못찾았다는 불안감을 한편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걸로 드러내지 않고 내 직업에 만족하고있단 식으로 남한테 보여줬었는데 이제 군입대 기간이 가까워 질수록 불안감, 초조함 이렇게 두드러졌죠.
14. 만족하지않는다. 성격이 이상하잖아요. 약간 조울증환자 같아요. 기분이 좋다가 확 안좋아져요. 할 수있으면 할 수 있는데 왜 안할까요? 귀찮은게 너무 싫어요. 귀찮아하는게 너무 심해요.
16. 내자신... 어느 부분에서는 만족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만족을 못하죠. 2, 3점. 어떤일을 하는거, 부모님한테 잘하는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불만족스러운건 어렸을 때부터 다지고 다지고 올라왔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까지는 안됐을텐데 왜 내가어렸을 때 못살아서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됐나. 이런거에서는 불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학교를 그만둔건 단 한번도 후회한적이 없어요. 그런 학교 다닐바에 차라리 그만두는게 나으니까. 생활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17.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딱히 생활하면서 자기관리가 별로 잘 안되는것같아서요. 넌 왜그렇게사니? 스스로에 대한 질문들을 자주 해요. 생활에대한만족도- 지금은 만족스럽기는 하죠. 지금 사는게 딱히 불편하거나 이런건없어요.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도하고 다른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된 케이스라서 그런건없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깐요.
23.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연습하는게 나를 받아드리고 사랑하는거. 자존감을 높이는 연습을 하고있는데 그거에 따르면 지금 저에 만족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보다 학업 수준이 떨어지는건 사실이잖아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얼마전에 제가 겪었던일이 너는 이게 기본인데 그것도 몰라? 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한번도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질문: 평소 자신에 대한 만족도 및 이유

않았거든요. 저는 그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지식이 없는게 그렇게 받아드려질수 있구나. 내가 이게 많이 부족하다고 요즘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채워야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만족할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에 대해서는

24. 6점. 못생겼고 공부 못하고 몸매도 별로고

25. 2, 30. 중학교 때는 높았거든요. 8, 90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그래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있으니까 30은 쥐도 될 것 같아요. 부모님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으니까

26. 보통은 아닌데 조금 아래. 진로선택이 약간 혼란스러운. 일단 제일 중요한거는 선택도 못했다는 거고

29. 4점. 아니, 그러니까 5점 만점에 4점 정도, 80점. 제 외모, 신장, 좀마르고 작으니까 그것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 생활은

생각해본적이 없어요. 불만은 없는데

30. 절대 불만족해요. 저는 이 상태에서 더 나아질방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지금도 솔직히 제 부모님, 낳아주신 부모님을 봐서라도 치료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계속 이런 나쁜 생각이 드니까요. 그걸 또 치료받을 동기도 없고

31. 현재생활만족도- 전혀만족스럽지 않아요. 돈이 안모이니까 계속 쓰기만해서 돈이 계속 그날그날 제가 버는대로 들어오는데 제가 저금을 못하는거예요. 돈을 들고 있으면 그 다음날 돈을 다 쓰고 없어지니까 차라리 월급으로 받으면 쓸만큼만 빼고 그러면 되는데 그 날 바로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조절이 안돼서

질문: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및 이유**□ 가치 있음**

2. 제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필요하나요? 이유가 필요없는데

4.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만족하는 편이에요.

6.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는 내 생각으로는 다 만족해요.

14. 가치는 있죠.그렇다.

16. 나는 완전 가치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1. 가치 있음

22. 보스코때 부터 상담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께서도 저는 비록 몸이 조금 불편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기계를 잘만지니까 좋은 기술자가 될 수 있을거라는 소리를 듣고나서부터 저는 제가 절대 세상에 필요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23. 저는 면이 아니라 모든사람이 가치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4. 저 정도면 쓸모있다고 생각해요.

26. 네.

29. 가치가 매우 높다. 근자감이 많아서

□ 가치없음

1. 저 없어도 잘 돌아가지않을까요? 있으면 더 좋아질까요? 딱히.

5. 어느정도. 혼자있는 기분이 더 커요. 혼자 있으니까

12. 없는 것 같아요. 최근들어서. 그냥 집에만있고 하는게 없으니까

13.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딱히 뭘하고 있는 것 도 아니고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준비단계라서 지금은 딱히 점수를 매길단 계는 아니라고 봐요.

27. 가치가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특별하지는 않고 나만큼 하는 사람들은 많을 테니

31. 그렇지않다. 그냥 제가 상황이 급한데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것도 못하고 어떻게든지 되겠다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빛도 쌓인 것 같고 돈도 안모이고 집에 돈도 못드리고

동생 용돈도 못챙겨주는 것 때문에, 자기관리를 잘 못하니까 만족스럽지 않아요.

□ 보통/모르겠음.

3. 글썄요. 아직까지 잘모르겠어요. 직업을 가져보면 알 것 같아요.

8.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껴본적은 없어요.

9. 보통.

10. 가치가 있고 싶는데 지금은 보통인 것 같아요. 그냥 방송을 하는 것 도 제가 하루 알바 힘들게 하고 와서 자기전에 유튜브로 방송하면 기분좋게 잠들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11. 그것도 보통. 항상 제가 기가 죽어있는거는 마음에 안들어요. 제가 자신감이 없어요.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부터 제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주눅들게 되고 학교다닐때도 그랬어요. 항상 웃고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없는데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주눅들어있다고 자신감이 없다고...

15. 보통이다. 일단 뭐든지 못하는게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불만스러운건 중졸이라는거

17. 아니요, 그거는 별로. 저도 다른 사람들이랑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부족하기 보다는 그런거죠. 다른 사람들 만큼의 가치가 있는거죠. 누구 하나가 뛰어나기 때문에 저 사람의 가치는 100이고 나는 고등학교 중퇴를 했기 때문에 가치가 30정도 밖에 안된다는게 아니라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들의 가치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18. 아직은 잘모르겠어요.

25. 내가 의미 있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의미 있게. 근데 친구가 그랬었어요. 삼수인가. 하고 있는데 공부를 잘 안 해요. 대학 가면 어디 갈 거야? 그랬더니 나는 생각 없어. 나는 그냥 그냥 저냥 살 거야. 그랬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되게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렇게 하면, 나는 그냥 저냥 살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질문: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및 이유

창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의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고 내가 보완해서 살면 의미가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가? 가치가 없어도 되는,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질문: 주변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지 여부**□ (있음) 가족**

2.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순위로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도 이제 생각을 열고 계시고 그 외에는 저를 좀 알바생이 아니라 동생으로 봐주는 알바 사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사람복이 있는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 마다 착하세요.
12. 엄마가 이해해주죠.
24. 엄마도 있고 일단 가족, 친구 몇 명.
26. 친구랑 부모님. 잘챙겨주고

□ (있음) 애인/친구

3. 남자친구와 부모님 그것도 아빠한테는 잘못하고 엄마한테는 잘 얘기하는편 이예요.
7. 여자친구, 그냥 친구의 친구로 고등학교 2학년때 만났어요. 여자친구는 대학교 다니다가 지금은 잠시 휴학중 이예요.
10. 여자친구는 저를 편견없이 봐요. 대부분 일상에서 만나는 서로 들은 편견을 가지고 보고 인터넷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편견없이 보는편 이거든요. 그냥 학교 안다니고, 창작활동 한다고 하면 인종계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외할머니도 작업 안가지고 음악하면 안좋다고 하기도 하고 엄마 외사촌오빠인지 그 사람도 계속 저한테 대학교 가야되고 직업도 가져야 된다고 전형적인 그런거 있잖아요. 좋은 대학 나와야되고 그런것들, 저한테 자주 너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14. 친구들은 다 저를 이해해줘요. 엄마도요. 제 주변사람들은 다 저를 이해해주죠.
15. 친구가 잘 이해해줘요. 부모님보다도 더 이해를 잘 해 주는 것 같아요
18. 친구들하고 부모님.
19. 친구들이 저를 이해해주는 것 같긴한데, 제 얘기는 잘 안해요.
21. 그냥 친구, 동생, 그냥 그렇게.
29. 친구, 저도 얘기를 들어주지만 친구들도 제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책을찾 는거.

□ (있음) 선생님

22. 별까페라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돈보스코 직업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전부 다 좋아요. 다닐때는 안좋다고 두 분이 안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분들도 졸업을 하고 나니까 좋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가끔씩 연락도 하시고

□ (있음) 직장동료/사장님/기타

4. 제일 친한사람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아닐까. 서로 믿고 일하는 동료니까요.
8. 어머니랑 키즈카페에서 같이 일했던 형. 제가 자퇴한 거 이야기 했었는데 그럴수도있지,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9. 이해해주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잘안하니까 특별히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17. 지금 일하는 단체에 활동가 분들이나 아니면 비슷한 다른 여성단체에 제가 친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 분들이나 주로 같이 활동을 하는 분들 이예요.
27. 많지는 않아요. 아는 사람자체가 적으니까 지금까지 만난사람들은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28. 많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있다고는 생각해요.

□ (있음) 직장동료/사장님/기타

1.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이해 받고 싶지는 않은데
6. 따지고 보면 별로없는 것 같은데,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친구들은 얘기를 잘안들어주는 애들이라서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 한다고 다른길로 새버리니까.
13. 개인적인 얘기는 잘안합니다. 제가 고민이 있어도 혼자 풀어보려고 하지 그걸 남한테 도움을 받는건 잘안합니다. 제가 어렸을때부터 생각을 많이하다 보니까 남 한테 도움을 받을 정도로 큰 일이 아니면 내가 완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에 대해서 남이 손을 봐주는 것 외에는 따로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낸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들어 직장생활을 할 때 안좋은점, 고쳐야 될 점 같은 경우에는 아는형님들이 잡아주고 알려줘서 그걸 참고를 해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그 외적으로 개인 고민정도는 다른 사람들 한테 얘기를 꺼내 본적은 없습니다.
16. 이해를 해주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 한테 감정을 숨기는 편 이라서. 얘기를 하면 떠날 것 같아서요. 아무리 친구라도 이건 아닌 것 같으면 떠나잖아요. 그럴 것 같아서
30. 없습니다. 예전에는 1, 2명 정도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그냥 제 성격이 저 좀 잘 이해하고 잘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 도 싫어하는 성격이고요
31. 모르겠어요. 그냥 이유는 모르겠어요.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질문: 우울한 기분 들 때 있는지 및 이유

□ (우울함)현실적/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10. 학교 다닐 때 심했구요. 지금은 군대 때문에. 그것만 아니면 진짜 다 괜찮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계속 우울증이 있고 그래서 군대에서도 요즘 총기사건도 많고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걸 보게 된요. 그래서 공익으로 갈 수도 있고 군대에 갈 수도 있어요.
11. 많죠. 아주 크지는 않는데 알바지리를 구해야되는 것 도스트레스 받고. 언젠가 군대가고, 사회생활도 하고, 한번씩 가끔 생각은 하죠. 커서 뭐될까? 이런식으로 그것 때문에 계속 우울해지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계속 받아요.
20. 네. 그냥 경제적인 부분에서 뭔가 들이 닥쳤을 때 월세 내는날이거나 그럴때요.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신병이있었어요. 불안장애, 강박증, 폐쇄공포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이게 지금 상황 때문에 그런건지 잘모르겠어요. 딱 한번 병원에 갔다가 그냥 가가싶어서 안가고 있어요. 몸에 신호로 나타나요. 숨 쉬기가 힘들어지고 약간 그런게 있어요.
31. 한달전부터 예전에도 있었는데 빛 때문에 빨리 감아야 되는데 언제감지?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 (우울함)외로움/소외감 으로 인해

13. 혼자있을 때 아무도 만나는 사람도 없고 연락도 안되고 아무것도 하지않고 가만히 있을 때. 혼자 외롭다는 느낌 때문에. 가족이 있어도 대화를 많이 안하니까. 가족이 잘해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울하지 않거나 내가 뭔가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빼고. 그냥 나 혼자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런데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게 또 그런 고민들은 말끔히 잊혀지더라고요.
14. 항상 그래요. 하루에도 수십번씩 기분이 왔다. 갔다하니까 제가 생각이 많거든요. 생각을 많이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우울하고 피곤하게 살아서 그런지 제가 웃건게 놀면 또 논다고 짜증이 나거든요. 뭘 해야되는데. 그래서 우울하고 일을 하면 낙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우울하고
16. 그러니까 이런건지요. 친구들 서로 친하니까 다 같이 만날 때는 일하고 애들 만나러 갈 수있는데 너 안피곤하나? 피곤하면 안와도 된다. 집에서 자라. 이렇게 돼 버리니까 나는 가고 싶은데 애들이 뭔가 오지말라는 표현인 것 같고 그런건 약간 섭섭하고... 친구들한테 약간 소외되는 느낌...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혼자 생각이 많아요. 애들한테 터놓고 이야기하는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일로 줌...그럴때는 그냥생각을 뉘요. 그냥 일할거 일하고 하고싶은거 하고 드라마 보거나 영화보거나
17. 항상. 진짜 우울한거는 작년부터 안하게된 것 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또래친구들을 만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생각 이든게 나는 딱히 사람을 만나는걸 안좋아하는구나. 계속 집에 혼자 있고 고양이 붙잡고 놓고있으니까 외로운 외롭죠.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것 들이, 혼자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우울할 때는 집에서 책상같은거 옮기거나 아니면 침대같은걸 옮기고 좀 힘든걸 할 때 집에 혼자잖아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땅히 가까이있는 누구한테 불러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 도아니니까 그럴 때 제일 우울하죠. 혼자사니까

아무것도 안되네.

□ (우울함)무능력/열등감/무기력

22. 일단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열등감이 들 때 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제 주변에는 잘나가는 애들. 그러니까 대학교 좋은곳에 들어가고 집안도 좋은애들도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초등학교때부터 친구였던 가끔씩 연락하는 애들도 그런 것 같고 중학교 애들도 다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또 고3때 다른친구들 보다 공부를 못하니까 많이 뒤처지니까 그런면에서도 열등감을 느꼈고 형이 고 3때 보다 제가 고 3때 훨씬 더 수준이 낮으니까

□ (우울함)기타

2. 네. 약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요. 사람이 항상 즐거울 수 없죠.
4. 날이 안좋을때만 가끔요. 비울 때 나가지 못하니까.
5. 그냥 자기 전에 잘모르겠어요. 그냥 밤에 또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혼자 하다 보면 잘모르겠어요.
6. 줌
12. 수시로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참을수 없는게 아니고 그냥 게으름하다가도 문득문득 이렇게 있어도 되나? 괜찮을까? 이런생각. 우울한 기분이 드는건 초등학교 5, 6학년때요. 큰계기는 없었고요. 체중이 불고, 남자애들도 있고 저학집이 대동고등학교, 중학교 근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학교 마칠 때 오면 남자애들이랑 마주쳐요. 그러면 보고 비웃고 재 똥통하다고 소리지르고 그렇게 싫었던 것 같아요.
19. 느끼긴 하는데 심한건 아니고...
24. 생일인데 친한 친구들이 선물 안줄 때 우울해요.

□ (우울함)집안일/가족력

1. 줌 힘들었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힘들었던 건 아니고 집에 일이 있어서 힘들었어요.
25. 자주 그랬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걸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것 도 웃겨요. 왜냐하면 어느순간에 직장인이 돼서 갑자기 생긴 그런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좀 선천적인 것처럼 그렇게 심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니라 많이 쳐져있어요.
30. 그런곳에 갔는데 지금 제가 우울증이 너무 크다고. 또 우울증검사 같은 것 도 받았는데 지금 보시면 다 심한 우울상태예요. 상담사분 하고 같이 있는데 다 우울증이라고 심한 우울증 97%. 어머니 우울증 있고 저희형도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지체장애 1급이고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집이 좁아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정말 멋지게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면서도 머리는 집이 너무 싫은거죠. 나는 왜 이런집에서 태어났을까 그냥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복학을 하면서 후배들과 같이 다니고. 후배들한테 너희들은 절대로 저러면 안된다 저거는 부모님한테도 죄짓고 너희들의 친한지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목살 시키고 완전 살인하는거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저는 삶의 의미가 없고 즐겁지가 않고

질문: 우울한 기분 들 때 있는지 및 이유

나는 패배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우울증 같은게 많이 들더라고요.

질문: 우울함으로 인한 약이나 병원 경험**□ 약 복용함**

12. 우울증 약은 학교 그만 둘 때 잠깐. 너무 우울해 하니까 엄마가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한달도 안먹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약을 안먹었어요. 근데 약을 먹어도 달라진 건 없었던 것 같아요.
16. 학교 맨 처음 다닐 때 감정기복이 심해서 위클래스 선생님이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거 말고는 조울증도 심하고 감정기복도 심하고 우울증도 있고, 약 지어주고 미술 그림 그리고 아빠랑 이야기하고 말을 안해주던데요. 그냥 약 줄테니까 약먹으라고 약 먹고 별다른 거 없길래 안갔어요.
19. 정신과 다니긴 했었어요.
22. 지금도 복용하고있어요. 정신과 약. 초등학교 5학년 때 틱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틱이랑 감정조절장애.

우울증도 있고, 너무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가 본거죠. 일단 스트레스가 많이 심하다고 그래서 진단을 했는데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날 잘 유도를 해주라고, 약은 몇 주는 먹었죠. 그 이후에는 그냥 관찰을 것 같다고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시 우울해지고

□ 상담만 받음

10. 약을 복용한 적은 없으나, 상담 권유를 받아본 적은 있음 학교 선생님이 우울증, 그러니까 자살충동이 되게 높게 나왔다고 상담 받아볼거냐고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저는 그렇게 제가 높게 나올 지 몰랐고 다른애들도 이 정도는 기본 안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만 우울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11. 제가 원래 자퇴하고 나서 상담을 많이 다녔어요. 조울증도 있고

질문: 자살생각의 유무**□ 있음**

1. 생각은 있죠. 시도는 아니지만.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너무 종이 멘탈. 누가 막 이렇게만 해도 엄청 막 이려고 약간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었지만 저는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는 좀 상처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10. 그거는 중학교, 고등학교때 매일 그렇게 살았는데 시도한 적은 없었고 그냥요. 매일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니까 차라리 죽는 게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학교를 다니는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현재는 없음

11. 몇 번은 있었죠.
12. 생각은 있었는데
14. 이렇게 살바에는 안사는게 낫지않을까? 뭔가 뜻 깊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가 매일 똑같고 원래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잘 살다가 못 살면 상실감이 커서 그런지 그 끈을 아직도 못 뉘요. 왜 이렇게 살지? 구질구질하게? 어릴 때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어른이 돼서도 계속 그런 거죠.
16. 살면서 21년 동안 살면서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고등학교 복학하고 자퇴했을 때, 진짜 완전 망나니로 있을 때 일도 안하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주위에 잡아주는 사람 단 한명도 없고 집에만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이게 뭔가

질문: 자살생각의 유무

- 싶고 원지도 모르겠고 그 때, 그때 남자친구가 제가 연락이 안되니까 집에 찾아왔어요. 혹시나 해서, 그러니까 그 전부터 우울해 있었던걸 아니까 불안했는지 찾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벨을 계속 눌렀는데 벨이 안눌리니까 열쇠따는 아저씨 불러서 열쇠 열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우울해있으니까 괜찮다고 계속 옆에서 좋은말을 많이 해줬어요. 너는 세상에서 가치있다. 너는 잘할수 있다. 네가 굳이 이렇게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17. 과거에는 있었음 요즘 에는 딱히 충동적으로 감정의 깊이가 심할 때 말고는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식이지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19. 예전엔 시도도 했었어요. 지금은 별로 안들어요.
20. 중학생때 그랬어요. 대인관계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린마음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관심좀 가져달라고
21. 근데 살면서 죽고싶다는 생각은 다 하지않아요? 생각만 해봤죠. 실천은 안하고, 재수할 때 그냥 살기 싫다. 그리고 아빠랑 싸울 때 그냥 저장 안맛아요. 너무 말을 심하게 하고 말을 섞고 싶지 않을 정도로
22. 엄마, 아빠한테 비교를 당해서 속상했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자살까지 생각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심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요. 돈보스코 다니면서 한참 안좋았을때가 있었어요. 선생님한테도 혼나고 친구들한테도 따돌림 받으니까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6월달이면 2013년 6월쯤부터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럴 때 가 가끔씩 있고요. 그냥 2달에 한 번, 1달에 한번 씩. 어머니 아빠가 형이랑 비교할 때 그럴 때 가장 화가 많이 나요
25. 네. 아는 언니랑 상담했을 때 동아리를 나오고 나서
28. 있어요. 중 3때인가 고 1때. 자살이 하고싶었는데 생각은 안하는데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지구가 멸망했으면 좋겠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 생활했던 것에서 일탈하는 느낌을 받을수 있으니까 학교도 안가고 되고 그렇게 컸으니까
29. 생각은 있는데 시도는 별로. 생각을 했다가도 내가 왜 죽어? 이 새끼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황이 힘들어서 내가 죽어야지. 보통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 왜 내가죽어? 이렇게 전환이 돼서 이 새끼조진다. 이라고
30. 제가 마음도 많이 다치고 아마 그때는 사고가 난 것 도 아마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그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들었습니다. 거의 하루에 딱 잠을 자고 일어나면 되게 무의미 하고 아. 잠자야지. 하면 자고 이제 일어나보자. 하면 일어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대로 자내고 있다. 이런 생각. 시간에 못미쳐 사는 인생. 이런 생각을 뭐할게 없고할 것 도없으니까요. 또 같이 할 사람들이 날 이해를 해주지도 않을거고 저는 또 너무 암울함 만들고
31. 그런 생각은 들어봤어요. 상상까지는 해봤는데 깔끔하게 조용히 가고 싶은 생각은 해봤는데 막상 가면 무서울 것 같고 깊게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갈 수 있다면 바로 가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 실행에 옮긴 적은 없었어요.

□ 없음

7. 아니요. 하고싶은게 많아서, 놀러가고싶은데가 많아서. 해외쪽으로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기 싫어요. 남들처럼 여러군데 가고 싶어요.
13. 아니요, 없습니다. 초등학교때까 한번 있었네요. 그때는 친구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자살충동보다는 그런일을 만든 계기가된 친구한테 이리저리말라고 협박처럼 했던적이 한번있었죠.
23. 종교적으로 안되는 거예요
27. 시도는 없고 옛날에도 우울증이 있었을때도 딱히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구체적으로 죽기 보다는 높은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지하철에 갖다 박거나 그런거

질문: 자살시도의 유무

□ 있음

10. 시도한 적은 없음
11. 그냥지해만. 그때는 막상 일자리로 잘안구해지고 어느 순간 제가 혼자 스트레스받는데 애들을 만나게되면 애들한테 또 화를 내게되니까 애들하고 싸우게 되고 부모님하고도 싸우고,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그런적이 있었죠. 그냥 안정적인 취직만하면 이런생각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힘들 때
14.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그랬을거예요. 수면제도 먹고 여기흥터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한번 다 해보고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구나. 그게 쉬운게아니구나.

16. 계획?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희집 옥상에 올라가면 한 개 더 올라가는게 있거든요. 사다리타고 올라가면 거기에서 좀 바깥 쪽 차도쪽 으로 앉으면 완전 절벽이예요. 거기에 앉아서 이려고 있었던 것 밖에 생각안나요. 내가생각은 했죠. 뛰어내리면 아플까? 아니면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뛰어내리는 도중에 심장마비로 죽는단데 그런 생각은 한 번 해봤어요. 주민들한테 걸려서 내려왔죠.

질문: 자살시도의 유무

17. 시도는 했었죠. 처음에는 집을 나오지 않았을 때 집에 있을 때 일을 하면서도 그냥 너무 싫고 집에서 계속 압박을 받는 것 도 싫으니까 목을 한번 집에서 댔다가 너무 빨리 발견이 되어서 그랬던 적도 있고, 그 이후에도 몇 번 굶거나 아니면 단식을 한다든가 그게 자살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약같은거 있잖아요. 타이레놀 같은걸 많이 사서 먹어본 적은 있었어요.

19. 옛날에는 한번 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나네요. 하긴 했는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 없음

12. 네, 없어요. 그냥 가족생각이 드니까

질문: 자살시도 후 도움받은 경험

☐ 있음

19. 담임선생님, 복지사 분들. 그 전에도 정신과 다니긴 했었어요.

☐ 없음

10. 주변사람에게 말해보는 것은 없음. 근데 안힘들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했던 것 같아요.

질문: 자살시도 후 치료받은 경험

☐ 있음

17. 상담은 몇 번 있었는데요. 엄마가 어디 같이 갈 때가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상담소 였고 엄마가 잠깐 10분 정도 들어가 있더니 그 다음에 저를 불러내서 상담을 했어요. 그분이 갑자기 저를 상담하는데 저는 그 상담을 받았을 때 되게 불쾌해서 집안의

환경이 왜 나에게 문제가있는 것처럼 얘기들하지?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추궁하려고 들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나를 치료하려고 하지? 라는식 으로 부모님도 얘기를 하고 상담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었어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 of each performance channel of out of school juveniles after the academic suspension to seek for customized measure for each performance channel. 31 out of school juveniles participated in the indepth interview research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demands for each performance channe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11 of the academic type maintained a positive channel, except for the one who was “academic reinstatement type,” and “academic continuance” in the tertiary step. Thus, the academic leave is displayed as the leave from the school system, but not the study in the change as an out of school juvenile. The maintenance of positive channel was supported by the support center, family, acquaintances, and friends. The maintenance of positive course is possible for academic type with systematic and concentrated counsel and guidance of career, which requires a flexible and productive transformation from the public education. Secondly, the career type has numerous changes of channels, and precise course guidance is obligatory for them. Many respondents of “career type” chose a different path as the quaternary type, whereas other types maintained the constant tertiary and quaternary types. The maintenance rate of positive channel was low in comparison to the academic type. Early employment focused course counseling and employment education would have resulted in an opportunity of future oriented employment choice in the employment selection procedure, rather than the insecure employment status of part time jobs. Thirdly, the unemployed type showed no transformations. The unemployed type were the type of indifference that only moves in the momentary and minor urges. Only the minimum was confirmed of the transformation to positive channel. Positive status maintenance of parent education and family environment, and different strategies that can lead to an interest in school activities without delinquency are demanded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the education in the school system.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ntroduction to the following is obligatory: juvenile support center for the total care of out of school juveniles and its construction of network with regional social welfare facilities, establishment of designated management department regarding individual unemployed type juveniles, enforcement of 1:1 mentoring system, reinforcement of juvenile humanistic education in the aspect of prevention, development of diverse alternative schools and expansion and reinforcement on the introduction of its system, reinforcement of prevention measure for the improvement of life and prevention

of psychological health of the out of school juveniles, construction of course counseling and course guidance system to understand the future of juveniles in the early stages, expansion of practical employment education and employment opportunity through connective cooperation network of juvenile support center and corporates,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agreement at the time of submission for leave of school consent form, expansion of physical examination functions to discover out of school juveniles and Hanaro transportation card provision, introduction of the study of happiness for juveniles, and philosophy courses within the public educations, and obligatory system parental education of lifelong education.

Keywords : Out of school youth (juvenile), performance channel of out of school youth (juvenile), customized support policy for each performance channel, qualitative research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세영 · 김남수
- 16-R0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이창호 · 최용환 · 도수관
- 16-R03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 / 좌동훈 · 이민영
- 16-R04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16-R05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 김영한
-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 · 이상호
- 16-R0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황여정 · 변정현
- 16-R08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8-1 2016년 청년 사회 · 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9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09-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10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 임지연 · 김한별 · 한도희
- 16-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유설희 · 이민희 · 김진호
- 16-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정화
- 16-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 2016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유설희
- 16-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Ⅳ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Ⅱ' 운영과 정책화 방안 / 오해섭 · 김세광
- 16-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Ⅳ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서장아 · 김희주
- 16-R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신현옥 · 최홍일
- 16-R13-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최홍일
- 16-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Ⅲ / 강경균 · 이윤주 · 노성호
- 16-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강경균
- 16-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Ⅱ - 재중 · 재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 김경준 · 정은주
- 16-R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윤철경 · 성윤숙 · 유성렬 · 김강호
- 16-R16-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성윤숙

- 16-R1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사업보고서 / 이종원·모상현·강현철·정윤미·한지형
- 16-R17-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 이종원·이순래·정윤미
- 16-R17-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I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 모상현·이장주·한지형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초·중·고등 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 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측정 및 분석 연구 / 김태준·박인영·이호경·오민아 (자체번호 16-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1-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6-R19)

연구개발적립금

- 16-R20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최정원·강지명
- 16-R20-1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승경·최정원
- 16-R21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 윤민중·정은진·정건희

수시과제

- 16-R2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창호·정의철
- 16-R23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 하형석
- 16-R24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 이윤주
- 16-R25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 16-R26 놀이정책 수립 지원 연구 / 성은모·강경균
- 16-R27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 황세영

- 16-R28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 조진우 · 김기현
- 16-R29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최정원 · 정은진 · 조혜영
- 16-R30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 · 연구 / 정은진 · 김기현

수 탁 과 제

- 16-R31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 · 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 이종원 · 유한구 · 채창균 · 오승근 · 김윤나 · 한영근
- 16-R32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Ⅱ / 성윤숙 · 김경준 · 강경균
- 16-R3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와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따른 조사항목 등 개선 연구 / 김지경 · 황여정 · 정윤미
- 16-R34 2014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5 20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6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 · 모상현 · 정은주
- 16-R37 2015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8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9 청소년 체험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최창욱 · 성은모 · 정윤미
- 16-R40 가출청소년 보호 · 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혜정 · 김승경
- 16-R41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연계지원 모델 개발 연구 / 김현철
- 16-R42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 김승경 · 백혜정
- 16-R43 2016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최홍일
- 16-R4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아동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지 · 오해섭 · 윤철경 · 김경준 · 최용환 · 유설희
- 16-R4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이윤주 · 유설희
- 16-R46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47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중 · 장기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현철
- 16-R4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 이종원 · 모상현 · 유성렬 · 김진석 · 정윤미
- 16-R49 2016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최용환 · 최창욱 · 좌동훈 · 문호영 · 정은진
- 16-R50 삼성SDS 강원도 도서벽지지역학교 “행복한 ICT 교실” 효과 및 만족도 연구 / 성윤숙
- 16-R51 실종아동 관계기관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좌동훈 · 문호영
- 16-R52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16-R53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황여정 · 김지경 · 이윤주 · 정윤미
- 16-R5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 서정아 · 박선영
- 16-R55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도방안 연구 / 성윤숙 · 박선영 · 송원영
- 16-R56 멘토링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16-R57 2016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 최창욱 · 성은모 · 강경균
- 16-R5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장근영 · 김지경 · 하형석
- 16-R59 2016년 동작혁신교육사업 청소년 자치 참여 활성화 정책연구 / 최창욱 · 최용환
- 16-R60 학교 밖 청소년 연계관리 강화방안 연구 / 윤철경
- 16-R6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1-1 재적교 교사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2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 · 한지형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6-S01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1/25)
- 16-S02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1/28)
- 16-S0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1/29)
- 16-S04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2/2)
- 16-S05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17~18)
- 16-S06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18~19)
- 16-S07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2~23)
- 16-S08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5~26)
- 16-S09 제1차 청년정책포럼 (2/22)
- 16-S10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1차) (3/24)
- 16-S11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2차) (4/4)
- 16-S12 청소년정책평가의 현안과 과제 (4/22)
- 16-S1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4/19)
- 16-S14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5/4)
- 16-S15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9)
- 16-S16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1~12)
- 16-S1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16~17)
- 16-S18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18~19)
- 16-S19 제2차 청년정책포럼 -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5/17)
- 16-S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간 국제세미나 (5/17)
- 16-S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2차 심화 워크숍 (5/18~20)
- 16-S22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5/23)
- 16-S23 제3차 청년정책포럼 (6/28)
- 16-S24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7/15)

- 16-S25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7/15)
- 16-S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워크숍 (7/20)
- 16-S27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8/8~10)
- 16-S28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7/22)
- 16-S29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3)
- 16-S30 네트워크 사회의 청소년정보 격차와 문화 (8/17)
- 16-S31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1권역 (8/26)
- 16-S32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2권역 (9/2)
- 16-S33 제4차 청년정책포럼 (8/24)
- 16-S34 청소년 현안과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8/22)
- 16-S35 아시아 청소년진로교육 사회환경 국제비교 (8/25)
- 16-S36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심포지엄 (10/11)
- 16-S37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워크숍 (10/6~7)
- 16-S38 제5차 청년정책포럼 (10/12)
- 16-S39 제6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럴 학술대회 (11/18)
- 16-S40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 문제 (11/22)
- 16-S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2차년도 사업성과발표회 (12/1)
- 16-S42 제6차 청년정책포럼 (12/7)
- 16-S43 청년 세미나-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12/14)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8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8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3호(통권 제8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제83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5호 :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 및 효과성 검증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6호 :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7호 : 이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8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9호 : 20대 청년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0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2호 : 이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3호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4호 :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5호 :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6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6호 :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정체성 발달특성 분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7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8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9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Ⅱ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0호 :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 KCYPS 초1 및 초4 패널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1호 : 청소년 팬덤활동의 종단적 변화 분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2호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5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6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7호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8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9호 :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0호 :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NYPI BLUE ZINE 창간호

연구보고 16-R16-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인 쇄 2016년 12월 23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휘문인쇄 전화 1661-7576 대표 김점순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4(학술·정보팀)

ISBN 979-11-5654-129-5 94330

979-11-5654-103-5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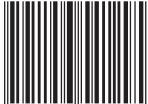
연구보고 16-R16-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39-00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4330
9 791156 541295
ISBN 979-11-5654-129-5
ISBN 979-11-5654-103-5 (세트)